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잠언

PRO · 시가서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31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잠언 1장

PRO-001 · 시가서 · 히브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yirat YHWH reshith daat)"(1:7)이라는 모토가 세워진 직후, '내 아들이(beni)'의 첫 호명 아래에서 악한 자들의 은밀한 "우리과 함께 가자"(1:11)와 지혜의 공개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1:23)가 처음 갈라지는 — 잠언 전권의 문이 되는 서문.

관찰된 사실

잠언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무대의 이동: 두루마리 표제·서문(1~7절) → 집 안, 아버지의 가까운 음성(8~19절) → 길거리·광장·시끄러운 길목·성문 어귀(20~33절). 사적 전승에서 공적 초청으로.
- 숨는 위치와 드러나는 위치의 대비: 악한 자들은 가만히 엎드리고 숨어 기다림(11·18절), 지혜는 가장 공개된 곳에서 소리를 높임(20~21절).
- 소품(밝음): 머리의 아름다운 관, 목의 금 사슬(9절) — 부모의 훈계가 장신구로 형상화.
- 소품(어둠): 흘리려는 피, 산 채로 삼키는 스올(12절), 온갖 보화, 빼앗은 것으로 채우는 집, 제비, 전대 하나(13~14절), 새와 그물(17절), 광풍·폭풍(27절).
- 2~6절은 지혜 계열 어휘의 진열장: 지혜·훈계·명철·공의·정의·정직·슬기·지식·근신·학식·지략·잠언·비유·오묘한 말(chidah).
- 소재의 두 갈래: 피·보화·전대·그물 對 부르짖음·책망·영(23절)·평안(33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차분한 목록 낭독(1~7절) → "내 아들이"의 갑작스러운 가까움(8절) → 골목의 땀 인용(11~14절) → 광장의 외침(20절~)으로 공기가 단계적으로 변함.
- 음량의 설계: 낭독 — 가까운 음성 — 낮은 속삭임 — 외침. 유혹이 속삭이고 초청이 외치는 역방향 음향.
- "함께"(11·14절)의 온도 — 따뜻한 소속의 언어가 피 흘림의 미끼로 쓰이는 서늘함.
- 모토(7절)가 세워지자마자 그 모토를 멸시하는 자들의 실제 목소리가 등장하는 배치 — 선언과 시험의 맞물림.
- 20~33절 지혜의 발화는 선지자의 어조(부름—책망—심판 예고—남는 자의 약속)를 닮음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mishle Shelomoh)."
-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 표제(누구의 말인가)에서 약속(들으면 어떻게 되는가)으로 — 장 전체가 '말'에서 '들음'으로 움직임.
- 심판 단락(24~32절) 뒤에 마지막 한 절이 듣는 자의 평안에 배정됨 — 경고가 아니라 초청으로 닫힘.

- 왕의 이름으로 열리고 이름 없는 청자의 평안한 거처로 닫히는 무대 이동.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표제), 아버지(8절~ 화자), 어머니(torat immekha의 출처, 직접 발화 없음), 아들(beni — 청자, 끝까지 무언), 악한 자들(11~14절 인용 발화), 지혜(chokhmot — 22~33절 직접 발화), 새(17절 속담 속).
- 발화 분량: 악한 자들 4절 對 지혜 12절 — 1장에서 가장 긴 대사의 주인은 의인화된 지혜.
- 중심 사상: 7절 yirat YHWH reshith daat — 지식의 출발점이 정보가 아니라 한 분과의 관계라는 선언. 29절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이 거절의 본질을 같은 어휘로 명시.
- 8~19절 강화 형식: 호명—조건—금지—인용—금지 반복—이유—속담—결말. 인용을 가운데 두고 금지가 감싸는 구성.
- 18절 자기 탓의 인과: 남을 잡으려는 매복의 목적어가 자기 피·자기 생명으로 돌아옴.
- 22절 어리석음의 세 부류: peti(단순한 자)·lets(거만한 자)·kesil(미련한 자), 7절의 evil까지 네 어휘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표제 —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 컷 2 (2~7절): 목적 서문(인피니티브 사슬)과 모토 —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
- 컷 3 (8~19절): 아버지의 첫 훈계 — beni 호명, 관·금 사슬, 악한 자들의 뽐 인용, 새·그물 속담, 자기 탓의 결말.
- 컷 4 (20~33절): 지혜의 부르짖음 — 광장의 외침, 돌이키라·영을 부어 주리라(23절), 거절의 회고와 재앙 예고, 듣는 자의 평안(33절).
- 컷 4 내부: 위치 묘사(20~21) — 부름(22~23) — 거절 회고(24~25) — 결과(26~28) — 이유(29~30) — 원리(31~32) — 약속(33). 24절(지혜가 부르고 사람이 거절)과 28절(사람이 부르고 지혜가 무응답)의 방향 역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rshal*(מַשְׁלָל) — 잠언·비유. '달다·견주다'와 '다스리다'의 결을 가진 어근. 1절 표제는 연계형 복수 mishle.
- *musar*(מוֹסָר) — 훈계·징계·훈련. 2·3·7·8절. / *binah*(בִּינָה) — 명철, 사이를 가르는 분별. 2절.
- *yirat YHWH*(יְרֵאָתַיְהוָה) — 여호와 경외. 7·29절. / *reshith*(רֵאשִׁית) — 근본·시작·첫머리. rosh(머리) 어근, 창 1:1 bereshit과 동계.
- *daat*(דַּעַת) — 지식. yada(알다 — 관계적 앎) 계열. 7절.
- *beni*(בְּנֵי) — 내 아들아. 8·10·15절. / *torat immekha*(תּוֹרַת אִמְּךָ) — 네 어미의 법. torah가 어머니의 가르침에 붙는 형태. 8절.
- *chidah*(חִידָה) — 수수께끼·오묘한 말. 6절. / *betsa*(בִּצָּע) — 부당한 이익. 19절.
- *chokhmot*(חֻכְמוֹת) — 지혜. 20절. 복수 형태에 단수 동사 — 강조의 복수로 설명되곤 하나 형태 관찰로만 보 존.
- *peti*(פֶּתִי)·*lets*(לֵץ)·*kesil*(כֶּסֶל)·*evil*(עָוִיל) — 어리석음의 네 어휘. 4·7·22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표제(1) + 목적 서문(2~6, 인피니티브 사슬 한 호흡) + 모토(7) + 첫 훈계(8~19, 강화 형식) + 지혜 시(20~33, 의인화) — 다섯 단의 서문 구조.

- 7절의 문지방 위치: 서문과 본문 사이. 9:10에서 1~9장의 닫는 매듭으로, 31:30에서 권 전체의 끝과 수미로 호응.
- qara(부르다)의 네 방향: 악한 자들의 청유(11) — 지혜의 부름(20~21) — 거절당한 부름(24) — 응답 없는 부름(28).
- 8~19절: 인용(11~14)을 가운데 두고 금지(10·15)가 앞뒤로 감싸는 액자형 강화.
- 17~18절 새·그물 속담과 자기 텃의 인과 구문 — 행위와 결과가 한 문장 안에서 맞물림. 31절("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이 같은 원리를 음식 은유로 반복.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아버지→아들 훈계(instruction) 장르 — 이집트 교훈문학(프타호테프·아메네모페 등)과 공유되는 고대 근동 공통 형식 — 배경.
- 왕명 표제의 지혜 모음집 — 근동 지혜 전통과 닿는 편집 관행 — 배경.
- 성문 어귀·광장 — 재판·상거래·공론의 공공 공간. 지혜가 외치는 위치의 사회적 배경.
- 금 사슬·화관 — 근동의 명예 수여품. 8~9절 은유의 물질 배경.
- LXX: chokhmot(복수)를 단수 sophia로, 1:7 주위에 시 110(111):10 계열 행을 첨가, 잠언 전반에서 MT와 배열·첨가 차이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7 ↔ 잠 9:10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 — 1~9장의 양 끝)
- 잠 1:7 ↔ 잠 31:30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 — 권 전체 수미)
- 잠 1:7 ↔ 시 111:10 · 욥 28:28 (경외와 지혜를 묶는 시가서 공통 선언)
- 잠 1:20-33 ↔ 잠 8:1-36 (지혜 의인화의 확장 — 창조 앞의 지혜)
- 잠 1:8-9 ↔ 신 6:7-9 (부모의 가르침과 몸에 두르는 표)
- 잠 1:10-19 ↔ 잠 4:14-19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 같은 훈계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목적이 사슬처럼 낭독되고, 한 문장이 새겨진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화면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 등불 곁의 음성 — "내 아들이야." 관이 얹히고 금 사슬이 걸린다. 창밖 골목에서 속삭임이 샌다 — "우리과 함께 가자... 전대 하나만 두자." 그물을 치는 손들 위로 새가 날고, 당겨진 그물에 걸리는 것은 친 자들의 발이다. 화면이 광장으로 나온다. 성문 어귀에서 한 여인이 외친다 —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지나치는 사람들, 몰려오는 광풍, 대답 없는 거리. 폭풍이 지나간 뒤 한 집의 등불만 남는다 —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압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두 부름 — 골목의 속삭임과 광장의 외침"
- 초별 부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문패 아래 목적 서문과 모토(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가 세워지고, '내 아들이야'의 첫 호명 곁에서 악한 자들의 은밀한 꾀과 지혜의 공개된 부르짖음이 갈라지는 잠언 전권의 서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서문 구조 + qara 네 방향 + 1:7↔31:30 수미 + ANE 훈계 장르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지혜 의인화(1:20-33)를 그리스도론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본문의 의인화 형상과 8~9장으로 자라는 씨앗 관찰로만 둬.
- 1:26 지혜의 웃음을 신학적 판정(조롱·정의 표현 등)으로 봉합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 1:33의 평안 약속을 변영 보장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1장 안의 약속 어구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장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1:1)이라는 표제 아래 목적 서문(1:2-6)과 모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yirat YHWH reshith daat)"(1:7)을 세운 뒤, '내 아들이(beni)'의 첫 호명과 함께 악한 자들의 은밀한 꾀("우리과 함께 가자", 1:11-14)을 그들의 입 그대로 들려주고 자기 텃의 결말(1:18-19)로 닫은 다음, 길거리와 광장에서 부르짖는 의인화된 지혜(chokhmot)의 외침 —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1:23)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1:33)까지 — 로 마치는, 잠언 전권의 서문이다.

한 문단: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왕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보인다. 목적이 사슬처럼 낭독된다 —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그리고 한 문장이 새겨진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화면이 집 안으로 들어가 등불 곁의 음성을 듣는다. "내 아들이." 관이 얹히고 금 사슬이 걸리는데, 창밖 골목에서 속삭임이 샌다 — "우리과 함께 가자, 전대 하나만 두자." 그물을 친 자들이 제 그물에 걸리고, 화면은 한낮의 광장으로 나온다. 성문 어귀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지나치는 사람들 위로 광풍이 몰려오고, 폭풍이 지나간 뒤 한 집의 등불만 남는다 — 듣는 자의 평안으로 1장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표제의 두루마리 → 집 안 → 광장의 세 무대. 관·금 사슬 對 피·전대·그물. 2~6절은 지혜 어휘의 진열장.
2 첫 느낌·분위기	낭독 — 가까운 호명 — 골목의 속삭임 — 광장의 외침. 유혹이 숨고 초청이 드러나는 역방향 음향. "함께"가 미끼로 쓰이는 서늘함.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표제(누구의 말)에서 약속(들으면 어떻게 되는가)으로. 심판 뒤 마지막 절이 듣는 자의 평안에 배정 — 초청으로 닫힘.
4 등장인물·사상	아버지·어머니·무언의 아들·악한 자들·지혜. 가장 긴 대사는 지혜(12절). 중심 사상은 1:7 — 지식의 출발이 관계라는 선언.
5 장면 컷	표제(1)/서문·모토(2~7)/첫 훈계(8~19)/지혜의 부르짖음(20~33) 4컷. 24절↔28절 부름의 방향 역전.
6 의문·발견·정보	1:7↔31:30 수미. qara 네 방향. 자기 덧 인과(1:18). 지혜의 웃음 미해결. 근동 훈계 장르 배경.
7 동영상	문패 → 모토의 새김 → 등불 걸 호명 → 골목의 그물 → 광장의 외침 → 폭풍 뒤 등불 하나,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두 부름 — 골목의 속삭임과 광장의 외침"
9 기도·내면	두 부름 가운데 내 귀가 어느 쪽으로 열려 있는지 본다. beni — 호명이 명령보다 먼저 온다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reshit, 문지방의 모토:** 1:7은 서문(2~6절)과 본문(8절~) 사이의 문지방에 놓여 있다.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자 '첫걸음'이라는 reshit의 두 결이, 9:10의 매듭과 31:30의 경외하는 여자까지 책의 양 끝을 잡는다. 잠언의 모든 격언은 이 한 절의 변주로 읽히기를 기다리며 배열되어 있다.
- 결 2 — qara, 부름의 네 방향:** 부르다라는 동사가 1장에서 네 번 방향을 바꾼다. 악한 자들이 사람을 부르고(11절),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20~21절), 지혜의 부름이 거절당하고(24절), 사람의 부름이 응답받지 못한다(28절). 1장은 부름의 장이다 — 누구의 부름에 언제 응답하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려 있다.
- 결 3 — 자기 덧의 인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17절) 곁에서, 그물을 친 자들이 제 그물에 걸린다(18절). 남을 잡으려는 매복의 목적어가 자기 피와 자기 생명으로 돌아오는 구문 — 그리고 31절이 같은 원리를 음식 은유로 반복한다("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곁은 길을 나중에 먹게 되는 이 인과가 잠언 전체의 대구들을 미리 요약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9:10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 1~9장의 닫는 매듭에서 모토가 재등장.
- 잠 31:30 —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 권 전체의 수미. 1:7의 선언이 한 사람의 삶으로 받아짐.
- 시 111:10 · 욥 28:28 — 경외와 지혜를 묶는 시가서의 공통 선언.
- 잠 8:1-36 — 길거리의 지혜가 창조 앞의 동반자로 자라는 의인화의 확장.
- 신 6:7-9 — 부모의 가르침과 몸에 두르는 표 — 8~9절 관·금 사슬 은유의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6절의 목적 사슬에서 시작한다 — 이 책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목적어들을 천천히 센다.
- **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근본(reshit). 내 지식의 첫 단이 무엇 위에 놓여 있는지 떠오른다.
- **멈춤 2:** 11~14절에서 멈춘다 — "함께." 따뜻한 단어가 미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끝:** 23절과 28절 사이에서 멈춘다 — 아직 열려 있는 "돌이키라"와 언젠가 닫히는 응답. 지금이 어느 절의 시간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표제(1)·서문(2~6)·모토(7)·훈계(8~19)·지혜 시(20~33)의 다섯 단 완결
- [x] 1:7 모토와 9:10·31:30의 수미 호응
- [x] qara 네 방향의 분포
- [x] 자기 텃 인과(17~19절)와 31절 열매 은유의 호응
- [x] 악한 자들의 인용(11~14)과 지혜의 발화(22~33)의 대칭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장은 그 첫 국면의 개막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장은 시내산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토라가 가정의 식탁 언어로 번역되는 입구다 — "네 아비의 훈계, 네 어미의 법(torah immekha)"(1:8)에서 torah는 율법서의 단어 그대로 부모의 가르침에 붙는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르짖는 지혜의 형상은 8장의 창조 앞 동반자로, 9장의 잔치 초대로 자라며, 거리에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인 긴 통로를 정경 안에 연다. 1장이 발행한 모토 — 경외가 모든 앞의 reshith이라는 선언 — 는 잠언 전체가 갇혀 가는 약속이며, 31장의 한 여인에게서 그 첫 상황이 완결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표제의 권위에서 두 부름의 갈림으로 / 집 안의 호명(beni)에서 광장의 부르짖음(chokhmot)으로 / 경외라는 근본(1:7)에서 듣는 자의 평안(1:33)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지식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물음에 경외라는 출발점을 새긴 뒤, 그 출발점을 부정하는 두 길 — 꺾에 따라가는 길과 부름을 지나치는 길 — 을 나란히 보여 주는 운동이다. 다만 이 갈림은 종결이 아니라 개막이다. 2장에서 지혜는 "은처럼 찾으며 감추어진 보배처럼 더듬어 구하면"이라는 찾는 자의 몫으로 이어지고, 8~9장에서 부르짖던 목소리는 창조 앞의 동반자와 잔치의 초청자로 자란다. 1장의 벡터는 잠언 전권을 '경외에서 일상의 빚어짐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아버지의 처세 훈계다 — 나쁜 무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어느 문화에나 있을 법한 당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얇이라는 것의 출처가 움직인다. 1:7은 지식의 근본을 명제나 정보가 아니라 경외 — 한 분 앞에 서는 자세 — 에 두고, 1:20의 지혜는 책 속 개념이 아니라 거리에서 사람을 부르는 인격으로 나온다. 지식이 관계라면, 어리석음도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거절이다 — 29절은 그들의 문제를 정보 부족이 아니라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방향으로 짚는다. 그리고 그 거절 앞에서 지혜는 강제하지 않는다. 광장에서 외치고, 영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23절), 거절당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 부르되 끌고 가지는 않는 방식. 1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은 이것이다: 훈계가 굴레가 아니라 관과 금 사슬로 그려지고(9절), 지혜가 명령이 아니라 부름으로 온다는 것. 듣는 쪽의 자유가 끝까지 존중되는 부름 — 그 존중의 무게가 26~28절의 무서움까지 설명해 준다.

내 하루에는 두 종류의 부름이 닿는다 — 골목의 "함께 가자"와 광장의 "돌이키라". 나는 지금 어느 부름의 거리에 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악한 무리의 극단을 상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라는 따뜻한 말이 미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환한 데서 외치는 소리가 오히려 지나쳐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 준다. 23절의 약속은 아직 열려 있다 —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28절의 닫힌 응답이 그 곁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열려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 1장은 그 두 절 사이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폭풍 뒤에 남은 한 집의 등불을 보여 준다. 듣는 자의 평안(33절) — 그 등불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광장에서 부르짖던 지혜가 이제 찾는 자의 손에 쥐어진다 — "은처럼 찾으며 감추어진 보배처럼 더듬어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2:4-5).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reshit* — 근본, 그리고 첫걸음.

미해결 질문

잠언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chokhmot(1:20)의 복수 형태가 단수 동사와 함께 쓰인 것을 어떻게 둘 것인가?

- 강조의 복수라는 설명이 흔하나 형태 자체의 의도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8:1의 단수 *chokhmah*와의 차이도 함께 보존.

Q2. 1: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 지혜의 웃음은 무엇인가?

- 조롱인지, 거절된 부름의 다른 얼굴인지, 의인화된 정의의 표현인지 — 웃음의 속을 본문이 열어 주지 않는다. 보존.

Q3. 1:23의 열린 약속("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 주며")과 1:28의 닫힌 응답("부르리라 그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 돌이킴이 가능한 시간의 창이 언제 닫히는지 본문은 굿지 않는다. 두 절의 공존 자체를 보존.

Q4. "네 어미의 법(torat immekha)"(1:8) — torah가 어머니의 가르침에 붙는 폭은 어디까지인가?

- 가정의 전승과 토라 전승이 한 단어로 겹치는 형태.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미해결로 이월.

Q5. 17절 새·그물 속담에서 새는 누구인가 — 껍을 받는 아들인가, 텃을 놓는 그들 자신인가?

- 새도 보면 피하는 그물에 정작 친 자들이 걸려드는 역설(18절)과 맞물린 속담의 지시 대상이 한쪽으로 닫혀 있지 않다. 보존.

Q6. 표제의 솔로몬(1:1)과 8절의 '아비'는 같은 화자인가 — 표제는 책 전체를 덮는가, 1~9장을 덮는가?

- 25:1("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과 30~31장의 다른 이름들(아굴·르무엘)을 고려하면 표제의 범위는 편집 차원의 질문으로 남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장

PRO-002 · 시가서 · 히브리어

"만일(im)" 여덟 동사의 점층(받으며→간직하며→기울이며→두며→부르며→높이며→구하며→찾으면)으로 은을 구하듯 감추어진 보배(matmon)를 파 들어간 사람이 갱도 끝에서 광맥이 아니라 "주시는 여호와"(2:6)를 만나고, 받은 지혜가 이번에는 그를 지키는 주체가 되어 (2:10-11) 악한 길과 음녀에게서 두 번 건져 내며, 땅에 남는 이와 뽑히는 이의 두 결말로 닫히는 — 스물두 절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조건과 결과의 시.

관찰된 사실

잠언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이중 무대: 겉무대 — "내 아들이"가 발화되는 방(아버지·아들 두 사람) / 속무대 — 말 속에 펼쳐지는 지도 (갱도·갈림길·기운 집·스울·땅 전체).
- 소품(전반): 은(kesef), 감추어진 보배(matmon), 귀·마음·목청·영혼의 신체 기관들, 방패(magen).
- 소품(후반): 구부러진 길, 어두운 길, 스올로 기울어진 집, 호리는 입술, 뽑히는 식물 이미지(22절).
- 접속사 골격: im(만일 — 1·3·4절) ×3 → az(그리하면·그런즉 — 5·9절) ×2 → ki(대저 — 6·8·21절) ×3. 스물 두 절이 한 문장의 사다리.
- 동사 차원의 호응: 사람이 찾는 matmon(4절, taman '묻다' 어근)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7절, tsaphan '감추어 쌓아 두다').
- 소재의 흐름: 구하고 받는 것들(전반) → 지키고 건지는 것들(중반) → 남는 것과 뽑히는 것(후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4절 여덟 동사(받으며→간직하며→기울이며→두며→부르며→높이며→구하며→찾으면)의 점층 — 마침표 없이 쌓이다 5절에서 처음 숨을 쉬는 긴 들숨.
- 10~11절에서 공기의 전환: 요구("네가 구하라")에서 보호("근신이 너를 지키며")로.
- 명암 삼단: 채광장의 등불(전반) — 어두운 길과 기운 바닥(13~19절) — 땅 위의 밝음(20~22절).
- 조건 4절 대 결과 18절 — 요구보다 약속이 깊게 기운 시소.
- 손(파는 노동)과 입(주시는 수여, 6절)의 어긋나며 만나는 감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 가장 부드러운 가정("만일")으로 열고 가장 단호한 판정("뽑히리라")으로 닫음.
- 인칭의 이동: 2인칭 단수("내 아들이 네가") → 3인칭 보편 진술("정직한 자는·악인은").
- 21~22절 대구: 거하다/남다 ↔ 끊어지다/뽑히다 — 땅(crets) 4회 반복의 잠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버지(화자), 아들(청자 — 끝까지 무발화), 여호와(5~8절 행동 주어), 지혜(10절 이하 인격처럼 움직임), 악한 자·패역을 말하는 무리, 음녀(ishah zarah)와 그가 버린 젊은 시절의 짝(alluf), 성도들(chasidim), 의인과 악인.
- 주어의 릴레이: 네가(1~4) → 여호와가(5~8) → 지혜가(9~19) → 두 부류가(20~22). 행위의 자루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감.
- 중심 사상: 6절의 반전 — 캐는 자가 발견하는 것은 광맥이 아니라 "주시는 여호와". 찾으라는 명령과 거저 주신다는 선언의 공존.
- 17절 — 음녀의 정의가 행실 목록이 아니라 두 동사: 버림(짝)과 잊음(하나님의 언약 berit).
- 11절 mezimmah(근신) — 잠언 밖에서는 '악한 꾀'로도 쓰이는 단어가 여기서는 지키는 능력으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조건의 채광장 — im 세 겹, 여덟 동사 점층, 은과 matmon의 비유.
- 컷 2 (5~8절): 첫 az — 경외의 깨달음과 하나님을 앎. 반전: 주시는 분(6절), 쌓아 두신 지혜와 방패(7절), 길의 보호(8절).
- 컷 3 (9~11절): 둘째 az — 모든 선한 길의 깨달음. 역전: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 사람을 지키는 주체가 됨.
- 컷 4 (12~19절): 두 건짐 — 악한 자의 길(12~15)과 음녀(16~19), 같은 동사 natsal로 열리는 병렬. 두 위험 모두 '말'로 특징됨.
- 컷 5 (20~22절): 두 결말 —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심, 땅의 거주·잔류 대 끊어짐·뿔뿔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im(אִם) — 만일. 1·3·4절 조건 연쇄. / az(אִם) — 그리하면·그런즉. 5·9절 결과 표지.
- matmon(מַטְמוֹן) — 땅에 묻은 보물. taman('묻다') 어근. 4절. / tsaphan(צָפַן) — 감추어 쌓아 두다, '예비하시며'. 7절.
- magen(מָגֵן) — 방패. 7절. / tamim(טָמִים) — 온전함. 7·21절 계열. / chasidim(חֲסִידִים) — 성도들. 8절.
- mezimmah(מְזִמָּה) — 근신·분별. 11절. 잠언 밖에서는 부정적 용례도 있는 양면 어휘.
- natsal(נָצַל, 히필) — 건지다. 12·16절 같은 형태로 2회 — 두 건짐의 병렬 표지.
- ishah zarah(אִשָּׁה זָרָה) — 낯선 여자·음녀. 16절. 병행 nokriyah(נוֹכְרִיָּה) — 이방 계집.
- alluf(אֱלוּף) — 짝·동반자. 17절. / berit(בְּרִית) — 언약. 17절.
- derek(דֶּרֶךְ)·orach(אֶרַח) — 길. 장 전체 11회 산포.

6 의문·발견·정보 — (2) 문장 구조

- 한 문장 구조: 1~22절이 히브리어에서 사실상 끊기지 않는 하나의 조건문 — im ×3 → az(5절) → ki(6절) → az(9절) → 결과 전개.
- 여덟 동사의 점층: 수동적 수용(받다·간직하다)에서 능동적 채굴(구하다·찾다)로 강도가 상승.
- 주어 릴레이 구조: 네가 → 여호와가 → 지혜가 → 두 부류가.
- natsal 2회(12·16절) — 두 건짐의 병렬. 두 위험 모두 말(패역을 말하는 자 / 말로 호리느)로 특징.
- 21~22절 인클루지오성 대구: 땅 4회, 거함·남음 ↔ 끊어짐·뿔뿔히. 22절 식물 어휘(뿔뿔히다)와 1절 간직(묻어둠)의 역방향 호응.

- 절수 22 = 히브리어 알파벳 수 — 형식적 완결성(의도 여부는 미확정, 관찰로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matmon — 은행이 없던 시대, 귀중품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던 매장 보물 관행을 전제하는 일상어 — 배경.
- 팀나 구리 광산 등 — 갱도를 파 내려가는 채광이 실재한 기술. 욥 28장이 같은 어휘권으로 지혜의 소재를 물음 — 배경.
- 이집트 '아메네모페의 교훈' 등 —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훈계 형식이 고대 근동 지혜 장르의 공통 틀 — 배경.
- 말 2:14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 결혼을 신 앞의 언약(berit)으로 보는 관념의 어휘권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 ↔ 욥 28:1-28 (채광 어휘로 지혜를 묻는 같은 비유 — 욥은 "사람이 못 찾는다", 잠언 2장은 "찾으면 주 신다"의 상보)
- 잠 2 ↔ 잠 1:7 (여호와 경외 — 2:5의 도착점과 호응)
- 잠 2 ↔ 잠 7:5-27 (음녀 경고의 확장 —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동일 어구)
- 잠 2 ↔ 약 1:5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 찾음과 주심의 공존)
- 잠 2 ↔ 말 2:14 (alluf·berit — 결혼 언약 어휘권)
- 잠 2 ↔ 시 37:9-11 (땅을 차지하는 자와 끊어지는 자 — 두 결말 모티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등불 켜진 방. "내 아들이야." 카메라가 말을 따라 벽을 통과하면 갱도다. 횃불과 곡괭이, 파 내려가는 손 —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부르며, 높이며, 구하며, 찾으면. 흙벽이 무너지고 빛이 쏟아진다. 광맥이 아니라 입이다 — "대저 여호와와는 지혜를 주시며." 위에서 내려온 선물이 파 내려간 손 위에 놓인다. 빛이 가슴으로 스며들고, 이제 그 빛이 사람을 두른다 — 방패처럼. 길이 갈라진다. 어둠으로 길길대며 내려가는 무리 — 빛이 옷깃을 당겨 건진다. 반쯤 열린 문, 달콤한 목소리, 스올 쪽으로 기운 바닥 — 빛이 다시 당긴다. 부감 — 심긴 나무처럼 땅에 남은 이들과 뽑혀 나간 빈 구멍들. 등불 켜진 방으로 돌아와 목소리만 남는다. "내 아들이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갱도 끝의 입 — 파는 손과 주시는 분"
- 초벌 부제: "여덟 동사의 점층으로 은을 구하듯 지혜를 파 들어간 사람이 갱도 끝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받은 지혜가 그를 지키는 주체가 되어 두 번 건져 내며, 땅의 거주와 뽑힘의 두 결말로 닫히는 한 문장의 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6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한 문장 조건문 구조 + matmon/tsaphan 호응 + natsal 병렬 + 매장 보물·채광·부자 교훈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6~19절 음녀 본문을 성윤리 설교나 알레고리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정의(짜을 버림·언약을 잇음)와 어휘(zar의 낮섬) 관찰로만 둬.
- 21~22절 땅의 거주·뽑힘을 종말론이나 상급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신 30장·시 37편과 닿는 어휘권 관찰로 보존.
- 4절 "찾으면"과 6절 "주시며"의 긴장을 구원론 공식(은혜 대 행위)으로 환원하지 않고, 본문이 나란히 둔 그대로 미해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장은 "내 아들이 네가 만일(im)"로 시작하는 조건을 세 겹으로 쌓고(1~4절 — 받으며·간직하며·기울이며·두며·부르며·높이며·구하며·찾으면의 여덟 동사 점층, 은과 감추어진 보배 matmon의 채광 비유), 두 번의 "그리하면(az)"으로 결과를 열어(5절 경외의 깨달음, 9절 선한 길의 깨달음) "대저 여호와께는 지혜를 주시며"(6절)라는 반전을 통과시킨 뒤, 받은 지혜가 사람을 지키는 주체로 역전되어(10~11절) 악한 자의 길과 음녀에게서 두 번 건져 내고(12~19절, 같은 동사 natsal의 병렬), 땅에 거하는 이와 뽑히는 이의 두 결말(20~22절)로 닫히는 — 히브리어에서 사실상 끊기지 않는 한 문장의 지혜 교훈 시다.

한 문단: 등불 켜진 방에서 "내 아들이"라는 부름이 들린다. 말이 벽을 통과하면 갱도다 —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부르며, 높이며, 구하며, 찾으면. 여덟 동사를 다 지난 곳에서 흠뻑이 무너지고 빛이 쏟아지는 데, 광맥이 아니라 입이다. "대저 여호와께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파 내려간 손 위에 위로부터의 선물이 놓이고, 그 빛이 가슴으로 들어와 이번에는 사람을 두른다. 갈라지는 길에서 두 번 — 어두운 길의 무리에게서 한 번, 스올로 기운 집에서 한 번 — 옷깃이 당겨지고, 마지막 부감에는 심긴 나무처럼 땅에 남은 이들과 뽑혀 나간 빈 구멍들이 함께 보인다. 다시 방, 목소리만 남는다. "내 아들이."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겉무대(방)와 속무대(말의 지도)의 이중 구조. im—az—ki 접속사 사다리. matmon(묻힌 보배)과 tsaphan(쌓아 두심)의 동사 호응.
2 첫 느낌·분위기	여덟 동사를 지나 5절에서 처음 쉬는 긴 들숨. 요구에서 보호로 바뀌는 공기. 조건 4 대 결과 18의 시소.
3 시작과 끝	"만일"의 열린 문 ↔ "뽑히리라"의 닫힌 판정. 2인칭 속삭임에서 3인칭 보편 진술로의 줄아웃.
4 등장인물·사상	주어 릴레이: 네가 → 여호와께가 → 지혜가 → 두 부류가. 6절의 반전 — 캐는 자가 만나는 "주시는 분". 17절 음녀의 정의 — 버림과 잇음.

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조건의 채광장(1~4)/첫 az(5~8)/둘째 az(9~11)/두 건짐(12~19)/두 결말(20~22)의 5컷. natsal 병렬.
6 의문·발견·정보	한 문장 조건문 구조. 길 어휘 11회 산포. 19절 단언의 미해결. 매장 보물·채광·부자 교훈의 배경.
7 동영상	방의 부름 → 갯도의 빛 → 가슴으로 들어온 지혜 → 두 번의 당김 → 땅의 부감, 다시 방으로.
8 초벌 제목·부제	"갯도 끝의 입 — 파는 손과 주시는 분"
9 기도·내면	은을 구하듯 구해 본 적이 있는지 손을 본다. 손을 펴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점층의 사다리와 갯도 끝의 반전:** 1~4절은 받는 동작에서 파는 동작으로 강도를 올리며 독자를 채광장 깊이 데려간다. 그런데 6절이 그림을 뒤집는다 —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찾는 자가 발견하는 것은 광맥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파던 matmon은 알고 보면 그분이 미리 쌓아 두신(tsaphan, 7절) 것이었다. 수고와 거저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
- 결 2 — 목적어에서 주어로, 지혜의 역전:** 1~4절에서 지혜는 구함의 대상이다. 10절부터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키고, 건지고, 행하게 한다. 찾던 것이 찾는 사람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는 이 역전이 2장의 등뼈다. 12절과 16절의 두 건짐이 같은 동사 natsal로 묶이며, 두 위험(패역을 말하는 무리·말로 호리는 음녀) 모두 혀를 들고 온다.
- 결 3 — 언약을 잇은 자, 그리고 땅의 두 결말:** 음녀는 행실이 아니라 버림(alluf — 젊은 시절의 짝)과 잇음(berit —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의된다(17절). 잇음의 끝은 스올로 기운 집이고, 기억하며 찾는 이의 끝은 땅에 남는 나무다(21~22절). 찾음과 잇음 — 기억의 두 방향이 거주와 뿔힘이라는 두 결말로 갈라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욥 28:1-28 — 같은 채광 어휘로 지혜의 처소를 묻되 "사람이 못 찾는다"에 이르는 본문. 잠언 2장의 "찾으면 주신다"와 정경 안에서 상보를 이룬다.
- 잠 1:7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 2:5의 도착점("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이 권의 머릿돌과 호응.
- 잠 7:5-27 —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동일 어구로 확장되는 음녀 경고.
- 약 1:5 —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 구함과 주심의 공존이 신약에서 메아리.
- 말 2:14 —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 alluf·berit의 결혼 언약 어휘권.
- 시 37:9-11 — 땅을 차지하는 자와 끊어지는 자 — 2:21-22의 두 결말 모티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내 아들이"에서 시작한다 — 명령이 아니라 부름으로 불리는 경험을 천천히 받는다.
-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이라면 그렇게 구했을 것이다. 같은 강도로 구해 본 적이 있는지 손을 본다.
- **멈춤 2:** 6절에서 멈춘다 — 파 내려간 갯도 끝에 입이 있다. "주시며." 내 수고의 끝이 선물이라는 어긋남 앞에 선다.
- **끝:** 11절에서 멈춘다 — "근신이 너를 지키며." 쥐려고 찾던 것이 나를 안고 있다는 문장을 따라 읽을 수 있는지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im ×3 — az ×2 — ki ×3의 한 문장 사다리 완결
- [x] matmon(4절)과 tsaphan(7절)의 동사 호응
- [x] 주어 릴레이(네가→여호와가→지혜가→두 부류가) 확인
- [x] natsal 2회의 두 건짐 병렬
- [x] 땅 4회의 두 결말 대구(21~22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권의 운동은 1:7("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에서 31:30("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에 이르는 호를 그린다. 권의 흐름은 네 국면 —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 — 으로 움직이고, 그 심장에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상함이 있다. 2장은 첫 국면의 둘째 걸음이다. 1장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지혜의 부름이었다면, 2장은 그 부름에 응답해 찾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 준다 —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계시고(2:6), 받은 지혜가 이번에는 사람을 지키는 주체가 되는(2:10-11) 순환. 그리고 1~9장 전체를 끌고 갈 두 길의 구도 — 선한 자의 길과 음녀의 길 — 가 이 장에서 본격화된다. 2:5의 도착점("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이 1:7의 머릿돌을 정확히 되받으면서, 경외가 출발점(1:7)이자 찾음의 열매(2:5)라는 권 전체의 순환 고리가 여기서 처음 닫힌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의 찾음(1~4절 여덟 동사)에서 여호와와의 주심(2:6)으로 / 구함의 목적어였던 지혜에서 지키는 주어가 된 지혜(2:10-11)로 / 길거리의 부름(1장)에서 마음에 들어온 동행(2장)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파 내려가는 수고'가 '위로부터의 수여'를 만나 '길 위의 동행'으로 바뀌는 운동이다. 아래로(채굴), 위에서(수여), 앞으로(길) — 세 방향이 한 문장 안에서 이어진다. 다만 이 동행은 완결이 아니라 개시다. 찾은 다음의 걸음이 무엇인지 — 3장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가 바로 그 다음 칸에서 기다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지혜를 얻는 법에 대한 교훈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지혜가 소유물인가 관계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5절의 도착점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 인격에 대한 앎이고, 10절의 지혜는 물건처럼 쥐어지는 대신 마음에 들어와 영혼을 즐겁게 한다. 채광의 비유가 깊은 이유도 여기 있다 — 사람이 파던 보배(matmon)는 우연한 광맥이 아니라 누군가 미리 물어 쌓아 두신(tsaphan) 것이었고, 그렇다면 찾는 자의 모든 수고는 사실 숨겨 두신 분과의 만남을 향해 설계된 길이었던 셈이다. 음녀 단락이 이 깊이를 반대편에서 비춘다 — 그 비극의 뿌리는 부도덕 이전에 잊음(berit를 잊어버린 자)이다. 기억하며 찾는 것과 잊고 떠나는 것, 이 장의 모든 길은 결국 관계의 기억이라는 한 지점에서 갈라진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 본 적이 있는가 — 그리고 그 갯도 끝에서, 캐낸 것이 아니라 건네받은 것임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노력하라고 다그치는 대신, 은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구했으리라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 준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강도다 — 무엇을 그만큼 원하는가. 그리고 그 강도로 파 들어간 사람에게 본문이 약속하는 것은 성취의 쾌감이 아니라 만남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찾던 것이 어느 날 나를 지키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 — 요구가 보호로 바뀌는 그 전환을 겪어 보라는 초대다, 이 장이 독자에게 남기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찾아서 받은 사람의 다음 걸음은 의지의 이양이다 —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3:5).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tmon* — 감추어진 보배.

미해결 질문

잠언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17절 "그의 하나님의 언약(berit)"은 결혼 서약을 가리키는가, 더 넓은 언약인가?

- 젊은 시절의 짝(alluf)과 나란히 놓여 결혼 언약으로 읽히는 곁이 강하나, 본문은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말 2:14의 어휘권만 옆에 두고 보존.

Q2.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의 단언은 어디까지인가?

- 회복 불가의 절대 진술인가, 그 길의 성질을 보여 주는 경고의 어법인가. 본문은 부연하지 않는다. 보존.

Q3. 1~4절 여덟 동사의 점층(받다→찾다)은 의도된 사다리인가?

- 수동적 수용에서 능동적 채굴로 강도가 올라가는 배열이 관찰되나, 편집 의도의 확정은 어렵다. 보존.

Q4. 읍 28장은 "사람이 지혜의 처소를 못 찾는다" 하고 잠언 2장은 "찾으면 주신다" 하는데, 이 상보를 어떻게 둘 것인가?

- 같은 채광 어휘를 쓰면서 결론의 방향이 다르다. 두 본문이 서로를 어떻게 비추는지는 정경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Q5. 5절(경외·하나님을 앎)과 9절(공의·정직·선한 길)의 두 az는 순서인가 병렬인가?

-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사람 사이의 의가 다음이라는 순서로도, 한 결과의 두 면으로도 읽힌다.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6. 음녀(ishah zarah)의 "낯섦(zar)"은 민족적 바깥인가, 관계적 바깥인가?

- nokriyah(이방 계집)와의 병행은 민족적 결을, 17절의 정의(짝을 버림·언약을 잊음)는 관계적 결을 가리킨다. 양쪽을 닫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3장

PRO-003 · 시가서 · 히브리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betach*)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3:5)의 부름이 인자(*chesed*)와 진리(*emet*)를 마음판(*luach*)에 새기는 데서 시작해, 사랑의 징계(*musar*)와 생명나무(*ets chayyim*)의 귀환, 땅의 터를 놓은 창조의 지혜를 지나, 이웃에게 "갏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 겠노라" 하지 말라는 골목의 윤리까지 내려오는 — 지혜가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사귄(*sod*)에서 자라는 결을 펼치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방 하나 — 그러나 말 속에서 길(6절)·창고와 포도즙 틀(10절)·장터(14~15절)·우주(19~20절)·침상(24절)·이웃집 문 앞(28절)이 차례로 세워지는 언어의 극장.
- 소품(몸에 지니는 것): 목에 매는 끈, 마음판(*luach*), 양약, 골수, 목의 장식(22절).
- 소품(살림): 처음 익은 열매(*reshit*), 창고, 새 포도즙, 은·정금·진주, 오른손의 장수·왼손의 부귀(16절).
- 소품(우주): 땅의 터, 견고히 선 하늘, 갈라진 깊은 바다, 내리는 이슬(19~20절). 그리고 생명나무(*ets chayyim*, 18절).
- "내 아들이" 3회(1·11·21절)가 장의 큰 단을 끊는 경첩.
- 1~12절 = 명령+그리하면(약속) 여섯 쌍 / 27~31절 = 약속 없는 금지("말며") 다섯 연쇄 / 32~35절 = 대조 네 쌍.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다정한 무게 — "내 아들이"의 어조 속에서 약속이 명령보다 길게 따라오는 목소리.
- 11절에서 한 번 가라앉는 공기(징계·꾸지람)가 12절의 "기뻐하는 아들"로 받쳐짐.
- 19~20절의 낙차 — 방 안의 권면이 갑자기 창조의 새벽으로 솟는 화면 전환.
- 27절 이후 보상 문구가 사라진 금지 연쇄 — 선을 베푸는 일에는 "그리하면"이 없음.
- 13절 *ashre*("복이 있나니") — 명령문 사이에 끼어든 감탄문, 한가운데의 노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 2인칭 부름(너)에서 3인칭 판정(두 행렬)으로 — 권면이 끝에서 두 길의 갈림으로 굳어짐.
- 2절의 평강(*shalom*)이 17절에서 재확인되고, 끝에서는 집(33절)과 기업(35절)의 언어로 넓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버지(화자), 아들(청자), 여호와(5~12절 약속의 주어), 지혜(13~18절 3인칭 여성형 — 8장 의인화의 예고), 이웃, 포박한 자, 패역한 자/정직한 자, 거만한 자/겸손한 자(anavim), 지혜로운 자/미련한 자.
- 사상의 중심: 5절 batach — 마음을 다한 신뢰와 자기 명철의 맞섬. 기대어 무게를 싣는 몸의 동사.
- 11~12절 — 복의 목록 여섯째 쌍으로 들어온 징계(musar). 까닭은 분노가 아니라 기뻐함.
- 9절 — 공경의 재료가 추상이 아니라 소산물·처음 익은 열매. 약속도 창고·포도즙의 수확 언어.
- 7절 sur mera(악을 떠나라) — 욥 1:1 욥 소개 어휘의 명령형 / 32절 sod(교통하심) — 욥 29:4의 단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절): 여섯 쌍의 명령과 약속 — 새김·신뢰·경외·공경·징계 수용.
- 컷 2 (13~20절): 지혜 찬가 — ashre의 노래, 보화 비교, 생명나무, 창조의 지혜(터·하늘·깊은 바다·이슬).
- 컷 3 (21~26절): 길과 밤의 보호 — 평안히 걷는 발, 두려움 없는 단 잠, "여호와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 컷 4 (27~35절): 골목의 윤리("말며" ×5)와 네 쌍의 대조 마감(sod·복·은혜·영광).
- 폭의 설계: 안(내면·살림) — 우주 — 안(길·잠) — 결(이웃). 가장 큰 화면이 한가운데, 가장 작은 화면이 마지막.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esed(חֶסֶד) — 인자·언약적 사랑 / emet(אֱמֶת) — 진리·신실함. 3절. 출 34:6의 여호와 성품 짝이 아들의 소지품으로.
- luach(לֹאֲחַ) — 판. 3절 '마음의 판(luach libbekha)'. 십계명 돌판(출 31:18)과 같은 단어.
- batach(בָּטַח) — 기대어 안심하다·신뢰하다. 5절. / shalom(שָׁלוֹם) — 평강. 2·17절.
- sur mera(סוּר מֵרָע) — 악을 떠남. 7절. 욥 1:1과 같은 어휘.
- reshut(רֶשֶׁת) — 처음 것·첫 열매. 9절. / musar(מוֹסָר) — 징계·훈육. 11절, 잠 1:2의 책 목적 어휘.
- ets chayyim(עֵץ חַיִּים) — 생명나무. 18절. 창 2:9 이후 정경에서 처음 다시 손에 닿는 것으로 등장.
- tushiyyah(תוֹשִׁיָּיָה) — 완전한 지혜·견실한 분별. 21절. / sod(סוֹד) — 친밀한 사귄·교통하심. 32절, 욥 29:4의 단어. / anavim(אֲנָוִים) — 겸손한 자. 34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내 아들이" 3회(1·11·21절)가 단을 구분 — 강화(discourse) 형식의 경첩.
- 1~12절 명령+동기(그리하면) 여섯 쌍 — 훈계시의 전형 문형이 연속 배치됨.
- 13~18절 지혜 찬가 — ashre 개시, 보화 비교(은·정금·진주), 생명나무 마감. 지혜가 3인칭 여성형 인물로 그려짐(8장 의인화의 예고).
- 19~20절 창조 삽입구 — 권면 한가운데 우주론. 같은 '지혜·명철·지식'으로 땅·하늘·깊은 바다가 세워짐.
- 27~31절 금지 연쇄(말며 ×5) — 보상 문구 없는 비대칭 구간.
- 32~35절 대조 네 쌍 — 패역/정직(sod), 저주/복, 거만/겸손(은혜), 지혜/미련(영광·수치)의 계단식 마감.
- 34절 LXX → 약 4:6·벤전 5:5 직접 인용 / 11~12절 → 히 12:5-6 직접 인용 — 신약 세 권으로 건너간 장.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아버지→아들 훈계(Instruction) 형식 — 이집트·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헌의 공통 장르. 잠언 1~9장이 같은 형식의 연속 강화 — 배경.
- 가르침·부적을 목에 거는 풍습 — 고대 근동의 인장 목걸이 관행, 신 6:8의 표 명령과 닿음 — 배경.
- 생명나무 도상 — 메소포타미아 인장·부조의 신성한 나무 모티프. 잠언은 그 어휘를 지혜의 은유로 사용 — 배경.
- 첫 소산 봉헌 — 고대 근동 농경 사회 공통 관행, 이스라엘에서는 신 26장 규례로 정비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3:3 ↔ 신 6:6-9 (마음에 새기고 매는 명령의 결) ↔ 램 17:1 · 고후 3:3 (마음판 luach)
- 잠 3:11-12 ↔ 욥 5:17 ↔ 히 12:5-6 (징계의 문법 — 히브리서가 직접 인용)
- 잠 3:34 ↔ 약 4:6 · 벰전 5:5 (LXX 형태 그대로 인용)
- 잠 3:18 ↔ 창 2:9 · 계 22:2 (생명나무 — 단함과 귀환과 재등장)
- 잠 3:19-20 ↔ 잠 8:22-31 (창조의 지혜 — 의인화의 확장)
- 잠 3:32 ↔ 욥 29:4 (sod — 교통하심) / 잠 3:7 ↔ 욥 1:1 (sur mera)
- 잠 3:5-6 ↔ 시 37:3-5 (여호와를 의뢰하고 길을 맡기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등불 켜진 방. "내 아들이야."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목에 인자와 진리를 걸어 주고, 화면이 가까워지면 그것이 심장 위의 판에 새겨지는 글씨로 바뀐다. 아들이 길로 나서고 갈림길마다 길이 앞서 퍼진다. 첫 열매를 안고 올라가는 손, 가득 차는 창고, 넘치는 포도즙 틀. 잠깐 어두워지는 화면 — 꾸지람의 방 — 그 위로 겹치는 음성: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장터의 저울에 은과 정금이 오르고, 맞은편에 오른손에 장수물, 왼손에 부귀를 든 여인이 서 있다. 그 뒤로 생명나무. 카메라가 솟구쳐 땅의 터와 하늘과 갈라지는 깊은 바다와 새벽 이슬을 지난다 — 같은 지혜다. 내려오면 밤, 단 잠. 아침 골목에서 이웃의 빈손 앞에 멈칫하던 손이 오늘 건넨다. 마지막 프레임 — 두 행렬이 영광과 수치로 갈라지고, 내레이션이 남는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기대는 신뢰 — 마음판의 새김에서 골목의 손으로"
- 초벌 부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데서 시작한 권면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를 지나, 사랑의 징계와 생명나무의 귀환과 창조의 지혜를 거쳐, 이웃에게 '내일'이라 말하지 않는 오늘의 손까지 내려오는 잠언 3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명령·약속 여섯 쌍 + 금지 연쇄 + 34절 LXX의 신약 인용 + 훈계 장르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5-6을 '인생 결정의 공식'이라는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batach(기대다)의 어휘 관찰과 명령-약속 문형의 사실 기록으로만 둬.
- 3:11-12의 징계를 고난 일반의 신정론 결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복의 목록 안에 든 여섯째 쌍이라는 배치 관찰과 욕기·히브리서로 가는 어휘 다리만으로 보존.
- 3:18 생명나무를 종말론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창 2:9 이후 닫혔던 어휘가 지혜의 길에서 다시 손에 닿는 것으로 나온다는 정경 내 사실로만 둬.
- 3:9-10의 공경·창고 약속을 번영의 보증으로도, 그 반대 교정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미해결 질문(Q3)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3장은 "내 아들이"의 부름 아래 명령과 약속 여섯 쌍(법·인자와 진리의 새김·신뢰 batach·경외와 악 떠남 sur mera·첫 열매의 공경·징계 musar의 수용, 1~12절)을 쌓은 뒤, ashre의 지혜 찬가와 생명나무(ets chayyim)의 귀환(13~18절), 땅의 터를 놓은 창조의 지혜(19~20절), 길과 밤의 보호(21~26절)를 지나, 약속 없는 금지 다섯 연쇄의 이웃 윤리(27~31절)와 패역/정직(sod)·저주/복·거만/겸손·지혜/미련의 대조 네 쌍(32~35절)으로 닫히는 훈계시다.

한 문단: 등불 켜진 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목에 인자와 진리를 걸어 주는데, 화면이 가까워지면 그것은 심장 위의 판에 새겨지는 글씨다. 아들이 길로 나서고, 갈림길마다 길이 앞서 퍼진다 —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꾸지람의 어두운 방을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받치고, 장터 맞은편에는 오른손에 장수를 왼손에 부귀를 든 지혜가 생명나무를 등지고 서 있다. 카메라가 솟구쳐 창조의 새벽을 지나고 — 같은 지혜다 — 내려오면 단 잠의 밤, 그리고 아침 골목에서 멈췄하던 손이 이웃에게 오늘 건넨다. 두 행렬이 영광과 수치로 갈라지며 마지막 음성이 남는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방 하나에서 말로 세워지는 극장(길·창고·장터·우주·침상·골목). 몸에 지니는 소품과 수확의 소품. "내 아들이" 3회의 경첩.
2 첫 느낌·분위기	약속이 명령보다 긴 다정한 무게. 19~20절의 우주 낙차. 27절 이후 보상 없는 금지 연쇄. 한가운데 끼어든 ashre의 노래.
3 시작과 끝	2인칭 부름(1절) ↔ 3인칭 판정(35절). 평강의 약속이 집과 기업의 언어로 넓어지며 두 길로 갈라짐.
4 등장인물·사상	아버지·아들·여호와, 그리고 윤곽이 잡히는 지혜(여성형 3인칭). batach — 기대는 신뢰와 자기 명철의 맞섬. 복의 목록 안에 든 징계.

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명령·약속(1~12)/지혜 찬가·창조(13~20)/길과 밤(21~26)/골목과 대조(27~35) 4컷. 안—우주—안—결의 폭 설계.
6 의문·발견·정보	원어 카드 12개. 34절 LXX의 약·벤전 인용, 11~12절의 히브리어 인용. 두 명철의 간극과 '그것의 주인들' 미해결.
7 동영상	목에 걸린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 길이 퍼지고 → 우주를 지나 → 골목의 오늘 한 번으로 → 두 행렬의 갈림, 압전.
8 초벌 제목·부제	"기대는 신뢰 — 마음판의 새김에서 골목의 손으로"
9 기도·내면	걸고 다니는 것과 새겨진 것의 차이를 본다. 내 무게가 어디 실려 있는지만 보여 달라고 아뢴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batach, 기대는 신뢰:** 5절의 신뢰는 동의가 아니라 체중 이동이다. '기대어 안심하다'라는 몸의 동사가 자기 명철과 맞세워지면서, 3장의 모든 약속(곧은 길·양약·창고·단 잠)은 정보를 더 가진 자의 몫이 아니라 무게를 옮긴 자의 몫으로 그려진다. 13절이 명철 얻은 자를 복되다 하므로, 문제는 명철의 소유가 아니라 명철 위에 서느냐 여호와께 기대느냐다.
- 결 2 — 복의 목록 안에 든 musar:** 1~10절의 다섯 쌍이 장수·은총·길·양약·창고를 약속한 뒤, 여섯째 쌍(11~12절)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한다. 약속의 문법이 거래로 굳기 직전에 사랑의 아픔이 끼어드는 배치다. 이 두 절이 욥 5:17과 올리고 히 12:5-6으로 직접 인용되어 건너가는 것은, 잠언의 약속 언어와 고난의 언어가 처음부터 한 묶음이었음을 보여 주는 정경 내 사실이다.
- 결 3 — 생명나무의 귀환과 sod:** 창세기 3장에서 닫혔던 ets chayyim이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로 다시 손에 닿는 것으로 나오고, 32절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비결이 아니라 교통하심(sod) — 욥 29:4에서 욥이 그리워하던 그 사귄 — 이라 말한다. 3장이 끝내 가리키는 지혜는 기술이 아니라 결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신 6:6-9 — 마음에 새기고 매라는 명령의 결. 렘 17:1과 고후 3:3은 luach(마음판)의 어휘를 잇는다.
- 욥 5:17 · 히 12:5-6 — "여호와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3:11-12)가 직접 인용으로 건너간 두 좌표.
- 약 4:6 · 벤전 5:5 — 3:34의 LXX 형태("겸손한 자에게 은혜를")를 글자 그대로 인용.
- 창 2:9 · 계 22:2 — 생명나무: 닫힘(창 3:24), 지혜의 길에서의 귀환(잠 3:18), 마지막 책의 재등장.
- 잠 8:22-31 — 3:19-20의 창조의 지혜가 직접 입을 여는 의인화로 확장됨.
- 욥 29:4 — sod(교통하심): 잃고 그리워하는 욥과, 약속으로 받는 잠언의 아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절에서 시작한다 — 내가 걸고 다니는 것과 내게 새겨진 것의 목록을 나눠 적어 본다.
-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무게가 지금 어디에 실려 있는지 묻는다.
- **멈춤 2:** 11~12절에서 멈춘다 — 약속의 목록을 읽다가 징계 앞에서 속도가 떨어진다. 기뻐하는데 아프게 하는 손.
- **끝:** 28절에서 멈춘다 —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가 쌓아 둔 '내일'을 쏜다. 우주를 지은 지혜가 요구하는 가장 작은 동작 앞에 선다.

F · 자족성 점검

- [x] "내 아들이" 3회 경첩과 4컷 분절 완결
- [x] 명령·약속 여섯 쌍과 금지 다섯 연쇄의 비대칭 기록
- [x] batach·musar·sod 축 어휘와 읍기·신약 다리 보존
- [x] 생명나무 귀환의 정경 내 좌표(창 2:9 → 잠 3:18 → 계 22:2)
- [x] 미해결 6건 이월(두 명철·공경·창고·sod의 실제 등)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에서 31:30("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로 가는 호다. 권의 흐름은 1~9장의 지혜의 부름과 두 길 강화, 10~29장의 일상 대구 잠언, 30장 아굴의 관찰, 31장 현숙한 여인으로 움직이는데, 3장은 첫 묶음의 셋째 강화로서 뒤에 쏟아질 수백 개의 잠언이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지 미리 보여 준다 — 지혜는 처세 격언집이 아니라 신뢰(3:5-6)·경외(3:7)·징계 수용(3:11-12)·교통하심(3:32)이라는 관계의 언어 위에 선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은 두 개의 큰 어휘를 움직인다. 하나는 생명나무 — 창세기 3장에서 그룹들이 길을 막았던 그 나무가 지혜의 길에서 다시 손에 닿는 것으로 나오고, 계시록 22:2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으로 재등장하기까지의 통로 위에 잠언 3:18이 놓인다. 다른 하나는 징계의 문법 —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이 히브리서 12장으로 건너가, 아들들을 다루시는 아버지의 손이라는 신약의 고난 이해를 받친다. 읍기 다음에 읽히는 이 장은, 읍이 잃고 그리워하던 sod를 정직한 자의 현재형 약속으로 다시 내놓는 좌표이기도 하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에 매는 것에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으로 / 자기 명철 위에 선 무게에서 여호와께 기대는 무게로(batach) / 방의 권면에서 우주(3:19-20)를 지나 골목의 오늘 한 번(3:28)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지혜를 '아는 것'에서 '기대는 것'으로 옮기는 운동이다. 여섯 쌍의 약속이 쌓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의 근거이고, 그 신뢰는 창조의 규모(터·하늘·깊은 바다)로 보증된 뒤 가장 작은 동작 — 이웃에게 미루지 않는 손 — 으로 검증된다. 다만 이 운동은 3장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13~18절에서 윤곽만 잡힌 지혜라는 인물이 8장에서 직접 입을 열 것이고, 4장은 같은 권면을 한 세대 더 거슬러 올라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의 기억으로 받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잘 사는 법의 목록이다 — 장수, 가득 찬 창고, 평안한 잠, 거치지 않는 발.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지혜가 기술인가 사림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32절이 그 바닥을 연다: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sod — 속 이야기를 나누는 교통하심이다. 이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3장의 약속들은 보상표가 아니라 곁에 있음의 결과 목록이고, 11~12절의 징계조차 그 사림의 한 형태다 — 기뻐하는 아들이기에 다루신다. 19~20절의 창조 삼입구가 권면 한가운데 들어온 까닭도 여기서 풀린다. 아들에게 요구되는 신뢰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땅의 터와 하늘과 깊은 바다를 놓은 바로 그 지혜가 지금 내 길 위에 있다는 사실에 기대는 일이다. 우주를 지은 손이 골목의 거래와 밤의 잠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 — 그 폭이 3장의 깊은 물길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내 명철이 마지막으로 항복한 것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쌓아 둔 "내일"은 몇 개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명철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13절은 명철 얻은 자를 복되다 한다. 다만 무게를 어디에 싣고 있는지를 묻는다. *batach*는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몸의 체중 이동이어서, 이 질문은 생각으로 답할 수 없고 길 위에서만 답해진다. 그리고 3장은 그 답이 검증되는 지점을 뜻밖의 곳에 둔다 — 창고도 제단도 아닌, 이웃의 빈손 앞이다.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주를 지은 지혜를 신뢰한다는 것이 오늘 한 번 미루지 않는 손으로 나타난다는 것 — 그 작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아버지의 권면이 할아버지의 기억으로 깊어진다 —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4:3),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4:7).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tach* — 기대어 안심하다.

미해결 질문

잠언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3:12) — 기뻐함과 아프게 함이 같은 손에 있다는 문장을 어디까지 펼 것인가?

- 징계의 까닭이 분노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제시되는데, 그 사랑의 작동 방식은 본문이 더 풀지 않는다. 읊기 다음에 이 장이 읽히는 결과 함께 보존.

Q2. 5절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13절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다 — 두 명철의 간극은 무엇인가?

- 같은 장 안에서 명철이 내려놓을 것이면서 얻을 복이다. 무게를 싣는 지점(*batach*)의 문제인지, 명철의 출처 문제인지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3. 9~10절의 공경-창고 약속은 읊기 1:9의 질문("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과 어떻게 같은 정경 안에 놓이는가?

- 약속의 문법(공경하면 창고가 찬다)과, 창고가 무너진 의인의 책이 나란히 시가서에 들어 있다. 잠언 안에서 11~12절의 징계가 곧바로 따라온다. 거래와 사김의 경계 질문으로 보존.

Q4. LXX가 3:9의 '재물'을 '의로운 수고'로 옮기고 3:16 뒤에 16a를 더한 것은 어떤 읽기의 흔적인가?

- 드릴 것의 출처를 묻는 번역, 지혜의 입에 의와 인자를 더하는 첨가 — 번역 전승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Q5. 27절 "마땅히 받을 자"(원문 절: 그것의 주인들)는 어디까지인가?

- 선이 아직 내 손에 있는데 소유권은 받을 사람 쪽에 있다는 듯한 표현. 그 '주인'의 경계를 본문이 긋지 않는다. 보존.

Q6. 32절의 sod(교통하심)는 정직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경험되는가?

- 욕 29:4에서 욕이 그리워하던 그 단어가 잠언에서는 현재형 약속으로 나온다. 속 이야기를 나누는 사권의 실제 모습은 미해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4장

PRO-004 · 시가서 · 히브리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4:3)라는 고백으로 화자 자신의 어린 날이 열리고, 받은 가르침이 3대를 건너 다시 전해지는 가운데, 돈는 헛살(*or nogah*)과 어둠(*aphelah*)의 두 길이 갈라지며(4:18-19),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4:23)를 정점으로 마음에서 입·눈·발로 내려오는 전신의 순례로 닫히는 — 지혜가 세대를 건너 흐르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겹의 무대: 현재의 방(아버지가 아들들에게, 1절) — 기억의 방(어린 화자와 그의 아버지, 3~4절) — 길(10절 이하, 두 갈래).
- 소품(전반):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9절) — 머리에 놓이는 영예의 표지.
- 소품(중반): 불의의 떡, 강포의 술(17절), 잠이 오지 않는 침대(16절) — 뒤집힌 일상의 세 기둥.
- 소품(후반): 마음·입·입술·눈·눈꺼풀·발(23~27절) — 한 사람의 몸으로 좁혀지는 마무리.
- "들으라"의 부름이 세 단락을 연다: 1절(아들들아, 복수) / 10절(내 아들아) / 20절(내 아들아) — 1~9 전수 / 10~19 두 길 / 20~27 몸.
- 소재: 훈계(*musar*)·명철(*binah*)·도리(*leqach*)·법·지혜·보호·사랑·관·면류관·길(*derekh*)·걸음·실족·헛살·어둠·떡·술·잠·마음(*lev*)·입·눈·발·좌우 — 받아 쥐는 것에서 몸에 붙은 것으로 근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명령문 연쇄가 호령이 아니라 간곡함으로 들림 — 명령 뒤에 약속이 따라붙는 구문(6절 등).
- 14절부터 어조 급변: 회피 동사 연타(들어가지 말라·다니지 말라·피하라·지나가지 말라·떠나가라).
- 조명 대비(18~19절): 점점 밝아져 한낮에 이르는 길 vs 무엇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어둠.
- 16~17절의 서늘함 — 먹고 마시고 자는 일상 세 기둥이 통째로 악에 묶인 무리의 풍경.
- 3절 *rakh*(연한·유약한) — 강한 훈계의 장 한가운데서 화자가 자신을 가장 연한 단어로 소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 시작은 귀(들으라), 끝은 발(떠나게 하라) — 듣는 데서 걷는 데로 내려오는 통로.
- 호칭 이동: 1절 복수 "아들들아" → 10·20절 단수 "내 아들아" — 청중과의 거리가 좁혀짐.
- 공간 이동: 방 안의 가르침에서 길 위의 보행으로 — 문지방을 넘으며 닫히는 장.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화자 아버지, 아들들(1절 복수)·내 아들(10·20절 단수), 기억 속 할아버지(4절~ 직접 인용), 어머니(3절, "보기에"라는 시선으로만), 의인화된 지혜(6~9절), 사악한 자들(16~17절, 익명), 의인·악인(18~19절, 길 위의 익명).
- 대사를 가진 인물은 아버지와 그 안에 인용된 할아버지뿐 — 아들은 끝까지 무언.
- 지혜를 향한 동사가 연애·혼인의 어휘: 사랑하라(6절)·품으라(chabaq, 8절)·높이라(8절) — 9절에서 지혜가 손수 관을 씌움.
- 사상의 중심 문장: 7절 "지혜가 제일(reshit)이니 ...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 qanah(사다·얻다)의 상거래 결.
- 13절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 훈계=생명의 등식이 선언문으로 솟음.
- 23절 — 마음(lev)은 창고가 아니라 샘: 생명이 흘러나오는 발원(totsot chayyim).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세 겹의 방 — 전수, 회상 디졸브, 할아버지의 인용, 관과 면류관의 약속.
- 컷 2 (10~13절): 평탄한 길 — 곤고하지 않은 보행, 실족 없는 달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 컷 3 (14~19절): 다른 길 — 회피 동사 연쇄, 악이 끼니와 잠이 된 무리, 햇살과 어둠의 명암 대비.
- 컷 4 (20~27절): 몸의 점호 — 귀·눈으로 들어와 마음에 고이고(20~23절), 입·눈·발로 흘러나감(24~27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leqach*(לָקַח) — 도리·건네받은 가르침, laqach '받다' 어근. 2절.
- *musar*(מוֹסֵר) — 훈계·단련. 1절. / *binah*(בִּינָה) — 명철·분별(bin '사이를 가르다'). 1절.
- *qanah*(קָנָה) — 얻다·사다, 상거래 동사. 5절×2·7절×2.
- *chabaq*(חָבַק) — 품다·껴안다. 8절. / *rakh*(רָךְ) — 연하다·유약하다. 3절.
- *netsor*(נָצַר, 어근 natsar) — 지키라. 13절(훈계를)·23절(마음을). 6절은 shamar 계열의 상호 보호 구문.
- *lev*(לֵב) — 마음: 감정·생각·의지·결정의 중심. 4·21·23절.
- *totsot chayyim*(תּוֹצֹט חַיִּים) — 생명의 나가는 곳들·발원. 23절.
- *or nogah*(אֹר נֹגַהּ) — 돋는·비치는 빛. 18절. / *aphelah*(אַפְלָה) — 짙은 어둠. 19절.
- *iqqshut*(עֲקָשׁוּת) — 구부러짐·비뚤어진 말. 24절. / *derekh*(דֶּרֶךְ) — 길. 11·14·19·26절 등.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3대 전수 액자: 화자의 훈계(현재) 안에 화자가 받은 훈계(과거)가 인용으로 들어 있음 — 인용의 닫는 경계가 본문에 표시되지 않음.
- *netsor*의 이동: 13절(훈계를 지키라) → 23절(마음을 지키라) — 지킴의 대상이 바깥의 말씀에서 안의 중심으로.
- 상호 보호 구문(6절): 네가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 지킴의 왕복 설계.
- 신체 지도(20~27절): 들어오는 통로(귀·눈→마음) / 분수령(23절 마음) / 나가는 통로(마음→입·눈·발).
- 회피 명령의 최고 밀도(14~15절): 한 대상에 동사 다섯 개 — 들어가지 말라·다니지 말라·피하라·지나가지 말라·떠나라.

- 명암 대비(18~19절): 점증하는 빛(돋는 햇살→한낮의 광명) vs 인지 불능의 어둠(걸려도 무엇인지 모름).
- 수미: 1절 귀(들으라) ↔ 27절 발(악에서 떠나게 하라) — 청각에서 보행으로 닫히는 인클루지오.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교훈 문학(프타호테프·아메네모페의 교훈 등) —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같은 부자 화법의 장르 관습 — 배경.
- 신 6:6-7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 이스라엘 안의 세대 전수 모판 — 배경.
- '두 길' 은유 — 행위와 결과를 여정으로 그리는 고대 근동 공통의 지혜 어법 — 배경.
- 관·면류관 — 잔치와 영예 수여 풍습에서 머리에 씌우는 영광의 표지 — 배경.
- LXX 차이: MT 4:7에 해당하는 절이 LXX에 없음 / LXX는 4:27 뒤에 두 절(27a·27b)을 더함 — 본문 전승 차원,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4 ↔ 신 6:6-7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 세대 전수)
- 잠 4 ↔ 잠 1:8-9 (아비의 훈계·어미의 법 — 관 모티프의 첫 등장)
- 잠 4 ↔ 잠 3:1-2 (법을 잊지 말라 — 장수 약속의 같은 형식)
- 잠 4 ↔ 시 1:1-6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 두 길의 시편 판본)
- 잠 4 ↔ 마 15:18-19·막 7:21 (마음에서 나오는 것 — 4:23의 신약 메아리)
- 잠 4 ↔ 잠 23:26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 마음을 두고 오가는 부자 대화)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등불 켜진 방. 아버지가 아들들 앞에 앉아 "들으라" 말하다가, 눈이 먼 곳을 본다 — 디졸브. 같은 방의 오래된 판본, 어린 그가 앉아 있고 그의 아버지가 말한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지혜를 얻으라." 관이 머리에 놓이는 환영. 현재로 복귀, 문이 열리고 카메라가 길로 나간다. 길이 둘로 갈라진다 — 오른쪽엔 걸음마다 차오르는 새벽빛, 왼쪽엔 칠흑과 넘어지는 소리, 불 꺼지지 않는 창, 떡과 술의 식탁. 카메라가 한 사람의 몸으로 좁혀진다. 귀 — 눈 — 가슴 한가운데, 길게 머문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입술, 곧게 뜬 눈, 발. 발이 문지방을 넘어 평탄한 길에 첫걸음을 딛는다.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마음을 지키라 — 세 겹의 방에서 두 갈래 길로"
- 초별 부제: "아버지 자신이 아들이었다는 고백으로 열린 3대의 전수가, 돋는 햇살과 어둠의 두 길을 갈라 보이고, '네 마음을 지키라'를 분수령으로 마음에서 입·눈·발로 내려오는 전신의 순례로 닫히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3대 전수 액자 + netsor 이동 + 신체 지도 + ANE 부자 화법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의인화된 지혜(6~9절)를 기독교론 선취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어휘 관찰(사랑하라·품으라·높이라)로만 둬.
- 4:23을 '마음 관리' 처세 교훈이나 내면 신학 체계로 일반화하지 않고, 신체 지도 안의 분수령이라는 본문 위치로만 기록.
- 18~19절 두 길의 명암을 구원·심판 교리 도식으로 봉합하지 않고 조명 대비라는 문학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4장은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4:1)로 열린 뒤 화자 자신이 아들이었다는 회상(4:3-4)으로 3대의 전수 사슬을 드러내고, 지혜를 사랑하고 품으라는 훈인의 어휘(4:6-9)와 "지혜가 제일이니"(4:7)의 권유를 지나, 사악한 자의 길에 대한 4중 회피 명령(4:14-15)과 돈는 햇살·어둠의 명암 대비(4:18-19)로 두 길을 갈라 보인 다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4:23)를 분수령으로 입(24절)·눈(25절)·발(26-27절)의 점호로 닫히는 훈계 시다.

한 문단: 등불 켜진 방에서 아버지가 말한다 — "들으라." 말하던 그의 눈이 먼 곳을 보고, 기억의 방이 열린다. 어린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지혜를 얻으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화면이 길로 나간다. 오른편 길에는 걸음마다 차오르는 새벽빛, 왼편 길에는 무엇에 걸렸는지 도 모르는 어둠과 잠 못 드는 창문들. 카메라가 다시 한 사람의 몸으로 좁혀진다 — 귀, 눈,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입술과 시선과 발이 차례로 정돈되고, 발이 문지방을 넘는다. 받은 말이 보행이 되는 데서 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현재의 방 — 기억의 방 — 길의 세 겹 무대. 관·면류관에서 떡·술·잠으로, 끝내 몸의 소품으로 좁혀지는 흐름.
2 첫 느낌·분위기	간곡함과 다급함의 교차. '얻으라' 네 번의 무게. 점증하는 빛과 인지 불능의 어둠. rakh — 연한 외아들의 자기소개.
3 시작과 끝	귀(1절 들으라) ↔ 발(27절 떠나게 하라). 복수 호칭에서 단수로, 방 안에서 길 위로.
4 등장인물·사상	아버지·아들들·인용된 할아버지·시선의 어머니·의인화된 지혜. qanah의 상거래 결, 훈계=생명의 등식, 마음=샘.
5 장면 컷	전수(1~9)/평탄한 길(10~13)/다른 길과 명암(14~19)/몸의 점호(20~27) 4컷. 회피 동사 최고 밀도는 14~15절.
6 의문·발견·정보	netsor의 이동(훈계→마음), 상호 보호 구문, 신체 지도의 들숨·날숨, 닫히지 않는 인용 경계, LXX 4:7 부재.
7 동영상	등불의 방 → 기억의 방 → 갈라지는 두 길 → 심장 클로즈업 → 문지방을 넘는 발, 압전.

단계	핵심 발견
8 초별 제목·부제	"마음을 지키라 — 세 겹의 방에서 두 갈래 길로"
9 기도·내면	내 식탁과 잠을 본다. 샘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들여다보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전수의 사슬, 닫히지 않는 따옴표:** 훈계하는 아버지가 자신이 받았던 훈계를 인용하는데(4:4~), 그 인용이 어디서 끝나는지 본문은 표시하지 않는다. 받은 말과 전하는 말이 한 목소리로 녹아 있는 이 흐름이 4장의 가장 깊은 장치다 — 가르침은 세대를 건널 때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생애를 통과하며 그 사람의 음성이다.
- 결 2 — netsor의 이동:** '지키라'는 같은 동사가 13절에서는 훈계를, 23절에서는 마음을 목적으로 받는다. 바깥에서 받은 말씀을 붙드는 일과 안의 중심을 단속하는 일이 한 동사로 묶이고, 6절에서는 방향이 뒤집혀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 지킴이 왕복으로 설계된 장치다.
- 결 3 — 신체 지도의 들숨과 날숨:** 20~27절은 귀와 눈으로 말씀이 들어와 마음에 고이는 전반부와, 마음에서 입·눈·발로 흘러나가는 후반부로 나뉘며 23절이 그 분수령이다. 마음이 창고가 아니라 샘(totsot chayyim — 나가는 곳들)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지도 전체의 물길을 정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신 6:6-7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 세대 전수의 모판이 토라 안에 이미 놓여 있음.
- 잠 1:8-9 —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머리의 관·목의 금사슬이 된다는 모티프의 첫 등장 — 4:9의 관과 호응.
- 시 1:1-6 —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 두 길 그림의 시편 판본.
- 마 15:18-19·막 7:21 —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 4:23의 '마음=발원'이 신약에서 받는 메아리.
- 잠 23:26 —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 마음을 두고 오가는 부자 대화의 후속 변주.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절에서 시작한다 — 명령하는 사람이 한때 듣던 아이였다는 고백을 천천히 받아들인다.
- **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지혜에 치러 본 값을 세어 본다.
- **멈춤 2:** 17절에서 멈춘다 — 떡과 술과 잠. 내 일상의 세 기둥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들여다본다.
- **끝:** 23절에서 멈춘다 —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내 입과 눈과 발로 흘러나간 것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1절 귀 ↔ 27절 발의 인클루지오
- [x] 세 번의 부름(1·10·20절)이 꿰는 3단락 구성
- [x] 3대 전수 액자와 닫히지 않는 인용 경계
- [x] netsor 이동(13절→23절)과 상호 보호 구문(6절)
- [x] 두 길 명암 대비(18~19절)와 신체 지도(20~27절)의 호응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에서 31:30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로 이어지는 호(弧)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네 국면 —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 — 으로 움직이는데, 4장은 첫 국면의 한가운데에서 이 권 전체의 heart인 '내 아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자상함'의 출처를 보여 주는 좌표다. 그 자상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다 —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4:3). 훈계하는 목소리가 한때 들던 귀였다는 이 고백이, 잠언 전체에 흐르는 부름의 온기가 어디서 발원했는지를 밝힌다. 동시에 4:23의 마음 지키기가 입·눈·발로 퍼지는 운동은 10장 이후 대구 잠언들이 혀·시선·걸음·심장을 하나씩 다룰 신체 지도를 미리 펼쳐 놓는다. 4장은 첫 국면 안의 한 강의이면서, 권 후반 전체의 차례표를 품은 예비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받은 귀에서 내딛는 발로 / 세 겹의 방에서 두 갈래 길로 / 물려받은 훈계(leqach)에서 지켜야 할 심장(lev)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세대를 타고 내려온 말씀이 한 사람의 심장에 고였다가 입·눈·발의 보행으로 흘러 나가는 운동이다. 수직의 축(할아버지→아버지→아들)과 수평의 축(마음→입·눈·발)이 23절에서 교차한다. 다만 이 운동은 4장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 길 위의 단속은 5장의 더 구체적인 갈림길(다른 여인과 네 샘)로 곧장 이어지고, 신체 점호는 10장 이후 수백 개의 대구 잠언으로 흩어져 계속된다. 4장의 벡터는 잠언 전체를 '경외에서 경외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한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아버지의 긴 훈계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지혜가 정보인가 생명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4장의 가르침은 문서로 전달되지 않고 무릎에서 무릎으로 건너왔다 — 화자는 자기가 받은 말을 인용하되 따옴표를 달지 않음으로써, 받은 말이 자기 말이 된 시간을 통째로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생명의 거처가 23절에서 지목된다: 마음, 생명이 흘러나오는 출구. 훈계가 겨누는 과녁은 행동 목록이 아니라 발원지다 — 입과 눈과 발은 하류이고, 상류가 정리되면 하류는 따라온다는 물길의 사고가 신체 지도 아래 깔려 있다. 두 길의 명암(18~19절)도 같은 깊이에서 읽힌다 — 의인의 길이 점점 밝아지는 것은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걷는 동안 빛이 차오르기 때문이고, 악인의 어둠이 무서운 것은 어둠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인지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은 환경이 아니라 보행의 누적이 만드는 시야의 문제로 그려진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오늘 내 입과 눈과 발로 흘러나간 것들의 상류는 어디인가 —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나는 무엇을 가장 단단히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완벽한 자기 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점점의 순서를 보여 준다 — 입을 고치기 전에, 시선을 고치기 전에, 걸음을 고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한 곳을 먼저 보라고. 그리고 그 점점이 외로운 숙제가 아님을 3절이 미리 알려 둔다 — 이 길을 먼저 걸어 본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도 한때 연한 외아들이었다. 받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되는 사슬 위에 독자도 초대되어 있다 — 듣는 끝에서 걷기 시작하는 일, 그리고 언젠가 닫히지 않는 따옴표로 누군가에게 건네는 일까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길 위의 단속이 이제 가장 가까운 갈림길로 들어간다 — 지켜야 할 샘의 이야기가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5:18)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tsor* — 지키라.

미해결 질문

잠언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4절에서 시작된 할아버지의 인용은 어디서 닫히는가?

- 본문에 인용의 끝 표시가 없다. 4절에서 끝나는지 9절까지 이어지는지 — 받은 말과 전하는 말이 한 목소리로 녹아 있는 구도 자체가 질문이다. 보존.

Q2. 7절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는 어디까지의 값을 말하는가?

- *qanah*(사다·얻다)의 상거래 결로 읽으면 전 소유를 들이라는 권유처럼 들린다. 비유의 범위를 본문이 한정하지 않는다. 보존.

Q3. 16~17절의 사악한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불면은 과장법인가 묘사인가?

- 본문은 정체를 밝히지 않고 끼니와 잠이라는 생활 리듬만 보여 준다. 수사의 결인지 실태의 결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4. 19절 — 걸려 넘어지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어둠이라는 환경만 제시되고 인지 불능의 경위는 제시되지 않는다. 보존.

Q5. 23절 *totsot chayyim* — '생명의 근원'의 밑그림은 샘인가, 성읍의 출구인가?

- *totsaot*는 물이 나는 곳에도, 경계가 나가는 지점에도 쓰인다. 마음을 수원지로 볼지 성문으로 볼지 본문은 그림을 확정하지 않는다. 보존.

Q6. 어머니(3절)는 "보기에"라는 시선으로만 등장하는데, 이 짧은 언급의 무게는 무엇인가?

- 말이 아니라 바라봄으로만 기록된 한 사람. 잠 1:8의 "어미의 법"과 나란히 두면 질문이 더 커진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5장

PRO-005 · 시가서 · 히브리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nophet*)이 나중에 쭉(*laanah*)으로 쓰게 변하는 미각의 시간차로 열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5:8)는 동선의 명령과 마지막의 한탄을 미리 들려주는 화법(5:11-14)을 지나,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5:15)는 혼인의 샘 찬가에 이르고, 모든 길이 여호와와 눈 앞에 있다는 해체(5:21)와 자기 죄의 줄(5:22)로 닫히는 — 두 길 구도가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첫 본격 경고 시.

관찰된 사실

잠언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이중 동선 무대: 음녀의 집 문(8절)으로 가는 어스름한 거리 ↔ 우물과 샘이 있는 내 집 안마당(15절). 그 아래로 사지·스올로 내려가는 비탈(5절), 그 위로 여호와와 눈(21절).
- 소품(전반): 송이꿀(*nophet*), 기름, 쭉(*laanah*), 두 날 가진 칼, 발·걸음, 집 문.
- 소품(후반): 우물(*bor*), 샘(*maqor*), 흐르는 물, 도랑물, 거리, 암사슴·암노루, 품, 죄의 줄(*chavle chatto*).
- 소재 흐름: 전반은 새어 나가는 것들(꿀·존영·수한·재물·수고), 후반은 담기는 것들(우물의 물·품·줄) — 방향의 대비.
- "두렵건대"(pen) 세 겹(9·10·11절): 존영 → 재물·수고 → 몸·육체 순서로 경고의 무게가 올라감.
- 명령이 의지가 아니라 동선에 적합: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8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혀끝에서 시작하는 본문 — 3절까지 달다가 "나중은"(4절) 한 단어에서 맛이 쭉과 칼로 바뀜. 경고를 설명하지 않고 맛보게 함.
- 11~14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늙은 목소리의 한탄이 젊은 방에 미리 재생되는 서늘함 — 시간이 접히는 화법.
- 조도 설계: 어스름한 거리(1~6) — 문 앞과 먼 병상(7~14) — 햇빛의 안마당(15~20) — 모든 길이 보이는 부감(21~23).
- 경고 시의 한가운데에 긍정 명령의 찬가(마시라·복되게 하라·즐거워하라·족하게 여기라·연모하라)가 들어있음.
- 미각·촉각 주도: 꿀의 단맛, 기름의 미끄러움, 쭉의 쓴맛, 칼날, 물, 품의 온기 — 감각으로 적힌 훈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 '들음'의 요청으로 열리고 '듣지 않음'의 결말로 닫히는 틀 — 13절 한탄의 핵심도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 인칭의 이동: 시작은 2인칭 아들("네 귀"), 끝은 3인칭 악인("그는") — 듣지 않으면 수신인에서 사례로 바뀜.
- 결말 직전 21절이 먼저 놓임: 줄과 죽음이 '들켜서 받는 벌'이 아니라 '보시는 눈 앞의 자기 결박'으로 읽히게 하는 배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버지(화자), 아들(1절, 7절 복수 "아들들아", 20절), 음녀 zarah(입술·입·발·걸음·집 문으로만 등장, 이름·얼굴 없음), 젊어서 취한 아내(대사 없음), 잔인한 자·타인·외인(9~10절), 선생·가르치는 이(13절 회고), 많은 무리(14절), 여호와(21절 — 눈으로 단 한 번 등장).
- 상황: 아버지의 강화 속 세 시간 — 권면하는 현재의 방, 골목과 안마당의 가까운 미래, 병상의 먼 미래(11~14절)를 오가며 발화.
- 사상 1 — 동선의 윤리: 시험의 한복판에서 이기라가 아니라 시험이 시작되는 지점에 도착하지 말라(8절).
- 사상 2 — 방향으로서의 기쁨: 금욕이 아니라 "마시라·즐거워하라·연모하라"(15~19절).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의 처소가 관건.
- 사상 3 — 은밀함의 해체(21절)와 자기 결박(22절): 외부 형벌 이전에 죄가 스스로를 묶는 줄이 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아버지의 방과 어스름한 거리 — 꿀과 기름의 입술, 쭉과 칼의 나중, 스올로 내려가는 걸음.
- 컷 2 (7~14절): 문 앞의 거리 두기 명령 — pen 세 겹의 경고, 미래의 병상에서 미리 들려오는 한탄.
- 컷 3 (15~20절): 안마당의 빛 — 우물과 샘, 거리로 새는 물에 대한 물음, 암사슴 같은 아내와 기쁨의 명령, 20절의 대질.
- 컷 4 (21~23절): 부감 — 여호와와 눈 앞의 모든 길, 자기 죄의 줄에 매이는 악인, 훈계 없음의 죽음과 혼미.
- 컷 3 내부 교차: 명령(15) — 수사 의문(16~17) — 축복·명령(18~19) — 수사 의문(20). 16절과 20절의 "어찌하여"가 물과 마음의 샘을 한 쌍으로 묶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ophet*(נֹפֶת) — 송이꿀, 흐르는 첫 꿀. 3절. / *laanah*(לֶאֱנָה) — 쭉, 쓴 결말의 은유. 4절.
- *zarah*(זָרָה) — 낯선 여자. '음녀' 번역 아래 깔린 원어의 결은 소속의 어긋남·바깥에 있음. 3·20절.
- *sheol*(שְׁאוֹל) — 죽은 자의 처소. 5절. / *tevunah*(תְּבוּנָה) — 명철. 1절. / *musar*(מוֹסָר) — 훈계. 12·23절.
- *bor*(בּוֹר) — 우물·저수조(파서 만든 물). 15절. / *maqor*(מְקוֹר) — 샘·원천(솟는 물). 18절.
- *ayyelet ahavim*(אַיִלֶּת אַהֲבִים) — 사랑의 암사슴 / *yaalat chen*(יְעָלַת חֵן) — 은혜로운 암노루. 19절.
- *shagah*(שָׁגָה) — 취하다·비틀거리다·길을 잃다. 19절(아내의 사랑에 취하라)·20절(음녀에게 취하겠느냐)·23절(미련함으로 혼미) — 한 동사의 두 방향.
- *palas*(פָּלַס) — 가늠하다·평탄하게 하다. 6절(음녀는 생명의 길을 가늠하지 못함)·21절(여호와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심) — 한 장 안의 대칭 쌍.
- *chavle chatto*(חַבְלֵי חֲטָאוֹת) — 자기 죄의 줄. 22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4단락 구성: 서론·정체(1~6) / 거리 두기와 미래 한탄(7~14) / 우물·샘 혼인 찬가(15~20) / 여호와의 눈과 죄의 줄(21~23).
- 미각·촉각 대비: 꿀 ↔ 썩(미각), 기름 ↔ 두 날 칼(촉각) — "나중은"(acharit) 한 단어가 반전축.
- 선취된 한탄(proleptic lament, 11~14절): 아들의 미래 발화 네 문장을 아버지가 미리 작문해 들려주는 화법 — 1~9장에서 이 단락이 처음.
- palas 2회(6:21절)의 대칭: 길을 가늠하지 못하는 발 ↔ 모든 길을 가늠하시는 눈.
- shagah 3회(19:20·23절): 같은 동사가 긍정 명령 — 수사 의문 — 부정 결말로 굴절.
- 인칭 이동 틀: 2인칭 권면("네 귀", 1절)에서 3인칭 사례("그는", 22~23절)로.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지혜문헌(아니의 교훈 등)에도 '낮선 여자' 경계가 있음 — 젊은이 훈계가 고대 근동 지혜 전통의 공통 소재 — 배경.
- 건조 기후의 우물(bor)·샘(maqor)은 집안의 생존 자산이자 소유 경계가 분명한 재산 — 물 길는 권리가 곧 소속 — 배경.
- 송이꿀은 단맛의 정점, 썩은 광야의 쓴맛·독성의 대명사 — 미각 대비의 재료가 일상 감각에서 옴 — 배경.
- 암사슴·암노루는 고대 근동 연애시의 정형 이미지 — 아가서와 어휘권 공유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5 ↔ 잠 2:16-19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 — zarah 어휘의 첫 등장)
- 잠 5 ↔ 잠 6:23-29 (남의 아내 경고 — 불과 옷의 감각 논증으로 이어짐)
- 잠 5 ↔ 잠 7:6-27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사 — 5장의 경고가 한 편의 이야기로 확장)
- 잠 5 ↔ 아 4:12,15 (잠근 동산·봉한 샘·생수의 우물 — 혼인 안의 샘 어휘 공유)
- 잠 5 ↔ 말 2:14-15 (네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 — 5:18과 같은 표현, 언약으로서의 혼인)
- 잠 5 ↔ 잠 31:10-31 (현숙한 여인 — 권 끝에서 5장과 마주 보는 패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등불 켜진 방, 아버지가 아들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내 아들이야." 창밖 어스름한 거리 — 입술에서 송이꿀이 떨어지고 말소리가 기름처럼 미끄러진다. 한 박자 뒤, 혀에 남는 썩의 쓴맛과 두 날 칼의 번뜩임. 카메라가 아래로 기운다 — 발, 걸음, 스올의 비탈.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이 방향을 튼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 두렵건대 — 두렵건대. 화면이 수십 년을 건너뛴다. 병상, 쇠약한 몸, 늙은 목소리의 한탄 —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컷. 다시 젊음, 햇빛의 안마당,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워하라." 암사슴 같은 웃음, 품. 그 위로 물음 —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카메라가 수직 상승한다. 모든 길이 한 시야에 —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멀리서 누군가 제 죄의 줄에 감겨 비틀거린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꿀과 썩 사이 — 문에 가까이 가지 말고, 네 우물에서 마시라"

- 초벌 부제: "음녀의 입술이 떨어뜨리는 꿀(nophet)과 나중의 쑥(laanah) 사이에서, 동선의 명령(5:8)과 혼인의 샘 찬가(5:15-19)를 갈라 보여 주고, 여호와의 눈(5:21)과 자기 죄의 줄(5:22)로 닫히는 잠언의 첫 본격 경고 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palas 대칭 + shagah 3회 굴절 + 선취된 한탄 화법 + ANE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zarah(음녀)를 특정 인물군에 대한 정죄나 현대적 일반화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안의 익명 형상(입술·발·문)으로만 둬.
- 15~19절의 혼인 은유를 결혼 교리·순결 설교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이 내놓는 우물·샘·기쁨 명령의 그림으로 보존.
- 21절 여호와의 눈을 감시 신학이나 심판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같은 절의 "평탄하게 하시느니라"와 함께 두 절이 열린 채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5장은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5:1)라는 들음의 요청으로 열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nophet)이 나중에 쑥(laanah)과 두 날 칼로 바뀌는 미각·촉각의 시간차(5:3-4)를 보여 주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5:8)는 동선의 명령과 미리 들려주는 미래의 한탄(5:11-14)을 지나,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5:15,18)는 혼인의 샘 찬가에 이른 뒤, 모든 길이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는 부감(5:21)과 자기 죄의 줄에 매이는 악인(5:22-23)으로 닫히는 첫 본격 경고 시다.

한 문단: 등불 켜진 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몸을 기울인다. 창밖 어스름한 거리 — 입술에서 송이꿀이 떨어지고, 말소리가 기름처럼 미끄러진다. 그런데 "나중은" 쑥처럼 쓰고 두 날 칼처럼 날카롭다. 발걸음이 골목 어귀에서 방향을 튼다 — 그 집 문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 그리고 수십 년 뒤 병상의 한탄이 미리 들려온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화면이 바뀌면 햇빛의 안마당, 우물의 물, 암사슴 같은 아내, 기쁨의 명령. 카메라가 위로 빠지며 모든 길이 한 시야에 들어온다 —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멀리서 누군가 제 죄의 줄에 스스로 감긴다. 들으라는 요청으로 열린 장이 듣지 않은 이의 혼미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음녀의 문 ↔ 내 안마당의 이중 동선, 스올의 비탈과 여호와와 눈. 꿀에서 줄까지의 소품 행렬. pen 세 겹.
2 첫 느낌·분위기	혀끝에서 시작해 맛이 변하는 경험. 미리 재생되는 한탄. 어스름 — 병상 — 안마당의 빛 — 부감의 조 도 설계.
3 시작과 끝	들음의 요청(1절) ↔ 듣지 않음의 결말(23절). 2인칭 아들에서 3인칭 악인으로 — 인칭의 이동.
4 등장인물·사상	이름 없는 zarah, 대사 없는 아내, 눈으로만 등장하시는 여호와. 동선의 윤리 · 방향으로서의 기쁨 · 자기 결박.
5 장면 컷	정체(1~6)/문 앞(7~14)/안마당(15~20)/부감(21~23) 4컷. 컷 3 안의 명령—의문 교차와 "어찌하여" 한 쌍.
6 의문·발견·정보	palas 2회의 대칭(6·21절), shagah 3회의 굴절(19·20·23절), 선취된 한탄 화법, 6절 주어의 흔들림.
7 동영상	등불의 방 → 어스름한 골목 → 미래의 병상 → 안마당의 빛 → 모든 길의 부감 → 줄에 감긴 그림자, 압전.
8 초벌 제목·부제	"꿀과 쭉 사이 — 문에 가까이 가지 말고, 네 우물에서 마시라"
9 기도·내면	의지의 과신을 본다. 내 발의 경로와 시들하게 둔 우물을 펴 놓고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겹

- 결 1 — 꿀과 쭉, 시간차의 미각:** 음녀의 위험은 거짓이 아니라 시차다. 입술의 꿀은 진짜로 달다 — 본문은 단맛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은"(acharit) 한 단어로 맛의 시간표를 펼친다. 처음의 맛과 나중의 맛이 다른 것, 기름의 미끄러움이 칼날로 끝나는 것. 경고가 명제가 아니라 혀에 적혀 있어서, 읽는 이는 설득되기 전에 먼저 맛본다.
- 결 2 — 동선의 윤리:**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5:8)는 의지의 승리를 전제하지 않는다. 문 앞에서 이기는 그림 대신 그 골목을 지나지 않는 지도를 준다. 11~14절의 선취된 한탄도 같은 장치다 — 후회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시간 구조를 알기에, 경고는 감정이 아니라 경로 설계로 내려온다. 그리고 21절이 이 동선 전체 위에 눈을 연다. 숨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남는 것은 어느 길을 걷느냐뿐이다.
- 결 3 — shagah의 두 방향:** '취하다·연모하다·길을 잃다'를 오가는 한 동사가 19절에서는 명령이고("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절에서는 물음이며("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23절에서는 결말이다("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본문은 취함 자체를 없애라 하지 않고 취함의 처소를 묻는다. 5장이 금욕의 시가 아니라 방향의 시라는 사실이 이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2:16-19 — zarah 어휘의 첫 등장. 지혜가 음녀에게서 건져 낸다는 예고가 5장에서 본격 전개됨.
- 잠 6:23-29 / 7:6-27 — 같은 주제의 두 번째·세 번째 물결. 7장은 5장의 경고를 창문 아래 한 편의 서사로 확장.
- 아 4:12,15 — "잠근 동산 ... 봉한 샘 ... 생수의 우물" — 혼인 안의 샘 어휘를 아가서와 공유.
- 말 2:14-15 — "네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 — 5:18과 같은 표현. 혼인이 언약의 언어로 불림.

- 잠 31:10-31 — 현숙한 여인. 권의 첫머리에서 경계된 zarah와 권의 끝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마주 보는 두 패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절에서 시작한다 — 꿀이 떨어지는 입술. 달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본문 앞에서 솔직해진다.
- 멈춤 1: 8절에서 멈춘다 —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가 굳이 지나는 골목이 어디인지 센다.
- 멈춤 2: 12~13절에서 멈춘다 — 미리 들려온 한탄. 이 목소리가 내 미래의 녹음이 아니기를.
- 끝: 18절에서 멈춘다 —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멀리하라는 말보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안다.

F · 자족성 점검

- [x] 들음(1절) ↔ 듣지 않음(23절)의 틀 완결
- [x] 꿀·기름 ↔ 쭉·칼의 감각 대비 축
- [x] 동선 명령(8절)과 선취된 한탄(11~14절)의 호응
- [x] 우물·샘 찬가(15~19절)와 20절 대질의 연결
- [x] palas 대칭(6·21절)과 죄의 줄(22절) 결말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에서 31:30("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로 가는 호다. 권의 흐름은 1~9장의 지혜의 부름과 두 길, 10~29장의 일상 대구 잠언, 30장 아굴의 관찰, 31장 현숙한 여인으로 움직이는데, 5장은 첫 단원 한가운데서 두 길 구도가 처음으로 관계의 영역 — 혼인 — 에 들어오는 국면이다. 1~4장이 길·동무·마음의 일반 어휘로 두 길을 그렸다면, 5장은 그 갈림을 한 남자의 발걸음과 식탁과 안방으로 데려온다. zarah의 길과 혼인의 샘이라는 두 물줄기는 6장·7장에서 두 번 더 굽이 치고, 9장에서 지혜 부인과 미련한 여인의 두 잔칫상으로 정리되며, 권의 맨 끝 31장의 현숙한 여인에서 응답 패널을 만난다. '내 아들아'를 부르는 아버지의 자상함(이 권의 heart)이 5장에서는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동선의 설계와 기쁨의 명령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21절에서 권 전체의 뿌리인 '여호와 앞'이 모든 길의 전제로 한 번 떠오른다는 점이 이 장의 좌표를 정해 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낮선 입술의 꿀에서 내 우물의 물로 / 의지의 다짐에서 발의 동선으로 / 숨은 길이라는 전제에서 여호와와의 눈 앞의 길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나중'을 미리 맛보게 하여 지금의 발걸음을 돌리는 운동이다. 꿀의 시간과 쭉의 시간 사이, 경고의 너무 이름과 후회의 너무 늦음 사이에서 본문은 감각과 화법을 총동원해 시차를 접는다 — 미래의 한탄을 현재의 귀에 재생하고(5:11-14), 쓴 끝을 단 처음 옆에 나란히 놓는다(5:3-4). 그리고 이 운동은 부정에서 멈추지 않는다. 물길을 막는 게 아니라 제 수로로 돌리는 것 — "마시라"(5:15)가 이 장의 진행 방향이며, 그 방향의 끝에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기다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외도를 막는 처세 훈계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기쁨이 어디에 담길 때 생명이 되는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본문은 욕망을 정죄하지 않는다 — 같은 물, 같은 취함(shagah)을 두고 담길 그릇만 가른다. 거리로 새면 죽음이고 제 샘에 담기면 복이다. 그래서 5장의 깊은 물길은 금지가 아니라 회복이다 — 이미 주어진 우물을 새 물처럼 마시는 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다시 즐거워하는 일. 그리고 그 아래 더 깊은 층에 21절이 있다. 모든 길이 여호와와 눈 앞에 있다는 문장은 은밀한 죄의 전제를 허무는 동시에, 같은 절 안에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로 이어진다. 보시는 분이 고르시는 분이라는 것 — 감시처럼 들리는 문장의 속에 돌봄의 결이 겹쳐 있고, 22절의 줄은 그 눈이 내리친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 감은 결박으로 적혀 있다. 심판자가 묵기 전에 죄가 먼저 묵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굳이 지나는 골목은 어디인가 — 그리고 이미 네 것인 우물을,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새 물처럼 마셨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유혹이 없는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꿀이 달다는 것을 본문이 먼저 인정한다. 다만 두 가지를 곁에 둔다. 하나는 지도다. 의지를 시험하는 대신 경로를 바꾸는 일, 문 앞이 아니라 골목 어귀에서 도는 일. 다른 하나는 식탁이다. 멀리하라는 명령보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먼저 무겁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5장은 제 샘의 물맛을 회복하는 데서 경계가 시작된다고 속삭인다. 미리 들려온 한탄(5:11-14)이 내 미래의 녹음이 될지, 안마당의 빛(5:18-19)이 내 현재의 풍경이 될지 — 그 갈림 앞에 독자를 세워 두는 것이 이 장의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관계의 경고가 이제 일상의 부지런함으로 넓어진다 —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6:6).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gah* — 취하다, 어디에 취할 것인가.

미해결 질문

잠언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zarah(낯선 여자)는 누구인가 — 실제 타인의 아내인가, 낯선 가르침의 의인화인가, 둘 다인가?

- 본문은 이름도 얼굴도 주지 않고 입술·발·문으로만 그린다. 2장·7장의 같은 어휘와 9장의 미련한 여인까지 겹쳐 읽을 때 형상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미해결. 보존.

Q2. 6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lo teda)의 주어는 누구인가?

-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함을 그 여자가 모르는가, 그 길을 보는 아들이 모르는가 — 동사 형태가 두 독법을 모두 허용한다. 본문은 정해 주지 않는다. 보존.

Q3.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는 어떤 장면을 가리키는가?

- 회중(qahal·edah) 앞의 공적 수치를 암시하는 듯하나, 재판인지 공동체적 망신인지 구체 정황은 적혀 있지 않다. 보존.

Q4. 16~17절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고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는 그림의 속은 무엇인가?

- 자녀인가, 부부의 친밀인가, 재산과 수고인가 — 은유의 내용을 본문이 풀지 않는다. 9~10절의 재물 어휘와 이어 읽을 때 결이 달라진다. 보존.

Q5. shagah 한 동사가 19절의 명령과 20·23절의 경고에 같이 쓰인 것은 어디까지 의도된 언어유희인가?

- 취함의 방향을 단어 차원에서 가르는 장치로 보이나, 시인의 의도 확정은 어렵다. 보존.

Q6. 21절 여호와와 눈은 감시인가 돌봄인가 —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palas)와 어떻게 한 절에 묶이는가?

- 같은 절 안에서 봄(보시는 눈)과 고르심(평탄하게 하심)이 나란히 적혀 있다. 두 결의 관계는 미해결. 보존.
-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잠언 6장

PRO-006 · 시가서 · 히브리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6:2)의 보증, 감독자 없이 여름을 예비하는 개미, 온몸으로 말하는 불량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예닐곱 가지의 신체 목록, 그리고 품에 품은 불의 물리(6:27)까지 — 말 한 마디·잠 한 숨·눈짓 하나·떡 한 조각의 작은 시작이 결박이 되는 같은 법칙을 네 갈래로 확인하며, 지혜를 경제·노동·거리·혼인의 일상 격자로 내려놓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회랑 무대: 아버지의 음성은 한 곳, 장면은 다섯 번 이동 — 계약의 현장(1~5) → 여름 들판(6~11) → 거리(12~15) → 여호와 앞의 목록(16~19) → 등불의 집과 남의 집(20~35).
- 소품(손 계열): 마주친 손바닥(1절), 이웃의 손(3절), 사냥꾼의 손(5절), 모으고 놓는 손(10절), 피 흘리는 손(17절).
- 소품(작은 것들): 떡 한 조각(26절), 품속의 불(27절), 발밑 숯불(28절), 목에 매는 명령(21절), 등불과 빛(23절).
- 동물 셋: 노루·새(탈출 비유, 5절), 개미(모범, 6~8절). 그물·사냥 모티프가 5절과 26절 양끝에서 반복.
- 썸의 골재: 노루·새 둘 /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셋의 부정 / "좀더" 셋 / 예닐곱(여섯+일곱) / 도둑의 칠배.
- 소재: 담보·보증·입의 말·얽힘, 줄음과 눈꺼풀, 여름 양식과 추수, 구부러진 말·눈짓·발·손가락, 패역과 다툼, 아버지의 명령·어미의 법, 책망과 생명의 길, 투기와 원수 갚는 날, 선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5절의 다급함 — "곧 가서...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는 어조. 비유까지 전부 탈출 장면.
- 10절 — 화자가 게으른 자의 음성을 흉내 내는 삼중구("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직후 강도·군사의 들이닥침(11절).
- 여섯 말투의 변속: 긴급 지시(1~5) — 풍자 야유(6~11) — 거리 관찰(12~15) — 목록 낭독(16~19) — 따뜻한 당부(20~23) — 차가운 경고(24~35).
- 16절에서 장 유일의 수직 개방 —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앞 열다섯 절의 수평 세계가 한 번 꺾임.
- 27~28절의 피부 감각 — 옷섬의 열기, 발바닥의 숯불. 추상이 아닌 몸의 경고.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 가정문으로 개시.
-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 전면 부정으로 종결.

- 출구의 경사: 시작의 곤경에는 출구 셋(가서·간구하여·벗어나라), 끝의 곤경에는 닫히는 문 셋(용서하지 않고·보상 받지 않고·듣지 않음).
- 호칭 이동: "내 아들이"(아버지의 부름)에서 '그 남편'(타인의 거절)으로. 2절과 35절 모두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상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버지(화자), 아들, 이웃·타인, 사냥꾼·그물 치는 자(비유), 개미, 두령·감독자·통치자(부재 3직), 게으른 자(atsel), 빈궁·곤핍(의인화), 불량하고 악한 자(adam belial), 여호와(16절), 명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아비와 어미, 악한 여인·음녀·음란한 여인, 도둑, 그 남편.
- 대사를 가진 인물은 게으른 자 하나뿐 — 그것도 화자가 흉내 낸 인용("좀더 자자").
- 네 단락의 인과 시제: 보증=이미(잡혔다) / 게으름=다가옴(오며·이르리라) / 불량=돌연(갑자기 임한즉) / 간음=확정(면하지 못하리라).
- 16절 toevah — 조문 위반이 아니라 호오의 언어.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인격 반응으로 표현된 목록.
- 22절 — 명령의 의인화: 다닐 때 인도, 잘 때 보호, 깰 때 대화. 4절(잠들지 말라)과 22절(잘 때 보호)이 잠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봄.
- 21절 — 매는 동작의 두 얼굴: 1절의 보증은 옳아매는 얽힘, 21절의 명령은 지키는 장신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보증의 올무 — 손바닥 계약, 입의 말로 잡힘, 노루·새의 탈출 지시.
- 컷 2 (6~11절): 개미와 침상 — 감독 없는 여름의 예비 ↔ "좀더" 삼중구, 강도 같은 빈궁.
- 컷 3 (12~15절): 거리의 신호들 — 구부러진 말·눈짓·발·손가락·패역의 마음, 갑작스러운 패망.
- 컷 4 (16~19절): 일곱 목록 — 눈·혀·손·마음·발·증인·이간하는 자.
- 컷 5 (20~23절): 등불의 집 — 명령을 목에 매고 다님·잠·깨를 동행하는 생명의 길.
- 컷 6 (24~35절): 불과 떡 — 호리는 말, 떡 한 조각, 품속의 불, 도둑의 칠 배, 풀리지 않는 투기.
- 경첩 관찰: 컷 3(거리의 몸)과 컷 4(미움의 목록)가 같은 신체 지도를 두 번 그리며, 둘 다 '다툼/이간'으로 종결(14절↔19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rav(ארב) — 보증하다, '섞이다·교환하다' 결의 어근. 1절. / taqa kaff(תקע כף) — 손바닥을 침, 계약 동작. 1절.
- nemalah(נמלה) — 개미. 6절. / atsel(אצל) — 게으른 자, 잠언 특유의 인물형. 6·9절.
- shenah(שנה) — 잠. 4·10절. / belial(בליעל) — 무익·불량, adam belial = '무익의 사람'. 12절.
- toevah(תועבה) — 가증한 것·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16절. 잠언에서 거듭 재등장(11:1; 12:22; 15:8 등).
- shesh... sheva(שש... שבע) — 여섯... 일곱. x, x+1 점층 셈. 16절.
- ner / or(נר / אור) — 등불 / 빛. 23절. 시 119:105와 같은 은유 계열.
- esh(אש) — 불. 27절. / gechalim(גחלים) — 숯불. 28절. / qinah(קנאה) — 투기. 34절(아가 8:6과 동일 단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숫자 잠언(x, x+1): "예닐곱 가지" — 여섯이라 세고 일곱을 더하는 점층. 잠 30장 정형의 첫 등장. 목록의 열린 끝 + 마지막 항의 절정성.
- 일곱 목록의 궤적: 눈→혀→손→마음→발(신체 기관) → 거짓 증인(입의 사회적 사용) → 이간하는 자(사람 전체·공동체 피해). 몸에서 공동체로 확대.
- 이중 신체 지도: 12~15절(불량한 자: 입·눈·발·손가락·마음)과 16~19절(미움 목록: 눈·혀·손·마음·발) — 같은 기관 목록의 2회 반복, 둘 다 다툼/이간으로 종결.
- 4:23~27과의 역상: 4장의 긍정 신체 지도(마음을 지키라·입을 버리라·눈을 바로·발을 평탄하게)가 6:16~19에서 음화로 뒤집힘.
- '좀더' 삼중 인용(10절) + 의인화된 빈궁·곤핍(11절) — 잠 24:33~34와 거의 동일한 쌍.
- 수사 의문 2연(27~28 불·숫불) → 적용(29 남의 아내) — 비유에서 판정으로 넘어가는 논증.
- 가벼운 사례→무거운 사례 논증(30~31 도둑 → 32~35 간음): 도둑은 배상이라는 출구가 있으나 간음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 호격의 골조: "내 아들이" 3회(1·3·20절), "계으른 자여" 2회(6·9절), "스스로 구원하라" 2회(3·5절).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고대 근동 채무법 — 보증인은 채무 불이행 시 재산과 몸으로 책임, 채무 노예의 길이 제도화되어 있었음 — 배경.
- 손바닥을 치는 동작(taqa kaf) — 계약 성립의 공적 제스처 — 배경.
- 동물 교훈 형식 — 아히카르 잠언 등 고대 근동 지혜 문헌에 널리 분포 — 배경.
- x, x+1 점층 숫자 격언 — 우가리트 문헌에도 나타나는 정형 — 배경.
- 도둑의 '칠 배' — 출 22:1~4의 네다섯 배 배상을 넘는 수치, 완전 배상의 수사로 보는 견해 — 배경.
- LXX의 확장 — 6:8a-c 꿀벌 단락, 6:11a 부지런함의 추수 절 — MT에 없는 본문,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6:1-5 ↔ 잠 11:15; 17:18; 22:26-27 (보증 경계의 재등장)
- 잠 6:10-11 ↔ 잠 24:33-34 ('좀더' 삼중구와 강도 같은 빈궁 — 거의 동일한 쌍)
- 잠 6:16-19 ↔ 잠 30:15-33 (x, x+1 숫자 잠언 형식)
- 잠 6:16-19 ↔ 잠 4:23-27 (신체 지도의 음화·양화)
- 잠 6:20-22 ↔ 신 6:6-9 (마음에 새기고 매라 — 쉼마 계열의 결)
- 잠 6:30-31 ↔ 출 22:1-4 (도둑 배상 규정)
- 잠 6:24-35 ↔ 잠 5장; 7장 (음녀 경계 삼부작의 가운데 패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밤, 등불 아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본다 — 낮에 이웃과 마주쳤던 손바닥. "네 입의 말로 네가 얹혔으며." 새벽 — 사냥꾼의 손을 빠져나가는 노루, 그물을 차고 오르는 새. 여름 들판 — 개미의 행렬, 감독하는 이가 없는데 줄이 끊기지 않는다. 어두운 방 — "좀더 자자, 좀더 줄자." 문밖에 강도의 그림자, 군사의 발소리. 거리 — 눈짓, 발끝의 신호,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갑작스러운 파국. 하늘이 열리듯 목록이 낭독된다 — 눈, 혀, 손, 마음, 발, 증인, 이간하는 자. 다시 등불의 집 — 목에 맨 명령이 길에서 앞서가고 침상 곁을 지키고 아침에 말

을 건다. 마지막 — 품속의 불씨가 옷섭을 태우고, 숯불 위에 맨발, 원수 갇는 날의 얼굴. 문 앞에서 선물 꾸러미가 되돌아간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작은 시작, 큰 결박 — 보증·개미·일곱 목록·품속의 불"
- 초벌 부제: "말로 맺은 보증의 얽힘에서 노루같이 벗어나라는 긴급, 감독자 없는 개미의 여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예닐곱의 신체 목록, 그리고 품에 품은 불의 물리까지 — 작은 시작이 결박이 되는 네 갈래 경고"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숫자 잠언 형식 + 이중 신체 지도 + 4장 역상 + ANE 보증 제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6:16-19의 일곱 목록을 '대죄 목록' 같은 교리 체계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셈법과 신체 궤적 관찰로만 둬.
- 6:1-5의 보증 경고를 '보증 전면 금지'라는 윤리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빠져나오라'의 긴급만 기록.
- 6:24-35의 간음 경고를 정죄 설교로 일반화하지 않고, 불·도둑·투기의 비유 논증 구조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6장은 말로 맺은 보증의 얽힘에서 노루같이 벗어나라는 긴급 구조 지시(1~5절)로 열고, 감독자 없이 여름을 예비하는 개미와 "좀더"를 읊조리는 침상의 대비(6~11절), 온몸으로 거짓을 말하는 불량한 자의 돌연한 패망(12~15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예닐곱 가지의 신체 목록(16~19절)을 지나, 등불 같은 부모의 명령(20~23절)을 따처럼 두른 뒤, 품에 품은 불의 물리와 도둑·간음의 비교 논증(24~35절)으로 닫히는 — 네 갈래 경고가 '작은 시작이 결박이 된다'는 한 법칙을 공유하는 장이다.

한 문단: 등불 아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 낮에 이웃과 마주쳤던 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노루처럼, 새처럼 오늘 밤 안에 빠져나오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화면이 여름 들판으로 — 감독하는 이 없이 줄이 끊기지 않는 개미의 행렬, 그리고 "좀더 자자"를 읊조리는 어두운 방에 강도 같은 빈궁이 다가온다. 거리에서는 한 사람이 눈짓과 발끝과 손가락으로 말하고, 하늘이 열리듯 일곱 목록이 낭독된다 — 눈, 혀, 손, 마음, 발, 증인, 이간하는 자. 다시 등불의 집 — 목에 맨 명령이 다닐 때 앞서가고 잘 때 곁을 지키고 깰 때

말을 건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 — 불을 품고서 옷이 타지 않을 사람은 없다. 문 앞에서 선물 꾸러미가 되돌아가며 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다섯 장면을 도는 회랑 무대. 손의 반복(계약·탈출·게으름·피). 노루·새·개미 동물 셋. 단마다 깔린 켄.
2 첫 느낌·분위기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는 다급함. "좀더" 자장이 직후의 강도·군사. 여섯 말투의 변속. 16절의 수직 개방. 옷섬의 열기.
3 시작과 끝	가정문(1절)에서 전면 부정(35절)으로. 출구 셋에서 닫히는 문 셋으로 — 풀 수 있는 올무에서 풀 수 없는 올무로의 경사.
4 등장인물·사상	대사 있는 인물은 흉내 낸 게으른 자뿐. 네 단락의 인과 시제(이미·다가옴·돌연·확정). toevah — 호오의 언어. 명령의 의인화(22절).
5 장면 컷	보증/개미와 침상/거리의 신호/일곱 목록/등불의 집/불과 떡 — 6컷. 컷 3·4가 같은 신체 지도를 두 번 그리는 경첩.
6 의문·발견·정보	x, x+1 숫자 잠언의 첫 등장. 4:23-27과의 역상. 도둑 문장의 두 절. 떡 한 조각의 번역 갈래. LXX 꿀벌 추가. ANE 보증 제도.
7 동영상	등불 아래의 손 → 노루의 탈출 → 개미의 행렬 → 침상의 그림자 → 거리의 신호 → 일곱 목록 → 등불의 동행 → 품속의 불, 되돌아가는 선물.
8 초벌 제목·부제	"작은 시작, 큰 결박 — 보증·개미·일곱 목록·품속의 불"
9 기도·내면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어디서 누구를 묶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 노루의 다급함만 배워서 아된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법칙, 네 갈래:** 보증은 말 한 마디로, 빈궁은 "좀더" 한 잠으로, 패망은 눈짓 하나로, 간음은 떡 한 조각으로 시작된다. 네 단락이 표면에서는 다른 주제인데 수면 아래에서는 같은 물리 — 작은 것이 사람을 묶는다 — 를 네 번 확인한다. 27절의 불이 그 법칙의 가장 선명한 그림이다: 품은 만큼 탄다.
- 결 2 — 두 개의 신체 지도:** 12~15절의 불량한 자(입·눈·발·손가락·마음)와 16~19절의 미움 목록(눈·혀·손·마음·발)이 같은 기관 지도를 두 번 그리고, 둘 다 다툼/이간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 지도는 4:23~27의 긍정 지도(마음을 지키라·입을 버리라·눈을 바로·발을 평탄하게)의 음화다 — 같은 몸이 생명의 길로도, 미움의 목록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두 장이 마주 보며 보여 준다.
- 결 3 — 출구의 경사:** 보증에는 출구가 셋 있고(가서·간구하여·벗어나라), 게으름에는 깨어남이 남아 있고, 불량한 자에게는 경고가 남아 있으나, 간음에서는 문이 하나씩 닫힌다 — 용서하지 아니하고,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리라. 장 전체가 '풀 수 있는 올무'에서 '풀 수 없는 올무'로 내려가는 경사이고, 그 경사가 35절의 닫힌 귀에서 바닥에 닿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24:30-34 —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삼중구와 강도 같은 빈궁이 거의 같은 문구로 재등장.
- 잠 30:15-33 — 예닐곱 켄법(x, x+1)이 본격 전개되는 숫자 잠언의 본진.
- 잠 4:23-27 — 마음·입·눈·발의 긍정 신체 지도, 6:16-19의 양화.

- 신 6:6-9 — "마음에 새기며... 매라" — 부모의 명령을 몸에 두르는 쉼마 계열의 결.
- 출 22:1-4 — 도둑 배상 규정. 6:31의 '칠 배'가 그 위에서 읽히는 수치.
- 잠 5장; 7장 — 음녀 경계 삼부작. 6:24-35는 그 가운데 패널이며 7장의 목격담으로 이어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절에서 시작한다 — 내 입에서 나간 말 중에 지금 누군가를, 혹은 나를 묶고 있는 말을 천천히 떠올린다.
- 멈춤 1: 6절에서 멈춘다 —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 감독자가 없을 때의 나를 본다.
- 멈춤 2: 10절에서 멈춘다 — "좀더"라는 세 마디가 내 목소리로 들리는지 듣는다.
- 멈춤 3: 22절에서 멈춘다 — 다닐 때·잘 때·깎 때, 하루의 세 국면에 동행이 있다는 문장을 천천히 읽는다.
- 끝: 27절에서 멈춘다 — 품고 있는 불이 있는지, 옷습이 아직 멀쩡하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가정문(1절)↔전면 부정(35절)의 개시·종결 구도
- [x] 여섯 단락 구획과 단마다 깔린 쉼의 골재
- [x] 이중 신체 지도(12-15↔16-19)와 4장 역상의 호응
- [x] '좀더' 삼중구와 의인화된 빈궁의 쌍
- [x] 불 수사 의문 → 도둑 비교 → 간음 판정의 논증 사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에서 31:30("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로 가는 호다.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6장은 그 첫 국면의 한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한다 — 지혜를 경제(보충)·노동(게으름)·공동체(이간)·혼인(간음)의 일상 격자로 끌어내려, 10~29장이 수백 개의 대구로 다룰 주제 지도를 미리 그려 주는 견본이 된다. 그리고 6:16~19의 일곱 목록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쉼으로 보여 줌으로써 경외(1:7)의 음화를 제공한다 — 경외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대신, 경외가 무엇을 멀리하는지로 그 윤곽을 그리는 좌표다. '내 아들이'를 세 번 부르는 아버지의 자상함이 이 모든 경고의 어조를 받치고 있다는 점에서, 6장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에서 전수되는 지혜라는 잠언의 결을 그대로 보여 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 한 마디의 얽힘에서 일상 전체의 격자로 / 풀 수 있는 울무에서 풀 수 없는 울무로 / 흩어진 네 경고에서 '작은 시작이 결박이 된다'는 한 법칙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혼계의 책망에서 생명의 길로'(6:23)라는 운동을 경제·노동·거리·침실의 키 높이에서 수행한다. 지혜가 위로 오르지 않고 아래로 내려온다 — 개미집, 침상, 골목, 부엌의 떡, 옷습의 높이까지. 16절에서 딱 한 번 하늘이 열렸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하강은, 10장부터 펼쳐질 대구 잠언의 세계 — 저울과 밭과 혀와 문설주의 세계 — 를 향한 예고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보증·게으름·불량·간음이라는 네 가지 처세 경고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결박과 동행'이라는 한 쌍이 움직인다. 사람을 묶는 것이 둘 나온다 — 1절의 보증(움아매는 얹힘)과 21절의 명령(목에 매는 장신구). 같은 동작인데 하나는 사람을 잡고 하나는 사람을 지킨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메인 명령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 다닐 때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하고, 깰 때 말을 건다. 4절에서는 매듭이 남은 사람에게 잠이 금지되었는데, 22절에서는 명령을 두른 사람에게 잠이 지켜진다. 무엇에 묶여 있는가가 잠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 — 이것이 네 경고 아래를 흐르는 깊은 물길이다. 일곱 목록이 '미움'이라는 호오의 언어로 적힌 것도 같은 결이다: 이 장의 관심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과 매여 살며 그 매임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가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감독자가 없을 때의 나는 개미인가, "좀더"를 읊조리는 사람인가 — 그리고 지금 품에 안고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는 불은 없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완벽한 부지런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개미의 행렬과 침상의 독백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 화면에 자신이 보이는지 알아차리게 한다. 그리고 27절의 수사 의문은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 불을 품고 옷이 타지 않겠느냐는 물음은 듣는 사람의 옷걸에서 스스로 태워진다. 매듭이 있다면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는 1~5절의 다급함, 명령을 목에 매면 잘 때에도 지켜진다는 22절의 약속 — 그 사이 어딘가에 선 독자를 이 장은 부른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네 갈래 경고 중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한 편의 목격담으로 확장된다 — 창틈으로, 어리석은 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저녁을 본다(7:6 이하).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malah* — 개미, 감독자 없는 근면.

미해결 질문

잠언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6:1-5의 경고는 보증 자체를 향하는가, 이미 맺은 보증의 처리를 향하는가?

- 본문은 '하지 말라'보다 '빠져나오라'에 집중한다. 잠 11:15; 17:18; 22:26-27의 경계와 어떤 간격에 있는지 — 보존.

Q2. "예닐곱 가지"(6:16)의 셈법은 왜 한 칸을 비워 두는가?

- 여섯이라 세고 일곱을 더하는 $x, x+1$ 형식 — 목록의 미완결성인지, 일곱째의 강조인지, 정형의 관습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3. 일곱째 항목만 신체 기관이 아니라 '사람 전체'(이간하는 자)인 것은 합산인가, 절정인가?

- 눈·혀·손·마음·발의 궤적이 한 인격으로 모이는 것인지, 공동체 파괴라는 별도 향인지 — 미해결로 보존.

Q4. 30-31절의 도둑 — 명시하지 않는다면 칠 배를 갚게 하는 두 절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 동정과 배상이 한 문장에 있다. '칠 배'가 출 22장의 규정을 넘는 수치라는 점까지 포함해 — 보존.

Q5. 6:26 "한 조각 떡"은 누구의 값인가?

- 사람이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는 번역과, 음녀의 값이 떡 한 조각이라는 번역 갈래가 있다. 어느 쪽이든 최소 단위와 "귀한 생명"이 저울 양쪽에 놓인다. 번역 차 문제로 보존.

Q6. 개미에게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6:7)는 삼중 부정은 무엇을 겨누는가?

- 감독 없는 자발성의 칭찬이 왕정 시대 지혜 문헌 안에서 갖는 결 — 본문은 대비만 보여 주고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7장

PRO-007 · 시가서 · 히브리어

계명을 "네 눈동자(ishon)처럼 지키라"(7:2)는 당부 뒤에서, 들창과 살창으로 내다보던 관찰자가 저물·황혼·밤·흑암의 네 단을 지나 "밤의 눈동자(ishon layla)"(7:9)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젊은이를 목격하는 — 1~9장에서 가장 긴 단일 이야기이자, 화목제의 언어로 열려 스올의 길에서 닫히는 거짓 초대와 해부도.

관찰된 사실

잠언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이중 무대: 들창·살창(eshnav) 안쪽의 고정된 시선(6절)과 거리·골목 모퉁이·그 여인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8·12절). 1~9장에서 유일한 목격의 무대.
- 조명의 4단 점층(9절): 저물 때 → 황혼(neshef) → 깊은 밤(ishon layla) → 흑암(afelah).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빛이 단계적으로 꺼짐.
- 소품(당부): 손가락에 매는 끈, 마음판(3절) — 가르침을 몸에 두르는 도구.
- 소품(유혹의 무대): 기생의 옷(10절),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etun mitsrayim, 16절), 몰약·침향·계피(17절), 은 주머니와 보름(20절).
- 소품(결말): 소와 도수장(tevach), 차꼬, 화살과 간, 새와 그물(22~23절), 스올의 길과 사망의 방들(27절) — 향료의 무대가 도살·포획의 도구로 뒤집힘.
- 세 층 액자: 당부(1~5)와 결론(24~27)이 목격담(6~23)을 감싸고, 목격담이 그 여인의 발화(14~20)를 감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숨죽인 창 안과 떠드는 거리의 대비 — 관찰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소리를 내지 않음.
- 말의 지도가 한쪽으로 쏠림: 그 여인 7절 발화, 젊은이 0절. 침묵하는 자가 끌려가고 말하는 자가 끌고 감.
- 13절 — 말보다 손이 먼저: "붙잡고 입을 맞추며." 동의를 묻는 단계가 생략된 접근.
- 유혹의 첫 문장이 종교 언어(14절 화목제·서원) — 경건의 어휘가 초대의 손잡이로 쓰이는 순서.
- 4~5절이 결말의 갈림을 미리 알려 준 뒤 답이 없는 한 사람의 길을 끝까지 보여 줌 — 알면서 보는 무서움.
- 26절의 chalalim(칼에 얹드러진 자들) — 침실의 이야기가 전장의 어휘로 닫힘.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 지킴(shamar)의 명령에서 하강의 묘사로. 2절 "지켜 살며"의 '살라'로 열려 27절 '사망'으로 닫히는 양 끝.
- 호명의 확장: 1절 "내 아들이"(단수) → 24절 "이제 아들들아"(복수). 한 사람의 목격담이 모두의 경고로 넓어짐.

- 27절의 역설: 집이 길로 정의됨 —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려가는 통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버지(화자·목격자), 아들(1~5·24~27절 청자), 젊은이(chasar lev — 무언의 주인공), 그 여인(기생의 옷·간교한 마음·머물지 않는 발), 남편(그 여인의 말 속에서만 언급, 19~20절), 직유 속 소·새, 최종 배경으로서의 스올.
- 발화 분량: 그 여인 7절(14~20절) 對 젊은이 0절 — 사건의 주인공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유일한 설계.
- 중심 사상: 4~5절 — 지혜를 "내 누이(achoti)·내 친족(modā)"이라 부르는 관계가 호리는 말에서 지킨다는 것. 유혹에 맞서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먼저 맺어 둔 호칭.
- 14~20절 설득의 다섯 단: 종교(화목제·서원) → 특별함("너를 찾다가") → 감각(이불·향료) → 청유("아침까지") → 안전 보장(남편·먼 길·보름). 거짓말로 단정할 문장 없이 사실의 배열만으로 닦이는 길.
- '발'의 클로즈업: 머물지 않는 발(11절)과 다가가는 발(8절)이 골목 모퉁이에서 만남.
- zarah·nokhriyah(5절) — '낯선·바깥의'라는 결의 두 어휘, 2:16·5:3·6:24와 같은 짝. achoti(안쪽 호칭)와 대를 이룸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당부 — 눈동자처럼 지키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라.
- 컷 2 (6~9절): 창가 — 들창·살창의 시선, chasar lev의 등장, 골목 모퉁이, 저물→황혼→밤→흑암.
- 컷 3 (10~13절): 등장 — 기생의 옷, 떠들며 완악하며, 거리·광장·모퉁이마다, 붙잡고 입을 맞춘.
- 컷 4 (14~20절): 발화 — 화목제·서원, 너를 만났도다, 이불과 향료, 아침까지의 청유, 보름의 썸.
- 컷 5 (21~23절): 추락 — 고운 말, 곧 따랐으니, 소·차꼬·화살·새의 직유 연쇄, "알지 못함."
- 컷 6 (24~27절): 결론 — 아들들이 들으라, 치우치지 말라, 죽은 자가 허다함, 집이 스올의 길.
- 컷 5 내부: 네 직유의 공통항은 도살이 아니라 무지("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 — 9절의 바깥 흑암이 속사람의 상태로 번역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ishon*(יִשׁוֹן) — 눈동자. ish(사람)의 지소형 계열. 2절 "네 눈동자처럼" / 9절 *be'ishon layla* "밤의 눈동자에"(깊은 밤) — 한 장 안의 두 용례.
- *achoti*(אָחוֹתִי) — 내 누이. 4절. 아가 4:9-10의 "내 누이 내 신부"와 같은 단어 — 어휘의 닿음만 보존. / *moda*(מֹדָע) — 친족. yada(알다) 계열.
- *chasar lev*(כַּסָּר לֵב) — 마음 모자란 자, 지혜 없는 자. 7절.
- *neshef*(נֶשֶׁף) — 황혼 / *afelah*(אֶפֶלָה) — 짙은 흑암. 9절의 시간 4단.
- *zivchei shelamim*(זִבְחֵי שְׁלָמִים) — 화목제. shalom 동계 어근. 14절.
- *etun mitsrayim* — 애굽의 아마포(16절). / *mor*(מֹר) — 몰약(17절). / *kese*(כֶּסֶד) — 보름(20절).
- *tevach*(תֵּבַח) — 도살·도수장(22절). / *chets*(חֵץ) — 화살, *kaved*(כָּבֵד) — 간, *pach*(פָּח) — 그물(23절).
- *chalalim*(חָלָלִים) — 칼에 엎드려진 자들(26절). / *chadrei mavet*(חַדְרֵי מָוֶת) — 사망의 방들, 복수형(27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세 층 액자: 당부(1~5) + 목격담(6~23) + 결론(24~27), 목격담 안에 발화 인용(14~20).

- bayit(집)의 다섯 변화: 향하는 집(8) — 비워 두는 집(11) — 떠난 집(19) — 돌아올 집(20) — 길이 된 집(27). 8절과 27절의 수미.
- ishon의 짝(2절·9절): 지킴의 눈동자와 밤의 눈동자 — 한 단어가 두 길을 모두 가리킴.
- 시간 4단 점층(9절)과 보름(20절)의 달력: 그믐 쪽 칠혹에 나와 보름의 귀가를 안전의 근거로 대는 셈.
- 직유 연쇄(22~23절): 소 — 차꼬 — 화살 — 새. 첫째·넷째는 짐승, 가운데는 형벌·무기. 풀이는 "알지 못함"(23절).
- 1절 단수 호명 → 24절 복수 호명의 확장. 26절 전장 어휘(chalalim)로의 어조 전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창가의 여인' 도상 — 사마리아·님루드 출토 상아 장식판의 격자창 모티프. 근동 미술에 널리 퍼진 형상 — 배경.
- 애굽 아마포(etun mitsrayim)와 몰약·침향·계피 — 나일·아라비아 교역로의 수입 사치품. 침상 묘사가 수입품의 진열장 — 배경.
- 화목제 규정(레 7:15-16): 제물 고기를 이튿날까지 먹어야 함 — "오늘 갇혔노라"가 신선한 잔칫상의 예고가 되는 제의 배경.
- 보름(kese) — 달의 주기로 여행을 셈하던 시간 감각.
- LXX: 7:6의 내다보는 주체를 그 여인으로 바꿈, 7:22-23의 난해 직유를 개·사슴 계열로 달리 옮김, 잠언 전반의 배열·확장 차이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7:5 ↔ 잠 2:16-19 · 5:3-8 · 6:24-35 (zarah·nokhriyah 경고의 연쇄 — 7장은 그 절정의 서사화)
- 잠 7:27 ↔ 잠 9:13-18 (미련한 여인의 초대 — "그의 집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 잠 7:4 ↔ 아 4:9-10 (achoti — 누이 호칭이 사랑의 언어로 쓰이는 결)
- 잠 7:3 ↔ 신 6:8 · 잠 3:3 (손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가르침의 형식)
- 잠 7:14 ↔ 레 7:15-16 (화목제 고기의 식사 규정)
- 잠 7:22-23 ↔ 잠 5:22-23 (자기 죄에 걸리는 자 — 같은 포획의 그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끈이 손가락에 감기고 판에 글자가 새겨진다 —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네 눈동자처럼. 낮은 음성 —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화면이 격자창으로 간다. 살 사이로 거리가 보이고, 한 젊은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어느 집쪽으로 걸어간다. 하늘이 네 번 어두워진다 — 저물, 황혼, 밤, 흑암. 거리 끝에서 화려한 옷의 형상이 나타나 붙잡고 입을 맞춘다 —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갇혔노라.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를 만났도다." 집 안 — 무늬 있는 이불, 몰약과 침향과 계피의 향. "오라, 아침까지. 남편은 먼 길을 갔고 보름에나 돌아 오리라." 발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화면이 겹쳐진다 — 도수장으로 걷는 소, 차꼬를 찬 자, 간을 향해 나는 화살, 그물로 내려앉은 새. 새는 끝까지 모른다. 창 안으로 돌아온 화면, 목격자의 음성 —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열린 문 너머가 방이 아니라 아래로 꺼지는 길이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창틈의 목격담 — 네 단의 어둠과 스올의 길이 된 집"

- 초벌 부제: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지혜를 누이라 부르라는 당부 곁에서, 들창으로 내다보던 목격자가 네 단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젊은이와 화목제의 언어로 열린 초대, 그리고 스올의 길이 된 집을 끝까지 지켜보는 잠언의 가장 긴 이야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3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층 액자 + bayit 다섯 변화 + ishon 짝 + 창가 도상·향료 교역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그 여인을 이단·우상숭배의 알레고리로 앞당겨 읽지 않고, 본문이 그리는 인물과 후대 전통의 배경 표기로만 분리해 둬.
- 7:14의 화목제 언어를 제의 비판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유혹의 발화가 종교 어휘로 열린다는 순서 관찰로만 둬.
- 7:22의 난해한 차꼬 구절을 한 번역으로 봉합하지 않고, MT 난해함과 LXX의 다른 형상을 나란히 보존.
- achoti와 아가서 어휘의 닿음을 정경 신학의 결론으로 끌고 가지 않고, 어휘 차원의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7장은 "내 법을 네 눈동자(ishon)처럼 지키라"(7:2)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achoti)라 하라"(7:4)는 당부 위에, 들창과 살창으로 내다보던 화자가 저물·황혼·밤·흑암의 네 단(7:9)을 지나 그 여인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한 지혜 없는 자(chasar lev)를 목격하고, 화목제(7:14)로 열려 향료의 침상(7:16-17)과 보름의 썸(7:20)으로 완성되는 설득의 다섯 단과 소·차꼬·화살·새의 직유 연쇄(7:22-23)를 거쳐,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7:27)로 닫는 — 1~9장에서 유일한 일인칭 목격담이다.

한 문단: 끈이 손가락에 감기고 마음판에 글자가 새겨진다 — 지켜 살며, 네 눈동자처럼.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라는 낮은 음성 뒤로, 화면이 격자창으로 옮겨 간다. 살 틈으로 거리가 보인다. 한 젊은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고, 하늘이 네 번 어두워진다. 어둠의 바닥에서 화려한 옷의 형상이 나타나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춘다.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를 만났도다." 무늬 있는 이불과 물약·침향·계피의 향이 깔리고, 남편의 먼 길과 은 주머니와 보름이 두려움을 걷어 낸다. 젊은이가 곧 따른다 — 도수장으로 가는 소같이, 그물로 드는 새같이, 생명을 잃는 줄 알지 못한 채. 창 안의 목격자가 입을 연다. "이제 아들 들어 내 말을 듣고." 열린 문 너머는 방이 아니라 아래로 꺼지는 길이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들창 안과 거리의 이중 무대. 네 단으로 끼치는 조명. 끈·마음판 對 이불·향료 對 차꼬·그물 — 소품의 결이 뒤집힘. 세 층 액자.
2 첫 느낌·분위기	숨죽인 창과 떠드는 거리. 말의 지도가 그 여인에게 쏘림(7절 對 0절). 종교 언어로 열리는 초대의 서늘함.
3 시작과 끝	"지켜 살며"(7:2)에서 "사망의 방"(7:27)으로. 단수 호명이 복수로 넓어지고, 집이 길로 정의되는 결말.
4 등장인물·사상	목격자·무언의 젊은이·일곱 절을 말하는 그 여인·언급으로만 있는 남편. 중심 사상은 4~5절 — 누이라 부르는 관계가 지킨다.
5 장면 컷	당부(1~5)/창가(6~9)/등장(10~13)/발화(14~20)/추락(21~23)/결론(24~27) 6컷. 직유 연쇄의 공통항은 무지.
6 의문·발견·정보	ishon의 짝(2·9절). bayit의 다섯 변화. 그름과 보름의 달력. 침묵하는 주인공 미해결. 창가 도상·향료 교역 배경.
7 동영상	손가락의 끈 → 격자창 → 네 단의 어둠 → 향의 집 → 겹쳐지는 도살의 화면 → 문 너머가 길,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창틈의 목격담 — 네 단의 어둠과 스올의 길이 된 집"
9 기도·내면	두 눈동자 — 지킴의 눈동자와 밤의 눈동자 — 사이에서 내 하루의 골목을 본다. achoti라는 호칭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ishon, 두 개의 눈동자:** 계명을 "네 눈동자처럼"(7:2) 지키라는 당부와 "밤의 눈동자"(7:9, ishon layla) 속을 걷는 젊은이 — 같은 명사가 한 장의 양 끝을 잡는다. 무엇을 눈동자의 깊이에 두는가와 어떤 깊이 속을 걷게 되는가가 한 단어 안에서 갈린다. 가르침이 눈동자의 깊이에 닿은 자는 흑암의 시각에 그 골목을 지나지 않는다.
- 결 2 — bayit, 다섯 번 자세를 바꾸는 집:** 향하는 집(8절), 발이 머물지 않는 집(11절), 남편이 떠난 집(19절), 보름에 돌아올 집(20절), 그리고 스올의 길이 된 집(27절). 8절에 젊은이가 향하던 바로 그 집이 27절에서 정체를 드러낸다 —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려가는 통로. 집의 언어로 시작해 길의 언어로 끝나는 이 순환이 7장 전체의 수미다.
- 결 3 — 직유 연쇄의 공통항, 무지:** 소·차꼬·화살·새(7:22-23)의 네 형상을 묶는 것은 도살이 아니라 "알지 못함"이다. 그리고 그 모름을 만든 것이 21절의 "여러 가지 고운 말"이다. 9장의 미련한 여인 곁에서 같은 문장이 다시 들린다 — "그의 집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9:18). 잠언에서 죽음의 길의 본질은 악의가 아니라 못 봄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2:16-19 · 5:3-8 · 6:24-35 — zarah·nokhriyah 경고의 연쇄. 7장은 그 경고들이 한 편의 서사로 응축된 결정.
- 잠 9:13-18 — 미련한 여인의 초대. "알지 못하느니라"(9:18)가 7:23의 무지와 호응하고, 집과 스올의 연결이 재등장.
- 잠 8:1-36 — 같은 거리·성문 곁에서 외치는 지혜의 공개 선언. 7장의 거짓 초대 해부 직후에 놓인 참 초대.
- 아 4:9-10 — "내 누이 내 신부." achoti가 사랑의 호칭으로 쓰이는 정경 안의 결.

- 신 6:8 · 잠 3:3 — 손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가르침의 형식, 7:3의 배경.
- 레 7:15-16 — 화목제 고기의 식사 규정. 7:14의 "오늘 갇혔노라"가 잔칫상의 예고가 되는 제의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눈동자처럼. 내 안에서 그 깊이로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센다.
- **멈춤 1:** 9절에서 멈춘다 — 저물, 황혼, 밤, 흑암. 내 하루에도 단계적으로 어두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본다.
- **멈춤 2:** 14절에서 멈춘다 — 화목제. 가장 경건한 어휘가 초대 of 손잡이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앞에서 숨을 고른다.
- **끝:** 4절로 돌아가 끝낸다 — 내 누이라 하라. 호리는 말보다 먼저 맺어 둔 호칭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당부(1~5)·목적담(6~23)·결론(24~27)의 세 층 액자 완결
- [x] ishon 두 용례(2·9절)의 짝
- [x] bayit 다섯 변화와 8절↔27절 수미
- [x] 설득의 다섯 단(14~20절)과 직유 연쇄(22~23절)의 대응
- [x] 단수 호명(1절)→복수 호명(24절)의 확장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7장은 첫 국면의 절정 직전 — 두 길의 구도가 한편의 목적담으로 응축되는 결절이다. 1장에서 갈라진 골목의 속삭임과 광장의 외침 가운데, 7장은 속삭임 쪽의 속을 끝까지 열어 보인다. 그리고 그 해부가 끝난 바로 다음 절에서 지혜가 외치기 시작한다(8:1) — 거짓 초대의 전모를 본 독자만이 참 초대의 무게를 안다는 배치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창틈으로 내다보며 아들에게 본 것을 들려주는 아버지의 형상은 권 전체의 heart — '내 아들이' 부르는 자상함 — 가 목적과 증언의 형식으로 구체화된 지점이며,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대비는 권의 destination인 경외가 빚는 분별을 음화로 미리 보여 준다. 31장의 현숙한 여인 — 집을 세우고 등불이 꺼지지 않는 — 이 27절의 집, 스올의 길이 된 집의 가장 먼 대척에서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고의 명제에서 목적의 서사로 / 지킴의 눈동자(7:2)에서 밤의 눈동자(7:9)를 지나 다시 증언의 음성(7:24)으로 / 향료의 집에서 스올의 길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두 길'이라는 1~9장의 구도를 명제의 언어에서 한 사람의 동선으로 옮겨 적는 운동이다. 2장이 원리를 말하고 5~6장이 경고를 쌓았다면, 7장은 그 경고가 실제로 무시되는 한 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 준다. 다만 이 하강은 종결이 아니라 반전의 예비다. 7장의 마지막 줄이 스올의 방들로 꺼진 직후, 8장의 첫 줄에서 지혜가 일어선다 —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같은 거리, 같은 길목, 같은 문들 곁에서

(8:2-3) 이번에는 숨지 않는 목소리가 외친다. 7장의 벡터는 어둠의 바닥을 짚음으로써 8장의 공개 선언을 떠받치는,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하강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음행 경고다 — 낮은 시각의 골목을 피하라는, 어느 문화에나 있을 법한 당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뵐'이라는 것의 본질이 움직인다. 창 안의 목격자는 보고, 거리의 젊은이는 보지 못한다 — 새가 제 발 밑의 그물을 못 보듯이(7:23).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시력이 아니라 1~5절의 동작들이다. 지키고,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누이라 부르는 일 — 가르침이 몸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흑암의 시각에 사물의 정체를 본다. 거꾸로 chasar lev, 마음이 비어 있는 자에게는 향료가 향료로만, 잔칫상이 잔칫상으로만 보인다. 그리고 유혹은 그 빈 속을 정확히 안다 — 발화의 첫 단이 종교 언어(7:14)라는 사실은, 거짓 초대와 늘 참된 것의 어휘를 빌려 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화목제의 shalom이 평안을 약속하는 단어이듯, 그 집의 문도 안식처럼 열린다. 7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은 이것이다: 죽음의 길은 죽음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 향기롭고, 경건하고, 안전해 보이는 얼굴로 온다. 그래서 분별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다 — 누이라 부를 이를 먼저 둔 마음만이 그 얼굴 너머의 길을 본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손가락에는 무엇이 감겨 있고 내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 흑암의 시각에 그 골목을 지날 때, 나를 지키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먼저 맺어 둔 호칭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그 젊은이를 정죄할 자료를 주지 않는다 — 그의 속을 끝까지 열어 주지 않음으로써, 누구든 그 무언의 동선 위에 자기를 겹쳐 보게 한다. 그리고 본문이 내미는 보호는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호칭 하나다 —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7:4). 관계가 먼저 있는 사람에게 호리는 말은 힘을 잃는다는 것. 창 안의 목격자가 본 것을 혼자 두지 않고 아들들에게 들려주었듯이, 7장 자체가 독자를 창가의 위치로 초대한다 — 거리의 어둠을 보되 그 어둠 속을 걷지 않는, 보면서 지켜지는 위치로. 이미 엎드러진 자가 허다하다는 26절 곁에서 24절의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가 아직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는 것 — 그 시제의 어긋남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골목의 속삭임이 해부된 바로 그 거리에서, 이번에는 숨지 않는 목소리가 일어난다 —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8: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choti* — 내 누이, 호리는 말보다 먼저 맺어 두는 호칭.

미해결 질문

잠언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ishon의 두 용례(7:2 눈동자 · 7:9 밤의 눈동자) — 의도된 말놀이인가, 우연한 동음인가?

- 한 장 안에서 같은 명사가 지킴의 형상과 어둠의 한복판을 다 가리킨다. 저자의 의도 여부를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형태의 짝만 보존.

Q2. 젊은이는 왜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 1장의 악한 자들도, 그 여인도 길게 말하는데 죽음의 길을 걷는 당사자만 무언이다. 수동성의 표현인지, 누구라도 설 수 있는 익명의 비움인지 — 미해결로 이월.

Q3. 7:14의 화목제와 서원 — 그 여인의 종교 생활은 실제인가, 수사인가?

- 제사를 정말 드렸을 수도 있고 초대의 어휘로만 썼을 수도 있다. 발화 안에 거짓으로 단정할 문장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보존.

Q4. achoti(내 누이, 7:4)와 아가서의 "내 누이 내 신부"(아 4:9) — 이 어휘의 뉘앙스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지혜와의 관계를 가족·혼인의 언어로 부르는 폭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7장과 아가서가 같은 어휘 문화를 공유할 뿐인지 — 보존.

Q5. 7:22의 차꼬 구절 — "미련한 자가 차꼬를 차고 별을 받으러 가는 것 같고"의 원문은 무엇을 그리는가?

- MT의 어순이 난해해 번역들이 갈리고 LXX는 다른 짐승의 형상으로 옮겼다. 직유 연쇄의 둘째 항을 한 그림으로 봉합하지 않고 보존.

Q6. 창 안의 관찰자는 왜 거리로 내려가 막지 않고 보기만 하는가?

- 목격담 형식이 가진 침묵 — 개입하지 않는 시선의 의미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증언을 위한 거리인지, 막을 수 없는 일의 기록인지 —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8장

PRO-008 · 시가서 · 히브리어

7장 골목의 속삭임이 끝난 직후, 지혜가 네거리와 성문 곁 — 도시에서 가장 트인 지점 — 에 서서 1인칭으로 자기를 여는 장.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qanani)"(8:22)에서 "내가 거기 있었고"(8:27)까지, 창조의 곁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던 (mesacheqet) 목격자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 잠언 첫 국면의 절정.

관찰된 사실

잠언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겹 무대: 도시의 가장 트인 지점(길 가의 높은 곳·네거리·성문 곁·문 어귀·출입하는 문들, 1~3절) → 우주 이전과 창조 현장(22~29절) → 한 집의 문 곁·문설주 옆(34절).
- 7장과의 무대 대비: 저물 때·골목 모퉁이·어둠(7:8-9)의 은밀한 동선 對 한낮의 공개된 위치 다섯 겹. 같은 도시에서 숨는 목소리와 드러나는 목소리가 갈림.
- 두 인물의 위치 겹침: 7장의 여인도 거리·광장·모퉁이마다 서서 기다림(7:12) — 같은 길목에서 두 부름이 경합하는 배치.
- 소품(시장): 은·정금·진주(10~11절), 부귀·장구한 재물·금·순은(18~19절), 곳간(21절).
- 소품(우주): 깊음·샘·바다·산·언덕·진토(24~26절), 궁창·구름 하늘·바다의 샘들·물·땅의 기초(27~29절). 사람이 만든 물건이 없는 목록.
- 소품(끝): 문과 문설주(meuzot, 34절) — 귀금속에서 원소로, 원소에서 문설주 하나로 좁혀지는 동선.
- 1장의 지혜 어휘 진열장(1:2-6)이 8장에서 1인칭의 소유 목록으로 재등장: "내게는 계약과 참 지식이 있으며"(14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자기 추천이 거북하지 않은 유일한 화자 —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7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8절).
- 7장의 1인칭("내가 너를 만나려고", 7:15)과의 온도 차: 어둠 속에서 한 명을 노리는 목소리 對 환한 곳에서 모두를 부르는 목소리.
- 음향: 해 질 무렵의 속삭임(7장) 다음에 오는 한낮의 포고(8장).
- 22절부터 시제가 회고로 전환 — 화자가 자기 출생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바닥이 꺼지는 공기.
- 30~31절에 기뻐하다·즐거워하다가 네 번 겹침 — 창조 현장이 노동이 아니라 웃음소리 나는 곳으로 그려짐. 기쁨의 마지막 목적어는 인자들.

- 27~29절의 창조는 전부 경계 설정(두르심·한계·기초) — 혼돈과의 투쟁이 아니라 선을 그어 주는 손길의 안정감.
- sachaq의 두 얼굴: 1:26의 웃음(eschaq)과 8:30-31의 놀이(mesacheqet)가 같은 어근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 수사 의문문의 개막.
- 36절: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 생명/사망의 최종 대구.
- 물음에서 단언으로, 3인칭 소개에서 1인칭 기준으로 — 한 장 동안 '그'가 '나'로 다가오는 거리 변화.
- 36절의 어구: 사망을 '당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느니라' — 결말이 형벌이 아니라 방향으로 진술됨.
- 4절의 '인자들'(부름의 대상)이 31절의 '인자들'(태초 기쁨의 대상)과 호응 — 지금의 부름이 태초의 기쁨에 이어지는 배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혜(1~3절 3인칭 → 4절부터 1인칭 화자, 서른세 절 연설), 명철(tevunah, 1절 병행), 여호와(13절 경외의 대상, 22~31절 창조 동사들의 주어), 왕들·방백들·재상·재판관들(15~16절), 사람들·인자들(4절), 어리석은 자들·미련한 자들(5절), 아들들(32절),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34절). 청자는 끝까지 무언.
- 중심 사상: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 1:7이 선언만 한 경외의 내용이 처음으로 정의됨. 미움의 목록: 교만·거만·악한 행실·패역한 입.
- 지혜 자신이 그 정의를 먼저 삶: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7절) ↔ 13절 ↔ "나를 미워하는 자"(36절) — 미워하다 동사의 세 위치.
- 15~16절 통치 공식: '나로 말미암아' 2회 — 정치 질서 전체가 지혜를 통로로 선다는 주장. 솔로몬의 책이 왕권의 바탕을 왕 아닌 지혜에 둬.
- 8:17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 1:28 "찾으리라 그래도 만나지 못하리니" — 같은 동사의 정반대 결과, 때의 차이.
- '길'의 변주: 길 가에 서고(2절) → 공의로운 길을 걷고(20절) → 지키는 도가 됨(32절).
- 27~31절 동사 배분: 짓다·두르다·정하다는 여호와와 동사, 있다·되다·즐거워하다는 지혜의 동사 — 만드는 손과 결의 기쁨이 문법으로 구분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위치 설정 — 다섯 겹의 공개 좌표.
- 컷 2 (4~11절): 공개 부름과 가치 비교 — 은보다 훈계, 정금보다 지식, 진주보다 지혜.
- 컷 3 (12~21절): 자기 소개와 통치 — 경외=악 미움(13절), 왕들의 치리, 사랑의 상호 약속(17절), 공간을 채우는 열매.
- 컷 4 (22~31절): 창조의 결 — qanani·nissakhti·cholalti의 기원, "내가 거기 있었고"(27절), amon의 기쁨과 놀이.
- 컷 5 (32~36절): 마지막 호소 — 들으라, 문 곁의 기다림(34절), 생명/사망의 대구.
- 컷 4 내부의 경첩: 22~26절 '~전에' 일곱 겹의 부정 시간 → 27절 "내가 거기 있었고"에서 '하시던 때'의 목록으로 전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qanani*(קָנָנִי) — 어근 qanah: 얻다·가지다, '낳다'(창 4:1)와 '창조하다'(창 14:19 qoneh)의 결을 함께 가짐. 22절. LXX는 *ektisen me*(창조하셨다)로 — 번역 폭의 관찰로만 보존.
- *nissakhti*(נִסְכַּחְתִּי) — 어근 nasakh: 세움을 받다·부음을 받다. 시 2:6의 왕 옹립 어휘와 같은 계열. 23절.
- *cholalti*(חִלַּלְתִּי) — 어근 chul: 산고 가운데 낳다(신 32:18). 24~25절. 가지다·세우다·낳다 세 동사가 지혜의 기원을 서로 다른 결로 진술.
- *amon*(אָמוֹן) — 장인(아카드어 *ummānu* 연결 설명) 혹은 품에 안긴 어린아이(*amun*) — 형태가 양쪽으로 열린 단어. 30절. LXX는 *harmozousa*(맞추어 세우는 이)로 장인 갈래를 택함. 미해결.
- *mesacheqet*(מְסַחֶקֶת) — 어근 sachaq, 웃다·놀다. 30~31절. 1:26의 *eschaq*과 동근.
- *reshit*(רֵשִׁית) — 시작·근본·첫머리. 8:22 "조화의 시작" ↔ 1:7 "지식의 근본" ↔ 창 1:1 *bereshit*.
- *choq*(חֻק) — 한계·법령. 29절 바다의 경계가 '법'과 같은 단어.
- *mezuzot*(מְזֻזוֹת) — 문설주. 34절. 신 6:9의 기록하는 문설주, 출 12장의 피 바르는 문설주와 같은 단어 — 배경.
- *ormah*(אֲרָמָה) — 근신·슬기. 12절. 창 3:1 뱀의 '간교함'(*arum*)과 동근이나 잠언에서는 긍정의 결 — 배경.
- *tushiyyah*(תִּשְׁיָה) — 참 지식. *gevurah*(גְּבוּרָה) — 능력. 14절. 조언과 실행력이 한 인물 안에 공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내레이터 서두(1~3) + 1인칭 연설(4~36)의 두 단 — 한 장 거의 전부가 단일 화자의 자기 선언 양식.
- 연설 내부 5단: 부름과 값(4~11) — 자기 소개·통치(12~21) — 창조 회고(22~31) — 호소(32~36). 회고가 호소의 근거로 동원되는 수사 구조.
- 22~26절: '~전에~전부터'의 부정 시간 일곱 겹 → 27절 "내가 거기 있었고"가 경첩 → 27~29절 '~하실 때 예'의 목록.
- 지혜 발화 분량의 성장: 1:22-33(12절) → 8:4-36(33절) → 9장에서 말을 넘어 집과 잔치로 — 1~9장 의인화의 나선.
- 3:19-20("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의 한 절 진술이 8:22-31의 열 절 회고로 확장.
- 32~34절 *macarism*(복 선언) 2회: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 호소 단락의 골격.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마아트(*Maat*) — 창조 질서·정의의 여신 전통. 의인화된 질서 형상의 비교 배경. 차이: 잠언의 지혜는 예배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존재로, 경배가 아니라 들음을 요구 — 배경.
- 메소포타미아 움마누(*ummānu*) — 왕 결의 장인·현자 칭호. *amon*의 '장인' 갈래와 닿는 어휘 배경.
- 성문·네거리 — 재판·포고·상거래의 공공 공간. 8:1-3 위치 선정의 사회적 배경.
- 은·정금·진주 — 근동 경제의 가치 척도. 10~11·19절 비교 은유의 물질 배경.
- LXX: 8:22 *qanani* → *ektisen me*, 8:30 *amon* → *harmozousa*, 행 배열의 소소한 차이 — 배경.
- 미드라쉬(창세기 랍바 1:1)는 8:22의 지혜를 토라와 동일시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8:1-3 ↔ 잠 7:8-12 (두 무대 — 골목의 어둠과 네거리의 한낮, 같은 길목의 두 부름)

- 잠 8:17 ↔ 잠 1:28 (찾음과 만남의 정반대 결과 — 때의 차이)
- 잠 8:22-31 ↔ 잠 3:19-20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심 — 한 절에서 열 절로)
- 잠 8:27-29 ↔ 욥 38:4-7 ("네가 어디 있었느냐"의 질문과 "내가 거기 있었고"의 대답 — 목격자 모티프)
- 잠 8:22 ↔ 창 1:1 (reshit/bereshit — 시작의 어근 공유)
- 잠 8:22-31 ↔ 욥 28:12-28 · 시 104:24 (지혜와 창조를 묶는 시가서의 결)
- 잠 8:34 ↔ 잠 9:1-6 (문 결의 기다림에서 지혜의 집 잔치로)
- 잠 8장 ↔ 요 1:1-3 · 골 1:15-17 (후대 수용사 — 교차 참조로만 두고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낮의 네거리, 성문 어귀의 높은 곳에서 한 여인이 도시 전체를 향해 소리를 높인다 —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시장의 저울 위 은화와 진주 위로 목소리가 덮인다 —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왕궁의 회랑, 왕관과 재판석 —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화면이 뒤로 감긴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내려앉고 바다가 걷히고,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 목소리만 남는다 —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조가 시작된다. 궁창이 깊음 위에 둘러지고 바다가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 멈추고 땅의 기초가 놓인다. 그 곁에 한 형상 — 장인 같기도 아이 같기도 한 — 이 날마다 기뻐하며 논다. 화면이 현재로 돌아온다. 저무는 골목의 모퉁이가 잠깐 스치고, 한 집의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이가 서 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화면 끝에 반대편 길이 어둡게 남는다 —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내가 거기 있었고 — 네거리에 선 창조의 목격자"
- 초벌 부제: "7장 골목의 속삭임 직후 네거리와 성문 곁에 선 지혜가 1인칭으로 자기를 열고, 은보다 훈계·경외는 악을 미워함·왕들의 통치 바탕을 지나 창조 이전의 출생과 amon의 놀이까지 회고한 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지혜 찬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자기 선언 양식 + '~전에' 일곱 겹 구조 + 욥 38장 목격자 모티프 + ANE 마아트·움마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8:22-31의 지혜를 신약 수용사(요 1장 로고스, 골 1장)와 동일시하지 않고, 교차 참조 노드로만 보존 — 본문 안의 의인화 형상으로 둬.
- qanani의 번역 폭(가지다·낳다·창조하다)과 LXX ektisen을 교리 판정 없이 번역 현상의 관찰로만 기록.

- amon(장인/어린 양자)을 한쪽으로 봉합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 8:18-21의 부귀 약속을 변영 보장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연설 내부의 약속 어구 관찰로 됨.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8장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8:1)라는 물음과 함께 길 가의 높은 곳·네거리·성문 곁(8:1-3) — 7장 골목과 정반대의 공개된 위치 — 에 지혜를 세운 뒤, 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1인칭 연설로 진리를 말하는 입(8:7-8)과 은·정금·진주를 넘는 값(8:10-11), 경외의 정의("악을 미워하는 것", 8:13), 왕들의 통치 바탕(8:15-16)을 지나,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qanani)"(8:22)부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amon)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8:30)까지 창조 이전의 기원과 목적을 회고하고,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8:34)와 생명/사망의 최종 대구(8:35-36)로 닫는, 지혜 의인화의 절정이다.

한 문단: 한낮의 네거리에서 목소리가 도시를 덮는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시장의 은화와 진주 위로 다른 저울이 놓인다 —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왕궁의 회랑을 지나며 목소리는 통치의 바탕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다음 화면이 뒤로 감긴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내려앉고 바다가 걷힌 시간,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궁창이 깊음 위에 둘러지고 바다가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 멈추고 땅의 기초가 놓이는 동안, 그 곁에서 한 형상이 날마다 기뻐하며 논다 — 장인 같기도, 품의 아이 같기도 한. 기쁨의 끝은 인자들이다. 화면이 현재로 돌아오면 저무는 골목이 잠깐 스치고, 한 집의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이가 서 있다. 얻는 이의 생명과 미워하는 이의 사망 사이에서 8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네거리·성문 곁 다섯 겹 좌표 → 우주 이전 → 문설주 옆의 세 겹 무대. 7장의 어두운 골목과 정반대 동선. 은·정금·진주에서 깊음·궁창·기초로, 다시 문설주 하나로.
2 첫 느낌·분위기	자기 추천이 허용되는 유일한 화자. 22절부터 시간의 바닥이 꺼지는 회고. 30~31절 기쁨 동사 네 번 — 웃음 소리 나는 창조. 경계를 그어 주는 손길의 안정감.
3 시작과 끝	수사 의문문("부르지 아니하느냐")에서 최종 대구("사망을 사랑하느니라")로. 3인칭 소개가 1인칭 기준이 되는 거리 변화. 4절과 31절의 '인자들' 호응.
4 등장인물·사상	서른세 절을 혼자 말하는 지혜, 무언의 청자. 8:13 경외=악을 미워함 — 모토의 첫 정의. '나로 말미암아'의 통치 공식. 8:17↔1:28 때의 차이.
5 장면 컷	위치(1~3)/부름과 값(4~11)/자기 소개·통치(12~21)/창조의 곁(22~31)/호소(32~36)의 5컷. '~전에' 일곱 겹과 "내가 거기 있었고"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qanah·nasakh·chul 세 동사의 기원 진술. amon의 양면. reshith의 재등장(1:7↔8:22↔창 1:1). 욥 38장 목격자 모티프. 마아트·움마누 배경.
7 동영상	네거리 → 시장 → 왕궁 → 시간 역행 → 창조의 곁과 놀이 → 문설주 옆의 기다림 → 생명/사망, 압전.
8 초벌 제목·부제	"내가 거기 있었고 — 네거리에 선 창조의 목격자"

단계	핵심 발견
9 기도·내면	두 개의 문을 본다. 은을 받는 손과 혼계를 받는 손 — 제 손이 먼저 받는 것을 본다. 문설주 옆의 기다림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무대, 두 문:** 7장의 부름은 저물 때 골목 모퉁이에서 한 청년을 노렸고, 8장의 부름은 한낮의 네거리에서 모든 인자들을 향한다. 숨는 목소리와 드러나는 목소리, 스올로 내려가는 집의 문(7:27)과 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복이 있는 문(8:34). 편집은 두 장을 등을 맞대게 붙여 두었고, 독자는 같은 길목에서 두 부름이 경합하는 도시를 걷게 된다.
- 결 2 — reshit, 두 출발점의 겹침:** 1:7에서 경외는 지식의 reshit이었고, 8:22에서 지혜는 창조 사역의 reshit에 속한다. 앞의 출발점과 만물의 출발점이 한 단어로 묶이면서, 창세기 1:1의 bereshit까지 올린다. 아는 일과 지어진 세계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면, 10장부터 이어질 일상의 격언들은 처세술이 아니라 세계의 결을 읽는 법이 된다.
- 결 3 — sachaq, 한 웃음의 두 얼굴:** 1:26에서 지혜는 거절당한 뒤 웃겠다고 했고(eschaq), 8:30-31에서 지혜는 창조의 결에서 논다(mesacheqet) — 같은 어근이다. 서늘한 웃음보다 먼저 있던 것이 기쁨의 놀이였다는 순서가 8장의 회고로 복원된다. 그리고 그 놀이의 마지막 목적어가 인자들이라는 것 — 지금 네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집요함의 이유가 태초의 그 기쁨에 미리 적혀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20-33 — 길거리에서 부르짖던 지혜의 열두 절이 8장의 서른세 절 연설로 자람 — 의인화의 성장.
- 잠 3:19-20 —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 한 절의 진술이 8:22-31의 회고로 확장.
- 욥 38:4-7 —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 그 질문에 "내가 거기 있었고"(8:27)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
- 창 1:1 — bereshit. 8:22의 reshit과 어근을 공유하는 시작의 어휘.
- 잠 9:1-6 — 문 결의 기다림(8:34)이 지혜의 집과 잔치 초대로 이어지는 다음 장.
- 요 1:1-3 · 골 1:15-17 — 이 장을 다시 읽은 후대 수용사 — 교차 참조로만 두고 단정하지 않는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3절의 위치 목록에서 시작한다 — 내 일상의 네거리, 출입하는 문들 어디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지 좌표를 센다.
- **멈춤 1:** 10절에서 멈춘다 — 받는 손은 하나. 은과 혼계 중 내 손이 먼저 받는 것이 떠오른다.
- **멈춤 2:** 27절에서 멈춘다 — "내가 거기 있었고." 욥처럼 답하지 못하는 물음 곁에, 답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 **끝:** 34절과 36절 사이에서 멈춘다 — 문설주 옆의 기다림과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미움. 오늘 내가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내레이터 서두(1~3)·연설 5단(4~36)의 완결
- [x] 7장 무대와의 대비(골목/네거리, 두 문)의 호응
- [x] qanah·nasakh·chul 세 동사의 기원 진술과 amon·mesacheqet의 형상

- [x] 8:17↔1:28, 8:22↔1:7(reshit), 8:30↔1:26(sachaq)의 책 내부 호응
- [x] 읍 38장 목격자 모티프와 창 1장 어근의 다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출발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8장은 그 첫 국면의 절정이다. 1:20에서 길거리로 나왔던 의인화가 여기서 창조 이전의 기원까지 자기를 열고, 9장의 집과 잔치로 건너가기 직전의 가장 높은 발성에 이른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8장은 창조와 지혜를 한 식탁에 앉히는 장이다 — 창세기 1장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보여 주었다면, 잠언 8장은 그 지어짐의 곁에 기쁨이 있었다고 회고한다(8:30-31). 그래서 10장부터 쏟아질 말·돈·이웃·일의 격언들은 사소한 처세가 아니라 창조의 곁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보증을 여기서 받는다. 경외의 정의가 "악을 미워하는 것"(8:13)으로 처음 적히고, 통치 질서까지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선언(8:15-16)이 더해지면서, 1:7의 모토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 세계 전체의 바탕으로 펼쳐진다. 후대가 이 장을 들고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을 썼다는 사실은 다리만으로 두되, 그 다리가 놓일 만큼 이 장의 회고가 깊다는 것은 본문 자체의 무게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목의 속삭임(7장)에서 네거리의 공개 선언으로 / 길거리의 부르짖음(1:20)에서 창조 이전의 기원(8:22)으로 / 태초의 놀이(8:30-31)에서 문설주 옆의 기다림(8:34)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이 부름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물음에 창조의 목격이라는 이력을 펼치는 운동이다. 네거리의 목소리는 자기 입의 진리(7~8절)를 말하고, 값의 비교(10~11절)를 말하고, 통치의 바탕(15~16절)을 말하다가, 마지막 근거로 시간의 바닥을 연다 —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그 모든 경계가 그어질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회고가 도달하는 곳은 우주가 아니라 한 집의 문 앞이다(34절). 가장 큰 이력이 가장 작은 기다림을 위해 동원되는 이 좁힘이 8장의 방향이고, 9장에서 지혜는 말을 넘어 집을 짓고 상을 차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의인화된 인물의 긴 자기 소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계의 바닥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움직인다. 22~31절의 창조 회고에는 투쟁이 없다 — 짓고 두르고 정하시는 손길과, 그 곁의 기쁨과, 명령 앞에 멈추는 바다뿐이다. 바다의 한계(choq)가 '법령'과 같은 단어라는 것은, 자연의 경계와 삶의 규범이 한 어휘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상의 바닥이 폭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질서와 명량함이라면, 지혜를 따라 사는 일은 억지 규범 준수가 아니라 세계의 원래 결로 돌아가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 곁의 끝에 사람이 있다 — 창조 회고의 마지막 행이 별이나 바다가 아니라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31절)로 닫히는 것. 지금 네거리에서 모든 출입문마다 서서 부르는 집요함(1~3절)은 이 태초의 기쁨의 연장이다. 부르되 끌고 가지 않고, 문 앞의 기다림을 요구하되 문을 강제로 열지 않는 방식 — 듣는 쪽의 자유가 끝까지 남는 부름이라는 점에서 1장의 구도가 여기서도 유지되며, 그래서 36절의 어두운 가능성("사망을 사랑하느니라")도 함께 남는다.

받는 손은 하나다 — 은을 받는 손으로는 훈계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도시에는 문이 둘 있다. 나는 오늘 어느 문 앞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우주적 회고를 외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보여 준다 — 창조 이전부터 있던 이가 지금 가장 찾기 쉬운 곳, 네거리와 성문 곁과 모든 출입문에 서서 부르고 있다는 것. 숨어 있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 8:17의 약속("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은 아직 열려 있고, 1:28의 닫힌 응답이 책 안쪽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그 열림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34절은 만남의 자세를 하나만 제시한다 —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 단회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듯 이르는 기다림. 그 문 앞에 선 이에게 선언된 복(8:34)과 생명(8:35)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문 곁에서 기다리라던 지혜가 이제 일곱 기둥의 집을 짓고 상을 차린다 — 그리고 맞은편에서 미련한 여인도 같은 성읍 높은 곳에 앉는다(9:1-6, 13-18). 두 잔치의 갈림이 온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mon* — 창조의 곁, 장인인지 아이인지 끝내 다 풀리지 않는 기쁨의 형상.

미해결 질문

잠언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amon*(8:30)은 장인인가, 품에 안긴 어린아이인가?

- 창조의 곁에 있던 형상이 함께 짓는 장인(*ummānu* 갈래)인지 기뻐 뛰노는 어린 존재(*amun* 갈래)인지 형태가 양쪽으로 열려 있다. LXX는 장인 쪽을, 30~31절의 놀이(*mesacheqet*)는 아이 쪽을 받쳐 준다. 번역 폭 자체를 보존.

Q2. *qanani*(8:22) — 가지셨는가, 낳으셨는가, 창조하셨는가?

- qanah*의 세 곁에 *nissakhti*(세움 받음)·*cholalti*(낳음)까지 더하면 지혜의 기원이 세 동사로 겹쳐 말해진다. 본문이 한 동사로 정리하지 않은 그 겹침을 그대로 둔다. LXX *ektisen*은 번역 현상의 배경으로만.

Q3. 8:17의 "나를 만날 것이니라"와 1:28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 경계는 어디인가?

- 같은 찾음이 때에 따라 만남이 되기도 못 만남이 되기도 한다. 열려 있는 지금과 닫히는 언젠가 사이의 선을 본문은 긋지 않는다. 두 절의 공존을 보존.

Q4. 창조 곁의 놀이(*mesacheqet*, 8:30-31)는 창조에 무엇을 더하는가?

- 짓는 동사는 전부 여호와와 지혜의 동사는 있음과 기뻐함뿐이다. 이 놀이가 사역에 기여하는 무엇인지, 아니면 기여 없이 그저 기쁨인지 — 일과 즐거움이 갈라지기 전의 그림을 답 없이 보존.

Q5. 의인화의 폭 — 이 지혜는 문학 형상인가, 그 이상을 가리키는가?

- 요 1장·골 1장의 수용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었다는 사실은 교차 참조로만 둔다. 잠언 8장 자체가 의인화를 어디까지 밀고 있는지는 관찰 단계에서 봉합하지 않는다.

Q6. 경외의 정의가 미움이라는 것(8:13) — 이 정의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1:7의 모토가 8:13에서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랑의 책에서 경외의 첫 정의가 미움이라는 역설 — 그 미움의 목록(교만·거만·악행·패역한 입)과 36절의 "나를 미워하는 자" 사이의 관계를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잠언 9장

PRO-009 · 시가서 · 히브리어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 상을 갖춘 지혜의 공개된 초대(9:1-6)와, 아무것도 차리지 않은 채 문 앞에 앉아 같은 초대문을 토씨까지 흉내내는 미련한 여인(eshet kesilut)의 부름(9:13-17)이 나란히 올리고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9:10)이 1:7과 맞물려 아홉 장의 서론을 닫는, 두 식탁 앞의 마지막 그림.

관찰된 사실

잠언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같은 높이의 두 무대: 지혜의 새 집(1~6절, 여종들이 성중 높은 곳 marom qaret에서 외침)과 미련한 여인의 집 문(13~14절, 성읍 높은 곳의 좌석). 두 부름이 같은 가시권에서 올림.
- 동선의 대비: 지혜는 일곱 동작 — 짓고·다듬고·잡고·혼합하고·갖추고·보내고·부르고. 미련한 여인은 두 동작 — 앉는다·부른다.
- 소품(지혜의 집): 일곱 기둥(1절), 잡은 짐승(2절), 혼합한 포도주(2절), 갖춘 상(2절), 전령인 여종들(3절) — 전부 손이 간 실물.
- 소품(미련한 여인): 문·좌석(14절), 도둑질한 물·몰래 먹는 떡(17절) — 물과 떡은 무대 위 실물이 아니라 말("달다·맛이 있다")로만 존재.
- 소재의 세 사전: 차림의 어휘(1~6절) — 들음의 어휘(7~9절: 징계·책망·교훈·학식) — 은밀함의 어휘(13~18절).
- 형식: 열여덟 절이 6·6·6의 세 패널(1~6 / 7~12 / 13~18). 양 끝 패널이 거울 평행, 4절=16절의 완전 동일 초대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3절은 잔치 전날의 분주한 공기(노동의 소리) → 13절에서 식음(떠드는 소리 homiyyah만 있고 일이 없음) → 18절 정적으로 닫힘.
- 16절에서 4절의 초대문이 글자 그대로 재생 — 귀로는 두 부름이 구별되지 않아 듣는 쪽이 시험대에 오르는 구성.
- 초대문의 문턱이 낮음: 지혜가 부르는 대상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peti) — 자격이 아니라 돌이킴을 묻는 식탁.
- 맛의 출처 대비: 5절은 차린 사람이 자기 것("내 식물·내 혼합한 포도주")을 내놓는 맛, 17절은 '도둑질한'이라는 위반이 양념이 되는 맛.
- 가운데 단락(7~12절)은 양쪽 잔치의 열기 사이에 놓인 서늘한 진단 — 책망이 닿는 사람과 튕겨 나오는 사람을 가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 위로 올라가는 건축에서 아래로 꺼지는 깊음으로 — 기둥이 세워지는 데서 열려 스올에서 닫힘.
- 동사의 결: 1절의 지혜는 알고 행하는 주어, 18절의 손님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 '아는 준비'에서 '모르는 도착'으로.
- 어미: 1~2절은 연결어미의 행렬(짓고—다듬고—잡으며—혼합하여—갖추고), 18절은 부정의 단언으로 정지. 9장의 마지막 단어는 '모른다'.
- 18절의 지하 컷은 손님에게는 보이지 않고 독자에게만 열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혜(chokhmot — 1~6절 주어·화자), 여종들(naerot, 3절 전령), 어리석은 자(peti)·지혜 없는 자(chasar lev — 두 초대의 공통 수신자), 거만한 자(lets)·악인(7~8절), 지혜 있는 자(chakham)·의로운 사람(8~9절), 미련한 여인(eshet kesilut, 13절~), 바로 가는 행인들(15절), 죽은 자들(rephaim)과 객들(18절).
- 행인의 수식: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대상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이들 — 빗나간 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자를 꺾는 부름.
- 중심 사상: 9:10 —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techillah), 거룩하신 자들(qedoshim)을 아는 것이 명철. 명철의 내용이 정보가 아니라 한 분을 아는 일로 명시되며 18절의 "알지 못하느니라"와 마주 봄.
- 7~9절 수신자론: 같은 책망이 수신자에 따라 능욕/사랑으로 갈림. 9절 — 받는 그릇이 받을수록 커지는 비대칭.
- 12절 선택의 단독성: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 두 여인의 자기 인식: 지혜는 차린 것을 정확히 앎("내 식물·내 포도주", 5절),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13절) — 모르는 이의 초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준비와 파견 — 집·기둥·고기·포도주·상·여종.
- 컷 2 (4~6절): 초대문 —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먹고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 컷 3 (7~9절): 책망의 수신자론 — lets에게는 능욕이, chakham에게는 사랑이 돌아옴.
- 컷 4 (10~12절): 근본의 재선언과 단독성 — techillah, qedoshim, 날의 더함(11절), 너 홀로(12절).
- 컷 5 (13~15절): 문 앞의 여인 — 떠들며, 알지 못하고, 앉아서, 바로 가는 행인을 부름.
- 컷 6 (16~18절): 복제된 초대(16절=4절)와 은밀한 식탁(17절), 독자에게만 보이는 스올의 손님들(18절).
- 배열: 컷 1~2와 컷 5~6이 항목별 거울(준비/무준비·보냄/앎·자기 식탁/도둑질한 식탁·생명/스올), 그 사이에 컷 3~4의 들음·근본 패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okhmot(חִכְמוֹת) — 지혜. 9:1. 1:20과 같은 복수형에 단수 동사 — 서론의 첫 외침과 마지막 잔치가 같은 형태로 묶임.

- *banetah betah*(בְּנֵתָה בֵּתָה) — 그의 집을 짓고. / *ammudeha shivah*(עֲמֻדֶיהָ שִׁבְעָה) — 일곱 기둥. 1절.
- *tavchah tivchah*(טָבְחָה טִבְחָה) — 잡음을 잡다, 동족 목적이어 구문. / *masakh*(מָסַךְ) — 포도주를 혼합하다. 2절.
- *naarot*(נְעָרוֹת) — 여종들. / *marom qaret*(מְרֹמֵי קָרַת) — 성중 높은 곳. 3절.
- *peti*(פֶּתִי) — 단순한 자. / *chasar lev*(חָסַר לֵב) — 마음(lev)이 모자란 자. 4·16절.
- *lets*(לֵץ) — 거만한 자. 7·8·12절. / *chakham*(חָכָם) — 지혜 있는 자. 8·9·12절.
- *techillah*(תְּחִלָּה) — 근본·시작. 10절. 1:7의 *reshit*과 다른 단어로 돌아온 재선언. / *qedoshim*(קְדוֹשִׁים) — 거룩하신 자들, 복수 형태. 10절.
- *eshet kesilut*(אִשְׁתִּי קְסִילוּת) — 미련함의 여인. 13절. *kesilut*는 구약 유일 용례. / *homiyah*(הֹמִיָּה) — 떠들썩한. 13절, 7:11의 음녀에게 붙었던 형용사.
- *mayim genuvim*(מַיִם גִּנּוּבִים) — 도둑질한 물. / *lechem setarim*(לֶחֶם סֵתָרִים) — 은밀함의 떡. 17절.
- *rephaim*(רֶפְאִים) — 죽은 자들, 스올의 그림자들. / *sheol*(שְׁאוֹל) — 스올. 1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6·6·6 세 패널: 지혜의 잔치(1~6) — 책망·근본 간주(7~12) — 미련한 여인의 식탁(13~18). 양 끝이 거울 평행.
- 인클루지오: 1:7(yirat YHWH *reshit daat*) ↔ 9:10(yirat YHWH *techillat chokhmah*) — 1~9장 서론의 양 끝. *reshit*→*techillah*, *daat*→*chokhmah*의 변주된 복창.
- 4절=16절의 완전 동일 초대문 — 본문 스스로 두 부름을 구별 불가능하게 편집하고, 구별 근거를 문장 바깥(준비·식탁·종점)에 둬.
- 거울 평행의 항목: 일곱 동작 준비/얹음, 여종 파견/문지방, "내 식물"/도둑질한 물, 생명(6절)/스올(18절), 앓(5절·10절)/알지 못함(13절·18절).
- 2절의 동족 목적이어(*tavchah tivchah*)와 17절의 격언 인용 — 준비의 의례적 리듬 對 은밀함의 속담.
- 마지막 절의 반전 공개: 18절은 손님이 모르는 정보를 독자에게만 열어 주는 아이러니 구문.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전령이 성읍에 잔치 초대를 외치는 형식 — 우가리트 문헌의 신들의 연회 장면 등 고대 근동 연회 묘사와 공유되는 격식 — 배경.
- 일곱 기둥의 집 — 근동 주택의 기둥 구조로 읽는 설명과 완전수 7의 상징으로 읽는 설명이 갈려 온 형상. 본문은 용도를 풀지 않음 — 배경.
- 혼합한 포도주(*masakh*) — 향료·물을 섞어 내놓던 근동 연회 관행 — 배경.
- 성읍 높은 곳(*marom*) — 신전·공공 건물이 놓이던 가장 잘 보이는 지대. 두 부름이 같은 높이에서 울리는 공간 배경.
- LXX: 9:12 뒤에 거짓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확장(9:12a-c), 9:18 뒤에 낯선 물을 경계하는 확장(9:18a-d)을 첨가. *chokhmot*를 단수 *sophia*로 번역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9:10 ↔ 잠 1:7 (여호와 경외가 근본 — 1~9장 서론의 인클루지오)
- 잠 9:3 ↔ 잠 8:1-3 (높은 곳에서 부르는 지혜 — 같은 위치의 외침)
- 잠 9:18 ↔ 잠 7:27 · 2:18 (그의 집은 스올의 길 — 음녀의 집과 같은 종점)

- 잠 9:6 ↔ 잠 8:35-36 (생명을 얻으라 —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 잠 9:17 ↔ 잠 5:15-17 (도둑질한 물 對 네 우물의 물)
- 잠 9:5 ↔ 사 55:1-3 (와서 먹으라 — 값없는 초청의 식탁 어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낮의 성읍 가장 높은 지대. 새 집의 일곱 기둥이 빛을 받고 마당에서 연기가 오른다. 잡는 손, 썬는 손, 차리는 손. 문이 열리고 여종들이 거리로 나서 외친다 —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거리의 행인들 사이로 목소리가 이어진다 —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성문 위에 한 문장이 새겨진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화면이 같은 높이의 다른 집으로 미끄러진다. 문 앞에 여인이 앉아 있다. 차려진 것 없이 떠드는 소리만 크다. 같은 문장이 다시 들린다 —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속삭임 — "도둑질한 물이 달고 물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행인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카메라가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 식탁 아래 어둠 속, 먼저 온 손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 스올 깊은 곳. 지상으로 올라오면 두 집의 문이 나란하다. 한쪽은 잔치 소리, 한쪽은 정적.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두 식탁 — 지은 집과 앉은 문"
- 초벌 부제: "지혜가 집을 짓고 상을 갖추어 보낸 공개된 초대와, 같은 문장을 훔내내며 도둑질한 물을 내놓는 미련한 여인의 부름이 같은 높이에서 갈라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9:10)이 1:7과 맞물려 아홉 장의 서론을 닫는 두 식탁의 그림"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6·6·6 세 패널 + 4절=16절 완전 동일 초대문 + 1:7↔9:10 인클루지오 + ANE 연회 관습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지혜의 잔치(9:1-6)를 성찬·그리스도론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의인화된 초대의 그림 관찰로만 둬.
- 18절의 rephaim·스올을 종말 심판 교리로 통합하지 않고, 본문이 여는 식탁 아래의 그림으로 보존.
- 7~8절의 수신자론을 처세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두 잔치 사이에 놓인 들음의 진단 관찰로 둬.
- 일곱 기둥을 특정 상징(토라 일곱 책·창조 칠일 등)으로 확정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9장은 지혜(chokhmot)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 상을 갖추 뒤 여종들을 성중 높은 곳으로 보내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9:4) 부르는 공개된 잔치(9:1-6)와, 책망이 누구에게 닿는가의 진단과 근본의 재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9:10)을 품은 간주(9:7-12)를 지나, 같은 초대문(9:16=9:4)을 흥내내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9:17)는 식탁으로 행인을 부르는 미려한 여인(eshet kesilut)의 그림(9:13-18)으로 닫히는 — 1~9장 서론 전체를 두 식탁 앞의 한 선택으로 응축하는 장이다.

한 문단: 한낮의 성읍, 가장 높은 지대에 새 집이 선다. 일곱 기둥이 다듬어지고, 짐승이 잡히고, 포도주가 섞이고, 상이 차려진다. 여종들이 문을 나서 외친다 —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거리 위로 서늘한 진단이 이어진다 —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미움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사랑이 돌아온다. 그리고 성문 위에 새겨지는 한 문장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화면이 같은 높이의 다른 집으로 미끄러지면, 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차린 것은 없고 떠드는 소리만 크다. 방금 들었던 초대문이 글자 그대로 다시 울리고, 속삭임이 따라붙는다 — 도둑질한 물이 달다. 행인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본문은 독자에게만 식탁 아래를 열어 보인다. 거기, 스올 깊은 곳에 먼저 온 손님들이 있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같은 높이의 두 집. 일곱 동작의 공방 對 두 동작의 문턱. 만져지는 식탁 對 말로만 있는 물과 떡. 6·6·6 세 패널.
2 첫 느낌·분위기	잔치 전날의 분주함 — 떠들썩한 식음 — 정적. 16절에서 같은 초대문이 재생되어 듣는 쪽이 시험대에 오름. 자격이 아니라 돌이킴을 묻는 낮은 문턱.
3 시작과 끝	위로 올라가는 건축(1절)에서 아래로 꺼지는 스올(18절)로. 아는 주어의 일곱 동작에서 "알지 못하느니라"의 정지로.
4 등장인물·사상	지혜·여종·peti·chasar lev·lets·chakham·미려한 여인·행인·rephaim. 중심은 9:10 — 명철의 내용이 한 분을 아는 일. 12절 선택의 단독성.
5 장면 컷	준비(1~3)/초대(4~6)/수신자론(7~9)/근본(10~12)/문 앞의 여인(13~15)/복제된 초대와 지하(16~18) 6컷. 양 끝 거울, 가운데 들음 패널.
6 의문·발견·정보	1:7↔9:10 인클루지오(reshit→techillah의 변주). 4절=16절 완전 복제. 같은 연단에 오른 가짜. 반박되지 않는 단맛. 근동 연회 관습 배경.
7 동영상	일곱 기둥의 빛 → 여종의 외침 → 성문 위의 근본 선언 → 문 앞의 여인 → 같은 문장 → 식탁 아래의 깊은 → 나란한 두 문, 압전.
8 초별 제목·부제	"두 식탁 — 지은 집과 앉은 문"
9 기도·내면	사람을 부르는 내 말 뒤에 차려 둔 것이 있는지 비추어 본다. "내 식물·내 포도주" — 차린 사람의 초대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준비의 유무:** 지혜는 부르기 전에 짓고 다듬고 잡고 섞고 차리고 보낸다(9:1-3). 미련한 여인은 앉아서 부른다(9:14-15). 일곱 동작 對 두 동작 — 두 초대와 차이는 말씀씨가 아니라 식탁의 실재에 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9:17)은 무대 위에 실물로 보이지 않고 평판으로만 존재하는데, 지혜의 고기와 포도주는 손이 간 실물이다. 9장은 부름의 진위를 차림으로 판별하게 한다.
2. **결 2 — 복제된 초대문:**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9:4) — 이 문장이 9:16에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반복된다. 본문 스스로 두 부름을 귀로 구별 불가능하게 편집해 놓고, 구별의 근거를 문장 바깥에 두었다. 1장의 땀이 골목의 속삭임이었다면 9장의 어리석음은 지혜와 같은 연단에서 같은 대본을 읽는다 — 서론이 진행될수록 분별의 난도가 올라가는 설계다.
3. **결 3 — 두 가지 앎:** 9:10은 명철을 "거룩하신 자들을 아는 것"으로 명시하고, 9:18은 손님들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로 닫는다. 9장에서 갈리는 것은 결국 앎의 방향이다 — 한 분을 아는 앎과, 제 식탁 밑을 모르는 무지. 13절의 미련한 여인 자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 속이려는 의도조차 없이 사람을 스올로 데려가는 초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 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7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 9:10과 함께 1~9장 서론의 양 끝을 잡는 인클루지오.
- 잠 8:1-3 — 길 가의 높은 곳에서 부르던 지혜 — 9:3의 외침과 같은 위치, 8장의 자기 선언이 9장의 잔치로 이어짐.
- 잠 7:27 · 2:18 —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 음녀의 집과 미련한 여인의 식탁이 같은 종점을 공유.
- 잠 5:15-17 — "네 우물의 물을 마시라" — 도둑질한 물(9:17)의 반대 그림.
- 사 55:1-3 —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 차린 이가 값없이 부르는 식탁 어법의 먼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절의 동사 행렬에서 시작한다 — 짓고, 다듬고, 잡고, 섞고, 차리고. 부름보다 먼저 움직인 손들을 천천히 따라간다.
-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식탁. 자격이 아니라 방향을 묻는 초대 앞에 선다.
- **멈춤 2:** 16절에서 멈춘다 — 같은 문장이 다시 들린다. 내 귀가 두 소리를 무엇으로 가르고 있는지 본다.
- **끝:** 18절에서 멈춘다 — 식탁 아래의 깊음은 손님에게 보이지 않았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상의 아래를 나는 아는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잔치(1~6)·간주(7~12)·식탁(13~18)의 6·6·6 세 패널 완결
- [x] 1:7↔9:10 인클루지오와 변주(reshit→techillah)
- [x] 4절=16절 완전 동일 초대문의 평행
- [x] 거울 항목(준비/무준비·생명/스올·앎/무지)의 대칭
- [x] 7~12절 들음·근본 패널이 두 잔치 사이를 잇는 배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

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9장은 첫 국면을 닫는 그림이다. 1장에서 골목의 뿔과 광장의 외침으로 갈라졌던 두 목소리, 5~7장에서 음녀의 집으로 그려졌던 한쪽 길, 8장에서 창조 앞의 동반자로 서 있던 지혜 — 아홉 장의 모든 길 이야기가 9장에서 두 식탁 앞의 한 선택으로 응축된다. 그리고 9:10이 1:7과 인클루지오를 이루며 서론이 발행했던 모토를 상환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를 자격 없이 부르는 차려진 식탁의 그림은 정경을 가로질러 길게 메아리치는 초청 어법 —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사 55:1) — 의 이른 형태이며, 잔치로 비유되는 부르심의 통로를 지혜 문학 안에 연다. 10장부터의 대구 잠언 수백 개는 9장이 좁혀 놓은 이 한 갈림을 일상의 수백 갈래로 다시 푸는 작업이 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러 장에 걸친 두 길의 서사에서 두 식탁 앞의 한 선택으로 / 8장의 우주적 지혜에서 들어가 앉을 한 채의 집으로 / 1:7의 발행된 모토에서 9:10의 상환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서론 아홉 장이 펼쳐 온 모든 길 이야기를 식사 한 끼의 그림으로 응축하는 운동이다. 8장에서 창조 앞에 서 있던 지혜가 9장에서는 동네에 집을 짓고 상을 차린다 — 원리가 처소로, 강의가 식사로 내려오는 방향이다. 동시에 어리석음도 진화한다. 1장의 골목 속삭임이 9장에서는 지혜와 같은 높이의 연단에서 같은 대본을 읽는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모조도 정밀해지는 이중 운동 —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 그림은 더 쉬운 분별이 아니라 더 깊은 분별을 요구하며 닫힌다. 그리고 이 닫힘은 10장의 개막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라"(10:1)라는 새 표제 아래 쏟아지는 의인과 악인의 대구들은, 9장의 두 식탁을 일상의 말·돈·손·혀의 차원으로 번역하는 긴 작업이 된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잔치의 비교다 — 잘 차린 상과 부실한 상이라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대조.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부름이라는 것의 구조가 움직인다. 지혜의 초대는 말보다 식탁이 먼저다 — 짓고 잡고 쉼은 일곱 동작이 끝난 뒤에야 여종이 보내진다. 사람을 부르는 일이 비용을 먼저 치르는 일로 그려지는 것이다. 반대편 부름은 비용이 없다 — 앉아서, 차린 것 없이, 남의 것("도둑질한 물")을 약속한다. 그리고 더 깊은 물길 하나 — 지혜의 식탁이 겨냥하는 손님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 마음이 모자란 자(chasar lev)다. 들어오는 조건이 자격이 아니라 돌이킴이라는 것. 환대의 문턱이 바닥까지 낮춰져 있는데, 그 낮은 문턱조차 모조될 수 있다는 것(9:16)이 9장의 무거움이다. 본문은 모조를 막아 주지 않는다. 다만 독자에게만 식탁 아래를 열어 보여 주고(9:18), 9:10의 얇 — 거룩하신 자들을 아는 것 — 을 두 식탁 사이에 세워 둔다. 분별은 정보가 아니라 사ق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장이 수면 아래에 쥐고 있는 본질로 보인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게 들리는 초대들은 문장만으로는 갈라지지 않는다 — 나는 부름의 말이 아니라 식탁의 차림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말 뒤에 내 것으로 차려 둔 상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말을 반박하지 않는다 — 단맛을 인정한 채 식탁 밑을 열어 보일 뿐이다. 그리고 지혜의 상은 여전히 차려져 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9:5) — 자격을 묻지 않고 방향만 묻는 식탁. 12절이 그 선택의 무게를 한 사람의 어깨에 올려놓는다 —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9장은 두 문 사이의 거리, 같은 초대문이 두 번 울

리는 그 거리에 독자를 세워 두고, 어느 문지방을 넘을지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한쪽 문 안에는 생명이, 다른 쪽 문 아래에는 먼저 온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차려진 상 — 그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두 식탁 앞에서 좁혀진 한 갈림이 이제 일상의 수백 갈래로 풀린다 —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10: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echillah* — 근본, 다른 단어로 돌아온 같은 선언.

미해결 질문

잠언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일곱 기둥(9:1)은 무엇인가 — 건축 관행인가, 완전수의 상징인가, 더 큰 집의 형상인가?

- 본문은 기둥의 수만 말하고 용도와 의미를 풀지 않는다. 후대의 여러 읽기(토라 일곱 책·창조 칠일 등)는 배경으로만 두고, 다듬어진 일곱이라는 형태 자체를 보존.

Q2. 9:4와 9:16의 초대문이 토씨까지 같은 것 — 듣는 사람은 무엇으로 두 소리를 가르는가?

- 본문은 구별 근거를 문장 안에 두지 않고 바깥(준비·식탁·종점)에 두었다. 같은 말이 두 길로 갈라지는 이 편집의 의도는 미해결로 이월.

Q3. 책망의 수신자론(9:7-9)이 두 잔치 사이에 놓인 까닭은 무엇인가?

- 잔치 알레고리의 한가운데 갑자기 들음의 진단이 끼어드는 배열. 초대의 무차별("어리석은 자는 이리로")과 책망의 선별("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사이의 간격과 함께 보존.

Q4. 1:7의 *reshit*과 9:10의 *techillah* — 같은 선언이 다른 단어로 돌아온 차이는 무엇을 담는가?

- *daat*(지식)도 *chokhmah*(지혜)로 바뀌었다. 인클루지오가 복사가 아니라 변주라는 형태 관찰만 두고, 변주의 무게는 미해결로 이월.

Q5. *qedoshim*(거룩하신 자들, 9:10) 복수형 — 존엄의 복수인가, 거룩한 이들을 가리키는가?

- 형태는 복수, 평행구의 "여호와"와 짝을 이룬다. 번역들도 같린다. 형태만 보존하고 판정은 보류.

Q6. 미련한 여인(*eshet kesilut*)은 5~7장의 음녀와 같은 인물인가, 의인화된 어리석음인가?

- 13절의 *homiyyah*(떠들썩한)가 7:11의 음녀 수식과 같고, 집의 종점(스울)도 7:27과 겹친다. 그러나 *kesilut*라는 추상명사는 의인화 쪽을 가리킨다. 두 절을 모두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0장

PRO-010 · 시가서 · 히브리어

"솔로몬의 잠언이라"(10:1a)라는 둘째 표제와 함께 1~9장의 긴 강화가 한 절 단위의 반의 대구로 바뀌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10:1)의 가정에서 시작해 의인의 입술(10:32)로 닫히는 — 두 길의 큰 그림이 말·돈·일·이름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는 대구 잠언 모임의 개막.

관찰된 사실

잠언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해체와 증식: 1~9장의 연속 공간(집·광장)이 사라지고 한 절마다 독립된 미니 무대 — 식탁의 가정(1절), 추수철 들판(4~5절), 성벽의 성읍(15절), 폭풍 별판(25절), 식초·연기의 부엌 결(26절).
- 소품(밝음): 부지런한 손(4절), 여름 곡식(5절), 생명의 샘(11절), 허물을 덮는 사랑(12절), 순은 같은 혀(20절), 근심 없는 복(22절), 영원한 기초(25절), 산성(29절).
- 소품(어둠): 불의의 재물(2절), 게으른 손(4절), 찢는 이름(7절), 독을 머금은 입(6·11절), 채찍(13절), 궁핍(15절), 회오리바람(25절), 이에 시린 식초·눈에 매운 연기(26절).
- 소재의 군집: 입·입술·혀 관련 절이 서른두 절 중 약 3분의 1(열두 절 안팎) — 말이 이 장의 최대 지분.
- 반의 평행의 틀: 거의 모든 절이 '의인/악인 — 지혜/미련 — 부지런/게으름'의 두 행 대비. 18절만 두 행이 같은 방향(둘 다 부정)으로 쌓이는 변주.
- 둘째 표제 "솔로몬의 잠언이라"(10:1a) — 1:1과 동일 구가 모임의 경계 표시로 재등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호흡의 전환: 1~9장의 긴 설교 호흡에서 한 절 읽고 멈추는 끊어진 호흡으로. 절 사이의 여백이 곱씹는 읽기로의 초대처럼 작동.
- 스틸컷 연사의 감각: 카메라 롱테이크가 아니라 셔터 서른두 번 — 의인·악인의 두 얼굴 대비가 컷마다 누적됨.
- '~거니와/~느니라'의 안정된 박자 한가운데서 22절("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이 쉼표처럼 따뜻하게 놓임.
- 중간 지대 없는 양자택일의 압력 — 그 행렬 속에서 15절만 권면 없는 현실 묘사로 온도가 다름.
- 26절의 감각 직유: 식초의 신맛(이)·연기의 매움(눈) — 추상어 없이 몸의 감각만으로 완성되는 절.
- 6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의 동일 후렴("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 다섯 절 간격으로 되돌아오는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 가정(부모의 기쁨·근심)에서 시작해 입술(말의 분별)로 닫히는 배열 — 최소 공동체에서 최소 신체 기관으로.
- 1절 '기쁘게 하거니와'와 32절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 같은 어휘 계열이 장의 양 끝을 묶음.
- 1절의 '근심'(어미의 근심)과 22절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 사람이 만드는 근심과 근심 없는 복의 장 전체 대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혜로운 아들·미련한 아들(1·5절), 아비·어미(1절), 의인(tsaddiq)·악인(rasha) — 주연 쌍, 게으른 손·부지런한 손의 주인(4절), 부자·가난한 자(15절), 게으른 자와 그 부리는 사람(26절), 명철한 자(13·23절). 전원 무명의 유형 인물 — '내 아들이' 호명의 퇴장.
- 여호와와의 등장 절: 3절(주리지 않게 하심)·22절(복의 출처)·27절(경외와 장수)·29절(산성인 도) — 대구 행렬 사이의 네 닻.
- 중심 사상: 두 길의 압축 — 1~9장이 펼친 갈림이 재물(2)·손(4)·이름(7)·걸음(9)·입(11)·소망(28) 등 영역마다 한 절씩 반복됨.
- 12절의 예외적 주어: 인물이 아니라 감정(미움·사랑) 자체가 주어 — 사랑이 하는 일은 들추기가 아니라 가리기.
- 입의 다층 소품화: 샘(11절), 분량의 저울(19절), 순은(20절), 베임당할 혀(31절) — 물과 금속의 이미지 총동원.
- 24절 megorat rasha — 두려움과 소원이 각각 자기 주인을 찾아온다는 문장. 욥 3:25와 같은 어근의 마주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묶음 1 (1~5절): 가정과 노동 — 표제, 기쁨과 근심, 불의의 재물과 건지는 공의, 두 손, 여름 추수.
- 묶음 2 (6~11절): 이름과 입의 개막 — 임하는 복, 기념과 씌는 이름(7절), 평안한 걸음(9절), 생명의 샘(11절). 6b=11b 후렴이 묶음을 감쌌.
- 묶음 3 (12~21절): 말의 군집 — 가리는 사랑(12절), 채찍(13절), 관찰 잠언(15절), 생명 길의 훈계(17절), 제어진 입술(19절), 순은의 혀(20절), 먹이는 입술(21절).
- 묶음 4 (22~30절): 복·두려움·폭풍 — 근심 없는 복(22절), 두려워하는 것의 도착(24절), 회오리바람과 기초(25절), 식초와 연기(26절), 경외와 장수(27절), 산성(29절).
- 묶음 5 (31~32절): 입으로 닫음 — 지혜를 내는 입, 기쁘게 할 것을 아는 입술.
- 24절↔25절의 짝: 추상 법칙(두려움의 도착)이 날씨 그림(회오리바람)으로 한 번 더 그려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ishle Shelomoh(משלי שלמה) — 솔로몬의 잠언. 10:1a 둘째 표제, 1:1과 동일 구. 25:1의 셋째 표제와 함께 모음 경계의 편집 장치 — 배경.
- tsaddiq(צדיק) — 의인. 이 장에만 12회 이상. / rasha(רשע) — 악인. 거의 매번 의인과 짝.
- yad remiyyah(יד רמייה) — 게으른 손(4절). remiyyah는 '느슨함·속임'의 두 결. / charuts(חרוץ) — 부지런한 자, '벼려진'의 어근 결.

- *chamas*(חָמָס) — 폭력·강포(6·11절). 개역의 '독을 머금었느니라'에 해당. 입이 폭력을 '덮어 감춘다 (yekasseh)'는 구문.
- *zekher*(זִכָּרוֹן) — 기념·기억(7절). 이름의 사후가 보관되는 방식.
- *maqor chayyim*(מְקוֹר חַיִּים) — 생명의 샘(11절). 13:14(지혜자의 교훈)·14:27(여호와 경외)로 이어지는 구.
- *ahavah*(אַהֲבָה) — 사랑(12절). / *musar*(מוֹסָר) — 훈계(17절). 1:2의 어휘가 대구 모음에 연속.
- *kesef nivchar*(כֶּסֶף נִבְחָר) — 골라낸 은, 순은(20절). / *birkat YHWH*(בְּרַכַּת יְהוָה) — 여호와와 복(22절).
- *megorat*(מְגוֹרָת) — 두려워하는 것(24절). 욥 3:25와 동계 어근. / *sufah*(סוּפָה) — 회오리바람(25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형식 전환: 강화(lecture, 1~9장) → 반의 평행 대구(antithetic parallelism, 10장~) — 둘째 표제가 그 경계를 표시.
- 말의 절 분포: 6·8·10·11·13·14·18·19·20·21·31·32절 — 열두 절, 약 3분의 1. 가정(1절)에서 열고 입(32절)으로 닫는 프레임 안의 최대 군집.
- 6b=11b 동일 후렴 — 묶음 2(6~11절)의 양쪽 받침. 편집 의도는 미해결.
- 18절의 형식 변주: 반의가 아닌 동방향 평행(두 행 모두 부정) — 틀 속의 예외.
- 15절의 관찰 잠언: 권면·평가 없는 현실 묘사. 규범의 절들 사이에 관찰의 절이 섞여 있다는 장르 신호. 18:11("부자는 그것을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이 같은 문장을 다른 빛으로 재방문.
- 여호와 절(3·22·27·29절)의 간격 배치 — 사람 대 사람의 대비 행렬에 네 번 내려지는 닻.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한 절 단위 격언의 모음집 형식 — 이집트·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과 공유되는 근동 공통 편집 양식 — 배경.
- 여름 추수와 추수 때의 잠(5절) — 우기 전 수확이 생존을 좌우하는 팔레스타인 농경력 — 배경.
- 식초·연기(26절) — 포도주 저장(시어진 술)과 아궁이라는 일상 노동 공간의 감각 — 배경.
- *sufah*(25절) — 근동의 돌발 폭풍, 재앙의 관용적 그림 언어 — 배경.
- LXX: 10:12 하반절을 '우애는 다투지 않는 모든 자를 덮는다'로 옮겨 MT와 결이 갈라짐(벤전 4:8은 MT 결을 따름), 10:24를 의역, 잠언 전반에서 행 첨가·배열 차이 — 배경.
- 후대 유대 전통이 10:2의 *tsedaqah*를 자선으로 읽어 인용한 흔적(탈무드 계열)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0:24 ↔ 욥 3:25 (두려워하는 것의 도착 — 같은 어근, 법칙과 예외의 마주 봄)
- 잠 10:12 ↔ 벤전 4:8 · 약 5:20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 — 신약이 받는 결)
- 잠 10:25 ↔ 마 7:24-27 (폭풍 뒤에 남는 기초 — 반석 위의 집)
- 잠 10장 ↔ 시 1:1-6 (의인·악인의 두 길 — 시가서의 원형 대비)
- 잠 10:11 ↔ 잠 13:14 · 14:27 (생명의 샘 — 수원이 위로 밝혀지는 연쇄)
- 잠 10:1a ↔ 잠 1:1 · 25:1 (세 표제 — 모음 경계의 편집 구조)
- 잠 10:15 ↔ 잠 15:16-17 · 16:8 (부와 가난의 결을 다른 각도로 짚는 잠언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문패가 다시 걸린다 — 솔로몬의 잠언이라. 식탁이 보인다. 한 아들의 곁에서 아버지가 웃고, 빈 의자 곁에서 어머니가 근심한다. 셔터. 들판 — 묶이는 곡식단과 추수 때의 잠. 셔터. 장례 행렬 — 칭찬으로 다시 불리는 이름과 씹어 가는 이름. 셔터. 바른 걸음의 평안과 햇빛에 드러나는 굵은 발자국. 셔터. 의인의 입에서 샘물이 솟고, 곁의 입은 폭력을 덮어 감춘다. 셔터. 미움이 불씨를 던지는 곳에 사랑이 허물 위로 천을 덮는다. 셔터. 재물의 성벽 안과 궁핍의 성벽 밖 — 카메라는 평가 없이 지나간다. 셔터. 작업대 위에서 혀 하나가 순은처럼 골라진다. 셔터. 회오리바람이 별판을 쓸고 간다 — 한쪽은 흔적 없고 한쪽은 기초처럼 남는다. 셔터. 식초가 이에 닿고 연기가 눈에 스민다. 셔터. 마지막 클로즈업 — 무엇이 기쁘게 하는지 아는 입술.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서른두 번의 갈림 — 두 길이 일상의 골목으로 들어오다"
- 초벌 부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라는 둘째 표제와 함께 강화가 한 절 단위의 반의 대구로 바뀌고, 가정의 기쁨과 근심(10:1)에서 시작해 생명의 샘인 의인의 입(10:11)을 지나 기쁘게 할 것을 아는 입술(10:32)로 닫히는 — 대구 잠언 모음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7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형식 전환 + 말의 절 3분의 1 분포 + 6b=11b 후렴 + 관찰 잠언 15절 + 근동 모음집 형식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0:24와 욕 3:25의 마주 봄을 신정론의 결론(잠언이 옳다/욕이 옳다)으로 봉합하지 않고, 정경 안의 공존 관찰로만 둬.
- 10:15의 부자·가난 잠언을 변영 옹호나 빈곤 비난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평가 없는 현실 묘사라는 형식 관찰로 보존.
- 10:12의 '사랑이 허물을 가림'을 무조건적 묵인의 권면으로 단정하지 않고, 덮는 손의 그림 관찰로만 둬.
- 10:22의 복을 물질 보장의 약속으로 확장하지 않고, 장 안의 어구 관찰(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심)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10:1a)라는 둘째 표제 아래 1~9장의 긴 강화를 한 절 단위의 반의 대구로 전환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10:1)의 가정에서 출발해 재물(10:2)·손(10:4)·이름(10:7)·걸음(10:9)을 지나 생명의 샘인 의인의 입(maqor chayyim, 10:11)과 모든 허물을 가리는 사랑(10:12), 회오리바람 뒤의 영원한 기초(10:25)를 거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10:32)로 닫히는 — 두 길의 큰 그림을 말·돈·일·가정이라는 일상의 좁은 골목으로 데려오는 대구 잠언 모음의 개막이다.

한 문단: 문패가 다시 걸린다 —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호흡이 바뀐다. 긴 설교 대신 한 절씩 완결되는 대구들이 셔터처럼 끊어진다. 첫 컷은 식탁이다 — 한 아들 곁의 웃음과 빈 의자 곁의 근심. 들판에서 두 손이 갈라지고, 장례 행렬에서 두 이름이 갈라진다 — 한 이름은 칭찬으로 다시 불리고 한 이름은 썩는다. 의인의 입에서 샘물이 솟는 동안 곁의 입은 폭력을 덮어 감추고, 미움이 불씨를 던지는 곳에 사랑이 허물 위로 천을 덮는다. 재물의 성벽이 평가 없이 지나가고, 혀 하나가 순은처럼 골라지고, 회오리바람이 별판을 쓸고 간 뒤 한 쪽만 기초처럼 남는다. 식초가 이에 닿고 연기가 눈에 스미는 사이,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입술 앞에 멈춘다 — 무엇이 기쁘게 하는지 아는 입술. 거기서 10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큰 무대 하나가 서른두 개의 미니 무대로 — 식탁·들판·성벽·폭풍 별판·부엌. 손·샘·순은·식초의 소품. 말의 절이 약 3분의 1.
2 첫 느낌·분위기	긴 설교에서 한 절의 맥박으로 — 절 사이의 여백이 곱씹는 읽기로 초대. 스틸컷 연사의 누적 대비. 22절의 심표 같은 따뜻함.
3 시작과 끝	가정(1절)에서 입술(32절)로. '기쁘게'라는 어휘가 양 끝을 묶음. 어미의 근심(1절)과 근심 없는 복(22절)의 장 전체 대비.
4 등장인물·사상	무명의 유형 인물들 — 의인·악인이 주연 쌍. 여호와 절 네 개(3·22·27·29)가 닳. 두 길이 영역마다 한 절씩 압축 반복.
5 장면 컷	가정·노동(1~5) / 이름과 입(6~11, 6b=11b 후렴 받침) / 말의 군집(12~21) / 복·두려움·폭풍(22~30) / 입으로 닫음(31~32).
6 의문·발견·정보	말의 절 열두 개. 관찰 잠언 15절. 이름의 두 사후(7절). 10:24↔옴 3:25. 부의 두 출처(4절·22절). 근동 모음집 형식 배경.
7 동영상	문패 → 식탁 → 들판 → 장례 → 샘 → 성벽 → 순은 → 폭풍 → 식초와 연기 → 입술 클로즈업,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서른두 번의 갈림 — 두 길이 일상의 골목으로 들어오다"
9 기도·내면	내 입이 샘인 날과 덮어 감추는 날을 같이 본다. '제어'라는 단어를 쥐고만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형식이 메시지다:** 둘째 표제(10:1a)가 표시하는 것은 저자명만이 아니라 호흡의 전환이다. 여러 절에 걸친 강화가 한 절 안에서 완결되는 대구로 바뀌면서, 읽기 자체가 달라진다 — 따라가는 읽기에서 한 알씩

곱씹는 읽기로. 그리고 두 길의 선택이 인생의 큰 기로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안의 작은 갈림 서른두 번이라는 것을,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먼저 말한다.

2. 결 2 — 말의 지분: 서른두 절 가운데 열두 절 안팎이 입·입술·혀의 절이다. 입은 생명의 샘(11절)이고, 말의 분량은 허물의 확률이며(19절), 의인의 혀는 순은이고(20절), 패역한 혀는 베임을 향한다(31절). 가정에서 연장이 입에서 닫히는 배열까지 더하면, 대구 모음의 개막 장이 말에 최대 지분을 배정했다는 편집의 발언이 또렷하다.

3. 결 3 — 약속이 아니라 결의 진술: 15절은 명령 없이 현실을 그리고, 4절과 22절은 부의 출처를 손과 복으로 두 번 다르게 말하며, 24절의 법칙은 욥 3:25라는 예외를 정경 건너편에 둔 채로 서 있다. 잠언의 대구들은 보편 보증서가 아니라 세상의 결이 대체로 이렇게 나 있다는 관찰의 진술이다 — 그 간격이 잠언을 부적이 아니라 지혜로 만든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욥 3:25 —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 잠 10:24의 일반 법칙과 같은 어근으로 마주 보는 예외. 정경 안의 대화.
- 벰전 4:8 · 약 5:20 —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 잠 10:12의 결을 받는 신약의 인용.
- 마 7:24-27 — 반석 위의 집과 폭풍 — 잠 10:25의 '영원한 기초'가 닿는 이미지 계보.
- 시 1:1-6 —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 10장 대구 시리즈의 시가서 원형.
- 잠 13:14 · 14:27 — 생명의 샘이 지혜자의 교훈으로, 여호와 경외로 거슬러 오르는 연쇄.
- 잠 25:1 —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 표제들이 그리는 모음집 편집의 지형.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지혜의 첫 계량 단위가 부모의 얼굴이라는 것. 내 선택이 누군가의 기쁨이거나 근심이라는 것.
- **멈춤 1:** 11절에서 멈춘다 — 생명의 샘. 오늘 내 입에서 나간 것이 누군가의 마실 물이었는지 떠올린다.
- **멈춤 2:** 19절에서 멈춘다 — 말이 많으면. 분량과 허물의 비례가 내 하루의 말 수를 세게 한다.
- **끝:** 24절과 욥 사이에서 멈춘다 — 대체로 그러한 결과 그렇지 않았던 한 사람. 법칙을 쥐되 부적으로 쥐지 않는 법을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둘째 표제(10:1a)와 형식 전환(강화→대구)의 기록
- [x] 가정(1절)→입(32절) 프레임과 '기쁘게' 어휘의 수미
- [x] 말의 절 열두 개 분포와 6b=11b 후렴
- [x] 관찰 잠언(15절)과 부의 두 출처(4·22절)의 긴장 보존
- [x] 10:24↔욥 3:25의 정경적 마주 봄 — 미해결로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0장은 그 둘째 국면의 개막이다. 1~9장이 두 길

의 큰 그림 — 두 여인, 두 잔치, 두 집 — 을 그렸다면, 10장부터 그 갈림이 말·돈·일·이름·가정이라는 좁은 골목들로 들어온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시내산의 토라가 1~9장에서 부모의 식탁 언어로 번역되었듯이 10장에서는 다시 한 절짜리 일상 언어로 번역된다 — 언약 백성의 거룩이 성소의 일만이 아니라 손의 부지런함과 입술의 제어와 저울의 정직(11:1)으로 살아진다는 번역. 그리고 10장이 세우는 장르 문법 — 잠언은 보편 약속이 아니라 결의 관찰이라는 것 — 은 욕기·전도서와 함께 지혜서 정경이 한 목소리가 아니라 대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첫 표지다.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이라 부른 10:11의 어구는 13:14와 14:27을 거쳐 수원이 위로 밝혀지며,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약속하는 더 먼 음성까지 정경의 물길을 연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두 길의 큰 그림에서 일상의 좁은 골목으로 / 강화의 긴 호흡에서 한 절의 맥박으로 / 가정의 기쁨과 근심(10:1)에서 기쁘게 할 것을 아는 입술(10:32)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1~9장이 세운 모토를 일상의 잔돈으로 바꾸는 운동이다.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는 큰 선언이 손의 부지런함, 말의 분량, 이름의 사후, 폭풍 앞의 기초라는 작은 단위들로 환전된다. 다만 이 환전은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도착이다 — 지혜가 강의실을 떠나 부엌과 들판과 시장에 도착하는 운동이고, 11장의 저울과 추("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11:1)로 곧장 이어지는 골목 순례의 첫 구간이다. 두 길은 이제 매 절마다, 매일의 선택마다 다시 갈라진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 격언 모음이다 — 부지런해라, 말을 아껴라, 바르게 걸어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인격의 무게중심이다. 대구들은 행위 하나하나를 채점하기보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사람의 결을 본다 — 입에서 샘이 솟는 것은 발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의 수원 때문이고, 이름이 썩는 것은 평판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삶 전체의 부패 때문이다. 잠언의 관심은 좋은 말솜씨가 아니라 샘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법칙과 예외 사이의 정직함이다. 10장은 대체로 그러한 결을 서른두 번 진술하면서도, 자기 문장을 기계적 보증서로 봉인하지 않는다 — 15절은 평가 없이 현실을 그리고, 4절과 22절은 부의 출처를 조율 없이 둘 다 두고, 24절은 욕이라는 반례가 정경 건너편에 살아 있는 채로 법칙을 말한다. 세상의 결을 신뢰하되 그 결을 공식으로 굳히지 않는 이 절제가, 회오리바람 앞에서도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25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깝다 — 결과의 보증이 아니라 지탱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입은 오늘 샘이었는가, 덮어 감추는 손이었는가. 서른두 번의 갈림 가운데 나는 오늘 몇 번을 어느 쪽으로 갈라졌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영웅적 결단 한 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하루가 작은 갈림들로 짜여 있다는 것 — 손을 놀리는 방식, 말의 분량, 허물 앞에서 덮을지 들출지의 순간, 추수 때에 잘지 깎지의 아침 — 을 서른두 장의 스틸컷으로 보여 줄 뿐이다. 그리고 그 갈림들의 끝에 입술이 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10:11) — 한 사람의 입이 누군가의 수원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이, 채찍과 멸망의 어휘들 사이에서 불씨처럼 남는다. 오늘 내 결의 한 사람이 내 말에서 마실 물을 얻었는가 — 그 물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골목의 다음 모퉁이에는 시장의 저울이 놓여 있다 —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11: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qor chayyim* — 생명의 샘, 입의 수원.

미해결 질문

잠언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0:24("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와 욥 3:25("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 잠언의 일반 법칙과 의인 욥의 예외가 같은 어근(*megorah* 계열)으로 마주 본다. 정경이 둘 다를 지혜서로 보존한 이유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10:15("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는 칭찬인가, 관찰인가?

- 권면도 평가도 없는 현실 묘사. 18:11이 같은 문장에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를 더해 다른 빛을 비춘다. 이 절 단독의 결은 열린 채로 보존.

Q3. 부는 손에서 오는가(10:4), 복에서 오는가(10:22)?

- 부지런한 손이 부하게 한다는 절과 여호와와 복이 부하게 한다는 절이 같은 장 안에 나란하다. 본문은 둘을 조율하는 문장을 주지 않는다. 보존.

Q4. 6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의 동일 후렴("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의 편집 의도는 무엇인가?

- 다섯 절 간격의 토씨까지 같은 반복. 묶음(6~11절)의 양쪽 받침인지, 구전 모음의 흔적인지 — 형식만 관찰하고 의도는 미해결로 이월.

Q5. 10:12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 가림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덮음·용서·묵인의 경계를 본문은 긋지 않는다. LXX가 다르게 옮긴 절이고, 벨전 4:8이 MT의 결을 받는다. 가리는 손의 그림만 보존.

Q6. 10:7 — 이름의 두 사후(칭찬으로 남는 기념, 찢는 이름)에서 기억은 어디에 보관되는가?

- 공동체의 입인지, 여호와와의 기억인지, 둘 다인지 본문은 특정하지 않는다. *zekher*라는 단어의 보관처는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1장

PRO-011 · 시가서 · 히브리어

"속이는 저울(*mozne mirmah*)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even shelemah*)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11:1) — 장사의 도구가 예배의 언어로 평가되며 열리고, 한 사람의 곁이 성읍(*qiryah*)의 환호와 무너짐으로 변지며(11:10-11), 흠어 구제하는 자가 더 부해지는 역설(11:24-25)을 지나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ets chayyim*)에 닿는(11:30) — 경외가 시장과 골목의 경제로 내려온 대구 잠언의 장.

관찰된 사실

잠언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동선: 성문 어귀 시장의 좌판(1절) → 성읍의 거리·성벽(10~11절) → 한담하는 자가 도는 골목(13절) → 곡식 창고(26절) → 씨 뿌리는 들판·푸른 잎·나무(18·28·30절). 한 성읍을 도는 항공 촬영형 배치.
- 소품: 두 접시 저울(*mozne*)과 돌 추(*even*), 재물, 금 고리(*nezem zahav*)와 돼지 코, 곡식(*bar*), 물(25절), 푸른 잎사귀(28절), 바람(29절), 생명나무(30절) — 전부 손에 만져지는 물질.
- 소재의 등뼈: 의·의인·공의(*tsedaqah/tsaddiq*) 계열이 4·5·6·8·9·10·18·19·21·23·28·30·31절에 분포 — 거의 두 절에 한 번.
- 1절과 20절에 같은 단어 쌍 *toevah*(미워하심)/*ratson*(기뻐하심) — 저울과 마음에 한 번씩 걸리는 액자.
- 여호와의 감정 술어가 시장 도구에 적용되는 개막(1절) — 거래가 처음부터 그분의 반응 아래 놓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한 절마다 장면이 바뀌는 빠른 호흡 — 시장 골목의 몽타주. 그 소음 한가운데서 1절만 이상하게 고요함.
- 군중을 잡는 카메라: 성읍(10~11절)·백성(14·26절) — 개인 잠언들 사이로 도시 전체의 함성이 끼어드는 음향.
- 건짐의 등불: *natsal*·구원 계열이 4·6·8·9절 네 절 연속 — 위협의 어휘 절마다 켜지는 안도.
- 손의 감각: 추를 쥐는 손, 창고 문을 닫고 여는 손, 씨를 흘리는 손, 물을 대 주는 손, 바람만 남는 손(29절).
- 대구의 진자 박자가 22절에서 한 번 깨짐 — 반의 대구 대신 직유 한 컷(돼지 코의 금 고리).
- 2절의 운: *ba zaton vayyavo qalon* — 교만(*zaton*)과 욕(*qalon*)이 같은 울림으로 잇따라 들어옴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 저울로 열리고 '하물며'의 비교 논법으로 닫힘 — 계량의 언어가 양 끝을 잡음.
- 평서의 선언("기뻐하시느니라")으로 열리고 수사 의문("죄인이리요")으로 닫힘 — 마지막 계산은 독자의 몫.

- 좌판 하나(1절)에서 "이 세상에서(baarets)"(31절)로 — 손바닥 위 돌 추에서 땅 전체로 줌아웃.
- 여호와와 반응이 등뼈: 미워하심/기뻐하심(1절) — 미움/기뻐하심(20절) — 은총(27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전원 무명): 속이는 상인과 공평한 상인,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tsenuim),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한 담하며 도는 자(rakhil)와 신실한 마음, 보증 서는 자, 유덕한 여자(eshet chen), 인자한 자(ish chesed)와 잔인한 자(akhzari), 삼가지 않는 미인, 흘리는 자(mefazzer)와 움켜쥐는 자, 곡식을 줌 자와 파는 자, 의인과 악인 — 직업·성격·손버릇으로만 불리는 갤러리.
- 중심 사상: 행위가 행위자에게 먼저 돌아오는 부메랑 구조 — 3절(성실이 자기를 인도/패역이 자기를 망하게), 5·6절, 17절(자기 영혼/자기 몸), 25절(자기도 윤택), 29절(자기 집·바람 상속). 재귀의 '자기'가 장 전체에 깔림.
- 공동체 군집(9~14절): 이웃(9·12절) — 성읍 qiryah(10~11절) — 비밀·소문(13절) — 백성과 지략 tachbulot(14절). 말과 공동체의 운명이 묶이는 여섯 절.
- 곡식(26절): 쥐면 백성의 저주, 풀면 머리에 임하는 복 — 같은 물건이 문의 개폐로 갈림.
- 물(25절): 물을 대 주는 자(marveh)가 자기도 물 댐을 받음.
- 지혜로운 입은 두 번 다 닫혀 있음: 잠잠한 명철(12절), 비밀을 숨겨 주는 신실함(1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저울의 개막 — 공평한 추, zadon-qalon, 성실과 패역, 진노의 날의 재물과 건지는 공의, 끊어지는 악인의 소망.
- 컷 2 (9~15절): 입과 성읍 —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입, 성읍의 환호와 무너짐, 잠잠한 명철, 비밀의 누설과 숨김, 지략 없는 백성, 보증의 손해.
- 컷 3 (16~22절): 사람의 결 갤러리 — 유덕한 여자, 인자와 잔인의 부메랑, 허무한 삶과 확실한 상, 1절 단어 쌍의 재등장(20절), 돼지 코의 금 고리.
- 컷 4 (23~27절): 흘림의 경제 — 흘어도 더해지는 자, 아껴도 가난해지는 자, 물을 대 주는 자, 곡식 창고의 저주와 복, 선을 구하는 새벽.
- 컷 5 (28~31절): 나무와 바람 — 떨어지는 재물 의지와 푸른 잎의 의인, 바람의 상속, 생명나무인 의인의 열매, '하물며'의 달음.
- 컷 사이 이음새: 이웃한 절들이 입·성읍·재물·농사 어휘로 손을 잡는 목걸이형 편집. 4절은 10:2 하반절과 거의 같은 행 — 편집 현상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ozne mirmah*(מִצְנֵה מִרְמָה) — 속임의 저울. mirmah는 속임수·기만. 1절.
- *even shelemah*(עֵבֶן שְׁלֵמָה) — 온전한 돌. 고대의 추는 돌이었고 shelemah는 shalom(온전·평화) 동계. 1절.
- *toevah*(תוֹעֵבָה)·*ratson*(רָצוֹן) — 미워하심·기뻐하심. 제의 어휘가 저울(1절)과 마음(20절)에 적용됨.
- *zadon*(צָדוֹן)·*qalon*(קָלוֹן) — 교만·욕. 2절의 윤. / *tsenuim*(צְנוּעִים) — 겸손한 자들. 미 6:8 동계의 드문 단어.
- *tom*(טֹם) — 성실·온전함. / *selef*(סֵלֶף) — 패역·비틀림. 3절.
- *qiryah*(קִרְיָה) — 성읍. 10~11절. / *holekh rakhil*(הוֹלֵךְ רַחִיל) — 행상처럼 도는 자. 행상 어근 — 비밀을 물건처럼 지고 다니는 그림. 13절.

- tachbulot(תַּחְבּוּלוֹת) — 지락. 밧줄(chewel) 계열로 풀이되는 조타의 뉘앙스. 14절.
- eshet chen(אֶשֶׁת־חַן) — 은혜의 여자. / aritsim(אֲרִיסִים) — 개역개정 '근면한 남자', 형태는 다른 본문들에서 '강' 포한 자'로 옮겨지는 단어. LXX는 이 절을 크게 확장. 16절 — 번역 비교 보존.
- ish chesed(אִישׁ־חֶסֶד)·akhzari(אֲחֲזָרִי) — 인자한 사람·잔인한 자. 17절.
- nezem zahav(נֶזֶם־זָהָב) — 금 고리·코걸이. 22절. / mefazzar(מִפְזָר) — 흘리는 자. 24절.
- nefesh berakhah(נֶפֶשׁ־בְּרָכָה) — 축복의 영혼. / marveh(מַרְוֶה) — 물을 대 주는 자. 25절. / bar(בָּר) — 곡식. 26절.
- okher beto(עֹכֵר בֵּיתוֹ) —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수 7장 아골 골짜기의 '괴롭게 하다'와 같은 어근. 29절.
- ets chayyim(עֵץ חַיִּים) — 생명나무. 3:18에 이어 두 번째 등장. 3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서른한 절 거의 전부가 반의 대구 — 앞 행과 뒷 행이 반대로 마주 보는 진자 박자.
- toevah/ratson 액자(1·20절): 시장 도구의 기준이 마음의 됴됨이로 반복 — 밖에서 안으로.
- 공동체 군집(9~14절): 개인 대구 행렬 속에 이웃·성읍·백성 단위가 연속으로 솟는 구간.
- 부메랑 구문: 3·5·6·17·25·29절 — 행위의 목적어가 행위자 자신으로 돌아오는 재귀 구조.
- 역설의 경제(24~26절): yesh(있다)로 여는 목적담 어투 — 흐름이 더함이 되고 움켜잡이 가난이 되는 역방향 셈법.
- 22절의 박자 파괴: 반의 대구 대신 직유 한 컷 — 권에서 가장 거친 그림.
- 31절의 하물며 논법(qal vachomer):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 장 전체를 계량의 언어로 닫음.
- 4절 ↔ 10:2 — 거의 같은 행의 재사용. 대구 모임의 편집 현상.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두 접시 저울과 주머니 속 돌 추 — 살 때와 팔 때 추를 바꿔 쓰는 속임수가 실재했던 상거래 배경. 신 25:13~16이 두 종류 추를 금지.
- 아메네모페의 교훈 — 저울을 속이지 말고 추를 바꾸지 말라는 단락. 저울 윤리는 근동 지혜 전통의 공통 주제 — 배경.
- 성문 어귀 — 재판·상거래·공론의 공공 공간. 성읍의 환호(10~11절)가 울리는 사회적 무대.
- 기근 때 곡식 매점 — 창고를 닫아 값을 올리던 농경 사회의 실물 배경(26절).
- 코걸이(nezem) — 근동 여인의 장신구. 22절 직유의 물질 배경.
- LXX: 11:16을 네 행으로 확장(부지런한 자·게으른 자 첨가), 11:31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으로 옮김 — 벧전 4:18이 이 형태를 인용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1:1 ↔ 신 25:13-16 · 레 19:35-36 (공평한 추·되의 율법 배경)
- 잠 11:1 ↔ 잠 16:11; 20:10; 20:23 (저울·추 잠언의 권 안 반복 — 16:11은 "저울은 여호와와 의 것")
- 잠 11:1 ↔ 암 8:5 · 미 6:10-11 (거짓 저울을 꾸짖는 선지자 본문)
- 잠 11:4 ↔ 잠 10:2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 거의 같은 행)
- 잠 11:30 ↔ 잠 3:18; 13:12; 15:4 (생명나무 어휘의 누적)
- 잠 11:31 ↔ 벧전 4:18 (LXX 형태의 인용)

- 잠 11:13 ↔ 레 19:16 (힘담 금지 — 후대 주석 전통의 연결,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문 어귀의 아침 시장 — 좌판 위 두 접시 저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돌 추 하나. 자막처럼 지나가는 행 —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의 발소리 뒤로 욕이 같은 울림으로 따라 들어온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진노의 날, 움켜쥔 재물이 힘을 잃고 공의가 한 사람을 죽음의 문턱에서 잡아끈다. 카메라가 성벽 위로 — 의인이 행통하자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자 함성이 성벽을 흔든다. 골목에서는 한 사람이 남의 비밀을 물건처럼 풀어놓고, 다른 한 사람은 들은 것을 가슴에 덮는다. 키잡이 없는 배처럼 떠내려가는 백성, 줄을 당기는 모사들의 손. 갤러리 — 존영을 붙드는 여인, 제 영혼을 살찌우는 인자, 제 살을 깎는 잔인, 돼지 코의 금 고리 한 점. 들판 — 씨를 흘리는 손. 흘을수록 차고 움켜쥘수록 빈다. 닫힌 곡식 창고 앞의 저주, 열린 창고 위의 복, 물을 대 준 밭으로 거꾸로 흘러드는 물. 재물을 의지하던 자가 마른 잎처럼 떨어지고 의인이 푸른 잎으로 돌아 나무가 된다 — 생명나무. 바람만 남은 빈집을 지나 땅 전체로 줍아웃 —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저울 위의 예배 — 좌판의 추에서 생명나무까지"
- 초벌 부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여호와와 미움과 기뻐하심으로 평가되며 열리고, 한 사람의 곁이 성읍의 환호와 무너짐으로 번지며, 흠이 구제하는 자가 더 부해지는 역설을 지나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로 불리는 — 경외가 시장과 골목의 경제로 내려온 대구 잠언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toevah/ratson 액자 + 공동체 군집 + 부메랑 구문 + 근동 저울 윤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1:30의 생명나무를 구원론 교리로 앞당겨 읽지 않고, 3:18 이후 어휘 재등장의 관찰로만 둬.
- 11:24-25의 역설 경제를 번역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yesh(있다)의 목격담 어투를 보존.
- 11:31의 '의인의 보응'을 신학적 판정(상/징계)으로 봉합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 11:16의 번역 차이(근면한/강포한, LXX 확장)를 본문 비평 단정 없이 비교 관찰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1장은 "속이는 저울(mozne mirmah)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even shelemah)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11:1)로 시장의 거래를 그분의 반응 아래 세운 뒤, 입과 비밀과 지략이 이웃과 성읍(qiryah)과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동체 군집(11:9-14), 행위가 행위자에게 먼저 돌아오는 부메랑 구문(11:17 등),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해지는 역설의 경제(11:24-26)를 차례로 통과해, 의인의 열매를 생명나무(ets chayyim)라 부르고(11:30)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11:31)라는 하물며의 물음으로 닫는, 경외가 경제와 공동체의 낱말로 내려오는 대구 잠언의 장이다.

한 문단: 성문 어귀의 시장에서 장이 열린다. 좌판 위 저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돌 추 — 그 위에 여호와의 미움과 기뻐하심이 얹힌다. 교만의 발소리 뒤로 욕이 따라 들어오고, 진노의 날에 재물이 힘을 잃는 동안 공의가 사람을 죽음에서 잡아끈다. 카메라가 성벽 위로 올라가면 의인의 행통에 성읍이 환호하고, 악한 입 하나에 성벽이 무너진다. 골목에서는 비밀이 물건처럼 팔리고, 신실한 마음이 들은 것을 덮는다. 들판에서는 씨를 흘리는 손이 더 거두고 움켜쥐는 손이 비어 가며, 닫힌 곡식 창고에 저주가, 열린 창고에 복이 모인다. 마지막 화면 — 재물을 의지하던 자가 마른 잎처럼 떨어지는 곁에서 의인이 푸른 앞으로 돌아 나무가 된다. 생명나무. 그리고 땅 전체로 줌아웃되며 물음 하나가 남는다 —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시장 좌판 → 성벽 → 골목 → 창고 → 들판의 동선. 돌 추·곡식·물·잎·바람·나무의 소품. 의(tsedaqah) 계열이 등뼈.
2 첫 느낌·분위기	빠른 몽타주 속 1절의 고요. 네 번 커지는 건짐의 등불(4·6·8·9절). 손의 감각. 22절에서 한 번 깨지는 진자 박자.
3 시작과 끝	저울로 열리고 '하물며'의 견증으로 닫힘 — 계량의 언어가 양 끝. 좌판 하나에서 땅 전체로 줌아웃.
4 등장인물·사상	이름 없는 갤러리. 부메랑 구조(자기에게 먼저 돌아오는 행위). 공동체 군집 9~14절. 닫혀 있는 지혜로운 입(12~13절).
5 장면 컷	저울(1~8)/입과 성읍(9~15)/갤러리(16~22)/흠음의 경제(23~27)/나무와 바람(28~31) 5컷. 같은 단어로 손잡는 목걸이형 편집.
6 의문·발견·정보	toevah/ratson 액자(1·20절). 생명나무 누적(3:18→11:30). 돼지 코 직유 미해결. yesh의 어투. 근동 저울 윤리 배경.
7 동영상	돌 추 클로즈업 → 성벽의 함성 → 골목의 소문 → 흘리는 손과 창고의 두 문 → 푸른 잎과 생명나무 → 하물며,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저울 위의 예배 — 좌판의 추에서 생명나무까지"
9 기도·내면	추를 쥐는 손, 창고 문을 닫는 손, 씨를 흘리는 손 — 내 손이 그분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 앞에 놓여 있음을 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toevah와 ratson, 저울에서 마음으로:** 1절이 시장 도구에 적용한 미워하심/기뻐하심의 쌍이 20절에서 마음의 됴됨이에 다시 적용된다. 제의 본문에서 우상과 부정한 제물에 쓰이던 toevah가 좌판의 저울에 쓰인다는 어휘 선택 자체가, 거래와 예배 사이의 칸막이를 지운다. 16:11("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와의 것이요")까지 자라는 저울 주제의 첫 확장이다.
2. **결 2 — qiryah, 한 사람이 성읍의 변수:** 9~14절의 군집에서 개인의 입·정직·지락이 이웃과 성읍과 백성의 운명으로 계산된다. 의인의 형통에 성읍이 즐거워하고(10절),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며,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다(11절). 대구 잠언의 기본 단위는 한 사람이지만, 11장은 그 한 사람의 결이 도시 하나의 흥망으로 증폭되는 배율을 보여 준다.
3. **결 3 — mefazzar, 흘음의 역설과 부메랑:** 흘는 자가 더해지고 움켜쥐는 자가 가난해지는(24절) 역방향의 셈 법이, 행위가 행위자에게 먼저 돌아오는 부메랑 구문(3·5·6·17·25·29절)과 맞물린다. 물을 대 주는 자가 물을 받고(25절), 잔인한 자는 남보다 먼저 제 몸을 해친다(17절). 손이 한 일이 손의 임자에게 돌아오는 이 인과가 11장의 모든 거래를 관통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신 25:13-16 · 레 19:35-36 — 두 종류 추 금지와 공평한 저울 명령 — 11:1의 율법 배경.
- 잠 16:11; 20:10; 20:23 — 저울·추 잠언의 권 안 반복. 16:11은 저울을 "여호와와의 것"으로 선언.
- 암 8:5 · 미 6:10-11 — 거짓 저울을 꾸짖는 선지자 본문 — 시장 윤리가 예언 전통과 닿는 결.
- 잠 10:2 —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 11:4과 거의 같은 행의 재사용.
- 잠 3:18; 13:12; 15:4 — 생명나무 어휘의 누적. 11:30은 두 번째 지점.
- 벰전 4:18 — 11:31 LXX 형태("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의 인용.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저울 위에 얹힌 그분의 감정. 내 거래의 손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본다.
- **멈춤 1:** 13절에서 멈춘다 — 신실함의 증거가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행. 내가 지고 다니는 남의 비밀을 센다.
- **멈춤 2:** 24~25절에서 멈춘다 — 흘는 손이 더 받는 물길의 셈법. 내 손이 트고 있는 물길의 방향을 본다.
- **끝:** 30~31절 사이에서 멈춘다 — 생명나무로 자라는 열매와, 의인도 셈을 치르는 땅. 두 행 사이에 선 채로 장을 닫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저울(1~8)·성읍(9~15)·깎러리(16~22)·흘음(23~27)·나무(28~31)의 다섯 컷 완결
- [x] toevah/ratson 액자(1·20절)와 27절 ratson의 분포
- [x] natsal(건지다) 네 절 연속(4·6·8·9절)의 분포
- [x] 부메랑 구문(3·5·6·17·25·29절)의 재귀 구조
- [x] 생명나무(3:18↔11:30)와 하물며 논법(31절)의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

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1장은 둘째 국면의 두 번째 장으로서 경제와 공동체의 구역을 맡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1장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공평한 추의 율법(레 19:35-36, 신 25:13-16)이 시장 좌판의 격언으로 번역되는 지점이다 — 언약의 명령이 상인의 주머니 속 돌 하나에까지 닿는다. 한 사람의 결이 성읍을 진흥시키거나 무너뜨린다는 10~11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공동체 전체에 번지는 성경 전체의 패턴 — 아간의 골짜기(수 7장, 29절 okher의 어근이 그 기억을 스친다)에서 한 의인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사는 길까지 — 의 잠언적 축약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닫혔던 생명나무가 3:18에 이어 11:30에서 의인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리는 것은, 동산 바깥의 일상 — 시장과 골목과 창고 — 한가운데서 생명의 길이 회복되고 있다는 권 전체의 방향 표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소의 언어(toevah/ratson)에서 시장의 좌판으로 / 한 사람의 손바릇에서 성읍의 운명으로 / 움켜잡는 쉼법에서 흘음의 물길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경외를 거래의 손끝까지 끌어내리는 운동이다. 1:7의 모토가 추상으로 남지 않도록, 본문은 저울 추 하나·곡식 창고 하나·소문 하나를 차례로 그분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 아래 세운다. 다만 이 하강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다 — 좌판에서 시작한 카메라가 성벽의 함성으로, 다시 땅 전체(31절)로 넓어지듯, 한 사람의 정직이 성읍의 진흥으로 증폭된다. 12장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로 배움의 결을 이어받고, 14장의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가 성읍의 배움을 나라 단위로 키우니, 11장의 벡터는 경외가 개인 윤리를 지나 공동체의 흥망으로 자라는 긴 운동의 한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장사 잘하고 말조심하고 베풀며 살라는 처세 모습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소유와 안전의 출처가 움직인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고(4절),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며(28절), 그 사이에서 흘는 자가 더해진다(24절) — 지키려는 손이 잃고 푸는 손이 받는 역방향의 쉼법은, 소유가 움켜잡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부메랑 구문은 그 아래 한 겹을 더 연다: 잔인한 자의 잔인은 피해자에게 닿기 전에 제 몸을 먼저 깎고(17절), 인자한 자의 인자는 남에게 가기 전에 제 영혼을 먼저 살찌운다. 행위는 바깥으로 던지는 돌이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빚는 끝이다. 그리고 이 모든 쉼의 최종 심급이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여호와 미워하심과 기뻐하심(1:20절)이라는 것 — 보는 눈이 없는 거래에서도 저울 위에 그분의 반응이 얹혀 있다는 것이, 11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이다. 시장이 성소의 시선 아래 있다면, 경건은 더 이상 회당의 일과 시장의 일로 나뉘지 않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주머니에는 어떤 추가 들어 있는가 — 그리고 내 손은 지금 움켜쥐고 있는가, 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거창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추 하나, 소문 하나, 창고 문 하나 —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겨 온 작은 거래들이 전부 그분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 앞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흘는 손의 역설(24~25절)이 그 결에 놓인다 — 물을 대 주는 자가 물을 받는다는, 세상의 쉼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물길. 25절의 어투는 명령이 아니라 목격담(yesh)이다. 그런 일이 실재한다고, 본문은 증언만 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푸른 잎으로 돌아 생명나무로 자라는 의인의 열매(28:30절) — 그 나무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시장과 성읍을 돌아온 카메라가 이제 배움의 식탁 앞에 선다 —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12: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ven shelemah* — 온전한 돌, 주머니 속의 예배.

미해결 질문

잠언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11:16의 *aritsim* — '근면한 남자'인가, 어휘 그대로의 거친 결인가?

- 개역개정은 근면한 남자로 옮겼으나 형태는 다른 본문들에서 '강포한 자'로 옮겨지는 단어다. 그렇다면 16절은 두 미덕의 병렬인가, 여자의 존영과 거친 자들의 재물을 건주는 대조인가. 두 동사가 같은 *tamakh*(불들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보존.

Q2. 11:22의 직유 — 금 고리는 아름다움을 꾸짖는가, 분별 없음만 겨냥하는가?

- 금 고리도 아름다움도 그 자체로는 폄하되지 않는다. 문제는 놓인 곳. 그러나 직유 한 컷만 던지고 설명하지 않는 본문 앞에서, 그림의 겨냥점은 미해결로 남는다.

Q3. 11:24의 *yesh*("~하는 일이 있나니") — 법칙 선언인가, 목격담인가?

- 흘는 자가 모두 부해진다는 공식인지, 세상의 셈법을 거스르는 사례가 실재한다는 증언인지 — '있다'로 여는 어투의 결을 한쪽으로 닫지 않고 보존.

Q4. 11:31의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 그 보응(*yeshullam*)은 상인가, 징계인가?

- 건짐의 약속(4·6·8·9절)과 의인도 셈을 치른다는 31절이 한 장 안에 공존한다. LXX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으로 옮긴 간격(벧전 4:18 인용)까지 함께 이월.

Q5. 11:7의 비대칭 — 악인의 소망이 끊어진다면, 의인의 소망에 대해 이 절은 왜 침묵하는가?

- 죽음 곁에서 끊어지는 소망만 말하고 맞은편을 비워 둔 행. 그 빈 곳을 다른 절들(4절의 건짐, 28절의 푸른 앞)로 성급히 채우지 않고 비워 둔 채 보존.

Q6. 11:30 하반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loqeach nefashot*)" — 얻음인가, 데려감인가?

- 직역하면 '영혼들을 취하는 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결과 생명을 거둔다는 결 사이에서 번역들이 갈라지는 표현. 상반절의 생명나무와 어떻게 마주 보든지도 함께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2장

PRO-012 · 시가서 · 히브리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12:1)로 열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12:28)로 닫히는 스물여덟 번의 맞세움 — 칼로 찌르는 혀와 양약(*marpe*)이 되는 혀(12:18), 잠시의 거짓과 영원의 진실(12:19), 근심한 마음을 일으키는 선한 말 한 마디(*davar tov*, 12:25), 그리고 가축의 숨에까지 닿는 의(12:10)가 촘촘히 짜이는 대구 잠언의 장.

관찰된 사실

잠언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단일 무대 없음 — 28개의 짧은 장면이 집(4·7·9절) → 마당·들(10·11·12절) → 길(15·26·28절)의 동선으로 모임. 광장(1장)보다 작고 일상적인 공간들.
- 소품(밝음): 면류관(*atarah*, 4절), 뿌리(*shoresh*, 3·12절), 여물을 받는 가축(10절), 경작된 토지와 많은 먹을 것(11절), 입의 열매(14절), 양약(*marpe*, 18절), 선한 말(*davar tov*, 25절).
- 소품(어둠): 썩는 뼈(*raqav*, 4절), 피를 노리는 말(6절), 그물(13절), 칼(18절), 눈 깜빡할 거짓(19절), 굶지 않은 채 식는 사냥감(27절).
- 한 절 안의 대비 소품: 4절의 면류관과 썩는 뼈 — 가장 빛나는 것과 가장 깊이 무너지는 것이 동거.
- 소재의 두 갈래: 입에서 나오는 것(말·증언·거짓·양약·선한 말) 對 손이 만지는 것(가축·토지·사냥감·부지런한 손).
- 형식 소재: 1~27절은 반의 대구의 행렬, 28절만 같은 방향의 단언 두 행 — 추가 마지막에 멈춰 서는 형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메트로놈의 리듬 — 의인과 악인이 좌우로 번갈아 흔들리되, 절마다 무대(혼인 잔치·외양간·진료소·화덕)가 갈아 끼워짐.
- 18절의 충격 — 같은 기관에서 무기(칼)와 약(*marpe*)이 나옴. 25절의 온기 — 맞세움의 행렬 속에서 무거운 마음을 들여다보는 한 절.
- 19절의 시간 감각 — 말에 수명이 있음. 영원을 사는 진실과 눈 깜빡할 동안(*ad-argiah*)만 사는 거짓.
- 21절의 긴장 — 경향이 아니라 법칙처럼 들리는 단언. 읊기를 지나온 귀에 걸림.
- 10절의 감각 — 여물 냄새와 짐승의 더운 숨. 하반절의 서늘함 — 공허이 잔인의 다른 이름이 되는 문장.
- 13~23절 어간의 군집 — 거의 매 절에 입·입술·혀·말이 등장. 편집의 손길이 느껴지는 절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 배움을 받아들이는 마음(1절)에서 그 마음이 걸어진 길의 도착지(28절)로 — 훈계 수용에서 생명으로.

- 1절은 사람의 상태를 가르는 판정, 28절은 길의 속성을 말하는 선언 — 시선이 인물에서 도착지로 이동하며 닫힘.
- 28절만 반의 대구가 아님 — 맞세움으로 일관하던 장이 한 방향(생명)의 단언으로 종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전원 익명): 훈계를 좋아하는 자/징계를 싫어하는 자(1절), 선인/악을 피하는 자(2절), 의인/악인(주연한 쌍 — 3·5·6·7·10·12·13·21·26절 등), 어진 여인/욕을 끼치는 여인(4절), 종을 부리는 자(9절), 가축(10절 — 말 없는 등장 생물), 토지를 가는 자(11절), 미련한 자/권고를 듣는 자(15절), 거짓 증인(17절), 부지런한 자/게으른 자(24·27절), 근심을 품은 사람과 선한 말을 건네는 누군가(25절).
- 중심 사상 1 — 말의 양면성: 같은 입이 피를 노리기도 구원하기도(6절), 같은 혀가 칼도 양약도 되고(18절), 같은 말이 잠시도 영원도 살며(19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기까지(23절). 혀는 중립의 도구가 아님.
- 중심 사상 2 — 자기 말의 덧: 입술의 허물이 그물이 되고(13절) 입의 열매가 복록이 됨(14절). 1:18의 자기 덧 인과가 말의 영역으로 이동.
- 중심 사상 3 — 미련함의 정의: 무지가 아니라 자기 확신(15절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의 표지는 들을 줄 아는 귀.
- 뿌리의 두 결: 3절은 버티는 뿌리(움직이지 아니함), 12절은 결실하게 하는 뿌리.
- remiyyah(24·27절 게으름)와 mirmah(5·17·20절 속임)가 같은 어근 계열 — 느슨한 손과 속이는 혀의 어휘적 친족 관계,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개막 — 훈계와 지식, 여호와와의 은총과 정죄, 움직이지 않는 의인의 뿌리. 배움·하나님·뿌리의 세 기둥.
- 컷 2 (4~12절): 집과 밭 — eshet chayil의 면류관, 서 있는 의인의 집(7절), 허세보다 나은 수수한 살림(9절), 가축의 생명(10절), 토지 경작(11절), 결실하는 뿌리(12절).
- 컷 3 (13~23절): 말 잠언 군집 — 입술의 덧과 입의 열매, 권고를 듣는 귀, 칼과 양약, 말의 두 수명, 화평 의논의 희락, 일반 법칙의 단언(21절),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진실(22절), 지식을 감추는 슬기(23절).
- 컷 4 (24~28절): 손과 길 — 다스리는 부지런한 손, 근심과 선한 말(25절 — 노동 잠언들 가운데 놓인 위로의 선포), 이웃의 인도자, 굽지 않은 사냥감, 생명이 있는 공의의 길.
- 컷 3 내부: 13~19절은 발화 기관의 절들, 20~23절은 말의 출처(마음)와 말을 들으시는 분(여호와)으로 화면이 안과 위로 확장.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usar*(מוֹסָר) — 훈계·징계·훈련. 1절. 1:2부터 이어지는 잠언의 기둥 어휘. / *daat*(דָּעַת) — 지식, yada 계열. 1절.
- *shoresh*(שֹׁרֶשׁ) — 뿌리. 3·12절. 버팀(3절)과 결실(12절)의 두 결.
- *eshet chayil*(אִשְׁת־חַיִּיל) — 어진 여인, 직역 '힘·역량 있는 여인'. 4절. 잠언에서 31:10과 단 두 번, 룻 3:11에서 룻에게도 쓰임.
- *atarah*(עֲטָרָה) — 면류관. 4절. / *raqav*(רָקַב) — 썩음. 4절.

- *nefesh behemto*(נֶפֶשׁ בְּחֵמָתוֹ) — 자기 가축의 숨·생명. 10절. '돌본다'로 번역된 동사는 *yada*(알다) — 의인은 제 짐승의 숨을 '안다'.
- *boteh*(בוֹטֵה) — 함부로 내뱉다. 18절. 레위기 5:4의 경솔한 맹세에도 쓰이는 드문 동사. / *marpe*(מַרְפֵּא) — 약·치유, *rapha*(רָפָא) 어근. 18절.
- *ad-argiah*(עַד־אַרְגִּיָּה) — 눈 깜빡할 사이. 19절 '잠시 동안'.
- *deagah*(הִדְאָה) — 근심·염려. 25절. / *davar tov*(דָּבָר טוֹב) — 선한 말. 25절.
- *remiyyah*(רִמְיָה) — 게으름·느슨함. 24·27절. 속임(*mirmah*, 5·17·20절)과 어근 계열 공유. / *charuts*(חָרָץ) — 부지런한 자. 24·27절.
- *netivah*(נְתִיבָה) — 길·행로. 2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개막(1~3) — 짐과 밭(4~12) — 말 군집(13~23) — 손과 길(24~28)의 네 묶음. 전체는 반의 대구의 행렬, 28절만 형식 이탈(같은 방향의 단언).
- 12:4 *eshet chayil* ↔ 31:10 — 대구 행렬 한가운데 심긴 한 절이 책의 종장에서 알파벳 시로 만개하는 씨앗 관계.
- 자기 말의 뒷(13~14절): 입술의 허물 → 그물 / 입의 열매 → 복록. 1:17-18의 자기 뒷 인과가 발화의 영역으로 이동.
- 9절은 12장 유일의 '~보다 나으니라'(tov...min) 비교 잠언 — 체면과 끼니의 저울질.
- 25절의 배치 — 노동 잠언(24·26·27절) 한가운데 끼인 말 잠언. 부지런한 손의 절들 사이에서 박자를 늦추는 위로의 한 절.
- 10:25(영원한 기초) ↔ 12:3(움직이지 않는 뿌리) ↔ 12:7(서 있는 집) — 폭풍 뒤에 남는 것의 계보가 대구 장들에 깔림.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가축(10절)과 토지(11절) — 근동 농가 살림의 두 기둥. 짐승은 같이 일하는 식구에 가까웠고, 신 25:4 등 토라에 짐승의 몫을 챙기는 시선이 이미 있음 — 배경.
- 사냥과 굶는 조리(27절) — 식량 확보의 마지막 공정. 잡아 놓고 굶지 않음 = 결승전 직전에 멈추는 게으름의 생활 배경.
- 면류관(4절) — 근동의 명예·잔치 수여물. 혼인 문화의 물질 배경.
- 종을 부리는 살림(9절) — 하인 한 명을 둘 수 있는 중간층 가계와 체면 문화의 사회 배경.
- LXX: 12:11 뒤에 술 모임을 즐기는 자에 관한 행을 첨가, 12:28 하반의 *al-mavet*을 다른 본문 전통으로 읽음, 12:13에 첨가행 — 잠언 LXX 특유의 확장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2:4 ↔ 잠 31:10-31 (*eshet chayil* — 씨앗과 만개) ↔ 룻 3:11 (룻에게 쓰인 같은 표현)
- 잠 12:21 ↔ 욥 1:1-2:10 · 시 73편 (의인의 고난 — 일반 법칙과 예외의 정경적 긴장)
- 잠 12:3·7 ↔ 잠 10:25 (폭풍 뒤에 남는 것 — 뿌리·집·영원한 기초)
- 잠 12:18 ↔ 잠 15:4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 잠 12:10 ↔ 신 25:4 (곡식 떠는 소 — 짐승을 향한 토라의 시선)

- 잠 12:1 ↔ 잠 13:1 (훈계를 듣는 아들 — musar 결의 연속)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배움의 책상 — 훈계를 받아 적는 손과 책상을 걷어차는 등. 폭풍 치는 들판에서 나무들이 뽑혀 나가는데 한 그루만 흔들리되 뽑히지 않는다 — 의인의 뿌리. 혼인 잔치에서 한 여인이 지아비의 면류관처럼 빛나고, 반대편에서 뼈가 안에서부터 삭는다. 외양간 — 여물을 채우는 손, 김처럼 피어오르는 짐승의 숨. 밭 — 쟁기 자국과 쟁이는 먹을 것. 화면이 빨라진다. 입에서 나간 말이 그물이 되어 밭에 감기고, 다른 말은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한 혀가 칼날처럼 번쩍이고, 베인 데에 다른 혀가 약을 바른다. 거짓말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흩어지고 진실한 입술만 남는다. 무거운 것을 가슴에 얹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누군가 한 마디를 건네자 굽었던 등이 펴진다. 화덕 앞에서 사냥감이 굽히지 않은 채 식는다. 마지막 — 지평선까지 뻗은 길 하나.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칼과 양약 — 같은 혀의 두 이름"
- 초벌 부제: "훈계를 좋아하는 자로 열려 생명의 길로 닫히는 스물여덟 번의 맞세움 — 칼과 양약이 한 혀에서 갈라지고, 근심한 마음이 선한 말 한 마디에 일으켜지며, 의가 가축의 숨에까지 닿는 대구 잠언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네 묶음 구조 + 28절 형식 이탈 + 12:4↔31:10 씨앗 관계 + 농가 살림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2:21의 단언을 인과응보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읊기·시 73편과 마주 세운 정경적 긴장으로만 보존.
- 12:4 eshet chayil을 특정 결혼관의 교훈으로 봉합하지 않고, 31:10으로 자라는 어휘의 씨앗 관찰로만 둬.
- 12:10의 가축 돌봄을 동물 윤리 강령으로 확장하지 않고, 의가 짐승의 숨에까지 닿는 본문의 그림으로만 둬.
- 12:28의 '사망이 없느니라'를 내세론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본문 형식(대구 이탈의 단언)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2장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12:1)라는 배움 수용성의 개막에서 출발해, 움직이지 않는 의인의 뿌리(shoresh, 12:3)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어진 여인(eshet chayil, 12:4), 가축의

생명(nefesh behemto)을 아는 의인(12:10)과 경작되는 토지(12:11)를 지나, 칼로 찌르는 혀와 양약(marpe)이 되는 혀(12:18)·영원과 잠시라는 말의 두 수명(12:19)·근심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선한 말(davar tov, 12:25)의 말 잠언 군집을 통과한 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12:28)라는 형식 이탈의 단언으로 닫히는, 말과 노동의 결이 촘촘해지는 대구 잠언의 장이다.

한 문단: 배움의 책상에서 시작한다 — 훈계를 받아 적는 손과 책상을 걷어차는 등. 폭풍 치는 들판에서 나무들이 뽑히는데 한 그루만 흔들리되 뽑히지 않는다. 혼인 잔치에서 한 여인이 면류관처럼 빛나고, 화면 반대편에서 뼈가 안에서부터 삭는다. 외양간에서 여물을 채우는 손 위로 짐승의 더운 숨이 김처럼 피어오르고, 발에는 쟁기 자국을 따라 먹을 것이 쌓인다. 화면이 빨라진다 — 입에서 나간 말이 그물이 되어 제 발에 감기고, 다른 말은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한 혀가 칼날처럼 번쩍이고, 베인 데에 다른 혀가 약을 바른다. 거짓말들이 눈 깜빡할 사이 흩어지고 진실한 입술만 남는다. 무거운 것을 가슴에 얹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누군가 한 마디를 건네자 굽었던 등이 천천히 펴진다. 화덕 앞에서 잡아 온 사냥감이 굽히지 않은 채 식어 가고 — 마지막 화면에는 지평선까지 뻗은 길 하나가 남는다. 생명이 있는 길, 사망이 없는 길로 12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집 → 마당·들 → 길의 작은 무대들. 면류관과 썩는 뼈가 한 절에 동거. 재료가 입(말·양약·선한 말)과 손(가축·토지·사냥감)으로 갈라짐.
2 첫 느낌·분위기	메트로놈의 좌우 리듬 속에 절마다 무대가 교체됨. 18절의 칼과 약, 19절 말의 두 수명, 25절의 온기, 21절 단언의 긴장.
3 시작과 끝	배움 수용(1절)에서 생명의 길(28절)로. 사람의 판정에서 길의 선언으로. 28절만 대구 이탈 — 추가 생명 쪽에 멈춤.
4 등장인물·사상	전원 익명 — 누구나 들어설 빈 옷 스물여덟 벌. 말의 양면성, 자기 말의 덧(13~14절), 미련함=자기 확신(15절), 뿌리의 두 결(3·12절).
5 장면 컷	개막(1~3)/집과 발(4~12)/말 군집(13~23)/손과 길(24~28). 25절은 노동 잠언들 사이에 끼인 위로의 실패.
6 의문·발견·정보	12:4↔31:10 씨앗 관계. 9절 유일의 비교 잠언(히세의 경제학). yada로 쓰인 가축 돌봄. 21절과 읊기의 마주 세움. remiyyah와 mirmah의 어근 동행.
7 동영상	배움의 책상 → 폭풍의 들판 → 잔치와 외양간과 발 → 칼과 약의 거리 → 퍼지는 등 → 지평선의 길,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칼과 양약 — 같은 혀의 두 이름"
9 기도·내면	어제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누군가에게 어느 쪽이었는지 본다. davar tov 한 마디가 어디서 오는지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혀의 두 이름:** 같은 입이 피를 노리기도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12:6), 같은 혀가 칼도 양약도 되고(12:18), 같은 말이 눈 깜빡할 동안을 살기도 영원을 살기도 한다(12:19).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12:23) — 말의 지혜에는 침묵까지 포함된다. 12장은 혀를 중립의 도구로 두지 않는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2. **결 2 — 뿌리와 집, 폭풍 뒤에 남는 것:**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12:3),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12:7), "의인은 그 뿌리로 말

미암아 결실하느니라"(12:12). 10:25의 영원한 기초와 함께, 보이지 않는 아래쪽이 버팀과 결실을 모두 감당하는 그림이 대구 장들 사이에 계보처럼 깔린다.

3. 절 3 — 입과 손의 동행: 12장의 재료는 입에서 나오는 것과 손이 만지는 것으로 갈라지는데, 14절이 그 둘을 한 절에 묶는다 —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과 노동이 따로 가지 않는다. 가축을 먹이는 손(10절)과 선한 말을 건네는 입(25절)이 같은 사람의 두 기관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31:10-31 —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 12:4의 eshet chayil이 종장의 알파벳 시로 만개. 룻 3:11이 같은 표현을 룻에게 씀.
- 욥 1:1-2:10 · 시 73편 —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 12:21 일반 법칙과 마주 서는 정경의 다른 목소리.
- 잠 10:25 — 회오리바람 뒤의 영원한 기초 — 12:3·7의 뿌리·집과 같은 계보.
- 잠 15:4 · 18:21 — 생명나무인 온순한 혀, 혀의 힘에 달린 생사 — 12:18 칼과 양약의 확장.
- 신 25:4 —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 짐승의 땀을 뺏기는 토라의 시선, 12:10의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훈계를 좋아하는가. 마지막으로 고침 받기를 반긴 게 언제였는지 떠오른다.
- **멈춤 1:** 10절에서 멈춘다 — 의인은 제 짐승의 숨을 안다. 내 의로움은 어디까지 내려가 보았는가.
- **멈춤 2:** 18절에서 멈춘다 — 칼과 양약. 어제 내 혀는 어느 쪽이었는가.
- **끝:** 25절과 28절 사이에서 멈춘다 — 건넌 한 마디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지금 걷는 길에 생명이 있는가.

F · 자족성 점검

- [x] 개막(1~3)·집과 밭(4~12)·말 군집(13~23)·손과 길(24~28)의 네 묶음 완결
- [x] 28절 형식 이탈(대구 → 단언)의 종결 기능
- [x] 12:4 ↔ 31:10의 씨앗-만개 호응
- [x] 자기 말의 뒷(13~14절)과 1:17-18 인과의 호응
- [x] 뿌리(3·12절)·집(7절)·기초(10:25)의 계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2장은 둘째 국면의 세 번째 장 — 말과 노동의 결이 촘촘해지는 구간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7이 발행한 모토(경외가 지식의 근본)가 12장에서는 외양간과 밭과 화덕과 근심한 사람의 결이라는 살림의 크기로 번역되고 있다. 의가 가축의 숨을 '아는(yada)' 데까지 내려간다는 것(12:10)은 신명기 25:4의 시선 — 짐승의 땀을 뺏기시는 토라 — 이 잠언의 식탁 언어로 이어진 것이고, 12:4의 eshet chayil은 31:10의 초상을 향해 심긴 씨앗이며, 12:18의 marpe(양약)는 15:4의 생명나무인 혀로 자란다. 그리고 12:21의 단언은 욥기와 시 73편이라는 정경의 다른 음성과 마주 서서, 지혜의 일반 법칙이 어떻게 예외의 실존과 한 정경 안에 사는지를 다음 세대 독자에게 열린 물음으로 넘긴다. 12장은 그 물

음을 품은 채로도 마지막 절에서 한 방향을 가리킨다 — 공의로운 길,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는 길(*netivah*, 12:28).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훈계의 수용(12:1)에서 생명의 길(12:28)로 / 광장의 선언에서 외양간·발·화덕의 살림으로 / 칼이 되는 혀에서 양약이 되는 혀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2장은 '배움을 반기는 마음'에서 출발해 그 마음이 빛는 살림 전체 — 아내와 지아비, 짐승과 토지, 입술과 손, 근심한 이웃 — 를 통과한 뒤 생명이 있는 길 위에서 멈추는 운동이다. 스물일곱 번 좌우로 흔들리던 반의 대구의 추가 마지막 절에서 한쪽에 멈춰 선다는 형식 자체가 이 벡터의 요약이다 — 맞세움은 공정한 중계가 아니라 결국 한 길을 가리키는 긴 손가락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13장으로 곧장 이어진다. 12:1에서 훈계를 좋아하던 자가 13:1에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로 다시 등장하고, 말과 노동의 잠언들은 이후 장들에서 변주를 거듭하며 31장의 한 여인 — 손으로 일하고 입으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31:13·26) — 에게서 합류한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 격언집이다 — 말조심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말이라는 것의 본질이 움직인다. 12장은 혀에 수명을 매기고(19절 — 영원과 눈 깜빡할 사이), 입술을 여호와 의 기뻐하심과 미움이 갈리는 지점으로 끌어올리고(22절), 한 마디에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을 준다(25절). 말이 정보의 운반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통로라면, 발화는 작은 행위가 아니다 — 한 마디 한 마디가 찌르는 일이거나 고치는 일이다. 같은 깊이에서 노동도 다시 정의된다. 토지를 가는 손과 가축의 숨을 아는 손(10~11절)은 단지 생산성의 미덕이 아니라, 돌봄이 미치는 반경의 문제다 — 의인의 의는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말 못 하는 짐승의 *nefesh*에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그 모든 절 아래에 1절이 깔려 있다. 훈계를 좋아하는 마음 — 내 눈 바깥의 눈을 반기는 마음 — 이 없으면, 혀도 손도 제 확신(15절)의 도구로 굳는다. 12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은 이것이다: 지혜는 재능이 아니라 수용성에서 시작되고, 그 수용성이 혀를 양약으로, 손을 돌봄으로 빛는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변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12:25) — 오늘 내 곁의 한 사람이 무거운 것을 가슴에 얹고 있다면, 내게는 건넌 한 마디가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웅변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 마디의 무게를 보여 준다 —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눈 깜빡할 동안을 살 수도 영원을 살 수도 있는. 그리고 그 한 마디가 향할 가장 가까운 과녁을 보여 준다 — 근심을 품고 주저앉은 한 사람의 굽은 등. 12장의 대구들은 거창한 결단을 묻지 않는다. 오늘 외양간의 구유 앞에서, 식탁에서, 베인 사람의 곁에서, 내 혀와 손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묻는다. 생명이 있는 길(12:28)은 그 작은 기울기들이 모여 닦이는 길이다 — 그 길의 첫 디딤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치는 운동 한 줄: 훈계를 좋아하던 마음(12:1)이 한 세대 아래로 흘러간다 —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13: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rpe* — 양약, 베인 데를 고치는 혀.

미해결 질문

잠언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2:21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 이 단언은 약속인가, 경향의 진술인가, 장르의 화법인가?

- 재 가운데 앉은 읍과 시 73편의 흔들린 기자가 같은 정경 안에 있다. 잠언의 일반 법칙과 예외의 실존이 어떻게 같이 사는지 — 본문은 봉합하지 않는다. 마주 세운 채 보존.

Q2. 12:28 하반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al-mavet)" — 이 부정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 MT의 al-mavet을 두고 본문 전통이 갈리고(LXX는 다른 독법), '사망이 없음'의 폭 — 장수인가, 그 너머인가 — 도 본문이 긋지 않는다. 형식 이탈(대구 아님)과 함께 보존.

Q3. remiyyah(12:24·27 게으름)와 mirmah(12:5·17·20 속임)가 한 어근 계열에 닿는 것은 우연인가?

- 느슨한 손과 속이는 혀가 어휘의 밑에서 만난다. 게으름과 기만이 한 절인지, 단지 어근의 동행인지 — 형태 관찰로만 보존.

Q4. 12:9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 종을 부리는 자인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자인가?

- 자음 본문의 모음 처리에 따라 '종이 있는 자(eved lo)'와 '스스로 일하는 자(oved lo)'로 번역이 갈린다. 어느 쪽이든 허세보다 끼니가 무겁다는 저울은 같으나, 독법은 미해결로 이월.

Q5. 12:10 "악인의 공홀은 잔인이니라" — 공홀이 어떻게 잔인이 되는가?

- 공홀처럼 보이는 무엇이 실은 잔인하다는 것인지, 악인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조차 잔인에 물들어 있다는 것인지 — 문장이 열려 있다. 보존.

Q6. 12:4의 eshet chayil은 왜 대구 잠언의 행렬 한가운데 단 한 번 놓였는가?

- 잠언에서 이 표현은 12:4와 31:10 두 곳뿐. 한 절의 씨앗이 종장의 알파벳 시로 만개하기까지의 거리 — 편집의 의도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3장

PRO-013 · 시가서 · 히브리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13:12) — 기다림이 사람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정직하게 적은 절 곁에서, 생명나무(*ets chayyim*)와 생명의 샘(*meqor chayyim*)이 두 절 간격으로 솟고, 부한 체와 가난한 체(13:7), 동행의 영향력(13:20), 매와 사랑(13:24)이 스물다섯 개의 대구로 늘어서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단일 무대 없음 — 스물다섯 개의 독립 대구. 이어 보면 한 도시의 하루: 아침의 집(1·24절), 낮의 일터·밭(4·11·23절), 길(17·20절), 저녁의 등불(9절)과 식탁(25절).
- 소품(손에 잡히는 것들): 입의 열매(2절), 지켜지는 입과 벌어지는 입술(3절), 속전(8절), 빛과 등불(9절), 재물 더미(11절), 생명나무(12절),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14절), 양약이 되는 사신(17절), 밭과 양식(23절), 매(24절), 배부른 배와 주린 배(25절).
- 소재 네 갈래: 듣는 귀(훈계·권면·경계) / 입(열매·입술·거짓말) / 재물(속전·산업·밭) / 생명(생명나무·생명의 샘·빛).
- 형식: 전 절이 두 행 반의 대구. 1절이 10:1(아비·아들)과 짝을 이루어 묶음의 머리에 다시 옴.
- 12절만 한 사람의 내면을 비춤 — 바깥 행동의 잠언들 사이에 끼인 마음 관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2절의 정직함 — 기다림을 미화하지 않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그대로 적음. 다그침이 아니라 알아줌이 먼저 오는 문장.
- 도입 세 절(1~3절)이 귀와 입의 클로즈업 — 13장은 얼굴의 두 기관에서 열림.
- 마음(*lev*)을 세 번 들여다봄 — 4절(게으른/부지런한 마음), 12절(병드는 마음), 19절(마음에 단 성취).
- 식욕의 밀결 — 2절(입의 열매를 먹음), 4절(원하여도 얻지 못함), 19절(달다), 25절(포식/주림).
- 7절은 판정 없는 관찰 — 의인/악인 구도 속에 보임과 실상의 간격만 보여 주는 절이 끼어 있음.
- 20절의 소리 무늬 — *holekh et-chakamim yechkam*: 지혜자들과 걷는 자가 지혜로워진다는 행이 발음부터 서로 닮음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
- 듣는 귀로 열고 배부른 배로 닫음 — 들음에서 먹음으로 가는 호. 2절(입의 열매)·4절(마음의 풍족)·19절(달)이 징검돌.

- 1절은 선택(듣는 태도), 25절은 결과(배) — 선택이 몸으로 내려오는 거리.
- 아침의 훈계(1절)와 저녁의 식탁(25절) 사이에 22절의 세대 시간(자자 손손)이 들어와 있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전원 익명): 지혜로운 아들/거만한 자(1), 입을 지키는 자/벌리는 자(3), 게으른 자/부지런한 자(4), 의인/악인(5·9·21·25), 부한 체/가난한 체하는 자(7), 속전 치르는 부자/헐박 안 받는 가난한 자(8), 교만한 자/권면 듣는 자(10), 악한 사자/충성된 사신(17), 지혜로운 동행자/미련한 친구(20), 선인과 자자 손손(22), 매투를 든 아버지와 자식(24).
- 직접 발화 0건 — 인용 없이 관찰문만 스물다섯 줄.
- 사상의 축은 시간: 11절(속도 — 빨리 온 것은 줄고 천천히 모은 것은 늘다), 12절(기다림), 22절(세대).
- 7절의 두 동사 mitasher(부한 체)·mitroshesh(가난한 체)가 둘 다 히트파엘 재귀형 — 보임/실상 주제가 동사 형태 안에 있음.
- 10절 — 다툼의 출처를 교만(zadon)이라는 마음 상태로 짚고, 권면을 듣는 자를 맞은편에 둬. 1절의 듣는 귀의 변주.
- 24절 — 매투(shevet)와 사랑(ahav)·근심한 징계가 한 문장에 결합. 3:11-12(여호와와의 징계와 아버지의 사랑)와 같은 어휘 결.
- 8절 — 재물의 쓸모(생명의 속전)와 짐(헐박의 표적), 가난의 홀가분함이 한 절에 공존.
- 9절 — 의인 쪽은 or(빛), 악인 쪽은 ner(등불). 켜진 기물 쪽이 꺼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귀와 입 — 훈계를 듣는 아들, 입의 열매, 파수되는 입(notser piv)과 벌어지는 입술.
- 컷 2 (4~11절): 마음과 재물 — 게으름/부지런, 거짓말 미움, 부한 체/가난한 체, 속전, 빛/등불, 교만/권면, 줄어드는 재물/손으로 모은 재물.
- 컷 3 (12~19절): 소망과 생명 — 더딘 소망과 생명나무(12), 말씀·계명(13),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14), 슬기/미련(15~16), 사신(17), 훈계와 존영(18), 마음에 단 성취(19).
- 컷 4 (20~25절): 동행과 다음 세대 — 동행(20), 보응(21), 자자 손손의 산업(22), 가난한 자의 밭(23), 매투와 사랑(24), 포식/주림(25).
- 컷 3은 12절(tochelet)과 19절(성취된 소원)이 갈망의 어휘로 여닫는 액자 — 그 안에 가르침의 절들(13·14·17·18)이 담김. 12절과 14절의 생명나무·생명의 샘이 두 절 간격.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otser piv(נֹצֵר פִּי) — 자기 입을 지키는 자. natsar는 성·포도원을 지키는 파수의 동사. 지킴의 목적어는 nefesh(생명). 3절.
- kopher(כֹּפֶר) — 속전, 목숨 값의 배상금. 출 21:30의 법 용어. kaphar(덮다) 계열. 8절.
- tochelet(תְּחֵלֶת) — 소망·기다림. yachal(기다리다) 계열, 시 39:7과 동일 어휘. 12절.
- ets chayyim(עֵץ חַיִּים) — 생명나무. 창 2:9; 3:22의 어휘. 잠언 분포: 3:18(지혜)·11:30(의인의 열매)·13:12(이루어진 소원)·15:4(온순한 혀). 12절.
- torat chakham(תּוֹרַת חָכָם) — 지혜 있는 자의 교훈. torah가 지혜자의 가르침에 붙는 형태. 14절.

- *meqor chayyim*(מְקוֹר חַיִּים) — 생명의 샘. 분포: 10:11(의인의 입)·13:14(지혜자의 토라)·14:27(여호와 경외)·16:22(명철). 14절.
- *tsir emunim*(צִיר אֱמוּנִים) — 충성된 사신. / *marpe*(מַרְפֵּא) — 양약·치유. 12:18과 동일 어휘. 17절.
- *musar*(מוֹסֵר) — 훈계·징계·훈련. 1·18·24절. / *shevet*(שֵׁטַע) — 매·막대기·지팡이·지파. 시 23:4의 지팡이와 동일 어휘. 24절.
- *mitasher*(מִתְעַשֵּׂר)·*mitroshesh*(מִתְרוֹשֵׁשׁ) — 부한 채하다·가난한 채하다. 둘 다 히트파엘 재귀형. 7절.
- *holekh et-chakamim yechkam*(הוֹלֵךְ אֶת-חֲכָמִים יַעֲכָם) — 지혜자들과 걷는 자는 지혜로워진다. *holekh et*(동행하다)의 전치사 *et*가 '~와 함께'의 결. 하반절 *roeh/yerua*의 소리 무늬. 2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스물다섯 절 전부 반의 대구 — "~하나/~거니와/~어도"의 두 행 구조.
- *chayyim*(생명)의 누적: 3절(생명 보전)·8절(생명의 속전)·12절(생명나무)·14절(생명의 샘) — 입·재물·소망·가르침 네 영역에 하나씩.
- 훈계의 나선: 1절(태도) → 18절(사회적 결과 — 궁핍·수욕/존영) → 24절(관계 — 미움/사랑). 같은 주제가 단계적으로 깊어짐.
- 12절·19절의 갈망 액자가 컷 3을 여담음. 12절과 14절은 에덴의 두 그림(나무·샘)을 두 절 간격으로 부름.
- 1절은 10:1과 아비-아들 짝 — 대구 모음 안의 묶음 머리 표시로 기능.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아히카르의 말 등 근동 지혜문학에 자식 훈육과 막대기를 묶는 격언 존재 — 13:24의 장르 배경.
- *kopher*(속전) — 고대 법 전통의 목숨 값 배상 제도(출 21:30) — 8절 은유의 법적 배경.
- 사신·전령 — 근동 외교에서 보내는 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직책. 신실한 전령이 왕의 명예 — 17절의 배경.
- 등불 — 고대 가옥에서 밤새 켜 두던 기물이자 가문 존속의 상징 — 9절의 물질 배경.
- LXX: 13:9 뒤 첨가 행(9a), 13:11을 '서둘러 얻은 재물'로, 13:15 하반절 *etan* 난제를 '멸망' 쪽으로 정리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3:24 ↔ 잠 3:11-12 (매·징계와 사랑의 결합 — 아비의 징계와 여호와와의 징계)
- 잠 13:12 ↔ 잠 3:18 · 11:30 · 15:4 (생명나무의 잠언 내 분포)
- 잠 13:12 ↔ 창 2:9; 3:22-24 (에덴의 생명나무 — 어휘의 출처)
- 잠 13:14 ↔ 잠 10:11 · 14:27 · 16:22 (생명의 샘의 분포 — 입·토라·경외·명철)
- 잠 13:8 ↔ 출 21:30 (*kopher* — 생명의 속전 규정)
- 잠 13:1 ↔ 잠 10:1 (아비-아들 잠언의 묶음 머리)
- 잠 13:20 ↔ 잠 1:10-15 (누구와 걷는가 — 동행 경고의 대구 변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침 햇살이 든 집 — 아버지가 말하고 한 아들은 듣고 다른 아들은 문을 나선다. 얼굴의 클로즈업 — 입에서 열매가 맺히고, 한 입은 파수꾼처럼 닫혀 있고 다른 입술은 크게 벌어진다. 낮의 거리 — 게으른 손과 곡식을 만

지는 손, 비단을 두른 사람의 빈 공간과 해진 옷을 입은 사람의 가득 찬 헛간. 부자가 목숨 값을 세어 건네고 빈손의 사람을 험박꾼이 지나친다. 해가 진다 — 한 창은 환해지고 다른 창의 등불이 꺼진다. 화면이 한 사람의 가슴께로 들어간다 —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어두워지다가, 기다리던 것이 도착하는 순간 가슴에서 나무가 자란다. 생명나무. 싹이 터지고 발목의 그물이 풀린다. 길 위 — 지혜로운 이들 곁의 걸음이 그들을 닮아 가고, 비웃는 무리와 어울린 걸음은 절뚝인다. 들판 — 가난한 사람의 발에 곡식이 넘치는데 그림자가 쓸어 간다. 밤의 집 — 아버지가 막대기를 들고 서고, 그 손이 미움이 아니라는 자막이 흐른다. 두 식탁 — 한쪽은 배부르고 다른 쪽의 배는 빈 채로 어두워진다.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더딘 소망과 생명나무 — 기다림이 사람을 통과하는 장"
- 초별 부제: "훈계를 듣는 귀로 열려 포식하는 식탁으로 닫히는 스물다섯 대구 사이에서, 더딘 소망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내면 관찰과 생명나무·생명의 싹의 에텐 어휘, 보임과 실상의 간격, 동행의 영향력, 매와 사랑의 결합이 늘어서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chayyim 4회 누적 + 12·19절 갈망 액자 + 훈계의 나선 + kopher 법 배경 + 근동 전령 관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3:12·14의 생명나무·생명의 싹을 구원론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창 2~3장 어휘의 잠언 내 분포 관찰로만 둬.
- 13:24의 매를 체벌 옹호 교훈이나 은유 단정으로 닫지 않고, 3:11-12와의 어휘 평행 관찰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 13:23의 구문 난제(가난한 자의 밭과 불의)를 사회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구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3장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13:1)라는 듣는 귀의 잠언으로 열려, 입을 지키는 파수(notser piv, 13:3)와 부지런한 마음의 풍족(13:4), 부한 체와 가난한 체의 간격(13:7), 재물이 속전

(kopher)이 되는 양면(13:8)을 지나, 더딘 소망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루어진 소원이 생명나무(ets chayyim)가 된다는 내면 관찰(13:12)과 지혜자의 토라가 생명의 샘(meqor chayyim)이라는 선언(13:14)에 이르고, 동행의 영향력(13:20)과 자자 손손의 산업(13:22), 매와 사랑의 결합(13:24)을 거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13:25)라는 식탁으로 닫히는 스물다섯 개의 반의 대구다.

한 문단: 아침 집 안에서 한 아들이 몸을 기울여 훈계를 듣고, 다른 아들은 비웃으며 나간다. 카메라가 얼굴로 다가가면 입에서 열매가 맺히고, 한 입은 닫혀 지켜지고 다른 입술은 크게 벌어진다. 낮의 거리에는 부한 체하는 빈 곳간과 가난한 체하는 가득 찬 헛간이 엇갈리고, 부자는 목숨 값을 세어 건네고 빈손의 사람을 험박꾼이 지나친다. 해가 지면 한 창은 환해지고 다른 창의 등불이 꺼진다. 화면이 한 사람의 가슴께로 들어간다 —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어두워지다가, 기다리던 것이 도착하는 순간 가슴에서 나무가 자란다. 생명나무. 곁에서 샘이 터지고 발목의 그물이 풀린다. 길 위에서는 지혜로운 이들 곁의 걸음이 그들을 닮아 가고, 들판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곡식을 그림자가 쓸어 간다. 밤의 집에서 아비가 막대기를 들고, 그 손이 미움이 아니라는 자막이 흐른 뒤, 두 식탁 — 배부른 식탁과 주린 배 — 으로 하루가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한 도시의 하루 몽타주(집·일터·길·식탁). 입의 열매·속전·등불·생명나무·샘·매·밥 — 손에 잡히는 소품들. 12절만 내면을 비춤.
2 첫 느낌·분위기	기다림을 미화하지 않는 12절의 정직함. 귀와 입의 클로즈업으로 열림. 마음(lev) 세 번. 식욕의 밀결. 판정 없는 7절.
3 시작과 끝	듣는 귀(1절)에서 배부른 배(25절)로 — 들음이 밥상이 되는 호. 선택이 몸으로 내려오는 거리. 하루의 무대 안에 세대의 시간(22절).
4 등장인물·사상	전원 익명, 직접 발화 0건. 사상의 축은 시간 — 속도(11절)·기다림(12절)·세대(22절). 7절의 히트파엘 한 쌍. 24절의 매와 사랑.
5 장면 컷	귀와 입(1~3)/마음과 재물(4~11)/소망과 생명(12~19)/동행과 다음 세대(20~25). 컷 3은 12·19절의 갈망 액자.
6 의문·발견·정보	chayyim 4회 누적(3·8·12·14절). 훈계의 나선(1→18→24절). 8절·23절의 열린 구문. kopher의 법 배경, 전령의 외교 배경.
7 동영상	아침의 훈계 → 얼굴 클로즈업 → 낮의 재물 → 꺼지는 등불 → 가슴에서 자라는 나무와 터지는 샘 → 길 동무 → 밤의 막대기 → 두 식탁,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더딘 소망과 생명나무 — 기다림이 사람을 통과하는 장"
9 기도·내면	병드는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본문 곁에서, 천천히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간다는 문장만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chayyim, 생명을 세는 장:**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 번, 서로 다른 영역에 하나씩 붙는다 — 입을 지키는 자의 생명(3절), 재물이 건지는 생명(8절), 이루어진 소원의 생명나무(12절), 지혜자의 토라인 생명의 샘(14절). 말·돈·갈망·가르침이라는 일상의 네 통로가 전부 같은 물음으로 수렴한다 — 어느 쪽이 생명으로 가는가. 그리고 나무와 샘이라는 에텐의 두 그림이 두 절 간격으로 솟아, 동산의 어휘가 식탁과 거리의 한복판에서 다시 쓰인다.

2. **결 2 — 시간의 잠언들:** 13장은 두 길을 시간 위에 펼친다.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11절) — 속도의 결. 소망이 더디면 마음이 병들고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다(12절) — 기다림의 결. 선인의 산업은 자자 손손에게 흐른다(22절) — 세대의 결. 한순간의 선택처럼 보이던 두 길이, 여기서는 긴 시간이 지나야 판명되는 두 곡선으로 그려진다.

3. **결 3 — 보임과 실상의 간격:**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고,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다(7절). 두 동사가 같은 재귀형(히트파엘)이라 가장(假裝)의 양방향의 문법 안에 새겨져 있다. 11절의 줄어드는 재물, 8절의 험박을 비켜 가는 빈손이 같은 결을 잇는다 — 길의 풍경과 실제 쌓이는 것 사이의 간격을, 13장은 판정 없이 보여 주기만 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3:11-12 —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 13:24의 매·사랑·musar 결합과 같은 어휘 결.
- 잠 3:18 —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 ets chayyim의 첫 등장, 13:12의 배경.
- 잠 10:11 · 14:27 · 16:22 — 생명의 샘이 의인의 입·여호와 경외·명철에 붙는 분포 — 13:14와 한 무늬.
- 창 2:9; 3:22-24 — 에덴의 생명나무 — 닫힌 동산의 어휘가 잠언의 일상으로 옮겨지는 출처.
- 출 21:30 — 생명의 속전(kopher) 규정 — 13:8 은유의 법적 바탕.
- 잠 10:1 —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기쁘게 하거니와" — 13:1과 짝이 되는 묶음 머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듣는 귀와 닫힌 귀. 오늘 아침 내 귀가 어느 쪽이었는지 떠오른다.
- **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부한 체, 가난한 체. 내가 꾸미고 있는 결과 실제 쌓인 것의 간격을 본다.
- **멈춤 2:** 12절에서 멈춘다 — 더디 오는 것을 기다리다 어두워진 가슴. 본문이 그것을 병이라 불러 주어서, 오히려 숨이 쉬어진다.
- **끝:** 20절과 25절 사이에서 멈춘다 — 누구와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어떤 식탁이 차려지는가.

F · 자족성 점검

- [x] 듣는 귀(1절)에서 식탁(25절)까지의 호 완결
- [x] chayyim 4회(3·8·12·14절)의 분포 확인
- [x] 12·19절 갈망 액자와 컷 구분의 호응
- [x] 훈계의 나선(1→18→24절)과 3:11-12 평행
- [x] 8절·23절·24절의 열린 구문 — 미해결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가는 긴 호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3장은 둘째 국면의 한복판에서 두 길에 시간의 차원을 더하는 장이다. 1장에서 갈라진 갈림이 여기서는 속도(13:11)와 기다림(13:12)과 세대(13:22)로 번역된다 — 선택의 결과는 즉시가 아니라 천천히, 자자 손손에 걸쳐 드러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3장의 가장 짙은 좌표는 에덴 어휘의 재등장이다. 창세기 3장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이 막아선 생명나무(창 3:24)가, 잠언에서는 지혜(3:18)와 의인의 열매

(11:30)와 이루어진 소원(13:12)에 붙고, 생명의 샘은 지혜자의 토라(13:14)와 여호와 경외(14:27)에 붙는다. 막힌 동산의 단어들이 훈계를 듣는 귀와 천천히 모으는 손의 곁에서 다시 쓰이는 것 — 일상의 길 위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통로를 정경이 여기에 살그머니 열어 두고 있다. 그리고 13:24의 아버지의 징계는 3:11-12를 거쳐, 사랑하는 아들을 근실히 다루시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어지는 통로 위에 놓인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듣는 귀(13:1)에서 배부른 식탁(13:25)으로 / 한순간의 선택에서 속도·기다림·세대의 긴 시간으로 / 혼자 걷는 길에서 함께 걷는 동행(13:20)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3장은 두 길의 잠언을 시간 축 위에 다시 그리는 운동이다. 빨리 얻은 것은 줄고 천천히 모은 것은 늘며(11절), 더딘 소망은 아프지만 도착하면 나무가 되고(12절), 산업은 다음 세대로 흐른다(22절). 그 시간 위에 동행의 변수가 더해진다 — 누구와 걷는가 누가 되는가를 정한다(20절). 다음 장은 이 운동을 집이라는 공간으로 받는다 —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14:1). 시간 위에 쌓인 것이 이제 집의 형태로 보이기 시작한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의 대구들이다 — 입조심하라, 부지런하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움직인다. 하나는 보임과 실상의 간격이다. 부한 체하는 빈손과 가난한 체하는 부(7절), 줄어드는 재물(11절), 험박을 비켜 가는 가난(8절) — 13장은 곁의 풍경을 한 번 뒤집어, 무엇이 진짜 쌓이고 있는가를 묻는다. 다른 하나는 기다림에 대한 본문의 태도다. 12절은 더딘 소망을 견디라고 다그치지 않고,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먼저 인정한다 — 성경 안에 기다림의 아픔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면 아래의 위로다. 그리고 그 병드는 마음 곁에 생명나무가, 두 절 뒤에 생명의 샘이 적혀 있다. 훈계와 징계조차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묶이는 것(24절, 3:11-12)까지 포함하면, 13장의 밑물길은 이것이다 — 천천히 오는 것들의 곁을 지키는 시선. 빨리 오는 것이 빨리 가는 세계에서, 본문은 더디 오는 것들 — 손으로 모은 재물, 더딘 소망, 자자 손손의 산업, 근실한 징계 — 의 편에서 있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다 어두워져 있는가 —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곁에, 누구와 나란히 걷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기다림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는다 — 병들게 한다고 그대로 적는다. 다만 그 절의 하반부에 도착의 그림을 함께 둔다 — 이루어지는 소원은 생명나무다. 어느 쪽이 내 차례인지 본문은 말해 주지 않지만, 11절이 작은 손잡이를 내민다 —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크고 빠른 도약이 아니라 손의 속도로 쌓이는 것들. 그리고 20절이 그 곁에 길동무의 변수를 둔다 — 지혜로운 이들과 걸으면 지혜로워진다. 기다림을 바꿀 수는 없어도 기다림의 동행은 고를 수 있다는 것 — 그 한 뼘의 선택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치는 운동 한 줄: 시간 위에 천천히 쌓인 것이 집의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14: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ochelet* — 기다림, 그리고 더디 오는 소망.

미해결 질문

잠언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3:8의 두 행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 재물의 쓸모(생명의 속전)인가, 가난의 흠가분함(헐박의 면제)인가?

- kopher가 목숨을 건지는 값이 되는 동시에 그 재물이 노려지는 이유가 된다. 부의 양면을 보여 줄 뿐 판정하지 않는 문장 — 보존.

Q2. 13:23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 탕진의 주어는 누구이며 불의는 누구의 것인가?

- 가난한 자의 발에 양식이 많아도 그것이 쓸려 갈 수 있다는 결. 게으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난의 흔적인지, 본문 구문 자체가 난제로 꼽힘 — 미해결로 이월.

Q3. 13:24의 shevet은 문자적 막대기인가, 권위와 교정의 환유인가 — 그리고 3:11-12의 평행은 이 절을 어디까지 비추는가?

- 사랑과 징계가 한 문장에 결합된 형태는 분명하나, 매의 적용 폭에 대한 해석 논쟁은 본문이 담아 주지 않는다. 어휘 평행 관찰만 두고 보존.

Q4. 13:12의 생명나무 — 에덴의 어휘가 '이루어진 소원'에 붙는 폭은 어디까지인가?

- 3:18(지혜)·11:30(의인의 열매)·15:4(온순한 혀)와 함께 잠언의 생명나무 네 곳 중 가장 일상적인 대상에 붙는 용례. 닫혔던 동산의 어휘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는 미해결.

Q5. 13:22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 어떤 경로로 옮겨지는가?

- 본문은 결과만 말하고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 11절(줄어가는 재물)·21절(따라가는 재앙)과의 결만 관찰로 두고 보존.

Q6. 13:9에서 의인 쪽은 or(빛), 악인 쪽은 ner(등불) — 두 단어를 가른 의도가 있는가?

- 하나는 광원 자체, 하나는 사람이 켜는 기물. 환해지는 쪽과 꺼지는 쪽에 다른 단어가 배정된 형태만 관찰로 남긴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4장

PRO-014 · 시가서 · 히브리어

자기 집을 세우는(*banetah*) 여인의 손(14:1)에서 시작해, 자기만 아는 마음의 고통(14:10)과 웃음 속의 슬픔(14:13)이라는 내면의 골짜기를 지나, 가난한 자를 대하는 손이 곧 지으신 이를 대하는 손이라는 연대(14:31)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공의(14:34)까지 — 지혜의 반경이 마음의 내실에서 나라의 광장으로 넓어지는 대구 잠언 서른다섯 절.

관찰된 사실

잠언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반경의 확장: 집(1절) → 외양간(4절) → 법정(5·25절) → 마음의 내실(10·13·30절) → 거리·이웃(20~21절) → 왕궁·나라(28·34~35절).
- 소품(살림): 세워지는 집과 허무는 손(1절), 구유(*evus*)와 소와 곡식(4절), 집과 장막(11절), 곳간의 수고와 빈 그릇의 말(23절).
- 소품(내면·몸): 웃는 얼굴과 그 아래의 슬픔(13절), 찢는 뼈와 시기(30절), 평온한 마음(*marpe lev*).
- 소품(경의): 견고한 의뢰(*mivtach oz*), 자녀들의 피난처(*machseh*, 26절),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27절).
- 마음(*lev*)이 다섯 번 돌아옴: 10·13·14·30·33절 — 소재로 보면 마음의 장.
- 서른다섯 절 거의 전부가 대조 대구이나, 10절과 13절은 대조가 아니라 한 사람 안의 겉과 속을 가르는 세로 단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0절의 정직 — 위로가 닿지 못하는 방이 사람 속에 있다는 인정이 먼저 옴. 슬픈데 안심되는 공기.
- 13절 — 웃음을 나무라지 않으면서 웃음이 슬픔을 다 지우지 못한다고 담담하게 관찰.
- 12절의 서늘함 — 경고의 과녁이 명백한 악이 아니라 '보기에 바른' 자기 확신.
- 30절 — 감정이 살과 뼈에 닿는 몸의 언어. 4절의 외양간 냄새, 27절의 샘물 소리 — 코와 귀로 읽히는 장.
- 리듬: 대구의 행진 — 10·13절의 휴지 — 26~27절의 깊어짐 — 28~35절의 부감.
- 31절의 어조는 처세가 아니라 창조의 언어 — 격언들 사이에서 창세기의 고도로 상승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banetah*)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 집에서 왕궁으로 — 지혜가 작동하는 반경이 처음과 끝에서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로 잡힘. 원리는 동일(지혜로운 쪽이 세우고 받음).
- 1절의 도구 — 집을 허무는 손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 자신의 손.
- 34절이 끝의 짝: 세움의 주어가 여인에서 공의(*tsedaqah*)로, 목적어가 집에서 나라로 확대되며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전원 무명, 대구의 짝): 지혜로운/미련한 여인(1절), 정직한/패역한 자(2절), 신실한/거짓 증인(5·25절), 거만한/명철한 자(6절), 어리석은/슬기로운 자(15절), 속히/더디 노하는 자(17·29절), 가난한/부요한 자(20절), 왕·백성·신하(28·34~35절), 그리고 그를 지으신 이(31절).
- 중심 사상: 31절 —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손이 곧 지으신 이를 대하는 손이라는 연대. 21절(궁핍의 복)이 길을 깔고 31절이 창조까지 근거를 파 내려감.
- 마음 잠언 셋의 내면 지도: 마음은 단독의 방(10절) — 표정은 그 방을 다 보여 주지 않음(13절) — 그 방의 상태가 몸의 생사에 닿음(30절).
- 어리석음의 정의가 믿음의 방향으로 그려짐: 온갖 말을 믿거나(15절) 스스로를 믿거나(16절). 슬기는 삼가며 두려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일.
- 입과 손의 저울: 매를 자청하는 입(3절), 궁핍을 이루는 입술의 말 對 이익 있는 모든 수고(23절). 1절의 허무는 손만 예외.
- 29절 *erek apayim*(코가 긴 자 — 노하기를 더디 함)은 출 34:6 여호와와 자기 선언과 같은 표현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집과 입 — 세우는 여인, 허무는 손, 경외와 경멸, 매를 자청하는 입.
- 컷 2 (4~9절): 외양간과 범정 — 깨끗한 구유와 소의 힘, 신실한/거짓 증인, 거만한 자의 헛수고.
- 컷 3 (10~15절): 마음의 내실 — 자기만 아는 고통, 보기에 바른 길, 웃음 속의 슬픔, 온갖 말을 믿는 귀.
- 컷 4 (16~25절): 거리와 이웃 — 악을 떠나는 두려움, 조급한 분노, 업신여김과 궁핍, 수고의 이익, 생명을 구하는 증인.
- 컷 5 (26~27절): 경외의 한 쌍 — 견고한 의뢰, 자녀들의 피난처,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
- 컷 6 (28~35절): 왕궁과 나라 — 백성의 수, 더딘 분노, 평온한 마음과 썩는 뼈, 지으신 이와 가난한 자, 나라의 공의, 은총과 진노의 신하.
- 컷 3(달힌 방)과 컷 5(피난처)의 마주 봄: 10절에서 닫혀 있던 단독의 방에 26절이 처음으로 다른 거처의 이름을 제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anetah*(בָּנֵתָהּ) — 세웠다. *banah*(짓다)의 완료형. 1절. 주어 *chakhmot nashim*(חֲכָמוֹת נָשִׁים) — 복수 형태의 단수 운용, 1:20 *chokhmot*와 같은 현상.
- *evus*(עָבֻס) — 구유·여물통. 4절. / *ed emunim*(עֵד אֱמוּנִים) — 신실함의 증인. 5절.
- *marrat nefesh*(מַרְרַת נֶפֶשׁ) — 영혼의 쓴맛. *marar*(쓰다) 어근. 10절. / *simchah*(שִׂמְחָה) — 즐거움. 10·13절.
- *derek yashar*(דֶּרֶךְ יָשָׁר) — 바른 길. 12절. 단서: *lifne ish* — '사람 앞에서' 바른 길.
- *erek apayim*(אֶרֶךְ אַפַּיִם) — 코가 긴 자(노하기를 더디 함). 29절. 출 34:6과 동일 표현. / *qetsar ruach*(קָצָר רוּחַ) — 영이 짧은 자(조급). 29절.
- *mitvach oz*(מִתְּבַח אוֹז) — 힘의 의뢰. / *machseh*(מַחֲסֶה) — 피난처. 26절.
- *meqor chayim*(מְקוֹר חַיִּים) — 생명의 샘. / *moqshe mavet*(מֹקְשֵׁי מָוֶת) — 사망의 그물. 27절.
- *marpe lev*(מֵרֶפֶא לֵב) — 고침의·평온한 마음. *rapha*(고치다) 어근. / *qinah*(קִנְיָה) — 시기. 30절.

- *oshek dal*(לֹשֶׁק דָּל) — 약한 자를 누르는 자. / *chonen*(חֲנוּן) — 은혜 베푸는 자. / *oseh*(עוֹשֶׂה) — 지으시는 이(분사형). 31절. / *tsedaqah*(צְדָקָה) — 공의. 34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대조 대구의 행렬 속 두 겹 예외: 10·13절은 의인/악인의 가로 대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겉과 속을 가르는 세로 단면.
- 13:14 ↔ 14:27의 술어 공유: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가 동일, 주어만 '지혜자의 교훈'에서 '여호와 경외'로 교체 — 두 장에 걸친 등식.
- 14:12 ↔ 16:25 — 글자 그대로 재현되는 이중 잠언. 같은 책이 같은 문장을 두 번 기록.
- 가난 소재의 세 단: 현실 관찰(20절) → 윤리 명령(21절) → 창조 신학(31절).
- 경외 한 쌍(26~27절)이 개인 → 가정(자녀들) → 나라(34절) 반경 확장의 경첩 역할.
- 수미: 1절(여인이 집을 세움)과 34절(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함) — 세움 동사의 주어·목적어가 함께 확대.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소와 구유 — 근동 농가에서 소는 쟁기질·타작의 동력원. 소 유무가 한 해 소출 규모를 가른 경제 배경. 4절.
- 증인 제도 —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세우던 성문 재판 관행. 5·25절의 사회 배경.
- 왕·신하·백성 어휘(28·35절) — 근동 궁정 교훈문학과 공유되는 형식 — 배경.
- 집(bayit)과 장막(ohel)의 병렬(11절) — 정착과 유목의 거주 어휘가 나란히 쓰임 — 배경.
- LXX: 14:32 MT '그의 죽음에도(bemoto)'를 '그의 온전함으로(hosiotēti)'로 옮김 — 자음 전위(bmwtw/btmw)로 설명되는 이독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4:1 ↔ 잠 9:1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 의인화의 일상 번역)
- 잠 14:12 ↔ 잠 16:25 (보기에 바른 길 — 이중 잠언)
- 잠 14:27 ↔ 잠 13:14 (생명의 샘 — 술어 공유, 주어 교체)
- 잠 14:31 ↔ 잠 17:5 (가난한 자와 지으신 이 — 같은 연대의 짝 격언)
- 잠 14:31 ↔ 잠 22:2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신 이는 여호와)
- 잠 14:1 ↔ 잠 24:3-4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 잠 14:13 ↔ 전 7:3-4 (웃음과 슬픔의 간격 — 시가서의 공명)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벽돌을 올리는 여인의 손과 같은 벽을 뜯는 다른 손이 화면을 가른다. 마당을 지나면 텅 비어 깨끗한 구유와, 어지럽지만 공간이 차오르는 외양간이 나란하다. 성문 법정에서 한 증인이 본 대로 말하고 다른 입에서 거짓이 뱉어진다. 화면이 갑자기 안으로 꺼진다 — 한 사람의 가슴 속 불 꺼진 방. 잔칫집 웃음소리 아래 슬픔이 앉아 있고, 보기에 흠 없이 곧은 길의 끝에는 사망이 서 있다. 거리에서 조급한 분노가 일을 저지르고, 외면당하는 가난한 이웃 곁에 누군가 멈춰 선다. 굶은살의 수고 위로 곡식이 쌓이고 말 많은 입술 곁에는 빈 그릇이 놓인다. 경외하는 이의 지붕 아래로 자녀들이 뛰어 들고, 샘이 솟고 그물이 풀린다. 카메라가 하늘로 빠지면 왕

궁과 백성, 평온한 마음의 등과 시기로 삭는 뼈의 그림자, 가난한 자를 때리는 손 위로 드리우는 지으신 이의 그늘. 공의가 나라를 들어 올리고, 어전의 두 신하 위로 은총의 빛과 진노의 어둠이 갈린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마음의 방에서 나라의 광장까지 — 반경이 넓어지는 지혜"
- 초벌 부제: "집을 세우는 여인의 손에서 시작해, 자기만 아는 마음의 고통과 보기에 바른 길의 시야 한계를 지나, 가난한 자와 지으신 이의 연대를 거쳐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공의까지 확장되는 대구 잠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13:14↔14:27 술어 공유 + 14:12↔16:25 이중 잠언 + 마음 잠언 셋의 내면 지도 + 근동 농가·궁정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4:31의 창조 연대를 특정 사회 이론이나 교리 체계로 봉합하지 않고, 절 자체의 논리(지으신 이 — 분사형)와 17:5·22:2의 짝 관찰로만 둬.
- 14:32 "죽음에도 소망"을 사후 교리의 증거 본문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MT/LXX 이독과 함께 미해결로 보존.
- 14:10의 마음의 단독성을 위로 무용론이나 개인주의 옹호로 일반화하지 않고, 21·31절의 궁핍 명령과의 긴장 그대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banetah)"(14:1)라는 살림의 격언으로 열려, 소의 힘을 긍정하는 구유(evus, 14:4)와 법정(14:5·25)을 지나, 자기만 아는 마음의 고통(14:10)·웃음 속의 슬픔(14:13)·평온한 마음과 썩는 뼈(14:30)라는 내면의 세 좌표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14:12)이라는 시야의 한계를 정직하게 적은 뒤, 여호와 경외의 피난처와 생명의 샘(14:26-27), 가난한 자와 지으신 이의 연대(14:31)를 거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14:34)에서 국가의 격까지 올라가는, 반경 확장의 대구 잠언이다.

한 문단: 벽돌을 올리는 여인의 손과 같은 벽을 뜯는 다른 손이 첫 화면을 가르다. 마당 건너 외양간에는 텅 비어 깨끗한 구유와, 어지럽지만 곳간이 차오르는 여물통이 나란하다. 성문 법정의 두 증인을 지나면 화면이 갑

자기 안으로 꺼진다 —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가슴 속의 방, 웃음소리 아래 앉아 있는 슬픔, 보기에 흠 없이 곧은 길 끝의 사망. 거리에서는 조금한 분노가 일을 저지르고 가난한 이웃이 외면당하는데, 누군가 그 곁에 멈춰 선다. 경외하는 이의 지붕 아래로 자녀들이 뛰어 들고 샘이 솟는다. 카메라가 하늘로 빠지면 왕궁과 백성, 시기로 사는 뼈의 그림자, 가난한 사람을 때리는 손 위로 드리우는 지으신 이의 그늘 — 공의가 나라를 들어 올리고, 어전의 두 신하 위로 은총과 진노가 갈리며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집 → 외양간 → 법정 → 마음의 내실 → 거리 → 왕궁의 반경 확장. 구유·피난처·샘·그물·뼈. 마음(lev)이 다섯 번 귀환.
2 첫 느낌·분위기	위로가 닿지 못하는 방을 먼저 인정하는 정직(10절). 자기 확신을 겨누는 서늘함(12절). 감정이 뼈에 닿는 몸의 언어(30절).
3 시작과 끝	집(1절)에서 왕궁(35절)으로 —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 허무는 도구는 자기 손. 34절에서 세움의 주어가 공의로, 목적어가 나라로 확대.
4 등장인물·사상	전원 무명의 대구 짝들. 중심은 31절 — 가난한 자를 대하는 손이 지으신 이를 대하는 손. 마음 잠언 셋(10·13·30)의 내면 지도.
5 장면 컷	집과 입 / 외양간과 법정 / 마음의 내실 / 거리와 이웃 / 경외의 한 쌍 / 왕궁과 나라 — 여섯 컷. 닫힌 방(컷 3)과 피난처(컷 5)의 마주 봄.
6 의문·발견·정보	13:14↔14:27 술어 공유(주어 교체). 14:12↔16:25 이중 잠언. 가난 소재의 세 단(관찰→윤리→창조). 14:32 MT/LXX 이독.
7 동영상	세우는 손과 허무는 손 → 구유 → 불 꺼진 방 → 곧은 길 끝의 사망 → 피난처와 샘 → 나라와 어전, 압전.
8 초별 제목·부제	"마음의 방에서 나라의 광장까지 — 반경이 넓어지는 지혜"
9 기도·내면	깨끗하게 비워 둔 구유와 어지럽지만 살아 있는 외양간을 본다. 단독의 방에도 피난처라는 다른 문이 있다는 데서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마음 잠언 셋의 내면 지도:** 10절(고통도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함), 13절(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음), 30절(마음의 상태가 뼈의 생사에 닿음)을 이으면 지도가 그려진다. 마음은 단독의 방이고, 표정은 그 방을 다 보여 주지 않으며, 그 방의 형편이 몸까지 내려간다. 행동 윤리를 다루는 대구 행렬 사이에 이 세 절이 안쪽 좌표를 찍어 두었다 — 잠언이 처세서를 넘어 내면의 책이기도 하다는 표지다.
- 결 2 — 주어가 바뀐 생명의 샘:** 13:14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가 14:27에서 술어 그대로 돌아오되 주어만 '여호와 경외'로 바뀐다. 1:7이 선언으로 세웠던 등식 — 경외가 지식의 근본 — 을 편집이 술어 공유라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새긴다. 지혜의 가르침과 경외는 같은 샘에서 솟는다.
- 결 3 — 가난 소재의 세 단:** 20절은 현실을 관찰하고(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음), 21절은 그 현실을 명령으로 뒤집고(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됨), 31절은 근거를 창조까지 파 내려간다(그를 지으신 이). 사회학에서 윤리로, 윤리에서 신학으로 — 가난이라는 한 소재 위에 세 단이 쌓이고, 17:5와 22:2가 권 전체에서 이 연대를 이어받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9:1 —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 14:1 집 세우는 여인의 의인화 원형.
- 잠 16:25 — 14:12가 글자 그대로 재현되는 이중 잠언 — 같은 책이 두 번 적을 만큼 무거운 진단.
- 잠 13:14 — 생명의 샘 술어의 첫 주인(지혜자의 교훈) — 14:27에서 여호와 경외로 주어 교체.
- 잠 17:5 · 22:2 — 가난한 자와 지으신 이의 연대가 권 전체로 이어지는 짝 격언들.
- 출 34:6 — "노하기를 더디 하고(erek apayim)" — 14:29의 더딘 분노가 여호와와의 자기 선언과 같은 표현.
- 전 7:3-4 — 웃음과 슬픔의 간격 — 14:13과 공명하는 시가서의 다른 목소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내 집을 세우는 손과 허무는 손이 같은 사람의 손일 수 있다는 데서 천천히 멈춘다.
-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깨끗한 구유. 비워 두어서 깨끗한 것들이 내 삶에 무엇인지 떠오른다.
- 멈춤 2: 10절과 13절에서 멈춘다 —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방, 웃음 아래의 슬픔. 그 방을 가진 채 사람들 곁에 서 있는 나를 본다.
- 끝: 26절과 31절 사이에서 멈춘다 — 경외라는 피난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손. 안쪽의 거처와 바깥쪽의 손이 한 경외에서 나온다는 데서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 [x] 집(1)·구유(4)·증인(5·25)·내면(10·13·30)·경외(2·26~27)·나라(28·34~35)의 여섯 군집 완결
- [x] 13:14↔14:27 술어 공유와 14:12↔16:25 이중 잠언의 편집 관찰
- [x] 마음 잠언 셋의 내면 지도
- [x] 가난 소재의 세 단(20→21→31절)과 17:5·22:2 연결
- [x] 1절↔34절 세움 동사의 주어·목적어 확대 수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움직인다(book-telos). 권의 흐름에서 14장은 둘째 국면 —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 의 한복판이다. 그런데 이 장은 대구의 행렬 안에서 두 방향의 깊이를 동시에 연다. 안으로는 마음의 내밀한 골짜기까지 — 혼자 아는 고통(10절), 웃음 속의 슬픔(13절), 뼈에 닿는 시기(30절) — 내려가고, 밖으로는 나라의 광장까지 — 백성과 왕(28절), 공의와 국격(34절) — 올라간다. 1:7의 모토가 개인의 격언집에 머물지 않고 국가 단위의 변수로 확장되는 첫 지점이 34절이며, 그 확장의 경첩이 26~27절의 경외 한 쌍이다. 경외는 한 사람의 견고한 의뢰이면서 자녀들의 피난처로 —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는 거처로 — 그려진다. 그리고 31절에서 이 권의 신학이 정점 하나를 통과한다.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일이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일이라는 연대 — 경외(1:7)가 예배의 언어를 떠나 사회의 손끝으로 번역되는 절이다. 시내산에서 약자 보호를 명하셨던 그 음성이, 잠언에서는 창조의 논리로 같은 보호를 받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을 세우는 여인의 손(14:1)에서 나라를 들어 올리는 공의(14:34)로 / 자기만 아는 마음의 방(14:10)에서 자녀들의 피난처(14:26)로 / 보기에 바른 길(14:12)에서 실재를 보는 경외의 눈(14:2·27)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4장은 지혜의 반경을 안쪽 끝과 바깥쪽 끝으로 동시에 잡아 늘이는 운동이다. 마음의 단독한 방보다 안쪽은 없고 나라의 공의보다 바깥쪽은 없는데, 이 장은 그 양끝이 한 결로 이어져 있다고 — 같은 경외, 같은 지혜가 가장 사적인 내실과 가장 공적인 광장을 함께 다스린다고 — 보여 준다. 다만 이 확장은 종결이 아니라 통과다. 15장에서 혀의 잠언("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15:1)이 마음과 말의 관계를 더 가까이 다루고, 16장에서 왕과 여호와의 잠언이 나라 단위의 결을 이어받으니, 14장의 벡터는 양끝으로 늘어난 반경을 다음 장들이 채워 가도록 여는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살림과 처세의 묶음이다 — 집을 잘 세우고, 소를 치고, 화를 낮추고, 말을 아끼고, 증언을 바르게 하라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는 것과 실재의 간격이 계속 움직인다. 보기에 바른 길이 사망으로 가고(12절), 웃는 얼굴 속에 슬픔이 있고(13절), 깨끗한 구유가 사실은 빈곤이며(4절), 가난한 사람의 초라한 걸모습 뒤에 그를 지으시는 이가 서 계신다(31절 — 분사형 *oseh*, 지금도 빛고 계신 분). 14장이 기르려는 것은 걸을 꿰뚫어 실재를 보는 눈이다. 그 눈이 정보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이 장의 깊은 물길이 있다 — 2절은 정직한 행보가 경외에서 나온다 하고, 27절은 경외가 생명의 샘이라 한다. 보는 눈의 출발점이 분석이 아니라 한 분 앞에 서는 자세라는 것. 그리고 그 자세는 안쪽으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의 방에 피난처라는 다른 문을 내고(26절), 바깥쪽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손의 방향을 바꾼다(21·31절). 내면의 위로와 사회의 정의가 따로 노는 두 영역이 아니라 한 경외의 두 손이라는 것 — 14장의 수면 아래는 그 일치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방이 있고, 내 이웃에게도 그 방이 있다 — 끝까지 들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문 앞에 멈춰 서는 손, 그 손이 지으신 이를 향한 손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완전한 공감이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 오히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10절) 위로의 한계를 먼저 적는다. 그런데 같은 장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하고(21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 주를 공경하는 일이라 한다(31절). 닿을 수 없음과 다가가라는 부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26절의 피난처가 놓인다 — 단독의 방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방째로 숨을 수 있는 더 큰 거처. 웃음 속에 슬픔을 가진 채(13절) 오늘을 사는 독자에게, 14장은 그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평온한 마음(*marpe lev*, 30절)이라는 고침의 어휘를 건넨다. 시기가 뼈를 썩게 하는 몸으로, 경외가 생명의 샘이 되는 몸으로 — 어느 쪽의 몸으로 살 것인가. 그 물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치는 운동 한 줄: 마음의 방과 나라의 광장까지 늘어난 반경이 이제 혀 끝으로 모인다 —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15: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rpe lev* — 고침 받은, 평온한 마음.

미해결 질문

잠언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14:1의 '지혜로운 여인(chakhmot nashim)'은 실제 가정의 여인인가, 9장 두 여인 의인화의 일상 버전인가?

- 복수 형태의 단수 운용이 1:20·9:1의 의인화 어휘와 겹치지만, 절의 내용은 평범한 살림의 묘사다. 두 층을 다 열어 둔 채 보존.

Q2. 14:10 — 마음의 고통도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본문은 위로의 한계를 적어 놓고 그 너머를 말하지 않는다. 21·31절의 공홀 명령과의 공존 자체를 보존.

Q3. 14:12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 보기에 바른 것과 실제로 바른 것을 가르는 기준을 본문은 왜 제시하지 않는가?

- 16:25의 재현까지 포함해, 이 격언은 진단만 하고 처방을 미룬다. 분별의 방법은 미해결로 이월.

Q4. 14:14 하반절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리하리라" — 생략이 많은 이 구문은 무엇으로 가득해진다는 말인가?

- 상반절(굽은 마음의 보응)과의 대구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보충해 읽는 번역이 많으나, 원문은 동사를 아껴 두었다. 형태 그대로 보존.

Q5. 14:24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먼류관이요" — 재물이 지혜의 장식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 20절(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의 냉정한 관찰과 23절(수고의 이익) 결에서, 재물 자체의 가치 평가는 한쪽으로 닫혀 있지 않다. 보존.

Q6. 14:32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 이 소망은 죽음 너머를 가리키는가?

- MT '그의 죽음에도(bemoto)'와 LXX '그의 온전함으로(hosiotēti)'의 이독(자음 전위 bmwtw/btmw)이 겹쳐 있는 본문. 사후 소망의 교리로 불합하지 않고 텍스트의 두 갈래 그대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5장

PRO-015 · 시가서 · 히브리어

"유순한 대답(*maaneh rakh*)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15:1)로 열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15:33)로 닫히는 — 어디서든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의 눈(15:3) 아래에서 말의 온도가 사람을 살리고,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작은 밥상이 살진 소와 미움보다 낫다(15:16-17)고 행복의 저울을 다시 다는 대구 잠언.

관찰된 사실

잠언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모자이크 무대: 말이 오가는 가까운 거리(1·2·4·23·28절) — 하늘의 시점(3절)과 스올까지 닿는 시선(11절) — 두 밥상(16~17절) — 두 길(19절) — 제단과 기도처(8·29절) — 과부의 밭 모서리(25절).
- 소품: 채소(*yaraq*) 한 접시와 살진 소(17절), 많은 보물(6절), 가시 울타리와 대로(19절), 지계석(25절), 제물(8절), 생명나무(4절), 빛나는 얼굴(13절), 운택해지는 뼈와 좋은 기별(30절), 잔칫상(15절).
- 소재의 직조: 말 기관(대답·혀·입·입술 — 1·2·4·7·23·26·28절)과 마음(*lev* — 7·11·13·14·15·28·30절)이 번갈아 짜임. 즐거움 계열 어휘(13·15·20·21·23·30절) 동반.
- 형식: 거의 전 절이 반의 대구. 그 사이에 '여호와' 이름이 아홉 번(3·8·9·11·16·25·26·29·33절) — 8~9절·25~26절은 연속 배치.
- 1절의 어휘 쌍: *maaneh rakh*(부드러운 대답 — *rakh*는 연한 새싹의 형용사) 對 *devar etsev*(직역 '아픔의 말'). 4절 *marpe lashon* — '치유하는 혀'(*rapha* 어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따뜻하고 낮은 공기 — 목소리를 낮추게 하는 첫 절. 3절에서 한 번 서늘해짐: 방의 불이 켜진 듯한 환함(위협과 안심 사이, 미정).
- 음향: 유순한 대답(1절)·더딘 노(18절)·깊이 생각하는 마음(28절) — 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추는 동사들. 끓는 데서 식는 장.
- 하나님 쪽 감정 동사의 연속 — 미워하셔도(8절), 기뻐하시느니라(8절), 사랑하시느니라(9절). 3절의 눈이 8~9절에서 표정을 얻음.
- 17절의 감각: 채소 접시 곁의 온기 對 살진 소 상의 찬 공기. 13절: 마음의 즐거움이 낮빛으로 올라옴.
- 11절에서 대구 리듬이 한 번 깨짐 — '하물며'(*qal vachomer*) 문장이 물결 가운데 솟음.
- *toevah*(가증) — 제의 어휘가 8·9·26절에서 일상의 말·길·피에 붙음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 사람 사이의 말(수평)로 열고 여호와 앞의 자세(수직)로 닫음.
- 어미의 이동: "격동하느니라"(흔들림) → "길잡이니라"(안내).
- 33절은 1:7 모토의 재울림이자 16:1~9 여호와 잠언 군집으로 놓는 다리 — 장의 결구이면서 권의 문턱.
- 1절 rakh(부드러움)와 33절 anavah(겸손)의 결이 양 끝에서 호응 — 관찰의 겹침으로 보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혜로운 자/미련한 자(2·7·14·20절 등), 아비와 어미(5·20절), 거만한 자(12절), 게으른 자/정직한 자(19절), 분을 쉽게 내는 자/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18절), 교만한 자와 과부(25절), 그리고 여호와.
- 여호와 — 이 장의 가장 활동적인 주어: 감찰하시고(3절), 미워하시고 기뻐하시고(8절), 사랑하시고(9절), 허시며 정하시고(25절), 멀리 하시고 들으시고(29절).
- 전제 사상: 15:3 — 모든 대구가 '보시는 분 앞에서' 일어남. 15:11이 시선의 깊이를 명시(스올·아바돈의 하물며).
- 8절의 어긋난 짝: 악인의 '제사' 對 정직한 자의 '기도' — 형식 비교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결을 재는 저울. 9절이 같은 구문으로 '길'을 연결.
- 16~17절의 저울: 가산+번뇌 對 적은 것+경외 / 살진 소+미움 對 채소+사랑 — 재는 단위가 소유에서 식탁의 공기로 이동.
- 25절: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손이 과부의 지계를 정하심 — 허무는 동사와 세우는 동사가 한 절에 공존.
- 18절 erekh appayim('코가 긴 자') — 출 34:6 하나님의 자기 소개 어휘가 사람의 성품 잠언에 겹침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말의 온도 — 유순한 대답·치유하는 혀·지식의 입술, 한가운데 여호와와 눈(3절).
- 컷 2 (8~12절): 여호와 앞에서 — 제사 對 기도, 미움 對 사랑의 길, 스올·아바돈의 하물며, 책망을 싫어하는 거만.
- 컷 3 (13~17절): 마음과 밥상 — 빛나는 얼굴, 항상 잔치하는 마음, 두 번의 '~보다 나으니라'.
- 컷 4 (18~24절): 길과 경영 — 더딘 노, 가시 울타리와 대로, 의논과 경영, 때에 맞는 말, 위로 향한 생명 길.
- 컷 5 (25~29절): 여호와와 손 — 무너지는 교만한 집과 세워지는 과부의 지계, 깊이 생각하는 마음, 들으시는 기도.
- 컷 6 (30~33절): 듣는 귀 — 좋은 기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견책을 달게 받음, 경외·겸손의 결구.
- 골격: 여호와 절 일곱 기둥(3 / 8~9·11 / 16 / 25~26·29 / 33)이 컷들을 받침. 31~32절의 '들음'을 지나야 33절의 경외에 닿는 순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aneh rakh*(מַאֲנֶה רַחַק) — 유순한 대답. rakh는 연한 새싹·연한 살의 부드러움. 1절.
- *devar etsev*(דְּבַר עֵצֶב) — 과격한 말. etsev는 고통·아픔 — 직역 '아픔의 말'. 1절. / *chemah*(חֵמָה) — 분노, 열의 어근 결. 1절.
- *marpe lashon*(מַרְפֵּא לָשׁוֹן) — 온순한(치유하는) 혀. rapha(고치다) 어근. 4절.
- *ets chayyim*(עֵץ חַיִּים) — 생명나무. 3:18(지혜)·11:30(의인의 열매)·13:12(이루어진 소원)에 이어 네 번째 — 처음으로 몸의 한 기관(혀)에 붙음. 4절.

- *einei YHWH*(עֵינֵי יְהוָה) — 여호와와 눈. 3절. / *sheol*(שְׁאוֹל)·*avaddon*(אַבְדּוֹן) — 욥 26:6과 같은 어휘쌍. *avad*(מָלַח) (멸망하다) 어근. 11절.
- *zevach*(זֶבַח) — 제사 / *tefillah*(תְּפִלָּה) — 기도 / *toevah*(תּוֹעֵבָה) — 가증한 것(제의 어휘). 8절.
- *lev sameach*(לֵב שָׂמֵחַ) — 즐거운 마음. 13·15절. / *mishteh*(מִשְׁתֶּה) — 잔치. 15절.
- *tov ... min*(טוֹב ... מִן) — '~보다 나음' 비교 양식. 16~17절. / *erekh appayim*(אַרְכָּי אַפַּיִם) — 노하기를 더디 함, 직역 '코가 긴'. 출 34:6과 동일 표현. 18절.
- *davar be'itto*(דְּבַר בְּעִתּוֹ) — 때에 맞는 말. 23절. / *gevul almanah*(גְּבוּל אֶלְמָנָה) — 과부의 지계. 25절.
- *tokhachat*(תּוֹכַחַת) — 견책. 31~32절. / *anavah*(עֲנָוָה) — 겸손. 33절. / *yirat YHWH*(יִרְאַת יְהוָה) — 여호와 경외. 16·3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반의 대구의 연속 + 여호와 절 일곱 기둥(3 / 8~9 / 11 / 16 / 25~26 / 29 / 33)의 골격.
- 15:11 — 대구가 아닌 *qal vachomer*('하물며') 논증 형식이 물결 가운데 솟음.
- *tov-min* 양식 연속 두 번(16~17절) — 17:1로 이어지는 밥상 비교 잠언의 계열.
- 말 군집: 1·2·4·7·23·26·28절 — 대답(1·23·28절)이 장의 앞·중·뒤에 분산 배치되어 수미를 엮음.
- 33절 = 1:7 모토의 재울림 + 16:1~9 여호와 잠언 군집의 문턱 — 편집의 손이 보이는 배열.
- 31~32절 '듣는 귀'의 이중 강조 — '대답'으로 연 장이 '들음'으로 좁혀진 뒤 경외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아메네포제의 교훈 — '뜨거운 사람'과 '침묵하는 사람'의 대비: 절제된 말·더딘 분노가 지혜의 표지로 통하던 이집트 교훈문학의 결. 15:1·18의 배경.
- 경계석(*kudurru*) 관행 — 토지 경계 표지 이동이 저주 문구로 금지되던 근동의 물질 배경. 15:25.
- 제물의 크기가 신의 호의를 산다는 근동 제의 통념 — 15:8이 뒤집는 통념의 배경.
- 잔치(*mishteh*) — 기쁨·연대의 사회적 형식. 15:15·17의 밥상 배경.
- LXX: 15장 후반~16장 초입에서 MT와 절 배열 차이(이동·첨가), 15:11의 *sheol·avaddon*을 *hadēs·apōleia*로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5:11 ↔ 욥 26:6 (스올과 아바돈이 그 앞에 드러남 — 같은 어휘쌍)
- 잠 15:4 ↔ 잠 3:18 · 11:30 · 13:12 (생명나무의 네 등장)
- 잠 15:33 ↔ 잠 1:7 · 9:10 (경외 모토의 재울림) ↔ 잠 16:1-9 (여호와 잠언 군집의 문턱)
- 잠 15:16-17 ↔ 잠 17:1 (*tov-min* 밥상 잠언의 계열)
- 잠 15:8 ↔ 사 1:11-17 · 암 5:21-24 (제사보다 삶 — 예언서의 제의 비평과 같은 결)
- 잠 15:3·29 ↔ 시 34:15 (여호와와 눈과 들으시는 귀)
- 잠 15:25 ↔ 잠 22:28 · 23:10-11 (지계석과 약한 자의 경계 — 구속자가 그들의 송사를 변호하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끓는 식탁에서 시작한다. 언성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화면의 온도가 내려간다 —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카메라가 천장을 뚫고 올라간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고, 시선은 땅 아

래 스올의 어둠까지 닿는다 —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두 제단이 보인다. 살진 제물의 연기를 지나쳐, 맨 손으로 엮드린 기도예 귀가 기울여진다. 두 식탁이 교차한다 — 고기 가득한 상의 찬 침묵과 채소 접시 곁의 웃음. 길이 갈라진다 — 가시 울타리와 대로. 먼지가 인다 — 교만한 자의 저택이 무너지고, 같은 손이 과부의 발 모서리에 경계 표지를 다시 세운다. 마지막 화면 — 견책을 달게 받아 듣는 한 사람의 귀. 그 위로 결구가 새겨진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말의 온도와 두 밥상 — 여호와와 눈 아래에서"
- 초별 부제: "어디서든지 감찰하시는 여호와와 눈(15:3)이라는 전제 아래 유순한 대답(15:1)에서 경외·겸손의 결구(15:33)까지 — 말의 온도와 밥상의 크기로 행복을 다시 재고, 제사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 앞에 일상을 세우는 대구 잠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여호와 절 일곱 기둥 + tov-min 양식 + 15:11 qal vachomer + 아메네모페·경계 석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5:8의 제사 비평을 반(反)제주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어긋난 짝(제사/기도)의 구문 관찰로만 둬.
- 15:24의 "위로 향한 생명 길"을 내세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위/아래(스올) 공간 은유의 관찰로 보존.
- 15:3·11의 시선을 전지(全知) 교리 진술로 확장하지 않고, 어휘와 배치의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5장은 "유순한 대답(maaneh rakh)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15:1)로 말의 온도를 열고,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15:3)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15:11)로 모든 대구의 전제가 되는 시선을 세운 뒤, 악인의 제사보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비대칭(15:8)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15:16-17)의 저울을 지나,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는 손(15:25)을 보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15:33)로 16장 여호와 잠언 군집의 문턱에 서는 대구 잠언이다.

한 문단: 끓는 식탁에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자 공기가 식는다 —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땅 아래 스올의 어둠까지 닿는다 —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두 제단이 교차한다. 살진 제물의 연기를 시선이 지나치고, 맨손의 기도에 귀가 기울여진다. 두 식탁이 보인다 — 고기 가득한 상의 찬 침묵과 채소 접시 곁의 웃음. 가시 올타리 길과 대로가 갈라지고, 교만한 자의 저택이 무너지는 먼지 곁에서 같은 손이 과부의 밭 모서리에 경계 표지를 다시 세운다. 마지막 화면은 견책을 달게 받아 듣는 귀 — 그 위로 결구가 새겨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의 눈과 스올 사이의 식탁·길·밭. 채소 접시 對 살진 소. 말 기관과 마음(lev)의 직조. 여호와 이름 아홉 번.
2 첫 느낌·분위기	목소리를 낮추게 하는 장. 3절에서 켜지는 불. 미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 표정을 얻는 시선. 11절 '하물며'에서 멈추는 호흡.
3 시작과 끝	사람 사이의 말(1절)에서 여호와 앞의 자세(33절)로 — 수평에서 수직으로. 격동하느니라 → 길잡이니라.
4 등장인물·사상	가장 활동적인 주어는 여호와(감찰·미워하심·기뻐하심·사랑·허심·정하심·들으심). 전제는 15:3. 8절의 어긋난 짝(제사/기도). 16~17절의 저울.
5 장면 컷	말의 온도(1~7) / 여호와 앞(8~12) / 마음과 밥상(13~17) / 길과 경영(18~24) / 여호와와 손(25~29) / 듣는 귀(30~33) 6컷. 여호와 절 일곱 기둥.
6 의문·발견·정보	생명나무 네 번째(혀). 33절↔16:1-9의 문턱. tov-min 저울. 15:15의 온도 이해결. 욥 26:6과 같은 어휘쌍. 아메네모페·경계석 배경.
7 동영상	식은 식탁 → 하늘과 스올의 시선 → 두 제단 → 두 식탁 → 두 길 → 무너지는 저택과 세워지는 지계 → 듣는 귀, 잠진.
8 초별 제목·부제	"말의 온도와 두 밥상 — 여호와와 눈 아래에서"
9 기도·내면	내 상의 공기를 들여다본다. 어디서든지 보시는 눈이 오늘은 환하다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말의 온도학:** 유순한 대답(1절)에서 치유하는 혀(4절)로, 깊이 생각하는 의인의 마음(28절)에서 때에 맞는 말(23절)로 — 15장의 말 잠언들은 화술이 아니라 온도를 다룬다. 분노를 쉬게 하는 부드러움, 마음을 고치는 혀, 제때를 기다리는 숙고. 그리고 31~32절이 그 모든 말의 끝에 '듣는 귀'를 둔다 — 잘 대답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사람이 먼저라는 배열이다.
- 결 2 — 전제가 되는 시선:** 15:3의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시고, 15:11은 그 시선이 스올과 아바돈까지 닿는다고 말한다. 이 두 절이 앞과 가운데 놓이면서 장의 모든 대구가 '보시는 분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 그 시선은 표정을 가진다 — 미워하시고(8·9·26절), 기뻐하시고(8절), 사랑하시고(9절), 들으신다(29절). 감찰이 감시로 끝나지 않고 호불호와 응답을 가진 인격의 눈이라는 것 — 15장이 대구 잠언 위에 세운 기둥들이다.
- 결 3 — tov-min의 행복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 보다 나으니라"(16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 보다 나으니라"(17절). 연달아 나오는 두 번의 비교가 행복의 단위를 바꾼다 — 소

유의 크기가 아니라 식탁의 공기, 차려진 것이 아니라 함께 앉은 사람과의 결. 17:1의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이어지는 이 계열은, 보시는 눈이 있다는 전제(3절) 위에서만 성립하는 저울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욥 26:6 — "스올이 그 앞에 드러나며 아바돈이 가려진 곳이 없음이라" — 15:11과 같은 어휘쌍. 우주 시와 일상 잠언이 공유하는 시선.
- 잠 3:18 · 11:30 · 13:12 — 생명나무의 앞선 세 등장. 15:4에서 처음으로 몸의 기관(혀)에 붙음.
- 잠 16:1-9 — 여호와 잠언 군집. 15:33의 결구가 놓는 문턱 너머의 본문.
- 잠 17:1 — 마른 떡 한 조각과 화목 — tov-min 밥상 잠언의 짝.
- 사 1:11-17 · 암 5:21-24 — 제사보다 삶을 물으시는 예언서의 결 — 15:8과 같은 방향.
- 시 34:15 — "여호와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 눈과 귀의 짝(15:3-29).
- 잠 22:28 · 23:10-11 —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의 발을 침범하지 말라 — 15:25 과부의 지계와 같은 경계선.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오늘 내가 내놓은 대답들의 온도를 하나씩 떠올린다.
- 멈춤 1: 3절에서 멈춘다 — 어디서든지. 숨길 수 있다고 여겼던 구간들에 불이 켜진다.
- 멈춤 2: 17절에서 멈춘다 — 채소와 사랑. 내 식탁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보다 그 공기가 어떤지를 본다.
- 끝: 32절과 33절 사이에서 멈춘다 — 견책을 달게 받는 귀, 그리고 겸손.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듣는 사람이 먼저라는 순서를 받아 든다.

F · 자족성 점검

- [x] 말의 온도(1:2·4·23·28절) — 밥상의 저울(16~17절) — 경외의 결구(33절)의 세 결 완결
- [x] 여호와 절 일곱 기둥(3 / 8~9 / 11 / 16 / 25~26 / 29 / 33)의 분포
- [x] 15:11 qal vachomer와 욥 26:6 어휘쌍의 호응
- [x] 생명나무 네 등장(3:18 · 11:30 · 13:12 · 15:4)의 계열
- [x] 15:33 결구와 16:1-9 군집의 문턱 관계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에서 15장은 10~29장 대구 국면의 한가운데, 그중에서도 특별한 매듭이다 — 여호와와 이름이 아홉 번으로 잦아지고, 33절의 결구가 1:7의 모토를 다시 부르면서 16:1~9의 여호와 잠언 군집으로 다리를 놓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5:8의 제사 비평은 사무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삼상 15:22)에서 이사야와 아모스의 외침으로 이어지는 긴 물줄기와 같은 결이다 — 제의와 삶의 일치를 물으시는 음성이 성전이 아니라 식탁과 골목의 잠언집에도 새겨져 있다. 그리고 15:25의 과부의 지계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시 68:5)이신 분의 손을 일상 토지 문서의 언어로 보여 준다 — 가장 강한 자의 집을 허시고 가장 약한 자의 경계선을 직접 측량하시는 손. 15장이 세운 전제 — 어디서든지 보

시는 눈(15:3) — 는 대구 잠언 전체를 받치는 기초이며, 그 시선 아래에서만 채소 한 접시의 행복론(15:16-17)이 허세가 아닌 진실이 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 사이의 말(15:1)에서 여호와 앞의 경외(15:33)로 / 소유의 저울에서 식탁의 공기로(15:16-17) / 대답하는 입에서 듣는 귀(15:31-32)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5장은 '부드럽게 말하라'는 작은 기술에서 출발해 그 기술의 출처 — 경외와 겸손이라는 뿌리 — 를 끝에 가서 밝히는 운동이다. 1절의 유순한 대답은 처세가 아니라 33절의 겸손이 입 밖으로 나온 형태였다는 것이 결구에서 드러난다. 다만 이 매듭은 단함이 아니라 열림이다. 15장에서 찾아진 여호와 절들은 16:1("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부터 군집으로 쏟아지고,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와의 인도라는 다음 주제가 그 문으로 들어온다. 15장의 벡터는 대구의 바다를 여호와라는 기슭으로 끌고 가는 흐름의 가장 또렷한 구간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생활의 조언이다 — 부드럽게 대답하라, 화를 늦추라, 작게 먹어도 사랑하라, 견책을 달게 받으라. 어느 문화에나 있을 법한 처세의 문장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행복의 단위가 움직인다. 16~17절의 저울은 소유의 크기를 달지 않고 식탁의 공기를 단다 — 그리고 그 저울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보이는 크기로 켈 필요가 없으려면, 보이지 않는 데까지 보시는 눈이 있어야 한다(15:3·11). 8절은 그 시선의 결을 보여 준다 — 두꺼운 재물을 지나치시고 빈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크기에 속지 않으시는 눈. 25절은 그 시선이 손이 된다 —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는. 15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은 이것이다: 감찰(3절)이 위협이 아니라 약한 자의 보호이고 빈손의 기도가 닿는 통로라는 것. 같은 눈이 누군가에게는 폭로이고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음이다 — 그 갈림이 시선 쪽이 아니라 사람의 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이 장의 모든 대구를 두 길의 갈림으로 만든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오늘 내가 내놓은 대답들은 몇 도였는가. 내 식탁의 공기는 채소 곁의 사랑인가, 살진 소 곁의 미움인가 — 어디서든지 보시는 눈 앞에서.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대답 한마디의 온도가 한 공간의 공기를 바꾼다는 것(1절), 차려진 것의 크기와 식탁의 행복이 별개라는 것(17절), 그리고 말을 잘하게 되는 길이 듣는 귀에서 시작된다는 것(31~32절)을 보여 준다. 23절의 감탄이 그 곁에 놓여 있다 —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깊이 생각한 대답이 제때를 만나는 순간을 본문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한다. 15장은 독자를 꿰는 식탁 앞에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낮은 목소리 하나가 공기를 식히는 장면을 보여 준다. 유순한 대답 — 그 한마디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경외와 겸손의 문턱(15:33)을 넘으면 여호와 잠언이 군집으로 쏟아진다 —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16: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aneh rakh* — 유순한 대답, 말의 낮은 온도.

미해결 질문

잠언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5:11의 스올과 아바돈 — 욥 26:6과 같은 어휘쌍이 잠언의 대구 모음 한가운데 놓인 이유는 무엇인가?

- 죽음 영역의 가장 깊은 이름들이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위한 비교항으로 쓰인다. 욥기의 우주 시(26장)와 일상 잠언이 같은 짝을 공유하는 현상 — 편집·전승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Q2. 15:15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 상반절과 하반절은 다른 두 사람인가, 같은 날들의 두 살이인가?

- 처지의 차이인지 마음의 차이인지 본문이 가르치 않는다. 고난 받는 자를 향한 이 절의 온도(차가움인지, 다른 무엇인지)도 함께 미해결로 이월.

Q3. 15:4의 생명나무 — 지혜(3:18)·열매(11:30)·소원(13:12)에 이어 혀(15:4)로 — 이 형상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네 번의 등장이 점점 사람의 일상 가까이로 내려오는 듯 보이지만, 그 방향이 의도된 배열인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창세기 2~3장의 나무와의 거리도 함께 보존.

Q4. 15:8은 왜 '제사 對 제사'가 아니라 '제사 對 기도'로 어긋나게 짝지었는가?

- 악인의 두꺼운 제물과 정직한 자의 빈손 기도 — 비대칭 자체가 말하려는 바가 있는 듯하나, 본문은 그 의도를 풀어 주지 않는다. 29절(들으시는 기도)과의 호응만 관찰로 두고 보존.

Q5. 15:23의 '때에 맞는 말(davar be'itto)' — 그 '때'는 누가 정하는가?

- 깊이 생각하는 마음(28절)이 닿는 때인지, 듣는 사람의 때인지, 보시는 분의 때인지 — 본문은 기준을 주지 않고 아름답다는 감탄만 남긴다. 보존.

Q6. 15:24 "위로 향한 생명 길" — 위/아래의 공간 은유는 어디까지 가는가?

- 아래의 스올을 떠나게 된다는 하반절과 맞물린 수직 그림. 후대 독자는 내세를 읽지만, 본문 차원에서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열려 있다.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6장

PRO-016 · 시가서 · 히브리어

"마음의 경영(*markhe lev*)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16:1)로 열리고 "제비(*goral*)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16:33)로 닫히는 — 계획하는 손과 인도하시는 분의 협업이 대구 잠언 전체의 바닥짐으로 놓이는, 권 한가운데의 여호와 잠언 군집.

관찰된 사실

잠언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궁정의 인접: 보이지 않는 천상의 다스림(1~9절, 여호와와 이름 집중)과 보이는 왕궁(10~15절, 왕의 입술·보좌·진노·희색). 묘사 없는 활동과 묘사 있는 권력이 벽 하나 사이.
- 점경들: 노동 현장(26절), 공의로운 길 위의 백발(31절), 함락되는 성(32절), 제비가 떨어지는 품(33절).
- 소품(계량): 공평한 저울(*peles*)·접시 저울(*mozen*)·주머니 속의 추(*avne-khis*, 11절) — 보이지 않는 돌까지 "다 그가 지으신 것".
- 소품(그 외): 죽음의 사자들(14절), 늦은 비 구름(15절), 금과 은(16절), 꿀송이(24절), 맹렬한 불(27절), 영화의 면류관이 된 백발(31절), 제비(*goral*, 33절).
- 소재의 이중주: 사람의 동사들(경영하다·계획하다·뽑다·일하다) 對 여호와와 동사들(응답하시다·감찰하시다·지으시다·인도하시다·작정하시다).
- 1절과 9절의 동일 골격(사람의 내면 동작 + 여호와와의 마무리)이 1~9절을 감싸고, 33절이 같은 골격으로 장 전체를 닫음 — 이중 액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5장의 식탁·말다툼의 공기에서 한 층 올라간 고요 — 사건 장면이 드물고 선언이 한 절씩 떨어지는 낭독의 공간.
- 1~9절에서 거의 매 절의 문장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끝맺는 리듬 — 모든 격언의 마지막 박자가 한 분에게 수렴.
- 1절의 어조: 사람의 계획을 꺾지 않고 응답의 끝만 맡으시는 — 위협이 아니라 지형 안내.
- 4절에서 공기가 얼어붙음 —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본문은 설명 없이 다음 절로 진행.
- 같은 입이라는 무대에서 꿀송이의 단맛(24절)과 맹렬한 불(27절)이 세 절 간격으로 교차.
- 왕 잠언 묶음(10~15절)의 어조 — 묘사인지 이상(理想)인지 결이 단혀 있지 않음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마음의 경영(*markhe lev*)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 33절: "제비(*goral*)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 같은 구문의 재연: 사람의 동작(경영/뽑음) + 여호와와의 결정(응답/작정). 가장 내밀한 것(마음속 전열)에서 가장 우연해 보이는 것(손끝의 제비)으로.
- 두 절 모두 명령 없는 평서의 단언("~나오느니라/~있느니라") — 권면이 아니라 일의 지형을 알려 주는 어미.
- 두 장면 모두 여호와와의 손은 화면 밖 — 응답이 "나오고" 작정이 "있다"고만 들림.
- 1·9·33절 세 기둥: 사람 쪽 명사는 경영→계획→제비로 가벼워지고, 여호와 쪽 동사는 응답→인도→작정으로 단단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1~9·11·20·33절 — 직접 발화 없는 실질 주역), 익명의 사람(adam — 경영·계획·제비의 주어), 익명의 왕(10~15절), 마음이 교만한 자(5절), 고되게 일하는 자(26절), 불량한 자·패역한 자·강포한 사람·눈 짓하는 자(27~30절), 백발의 노인(3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용사(32절). '내 아들이' 호명 부재.
- 중심 사상: 협업 — 사람의 계획을 무효화하지 않고 마지막 마디(응답·인도·작정)만 여호와께 귀속. 3절 "말 기라(gol — 굴리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 굴려 넘긴 뒤에도 '네가 경영하는 것'으로 불림.
- 여호와 군집(1~9절) 직후의 왕 군집(10~15절) — 지상의 통치를 천상의 다스림 그늘 아래 두는 배열. 12절: 보좌를 받치는 것은 공의라는 추상명사.
- 2절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 거짓이 아니라 시야의 기울기 문제. 25절이 같은 무늬를 길에 적용.
- 입의 일곱 얼굴: 재판하는 왕의 입술(10절), 의로운 입술(13절), 슬기로워지는 입(23절), 꿀송이(24절), 불 같은 입술(27절), 닫히는 입술(30절), 일꾼을 독촉하는 자기 입(26절).
- 6절 chesed ve-emet(인자와 진리)가 속죄 동사 yekhapus(kaphar — 덮다)와 연결 — 제의 어휘가 인격의 결결에 쓰인 형태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여호와 잠언 군집 — 경영과 응답, 감찰, 굴려 맡김, 악인도 악한 날에, 교만 미워하심, 인자와 진리의 속함, 원수와의 화목, 적은 소득과 공의, 계획과 걸음.
- 컷 2 (10~15절): 왕 잠언 군집 — 왕의 입술의 하나님 말씀, 여호와와의 저울, 공의로 서는 보좌, 의로운 입술, 죽음의 사자 같은 진노와 쉬게 하는 지혜자, 늦은 비 구름 같은 은택.
- 컷 3 (16~24절): 지혜·겸손·말 — 금보다 나은 지혜, 악을 떠나는 대로, 패망의 선봉인 교만(18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말씀 주의, 생명의 샘, 꿀송이.
- 컷 4 (25~30절): 어두운 길 — 사람이 보기에 바른 사망의 길, 식욕의 독촉, 불 같은 입술, 친한 벗의 이간, 이 옷을 찢는 강포, 눈짓과 닫힌 입술.
- 컷 5 (31~33절): 닫는 세 절 — 백발의 면류관, 성 빼앗는 자보다 나은 마음 다스리는 자, 제비와 작정.
- 18절의 군대 은유(선봉·앞잡이)가 1절의 markhe(전열)와 같은 그림 계열 — 마음의 전열을 잘못 짜면 행렬 맨 앞에 패망이 행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rkhe lev(מַרְכֵּה לֵב) — 마음의 경영. maarakhah는 군대의 전열·제단의 진설 계열 — 줄 세워 배열함. 1절.

- *maane lashon*(מַעַנֶה לָשׁוֹן) — 혀의 응답. 1절의 두 행이 m- 소리로 짝을 이룸. 4절의 *lammaanehu*('그 쓰임에 적당하게')가 같은 *maaneh* 계열 — 소리 연결.
- *ruchot*(רוּחוֹת) — 심령, *ruach*의 복수형. 이를 다시는 동사는 *tokhen*(무게를 닮). 2절.
- *gol*(גֹּל) — 굴리라. 어근 *galal*. 시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와 동일 동사. 3절.
- *gaon*(גֹּאֵן) — 교만·높음. 5절(미워하심)과 18절(패망의 선봉)에서 재등장.
- *peles u-mozne mishpat*(פְּלֵס וּמוֹצֵנֶת מִשְׁפָּט) —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avne-khis*(אַבְנֵי-כִּיסִּים) — 주머니의 돌들 (추). 11절.
- *tsuf devash*(צֹף דְּבַשׁ) — 꿀송이. 24절. / *sevah*(שֶׁבַח) — 백발, *ateret tiferet*(אַתֶּרֶת תִּפְעָרֶת) — 영화의 면류관. 31절.
- *erekh appayim*(אַרְכֵּי אַפַּיִם) — 노하기를 더디함, 직역 '코가 긴'. 출 34:6의 여호와 자기 선언과 동일 표현. 32절. / *goral*(גֹּרָל) — 제비. 3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여호와 군집(1~9) + 왕 군집(10~15) + 지혜·말 묵음(16~24) + 어두운 길(25~30) + 닫는 세 절(31~33)의 다섯 단.
- 이중 액자: 1↔9절(작은 액자, 여호와 군집)과 1↔33절(큰 액자, 장 전체). 사람의 동작 + 여호와와의 마무리라는 동일 골격.
- 권 중앙의 바닥짐: 행위·결과의 규칙성을 말해 온 대구 잠언 바다 한복판에 규칙의 주인을 세움. 19:21·21:1로 후속 타전.
- *tov min*(나으니라) 비교 잠언 4회: 8절(공의>소득), 16절(지혜>금), 19절(검손>탈취물), 32절(자제>정복) — 가치의 저울이 뒤집히는 절들, 그 한가운데 11절의 저울.
- 16:25 = 14:12 — 글자 그대로 동일한 절의 반복. 14장에서는 마음 잠언들 결, 16장에서는 감찰(2절)과 작정(33절) 사이 — 같은 문장이 다른 이웃 사이에서 다시 놓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제비뽑기(*goral*) — 우림·돔뎀(출 28:30), 땅 분배(수 18장), 요나의 배(욥 1:7) 등 결정 위임의 관행. 근동 점술과 형식이 겹치나 33절은 귀속을 여호와 한 분께 뎀 — 배경.
- 도량형 — 이집트 사자의 서의 심장 계량, 함무라비 법전 등 근동 상법의 도량형 규정. 정직한 추가 신들의 관심사라는 공통 감각 위에서 11절은 추 자체를 여호와와의 소유로 선언 — 배경.
- 왕정 이념 — 근동에서 왕은 신의 공의 대리자로 그려짐. 10~15절은 그 형식을 공유하되 왕 묵음을 여호와와 묵음 직후에 배열 — 배경.
- 늦은 비(말코쉬) — 봄 수확 직전의 결정적 강우. 15절 은유의 기후 배경.
- LXX: 15~16장 경계의 절 배열이 MT와 크게 어긋나고 16장 첫머리 여러 절이 빠지거나 같음됨, 33절의 제비 표현을 '품에 던지는 모든 것'으로 옮기며 결을 이동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6:25 ↔ 잠 14: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 문자 그대로 동일한 절의 반복)
- 잠 16:1·9 ↔ 잠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 액자 구문의 후속 타전)
- 잠 16:10-15 ↔ 잠 21:1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 왕 잠언의 귀속 선언)

- 잠 16:3 ↔ 시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 같은 동사 galal)
- 잠 16:11 ↔ 잠 11:1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 도량형 잠언의 짝)
- 잠 16:18 ↔ 잠 15:33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 직전 장 끝과의 호응)
- 잠 16:32 ↔ 출 34:6 (노하기를 더디하심 — 여호와와 자기 선언과 동일 표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의 가슴 안쪽, 생각들이 전열처럼 줄을 선다 — 마음의 경영. 입을 여는 순간 화면 밖에서 응답이 오고, 보이지 않는 손이 영들의 무게를 단다. 무거운 짐이 언덕 위로 굴러 넘겨진다 —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어둠 속에 한 문장만 떠 있다 — 악인도 악한 날에. 왕궁이 밝아진다. 왕의 입술이 재판하고, 진노가 사신처럼 복도를 달리다 지혜자의 말에 잦아들고, 왕의 얼굴빛이 늦은 비 구름처럼 퍼진다. 왕좌 곁 저울 위로 주머니에서 꺼낸 추가 오른다 — 추를 지으신 손은 따로 있다. 거리에서 한 사람이 금 대신 지혜를 고르고, 행렬 맨 앞의 교만이 성문 앞에서 고꾸라진다. 꿀송이가 떨어져 뺏속까지 단맛이 스미고, 다른 꿀목의 불 같은 입술이 친한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바르게 보이는 길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해질녘 백발의 노인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오고, 성벽의 정복자 아래로 화를 삼키는 한 얼굴이 비취진다 —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릎 위의 품으로 작은 돌이 떨어진다. 손은 사람의 것, 멈추는 지점은 다른 분의 걱정. 안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전열과 제비 — 경영하는 사람, 걱정하시는 여호와"
- 초벌 부제: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16:1)에서 제비와 걱정(16:33)까지 — 계획하는 사람과 인도하시는 여호와와의 협업이 대구 잠언 한가운데의 바닥짐으로 놓이고, 왕의 보좌와 주머니 속 추와 꿀송이와 백발이 전부 한 분의 저울 위에 오르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이중 액자 + 군집 인접 + tov min 분포 + 16:25=14:12 반복 + ANE 도량형·제비·왕정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6:4(악인도 악한 날에)를 예정론·신정론의 체계로 통합하지 않고, 본문이 설명 없이 둔 그대로 미해결로 보존.
- 16:6의 인자와 진리·속함(kaphar)을 속죄 교리의 선취로 앞당겨 읽지 않고, 제의 어휘가 인격의 결 결에 쓰인 형태 관찰로만 둬.

- 16:33의 제비를 '우연은 없다'는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뽑는 손과 걱정하시는 분이 한 절에 같이 있는 배열 관찰로 됨.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6장은 "마음의 경영(maarkhe lev)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16:1)로 열리는 여호와 잠언 군집(1~9절)을 권의 한가운데에 두고, 그 직후에 왕 잠언 군집(10~15절)을 붙여 지상의 보좌를 천상의 다스림 아래 배열한 뒤, 금보다 나은 지혜와 패망의 선봉인 교만(16:18)과 꿀송이 같은 선한 말(16:24)과 사람이 보기에 바른 사망의 길(16:25)을 지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마음 다스리는 자(16:32)와 "제비(goral)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16:33)로 닫히는 — 행위와 결과의 규칙을 주신 분을 대구 잠언의 바다 한복판에 세우는 장이다.

한 문단: 한 사람의 가슴 안에서 생각들이 군대의 전열처럼 줄을 선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응답은 화면 밖에서 오고, 보이지 않는 손이 영들의 무게를 단다. 무거운 짐이 언덕 위로 굴러 넘겨진다 — 말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둠 속에 설명 없는 한 문장이 떠 있다 —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왕궁이 밝아지고, 왕의 입술이 재판하고, 진노가 사신처럼 달리다 지혜자의 말에 잦아들고, 왕좌 곁 저울 위로 주머니에서 꺼낸 추가 오른다 — 추를 지으신 손은 왕의 것이 아니다. 거리에서는 교만이 행렬 맨 앞에 깃발을 들고 가다 고꾸라지고, 꿀송이가 떨어져 뿔속까지 단맛이 스미고, 바르게 보이는 길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해질녘 백발의 노인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오고, 성벽의 정복자 아래로 화를 삼키는 한 얼굴이 비춰진다. 그리고 무릎 위의 품으로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진다 — 손은 사람의 것, 멈추는 지점은 다른 분의 걱정.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보이지 않는 다스림(1~9)과 보이는 왕궁(10~15)의 두 궁정. 저울·추·꿀송이·불·백발·제비의 작은 사물들. 사람의 동사 對 여호와와의 동사 이중주.
2 첫 느낌·분위기	한 층 올라간 고요. 매 절이 한 이름으로 수렴하는 리듬. 4절의 바닥 안 보이는 우물. 같은 입에서 교차하는 꿀과 불.
3 시작과 끝	1절(경영/응답)과 33절(뽑음/작정)의 동일 골격 재연. 내면의 전열에서 손끝의 제비까지 — 명령 없는 평서의 단언.
4 등장인물·사상	익명의 사람·익명의 왕·이름 가진 단 한 분. 중심 사상은 협업 — 말김(gol)이 포기가 아님. 입의 일곱 일굴.
5 장면 컷	여호와 군집(1~9)/왕 군집(10~15)/지혜·말(16~24)/어두운 길(25~30)/닫는 세 절(31~33)의 5컷. 18절 선봉·앞잡이의 군대 은유.
6 의문·발견·정보	이중 액자(1·9·33). tov min 4회의 가치 전도. 16:25=14:12 반복. 16:4 미해결. 도량형·제비·왕정의 ANE 배경.
7 동영상	가슴 안의 전열 → 굴러 말기는 짐 → 왕좌 곁의 저울 → 고꾸라지는 교만 → 백발의 면류관 → 품에 떨어지는 제비, 암전.
	"전열과 제비 — 경영하는 사람, 걱정하시는 여호와"

단계	핵심 발견
8 초별 제목·부제	
9 기도·내면	주머니 속의 주까지 지으신 분 앞에서, 굴러 말긴다는 동사 하나만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이중 액자, 협업의 문법:** 1절과 9절이 여호와 군집을 감싸고, 1절과 33절이 장 전체를 감싼다. 세 절 모두 같은 골격 — 사람의 동작이 앞 행에, 여호와와 마무리가 뒷 행에. 사람 쪽 명사는 경영에서 계획으로, 계획에서 제비로 점점 가벼워지는데, 그것은 사람 몫의 축소가 아니라 적용 범위의 확장이다. 가장 내밀한 구상부터 가장 우연해 보이는 손놀림까지, 어느 크기의 일이든 마지막 마디는 한 분에게 있다.
- 결 2 — tov min, 뒤집히는 저울:** "나으나라" 비교 잠언이 네 번(8·16·19·32절) 나와 세상의 등수를 뒤집는다 — 공의가 많은 소득보다, 지혜가 금보다, 겸손이 탈취물보다, 마음 다스림이 성 빼앗음보다. 그리고 그 네 절의 한가운데 11절이 있다 — 공평한 저울과 주머니 속의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 등수를 매기는 도구 자체가 그분의 소유라면, 가치의 역전은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계량이다.
- 결 3 — 같은 절의 귀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25절)는 14:12의 문자 그대로의 재현이다. 이번에는 이웃이 다르다 — 자기 보기에 깨끗한 행위를 다시는 감찰(2절)과 모든 일의 작정(33절) 사이에 놓였다. 시야가 기울 수 있다는 경고가, 시야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의 군집 안으로 들어와 다시 올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4:12 — 16:25와 동일한 절. 같은 문장이 다른 이웃 사이에서 두 번 발행됨.
- 잠 19:21 —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 완전히 서리라" — 액자 구문의 후속 타전.
- 잠 21:1 —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 왕 잠언 군집의 귀속 선언.
- 시 37:5 —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갈랄)" — 16:3과 같은 '굴리다' 동사.
- 잠 11:1 —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 16:11 도량형 신학의 짝.
- 출 34:6 — 노하기를 더디하시고(erekh appayim) — 16:32에서 사람에게 권해지는 그 덕의 출처.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전열은 내가 짚다. 경영이 허락되어 있다는 데서 숨을 고른다.
- **멈춤 1:** 2절에서 멈춘다 — 자기 보기에는. 내 시야의 기울기를 다는 저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듣는다.
- **멈춤 2:** 4절에서 멈춘다 — 악인도 악한 날에. 설명이 없다. 설명 없음을 그대로 들고 간다.
- **멈춤 3:** 32절에서 멈춘다 — 정보다 마음. 오늘 정복해야 할 성이 어느 쪽인지 떠오른다.
- **끝:** 33절에서 끝난다 — 제비는 내가 뽑는다. 멈추는 지점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분업이 이상하게 편안하다.

F · 자족성 점검

- [x] 여호와 군집(1~9)·왕 군집(10~15)·지혜와 말(16~24)·어두운 길(25~30)·닫는 세 절(31~33)의 다섯 단 완결
- [x] 1·9·33절 이중 액자의 동일 골격 확인
- [x] tov min 4회(8·16·19·32절)의 분포와 11절 저울의 중앙 배치

- [x] 16:25=14:12 반복과 이웃 차이의 관찰
- [x] 16:4 난해 잠언의 미해결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6장은 둘째 국면의 한가운데 — 수백 개의 독립 격언이 흩어져 있는 듯 보이는 바다의 정중앙에 여호와 잠언 군집을 정박시키는 닻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창조와 섭리의 언어가 일상 격언의 문법으로 번역되는 지점이다 — 주머니 속의 추까지 "다 그가 지으신 것"(16:11)이라는 선언은 창조 신앙을 상거래의 골목까지 끌고 내려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16:32)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여호와와의 자기 이름(출 34:6)을 사람의 덕목으로 받아 내린다. 왕 잠언 군집(10~15절)이 여호와 군집 직후에 놓인 배열은 다윗 왕가의 보좌가 공의 위에서만 서고(16:12) 결국 더 큰 보좌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결을 만들며, 이 결은 21:1(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을 지나 왕보다 큰 다스림을 기다리는 정경의 긴 흐름과 이어진다. 사람이 뽑고 여호와께서 걱정하시는 33절의 분업은, 사람의 결정과 그분의 경륜이 어긋나지 않고 한 절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잠언적 확신의 가장 압축된 표현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위-결과의 규칙성에서 규칙을 쥐신 인격으로 / 정복의 전장에서 마음의 안쪽으로 / 마음속 전열(16:1)에서 품의 제비(16:33)로 — 어느 크기의 일이든 마지막 마디는 한 분에게.

한 화살표로 좁히면, 16장은 '계획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둘 다라고 답하는 운동이다. 경영도 계획도 제비도 사람 몫으로 남겨 두고, 응답·인도·작정이라는 끝 마디만 여호와께 귀속시킨다. 통제를 빼앗는 게 아니라 통제의 환상만 거두는 방향 — 그래서 3절의 명령은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굴리라(gol)다. 무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옮기는 동사. 이 벡터는 17장 이후의 대구들로 이어지며, 19:21과 21:1에서 같은 골격으로 재타전되고, 30장 아굴의 낮아짐("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에서 사람의 얇이 끝까지 부분이라는 고백으로 깊어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 격언집이다 — 계획을 잘 세우고, 화를 참고, 말을 곱게 하라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통제라는 환상의 해체와 협업이라는 신뢰의 회복이 움직인다. 16장은 사람의 무력함을 설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동작을 끝까지 존중한다 — 전열을 짜는 것도, 길을 계획하는 것도, 제비를 뽑는 것도 사람이다. 다만 그 모든 동작의 마지막 마디가 자기 손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마디를 쥐 분이 주머니 속의 추까지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 줄 뿐이다. 2절이 그 핵심을 가장 아프게 짚는다 — 문제는 거짓이 아니라 시야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진심으로 그렇다. 그래서 심령을 다는 저울이 바깥에 있다는 사실은 위협이 아니라 구조(救助)다 — 기운 시야가 최종심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같은 깊이에서 32절의 가치 전도가 나온다. 성을 빼앗는 일은 바깥의 정복이고 눈에 보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안쪽의 통치고 아무도 못 본다. 보이지 않는 다스림이 보이는 정복보다 크다는 이 한 절은, 보이지 않게 다스리시는 분의 장(1~9절)이 보이는 왕궁(10~15절)보다 먼저 오는 이 장의 배열 자체와 같은 말을 한다.

나는 오늘도 전열을 짜고 제비를 뽑는다 — 그 모든 동작의 마지막 마디가 내 손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가, 모르고 하는가. 굴러 말긴 사람과 움켜쥔 사람의 하루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계획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는다. 경영하라고, 더 잘 경영하라고 두 고서 — 다만 응답이 나오는 곳을 알려 준다. 3절의 약속이 그 초대의 문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 굴러 넘긴 뒤에도 그 일은 여전히 '내가 경영하는 것'으로 불린다. 맡김이 소유권의 박탈이 아니라 무게의 이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곁에 4절의 우물과 25절의 안개가 나란히 있다는 사실이, 맡김을 값싼 낙관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 다 보이지 않는 채로 굴리는 것 — 그것이 이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동사 하나다. 무릎 위로 떨어지는 작은 돌과 그 돌을 멈추시는 분 사이의 33절이, 독자의 오늘을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모든 것을 다시는 저울의 장을 지나, 다음 장은 가장 가난한 식탁에서 시작한다 —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17: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gol* — 굴리라, 무게를 옮기는 맡김.

미해결 질문

잠언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6:4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 '적당하게(lammaanehu)'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악인을 지으셨다는 것인지, 악인조차 악한 날과 맞물리게 두셨다는 것인지 본문은 한 절만 말하고 침묵한다. 1절의 *maaneh*(응답)와 같은 계열의 명사라는 소리 연결만 형태로 보존. 체계로 통합하지 않고 이월.

Q2. 16:1의 협업 — 마음의 경영과 혀의 응답 사이 경계선은 어디인가?

- 전열을 짜는 것은 사람이고 응답이 나오는 곳은 여호와신데, 그 사이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어느 지점까지가 사람 몫인지 본문은 굿지 않는다. 9절(계획/결음)·33절(뽑음/작정)도 같은 미확정을 공유. 보존.

Q3. 16:25가 14:12를 글자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배치인가?

- 필사 중복인지 의도된 재타전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14장에서는 마음 잠언들 곁에, 16장에서는 감찰(2절)과 작정(33절) 사이에 놓였다는 이웃의 차이만 관찰로 보존.

Q4. 16:2의 *ruchot*(심령) 복수형 — 한 사람 안의 여러 영인가, 사람들의 영들인가?

- 복수 형태가 가리키는 폭을 본문이 정해 주지 않는다. 21:2의 평행절(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과의 형태 비교만 남기고 이월.

Q5. 16:10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 묘사인가 이상인가?

- 실제 왕들의 행태 서술로 읽기엔 12절("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의 당위 어법이 곁에 있고, 순수한 이상으로 읽기엔 단언의 어미가 단단하다. 왕 잠언 군집 전체의 어조가 두 절 사이에 열려 있음. 보존.

Q6. 16:33의 제비 — 우림·덤덤 같은 공인된 관행만 가리키는가, 모든 우연을 덮는가?

- 품에 던지는 goral이 성소의 결정 절차를 가리키는지 일상의 모든 무작위까지 포함하는지 본문은 한정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걱정하기는'이라는 둘째 행의 폭과 함께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7장

PRO-017 · 시가서 · 히브리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17:1)라는 식탁의 평화론으로 열려, 도가니·풀무 위에 "여호와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bochen libbot*)"(17:3)의 시선이 놓이고, 허물을 덮는 사랑(17:9)과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형제(17:17)를 지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침묵(17:27-28)으로 닫히는 — 관계의 살림을 짓는 스물여덟 개의 대구.

관찰된 사실

잠언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하나의 무대 없이 스물여덟 개의 독립 장면이 점멸. 공간은 네 곳으로 수렴 — 집·식탁(1·2·6·19·21·25절), 작업장(3절), 길·산길·둑(12·14·24절), 법정(15·23·26절).
- 소품(밝음): 마른 떡 한 조각(1절), 면류관 같은 손자들(6절), 덮어 주는 손(9절), 등불 든 형제(17절), 양약(22절), 닫힌 입술(28절).
- 소품(어둠): 다툼의 제물들(*zivchei riv*, 1절), 보석 같은 뇌물(8절), 매 백 대(10절), 새끼 빼앗긴 암곰(12절), 새는 둑(14절), 보증의 손뼉(18절), 높은 문(19절), 마르는 뼈(22절), 품속의 뇌물(23절), 땅 끝을 헤매는 눈(24절).
- 3절의 작업장 — 도가니(*matsref*)·풀무(*kur*)·은·금의 도구 진열 위에 여호와와 시선이 얹히는 배치. 장 전체에서 가장 큰 줍아웃.
- 소재의 두 영토: 화목·덮어 줌·친구·형제·즐거운 마음·잠잠함 對 다툼·조롱·뇌물·반역·죄과·근심.
- 음식(1절)에서 입술(28절)로 — 양 끝이 모두 입의 소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의 안도(적게 가진 식탁을 본문이 먼저 편들) → 12절의 공포(암곰보다 무서운 비교) → 22절의 온기 → 27~28절의 고요로 가라앉는 감정 기복.
- 슬라이드 영사기 같은 점멸 리듬 — 내러티브가 아니라 독립된 그림들의 빠른 전환.
- '미련한 자' 반복(10·12·16·21·24·25·28절)이 정죄에서 부모의 아픔(21·25절)으로, 마지막에는 열린 문(28절)으로 부드러워짐.
- 14절의 청각 — 둑에서 물이 가늘게 스미다 터지는 소리. 1절의 마른 떡과 22절의 마른 뼈 — '마름'의 두 얼굴.
- 명령문이 드물고 직설법 관찰문 위주 — 선포보다 보고에 가까운 어조.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툼은 것보다 나으니라."

-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 다툼의 소음으로 열려 침묵으로 닫힘 — 양 끝이 같은 기관(입)을 다룸.
- "나으니라"(실체의 비교 판정)에서 "여겨지느니라"(평판의 관찰)로 건너가는 어미 변화.
- 두 집의 식탁(여럿)에서 한 사람의 다문 입(하나)으로 좁아지는 화면 이동. 1절과 27절은 둘 다 '적음'의 변호 — 음식이 적어도 화목이면, 말이 적어도 지식이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 하는 주인의 아들(2절), 가난한 자·조롱하는 자·지으신 주(5절), 손자·노인·아비·자식(6절), 친한 벗과 이간자(9절), 총명한 자(10절), 새끼 빼앗긴 암곰(12절), 친구와 형제(17절), 보증 서는 자(18절), 미련한 아들과 부모(21·25절), 재판 굶히는 악인(23절), 여호와(3·15절 — 작업장과 법정에서만 등장).
- 중심 사상: 17:5 — 가난한 자를 향한 조롱이 그를 지으신 주께 가 닿는다는 창조 윤리. 14:31의 재등장이며 17장 관계 윤리 전체의 바닥.
- 17:3 구문 — 도구:금속(도가니:은, 풀무:금)의 문형을 두 번 반복한 뒤 셋째 항에서 인격:마음(여호와:libbot)으로 점층.
- 17:15 — 판결을 뒤집는 두 방향(악인 의롭다 함·의인 악하다 함)이 똑같이 미움받는 대칭 판정.
- 17:9 — 허물 자체가 아니라 허물을 다루는 기억의 사용법이 관계를 정함. 거듭 말하는 자가 가르치는 대상은 '친한 벗'.
- 손의 회로: 값을 줬 손(16절) — 보증으로 잡는 손(18절) — 뇌물을 받는 손(23절). 줬 것이 길을 정함.
- 어리석음 세 어휘: naval(7·21절)·kesil(10·12·16·21·24·25절)·evil(28절) — 결이 섞이지 않음.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식탁과 작업장 — 마른 떡의 화목, 슬기로운 종의 유업, 연단의 세 항, 사악한 입술에 기울이는 귀, 조롱과 지으신 주.
- 컷 2 (6~9절): 세대와 기억 — 면류관 같은 손자, 분수 넘치는 말, 보석 같은 뇌물, 덮는 자와 거듭 말하는 자.
- 컷 3 (10~16절): 미련함의 위험 지대 — 깊이 새겨지는 한 마디, 반역과 잔인한 사자, 암곰, 악으로 선을 갇는 집, 새는 독, 값을 줬 빈 마음.
- 컷 4 (17~20절): 우정과 보증 — 끊어지지 않는 사랑, 위급한 때의 형제, 보증의 손뼉, 높인 문, 굶은 마음.
- 컷 5 (21~28절): 마음의 약과 침묵 — 부모의 근심, 양약과 마르는 뼈, 품속 뇌물, 땅 끝의 시선, 의인을 벌함, 아끼는 말, 닫힌 입술.
- 가로지르는 짝: 8절(뇌물의 관찰)↔23절(뇌물의 판정), 1·14·19절(다툼의 호), 21절↔25절(미련한 아들의 수미), 17절↔18절(사랑과 분별의 인접).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pat charevah*(פַּת חֲרֵבָה) — 마른 떡 한 조각. / *shalvah*(שָׁלַח) — 화목·평온. / *zivchei riv*(זִבְחֵי רִיב) — 다툼의 제물들, 제육이 제사 고기임을 보여 주는 형태. 1절.
- *matsref*(מַצֵּרֶף) — 도가니, tsaraf(정련) 어근. / *kur*(כּוּר) — 풀무. / *bochen*(בֹּחֵן) — 살피다·시험하다(bachan)의 분사형. / *libbot*(לִבּוֹת) — 마음들, 복수. 3절.

- *even chen*(אֲכֹרֶן) — '은혜의 돌', 보석. / *shochad*(שֹׁחַד) — 뇌물. 8·23절.
- *mekhasseh peshah*(מְכַסֵּה פֶּשַׁע) — 허물을 덮는 자, *kasah*(כָּסָה)의 분사. 9절. / *gearah*(הִגָּרָה) — 책망·충고. 10절.
- *dov shakkul*(דָּב שֹׁכֵל) — 새끼 빼앗긴 곰. 12절. / *poter mayim*(פּוֹטֵר מַיִם) — 물을 터놓음. / *reshit madon*(רֵאשִׁית מַדּוֹן) — 다툼의 시작. 1:7의 *reshit daat*과 같은 *reshit*. 14절.
- *rea*(רֵעַ) — 친구. / *ach*(אָח) — 형제. 17절. / *toqea kaf*(תּוֹקֵעַ כָּף) — 손뼉 치는 자, 보증의 몸짓. 18절.
- *lev sameach*(לֵב שָׂמֵחַ) — 즐거운 마음. / *gehah*(הָגָה) — 양약·치유, 구약 단 1회 용례. / *gerem*(גֵּרֵם) — 뼈. 22절.
- *qar ruach*(קָר רֹוּחַ) — 차가운 영, 냉철. *ketiv*(차가운)/*qere*(귀한)의 두 갈래 전통. 27절. / *ateret zeqenim*(אֶתֶרֶת זִקְנִים) — 노인들의 면류관. 6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tov-min*(~이 ~보다 낫다) 잠언으로 개막(1절) — 15:16-17과 같은 식탁 비교 계열.
- 17:3의 상징 평행(emblematic parallelism) — 도구 두 항의 반복 뒤 인격 항으로 점층하는 삼중 구문. 27:21에서 '칭찬'으로 변주되어 재등장.
- 마음(*lev*)의 다섯 상태 — 연단받는(3절)·없는(16절)·모자란(18절)·굶은(20절)·즐거운(22절). 3절의 연단이 목록 전체 위에 걸림.
- 소재의 회로 — 다툼(1→14→19절), 뇌물(8→23절: 관찰에서 판정으로), 미련한 아들(21→25절).
- 다툼으로 열고 침묵으로 닫는 수미(1절↔27-28절) — 17절·18절의 인접 배열(우정의 정점과 보증 경계의 동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성문 법정과 선물 관행 — 근동에서 관리·재판관에게 주는 선물은 흔한 관행이었고, 출 23:8의 금지는 그 만연의 반증. 8·23절 배경.
- 도가니·풀무 — 은·금을 광석에서 분리하던 야금 공정. 불순물이 떠오르면 걷어 내는 정련 작업이 3절 은유의 물질 배경.
- 시리아 불곰 — 이스라엘 산지 실제 서식종. 새끼 잃은 암곰은 삼하 17:8에서도 사나움의 관용 표현. 12절 배경.
- 손뼉(*toqea kaf*) — 보증·담보 계약의 관습 몸짓. 18절 배경. '문을 높임'(19절) — 문은 부와 지위의 과시 지점.
- LXX: 17:6 뒤에 6a(신실한 자와 재물의 행)를 첨가, 17:14의 독 이미지를 다른 결로 번역, 17:27 *ketiv/qere*를 인쇄 쪽으로 정리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7:1 ↔ 잠 15:16-17 (채소를 먹어도 사랑이 있으면 — 같은 *tov-min* 식탁 잠언)
- 잠 17:5 ↔ 잠 14:31 (가난한 자와 지으신 이 — 창조 윤리의 짝)
- 잠 17:3 ↔ 잠 27:21 · 시 66:10 · 랍 17:10 (정련과 마음 살핍의 통로)
- 잠 17:9 ↔ 잠 10:12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 잠 17:17 ↔ 잠 18:24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 우정 잠언의 이웃)
- 잠 17:18 ↔ 잠 6:1-5 · 11:15 · 22:26 (보증 경계의 결)
- 잠 17:22 ↔ 잠 15:13 · 18:14 (마음과 심령과 뼈 — 마음-몸 의학 계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두 집의 창이 나란히 보인다 — 마른 떡 한 조각의 상에서 웃음이, 제사 고기 가득한 상에서 고향이 새어 나온다. 화면이 작업장의 불빛으로 옮겨 간다. 도가니의 은, 풀무의 금, 그리고 그 불길 위로 내려와 있는 시선 —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장면이 점멸한다. 노인을 면류관처럼 두른 손주들, 손에서 손으로 빛나며 건너가는 뇌물, 허물 위에 덮이는 손과 그것을 거둬 들추는 입. 산길의 암굴이 일어서지만 화면은 더 무서운 만남이 있다고 말한다. 독의 틈에서 물이 스미고, 끓어지기 전에 누군가 시비를 그치고 돌아선다. 위급한 밤에 형제가 등불을 들고 나오고, 그 곁에서 함부로 손뼉을 치는 손이 있다. 한 가슴에서 즐거움이 약처럼 퍼지고 다른 뼈는 근심으로 말라 간다. 재판정 품속으로 뇌물이 미끄러지고,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을 헤맨다. 마지막 —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사람들은 그를 지혜자라 여기며 지나간다. 닫힌 입술 위로 고요가 내려앉고,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마른 떡의 화목, 닫힌 입술의 고요 — 마음을 연단하시는 시선 아래"
- 초벌 부제: "마른 떡 한 조각의 화목으로 열려 도가니·풀무 위에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의 시선이 놓이고, 허물을 덮는 사랑과 위급한 때를 위해 난 형제를 지나 닫힌 입술의 고요로 마치는 — 관계의 살림을 짓는 대구 모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tov-min 개막 + 연단 삼중 구문 + lev 다섯 상태 + 다툼·침묵 수미 + ANE 법정·야금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7:3의 연단을 고난 신학의 일반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도구-금속-마음의 삼중 구문 관찰과 27:21·렘 17:10으로 이어지는 통로 관찰로만 둬.
- 17:8의 뇌물 관찰문을 윤리적 변명이나 정죄로 봉합하지 않고, 23절 판정과의 배열 관찰과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 17:22의 양약을 의학적 처방이나 번영 보장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마음-몸 계열(15:13·18:14)의 어휘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7장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 나라"(17:1)라는 tov-min 식탁 잠언으로 열린 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bochen libbot)"(17:3)의 삼중 점층으로 관계의 살림 전체를 살피시는 시선 아래 두고, 허물을 덮는 사랑(17:9)·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위험한 미련함(17:12)·독에서 새는 물 같은 다툼의 시작(17:14)·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형제(17:17)·뺨를 마르게 하는 근심과 양약이 되는 즐거운 마음(17:22)을 지나,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17:28)라는 침묵의 결구로 닫히는, 식탁·세대·우정·법정의 대구 모음이다.

한 문단: 두 집의 창이 나란히 보인다. 마른 떡 한 조각의 상에서 웃음이, 제사 고기 가득한 상에서 고함이 새어 나온다. 화면이 작업장으로 옮겨 가면 도가니에서 은이 끓고 풀무에서 금이 달궈지는데, 그 불길 위로 한 시선이 내려와 있다 — 여호와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장면이 점멸한다. 노인을 면류관처럼 두른 손주들, 보석처럼 빛나며 건너가는 뇌물, 허물 위에 덮이는 손, 산길에 일어서는 암곰, 독의 틈에서 스미는 물. 위급한 밤에 형제가 등불을 들고 나오고, 그 곁에서 함부로 손뼉 치는 손이 있다. 한 가슴에서 즐거움이 약처럼 퍼지고 다른 뺨는 근심으로 말라 간다. 그리고 마지막 — 한 사람이 입을 다문다. 닫힌 입술 위로 고요가 내려앉으며 17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나의 무대 없는 스물여덟 장면. 집·식탁 — 작업장 — 길 — 법정의 네 공간. 음식에서 입술로 가는 소품의 길. 관계를 살리는 말과 허무는 말의 두 영토.
2 첫 느낌·분위기	식탁의 안도 — 암곰의 공포 — 양약의 온기 — 침묵의 고요. 점멸하는 슬라이드 리듬과 3절의 줌아웃. '미련한 자' 반복이 정죄에서 부모의 아픔으로 부드러워짐.
3 시작과 끝	다툼의 소음에서 닫힌 입술로 — 양 끝이 입을 다름. "나으니라"(실체 판정)에서 "여겨지느니라"(평판 관찰)로. 1절과 27절은 둘 다 '적음'의 변호.
4 등장인물·사상	종·아들 세 세대·벧·암곰·형제·보증인·부모, 그리고 작업장(3절)과 법정(15절)에만 등장하시는 여호와. 중심 사상은 17:5 — 조롱이 지으신 주께 닿는 창조 윤리.
5 장면 컷	식탁·연단(1~5)/세대·기억(6~9)/위험 지대(10~16)/우정·보증(17~20)/약과 침묵(21~28)의 5컷. 8↔23절 뇌물, 1·14·19절 다툼, 21↔25절 아들의 회로.
6 의문·발견·정보	lev의 다섯 상태. reshith madon — 다툼의 시작에 붙은 reshith. gehah(양약)의 단 1회 용례. 판정 없는 뇌물 관찰의 미해결. 법정·야금·암곰의 배경.
7 동영상	두 식탁 → 연단의 불빛 → 점멸하는 관계의 장면들 → 독의 물과 등불 든 형제 → 닫힌 입술의 고요, 잠전.
8 초별 제목·부제	"마른 떡의 화목, 닫힌 입술의 고요 — 마음을 연단하시는 시선 아래"
9 기도·내면	상에 무엇이 모자란지 세던 손을 내려놓고, 그 상에 오가는 말을 본다. gehah — 즐거운 마음 하나가 약이 된다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pat charevah, 식탁의 평화론:** 마른 떡 한 조각의 상이 다툼의 제물들(zivchei riv)로 가득한 집보다 낫다는 tov-min 비교가 17장의 문이다. 15:16-17의 채소 식탁과 같은 계열로, 식탁의 등급을 정하는 것은 차려진 것이 아니라 둘러앉은 이들 사이의 공기라는 저울이다. 이 첫 저울이 장 전체의 관계 잠언들을 다는 단위가 된다.

2. **결 2 — bochen libbot, 연단의 위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 도구와 금속의 문형이 두 번 반복된 뒤, 셋째 항에서 여호와와 마음이 들어선다. 도구가 감당하는 것은 금속까지이고 마음은 한 분의 몫이라는 위계가 한 절 안에 세워진다. 이 구문은 27:21에서 '칭찬'으로 변주되고, 램 17:10의 "심장을 살피며"와 시 66:10의 "은처럼 단련하셨으며"로 이어지는 긴 통로의 입구다.

3. **결 3 — 다툼의 유체역학과 침묵의 결구:** 다툼의 시작(reshit madon)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17:14) — 가늘게 스밀 때 막지 않으면 터진 뒤에는 손쓸 수 없다는 물의 물리학. 그리고 장의 끝에서 그 처방이 온다 —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17:27), 미련한 자라도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17:28). 다툼으로 열린 장이 침묵으로 닫히는 수미가, 독을 지키는 가장 이른 손길이 입술이라는 것을 배열로 말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5:16-17 —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 17:1과 같은 식탁 비교의 결.
- 잠 14:31 —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 17:5의 창조 윤리 짝.
- 잠 27:21 —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 17:3 구문의 재등장.
- 램 17:10 —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통로.
- 잠 10:12 —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 17:9 기억의 윤리의 짝.
- 잠 18:24 —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 17:17 우정 잠언의 이웃.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의 두 식탁에서 시작한다 — 내 상에 무엇이 차려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말이 오가는지를 센다.
- **멈춤 1:** 3절에서 멈춘다 — 도가니와 풀무는 도구의 일이고, 마음은 한 분의 몫이라는 위계 앞에 선다.
- **멈춤 2:** 9절과 14절에서 멈춘다 — 덮을 것인가 거둬 말할 것인가, 그리고 독의 틈은 언제 막아야 하는가.
- **끝:** 17절과 18절 사이에서 멈춘다 —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물려설 줄 아는 분별이 한 호흡 안에 같이 있다. 둘 사이 어디에 설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tov-min 개막(1절)과 침묵 결구(27~28절)의 수미 완결
- [x] 17:3 삼중 점층과 lev 다섯 상태의 분포
- [x] 8↔23절 뇌물, 1·14·19절 다툼, 21↔25절 아들의 소재 회로
- [x] 17절·18절 인접 배열(사랑과 분별의 동거)
- [x] 17:5 창조 윤리와 14:31의 호응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

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7장은 둘째 국면의 한가운데서 관계의 살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16장이 마음의 경영과 여호와와의 걸음 —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선을 그렸다면, 17장은 그 수직선이 받치는 수평선이다. 식탁의 화목, 세대의 면류관, 허물을 덮는 기억, 위급한 때를 위해 난 형제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상이 전부인 듯 보이는 장인데, 그 한가운데(17:3)와 법정(17:15)에 여호와가 두 번 들어오신다. 한 번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으로, 한 번은 굽은 판결을 미워하시는 분으로. '내 아들이'를 부르던 아버지의 자상함(권의 heart)이 여기서는 식탁과 우정의 세목까지 내려와, 경외가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의 상에서 오가는 말의 결로 번역된다. 1:7의 reshit daat(지식의 근본)이 17:14의 reshit madon(다툼의 시작)과 마주 보는 것도 이 좌표에서 읽힌다 — 무엇의 첫머리를 붙드는가가 길을 가른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탁의 다툼에서 입술의 침묵으로 / 도구의 정련(matsref·kur)에서 마음의 살핍(bochen libbot)으로 / 차려진 것의 많음에서 둘러앉은 이들의 화목(shalvah)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7장은 '관계는 어디서 사는가'라는 물음에 음식·재산·평판이 아니라 말과 기억과 마음이 라는 답의 방향을 가리키는 운동이다. 다툼의 제물들로 가득한 집이 마른 떡의 화목보다 못하고(1절), 허물의 유무보다 허물을 다루는 기억이 벼를 정하고(9절), 값을 준 손보다 비어 있는 마음이 문제이고(16절), 백 마디보다 닫힌 입술이 지혜에 가깝다(28절). 그리고 이 수평의 운동 전체가 3절의 수직 — 마음을 연단하시는 시선 — 아래서 진행된다. 18:10의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로 가면, 17장에서 살핍받던 마음이 이제 달려가 피할 이름을 얻는다. 살피시는 시선이 피난처로 바뀌는 첫걸음이 이 장의 출구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의 단편들이다 — 다투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어느 문화권에나 있을 법한 격언 모음.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관계의 처소가 움직인다. 화목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식탁의 말에 살고(1절), 사람의 존엄은 소유가 아니라 지으심에 걸려 있고(5절), 사랑은 허물의 없음이 아니라 덮는 기억에 살고(9절), 우정은 평탄한 날이 아니라 위급한 때에 살고(17절), 건강은 약상자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에 산다(22절). 17장이 옮겨 놓는 것은 관계의 기술 목록이 아니라 관계가 사는 곳의 주소다. 그리고 그 모든 주소의 가장 깊은 층에 3절이 있다 — 은과 금은 도구가 정련하지만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는 위계. 도가니가 불순물을 걷어 내듯 마음에서 무엇이 걷히는지 본문은 열지 않지만, 연단의 분사형(bochen)이 시제 없이 지속된다는 것 — 식탁의 말 한마디, 허물 앞의 선택 하나, 보증의 손뼉 하나가 전부 그 살핍의 불빛 안에 있다는 것 — 이 17장의 가장 깊은 물길이다. 미련한 아들을 둔 부모의 근심(21~25절)조차 정죄가 아니라 아픔의 결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 이 살핍이 차가운 검사가 아니라 자상한 시선임을 곁에서 증언한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식탁의 등급은 차려진 것이 아니라 오가는 말이 정한다 — 나는 지금 마른 떡의 화목 쪽인가, 다툼의 제물들 쪽인가.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양약인가, 마르는 뼈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차리라고도 덜 차리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두 집의 창을 나란히 보여 주고, 어느 상의 소리가 내 집에서 나는지 듣게 한다. 허물 앞에서 덮는 손과 거둬 말하는 입(9절), 독의 틈에서 스미는 물(14절), 위급한 밤의 등불(17절) — 전부 오늘 하루 안에서 일어나는 선택들이다.

그리고 22절의 불씨 —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구약에 단 한 번 쓰인 단어 *gehah*(양약)가 여기 있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라는 처방이 그만큼 희귀하고 그만큼 값지다는 형태의 증언처럼 읽힌다. 17장은 독자를 두 식탁 사이에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닫힌 입술 위의 고요를 보여 준다. 잠잠함으로도 들어설 수 있는 지혜의 문(28절) — 그 열린 틈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살핌받던 마음이 이제 달려가 피할 이름을 듣는다 —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18:10).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ochen* — 마음을 살피시는 이.

미해결 질문

잠언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7:8의 뇌물 잠언은 왜 판정 없이 관찰로만 놓였는가?

-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 꾸밈음 없이 작동 방식만 보여 준다. 23절의 판정(재판을 굽게 함)과의 배열이 의도라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17:3의 *bochen* — 분사형의 연단은 사건인가 상시인가?

- 시제 없는 분사가 그리는 연단의 지속성. 도가니·풀무가 불순물을 걷어 내는 공정이라면 마음의 연단에서 걷히는 것은 무엇인지 — 본문은 공정의 내용을 열지 않는다. 미해결로 이월.

Q3. 17:17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17:18의 보증 경계 — 둘 사이의 선은 어디인가?

- 우정 잠언의 정점 바로 다음에 손뼉 치는 보증을 지혜 없음이라 부르는 배열. 위급한 때를 위해 난 형제가 되는 것과 함부로 떠나는 것의 경계를 본문은 긋지 않는다. 보존.

Q4. 17:14 — 이미 새기 시작한 다툼은 어떻게 그치는가?

-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 터지기 전의 중단만 명한다. 독이 이미 터진 뒤의 길은 이 절의 화면 밖이다. 미해결로 이월.

Q5. 17:16 — 손에 값을 쥐고 온 미련한 자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인가?

- 원문이 '마음이 없다'고 짚는다면 지혜의 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결이 되는데, 그 마음의 내용 — 1:7의 경외인지, 3절의 연단받는 마음인지 — 은 이 절이 열지 않는다. 보존.

Q6. 17:28 — 잠잠한 미련한 자가 지혜자로 '여겨지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 보이는 것(여겨짐)과 되는 것 사이의 간격. 침묵이 위장에 그치는지,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지 — "여겨지느니라"의 어미는 판정을 평판의 층위에 멈춰 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8장

PRO-018 · 시가서 · 히브리어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migdal oz*)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18:10) 바로 곁에 부자가 마음속으로만 높다고 여기는(*bemaskito*) 재물의 성벽(18:11)이 나란히 놓이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18:21)라는 선언이 입과 귀의 잠언 전부에 생사의 무게를 싣는 — 피난처의 진위를 가르치는 대구의 장.

관찰된 사실

잠언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작은 무대들의 회랑: 법정(5·17·18절) — 요새(10·11·19절) — 물가(4절) — 식탁(8·20절) — 집(22절) — 길(16절). 컷마다 배경이 바뀌는 갤러리식 구성.
- 두 피난처의 인접: 의인이 달려가는 실재의 망대(10절)와 부자가 마음속으로만 높다고 여기는 성벽(11절)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됨.
- 소품(물): 깊은 물(*mayim amuqqim*)과 솟쳐 흐르는 내(4절) — 고요한 깊이와 흐르는 운동의 두 형태.
- 소품(어둠): 매(6절), 영혼의 그물(7절), 별식(8절), 산성 문빛장(19절), 엄한 말(23절).
- 소품(제도): 재판(5절), 선물(16절), 송사(17절), 제비(18절) — 공동체 운영 장치들이 한 계열로 등장.
- 말 어휘의 바닥: 입·입술·혀·말·대답이 스물네 절 중 아홉 절에 분포(2·4·6·7·8·13·20·21·23절).
- 수미: 무리에게서 갈라져 나가는 자(1절)로 열리고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24절)로 닫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의 차가움 — 고립을 외로움이 아니라 소욕의 선택으로 진단. 떠나는 자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시선.
- 14절에서 공기가 멎음 —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열린 질문이 장 한가운데 우물처럼 뿔려 있음.
- 말 어휘의 누적이 주는 압박과 4절(깊은 물 같은 입)의 고요가 양면으로 공존.
- 8절 별식의 정직 — 험담이 맛있다는 것을 본문이 먼저 인정하는 서늘함.
- 음향 대조 셋: 깊은 물의 고요(4절) — 다툼과 매의 소음(6절) — 망대로 달려가는 발소리(10절).
- 10절(동사 둘: 달려간다·안전함을 얻는다)과 11절(동사 없는 '여기느니라')의 운동 대비 — 발소리가 멎는 인접.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 갈라짐(*niphrad*)으로 열고 달라붙음(*davek*)으로 닫는 관계의 수미 — 그 사이를 입과 혀의 잠언이 메움.
- 1절은 "배척하느니라"(밀어내는 동사), 24절은 "친밀하니라"(붙는 형용) — 같은 종결 어미의 반대 방향.

- 1절의 '무리'와 24절의 '많은 친구' — 수가 많은 쪽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공통 관찰, 답은 깊이 붙는 하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행렬: 갈라지는 자(1) — 미련한 자(2·6·7) — 악한 자(3·5) — 명철한 사람(4·15) — 험담꾼(8) — 게으른 자(9) — 의인(10) — 부자(11·23) — 교만과 겸손(12) —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13) — 상한 심령(14) — 선물 든 자(16) — 먼저 온 사람과 상대자(17) — 강한 자들(18) — 노엽게 한 형제(19) — 혀를 쓰는 자(21) — 아내 얻는 자(22) — 가난한 자(23) — 친밀한 친구(24). 이름 없는 유형 인물들의 행렬극.
- 중심 사상 1 — 말의 인과: 입의 열매로 배부르고(20절) 혀의 열매를 먹음(21절). 7절의 영혼의 그물이 그 어두운 판본.
- 중심 사상 2 — 피난처의 진위: 여호와와 이름이라는 실재의 망대(10절) 對 재물이라는 상상의 성벽(11절).
- 법정 계열: 5절(판결의 윤리) — 17절(심리의 절차: 양쪽 듣기) — 18절(교착의 해소: 제비).
- 경청 한 쌍: 13절(개인 차원 — 듣기 전의 대답)과 17절(공동체 차원 — 상대자의 진술) — 같은 원리의 사적·공적 변주.
- 답 없는 절 한 쌍: 14절(상한 심령을 누가 일으키는가)과 19절(빛장이 걸린 형제) — 요새화된 내면과 관계, 여는 법은 적혀 있지 않음.
- 건조한 사회 관찰: 16절(선물이 길을 넓힘)·23절(가난한 자의 간절한 말, 부자의 엄한 말) — 칭찬도 정죄도 없는 스케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고립의 진단과 입의 행로 — niphrad, 깊은 물 같은 입, 매를 자청하는 입술, 영혼의 그물, 별식, 패가의 형제.
- 컷 2 (10~12절): 두 피난처 — migdal oz로 달려가는 의인, bemaskito의 성벽, 멸망의 선봉인 교만과 존귀의 길잡이인 겸손.
- 컷 3 (13~19절): 듣기의 순서와 다툼의 해부 — 듣기 전의 대답, 상한 심령의 질문, 지식을 구하는 귀, 선물, 송사의 상대자, 제비, 문빛장.
- 컷 4 (20~24절): 혀의 생사권과 관계의 결말 — 입의 열매, 혀의 손, 아내의 복, 말투의 계급,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 컷 2 내부의 미세 연쇄: 10-11절은 oz(견고)를, 11-12절은 높음(nisgavah — govah lev)을 공유 — 상승의 연쇄가 12절 후반의 겸손에서 꺾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iphrad(נִפְרָד) — 스스로 갈라진 자. parad(나뉘다)의 수동 분사. 1절. / tushiyyah(תוֹשִׁיָּיָה) — 참 지혜, 실질적 분별. 1절.
- mayim amuqqim(מַיִם עֲמוּקִים) — 깊은 물 / meqor chokhmah(מְקוֹר חֹכְמָה) — 지혜의 샘 / nachal novea(נַחַל נובע) — 솟쳐 흐르는 내. 4절.
- nirgan(נִרְגָּן) —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8절. / mitlahamim(מִתְלַחֲמִים) — 별식. 구약에서 18:8과 26:22 두 곳에만 나오는 희귀어.
- migdal oz(מִגְדַּל עֹז) — 견고한 망대. 10절. / nisgav(נִשְׁגָּב) — 안전함을 얻다, 높이 들리다(어근 sagav). 10절.

- *bemaskito*(בְּמַשְׁכִּיתוֹ) — 그가 여기기에. *maskit*(형상·그림·상상)에서 온 형태 — 성벽의 높이가 실측이 아니라 그의 그림 속 높이. 11절.
- *govah lev*(גֹּבַהּ לֵב) — 마음의 교만, 마음의 높음. 12절. / *ruach nekheah*(רוּחַ נֶכְחָה) — 상한 심령. 14절.
- *goral*(גֹּרָל) — 제비. 18절. / *ach niphsha*(אֶחַ נִפְשָׁה) — 노엽게 한 형제. / *briach armon*(בְּרִיחַ אֲרָמוֹן) — 산성 문빛장. 19절.
- *mavet vechayyim beyad lashon*(מָוֶת וְחַיִּים בְּיַד לָשׁוֹן) —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에. 21절. 혀가 쥐는 주체로 그려지는 형태.
- *ishah*(אִשָּׁה) — 아내 / *ratzon*(רָצוֹן) — 은총·기뻐하심. 22절. / *davek*(דָּבֵק) — 친밀한, 달라붙는. 창 2:24의 *davaq*과 같은 어근. 24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독립된 두 행 잠언 24개의 모음이되 배열에 편집의 손길: 10-11절의 인접, 13-17절의 경청 호응, 20-21절의 이어달리기, 1·24절의 관계 수미.
- 18:11 = 10:15 전반절의 축자 재사용 + 꼬리 교체: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10:15) 대신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bemaskito*)"(18:11) — 재물의 성이 사회적 사실에서 마음속 상상으로 이동.
- 10-11절의 어휘 공유: *oz*(견고)가 두 절에, *sagav*(높이 들리다) 어근이 10절의 동사(*nisgav*)와 11절의 형용(*nisgavah*)에 — 같은 갈망이 다른 곳에 걸림.
- 18:12 = 16:18 전반(교만은 패망의 선봉) + 15:33 후반(검손은 존귀의 길잡이)의 접합 — 다른 두 곳의 반절이 한 절로 묶인 편집 현상.
- 18:8 = 26:22의 축자 반복 — 같은 잠언이 두 번 수록된 사례. *mitlahamim*이라는 희귀어까지 동일.
- 14절의 수사 질문 — 잠언의 통상적 단언 형식과 달리 답 없이 열린 채 보존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망대(*migdal*) — 성벽이 뚫린 뒤 달려가던 도시의 마지막 피난 구조물. 데베스의 망대(삿 9:50-51)가 같은 그림 — 배경.
- 높은 성벽 — 고대 근동 도시의 부·안보의 표지. 11절 은유의 물질 배경.
- 빗장(*bariach*) — 성문·궁문을 안에서 잠그는 청동·철 가로대. 19절 은유의 배경.
- 제비(*goral*) — 분쟁·분배에서 사람의 손을 떠난 결정으로 통용되던 관행. 18절의 사회 배경.
- 성문 어귀의 송사 — 두 당사자가 차례로 진술하고 장로들이 듣던 절차. 17절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는 그 둘째 순서 — 배경.
- LXX: 18:1을 우정의 맥락으로 좁혀 옮김, 18:22 뒤에 아내 관련 행 첨가, 18:8의 미각 은유 약화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8:11 ↔ 잠 10: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 전반절 축자 재사용, 후반절 교체)
- 잠 18:8 ↔ 잠 26:22 (별식 잠언의 축자 반복)
- 잠 18:12 ↔ 잠 16:18 · 15:33 (교만-패망 / 검손-존귀의 두 반절 접합)
- 잠 18:4 ↔ 잠 20:5 (깊은 물 — 명철한 입의 말 / 사람의 마음속 모략)
- 잠 18:10 ↔ 시 61:3 · 잠 14:26 (견고한 망대 — 피난처로서의 주)
- 잠 18:22 ↔ 잠 19:14 · 31:10 (아내 —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복)

- 잠 18:24 ↔ 창 2:24 (davek/davaq — 달라붙음의 어근 공유) · 잠 17:17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 잠 18:21 ↔ 약 3:5-8 (혀의 생사권 — 신약 메아리,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무리를 등지고 걸어 나간다 —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화면이 입들의 거리로 바뀐다. 떠드는 입, 깊은 물처럼 고요한 입, 매를 부르는 입술, 제 영혼 위로 그물을 짜는 입. 식탁 위 별식이 한 점씩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들판이 열리고 한 사람이 망대를 향해 달린다 — 여호와와 이름, 문이 닫히고 그가 높이 들린다. 카메라가 한 뼘 옆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금고 위에 앉아, 그의 눈에만 보이는 성벽을 올려다본다. 법정 —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발라 보이다가 상대자가 들어와 뒤집는다. 제비가 던져지고 다툼이 멎는데, 한 형제의 마음 앞에는 산성 문빛장이 걸려 있다. 마지막 화면 — 한 사람이 제 입에서 나온 열매를 거두어 먹고, 자막이 흐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렸나니. 형제보다 가까이 붙은 두 어깨에서 안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벽 하나 사이 — 실재의 망대와 상상의 성벽**"
- 초벌 부제: "스스로 갈라지는 자의 고립으로 열려 입과 혀의 잠언들을 지나는 동안, 여호와와 이름이라는 실재의 망대와 부자의 상상 속 성벽이 나란히 마주 서고,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로 닫히는 — 피난처의 진위를 가르는 대구 잠언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10:15→18:11 재사용 + 18:8↔26:22 축자 반복 + 12절 접합 + 망대·빛장·제비 ANE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8:10의 '여호와와 이름'을 기독교론 선취로 앞당겨 읽지 않고, 이름-망대의 은유와 시 61:3 계열의 시가서 결론만 둬.
- 18:14의 수사 질문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답으로 봉합하지 않고 열린 채 보존.
- 18:11의 bemaskito를 부 자체에 대한 정죄로 일반화하지 않고, 상상 속 높이라는 본문의 표면 관찰로만 둬.
- 18:22의 아내 잠언을 결혼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복과 은총의 병행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8장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niphrad)"의 고립 진단(18:1)으로 열려 깊은 물 같은 명철한 입(18:4)과 영혼의 그물이 되는 미련한 입(18:7), 별식 같은 험담(18:8)을 지나, 여호와와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migdal oz, 18:10)와 부자가 마음속으로만(bemaskito) 높다고 여기는 성벽(18:11)을 벽 하나 사이에 나란히 세운 뒤, 듣기 전의 대답(18:13)과 상대자가 와서 밝히는 송사(18:17)로 경청의 순서를 묻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18:21)의 선언을 거쳐 형제보다 친밀한(davek) 친구(18:24)로 달히는 — 피난처의 진위와 말의 생사권을 다루는 대구 잠언의 장이다.

한 문단: 한 사람이 무리를 등지고 걸어 나가며 장이 열린다. 화면은 곧 입들의 거리로 바뀐다 —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입, 깊은 물처럼 고요한 입, 다툼을 일으켜 매를 부르는 입술, 제 영혼 위로 그물을 짜는 입, 그리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별식 한 접시. 그때 들판이 열리고 한 사람이 망대를 향해 달린다. 여호와와 이름 — 문이 닫히고 그가 높이 들린다. 카메라가 한 뼘 옆으로 옮겨 가면, 다른 사람이 금고 위에 앉아 자기 눈에만 보이는 성벽을 올려다보고 있다. 법정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발라 보이다가 상대자의 진술에 뒤집히고, 제비가 강한 자들의 다툼을 멎게 하는데, 노엽게 한 형제의 마음 앞에는 산성 문빛장이 걸려 있다. 마지막 화면에서 한 사람이 제 입에서 나온 열매를 거두어 먹고 —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렸나니 — 형제보다 가까이 붙은 두 어깨에서 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법정·요새·물가·식탁·집·길의 회랑식 무대. 벽 하나 사이의 두 피난처(10-11절). 말 어휘가 아홉 절에 깔린 바닥.
2 첫 느낌·분위기	고립을 선택으로 진단하는 1절의 차가움. 14절의 열린 질문. 별식의 정직한 미각. 깊은 물의 고요와 다툼의 소음, 달려가는 발소리.
3 시작과 끝	갈라짐(niphrad, 1절)으로 열고 달라붙음(davek, 24절)으로 닫는 관계의 수미 — 그 사이를 입과 혀의 잠언이 메움.
4 등장인물·사상	이름 없는 유형 인물 열아홉의 행렬극. 중심 사상은 말의 인과(20-21절)와 피난처의 진위(10-11절). 경청한 쌍(13·17절).
5 장면 컷	고립과 입(1~9) / 두 피난처(10~12) / 듣기와 다툼(13~19) / 혀의 열매와 친밀(20~24). 컷 2가 장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10:15→18:11의 꼬리 교체 재사용. oz와 sagav 어근의 공유. 14절의 열린 질문. 18:8↔26:22 축자 반복. 망대·빛장·제비의 ANE 배경.
7 동영상	등을 보인 한 사람 → 입들의 거리 → 망대로의 질주와 금고 위의 상상 → 법정과 빛장 → 혀의 열매 → 나란한 두 어깨,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벽 하나 사이 — 실재의 망대와 상상의 성벽"
9 기도·내면	두 개의 높음 — 달려가서 얻는 높음과 마음속에서만 세운 높음 — 가운데 내 발이 향하는 곳을 본다. migdal oz 곁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oz와 sagav, 두 피난처가 나눠 가진 단어:** 10절의 망대와 11절의 성이 '견고(oz)'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의인이 높이 들리는 동사(nisgav)와 부자의 성벽이 높다는 형용(nisgavah)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다. 두 절은 비교 구문 없이 나란히 놓이기만 했는데, 공유된 어휘가 배열을 비교문으로 만든다 — 같은 갈망, 다른 주소. 그리고 11절의 bemaskito 한 단어가 판정을 내리는 대신 위치만 알려 준다: 그 성벽의 높이는 그의 그림 속에 있다.
2. **결 2 — 혀의 손, 말의 인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의 원문은 '혀의 손에(beyad lashon)'다. 혀가 도구가 아니라 쥐는 주체로 그려지고, 20~21절은 입의 열매를 도로 먹는 농사의 그림으로 그 인과를 잇는다. 7절의 영혼의 그물이 어두운 판본이고 4절의 깊은 물과 솟는 내가 밝은 판본이다 — 한 기관에서 샘과 그물이 다 나온다.
3. **결 3 — 경청의 순서, 사적과 공적:** 13절(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과 17절(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이 같은 원리의 두 변주다. 개인의 대화에서도 법정 심리에서도, 결론은 두 번째 진술이 끝난 뒤에야 온다. 5절의 판결 윤리와 18절의 제비까지 합치면, 18장은 공동체가 다툼을 다루는 절차의 작은 교본을 품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0:15 —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 18:11이 전반절을 그대로 가져와 꼬리만 바꾼 출처.
- 잠 26:22 — 별식 잠언(18:8)의 축자 재현. 같은 문장이 두 번 수록된 편집 사례.
- 잠 16:18 · 15:33 — 18:12를 이루는 두 반절의 본가.
- 시 61:3 · 잠 14:26 — 견고한 망대·견고한 의뢰 — 18:10의 시가서 결.
- 잠 20:5 — 깊은 물(mayim amuqqim)의 재등장 — 명철한 입(18:4)과 캐내야 할 모략(20:5).
- 잠 19:14 · 31:10 — 아내 잠언(18:22)이 자라가는 줄기.
- 창 2:24 — davaq(합하다) — 18:24의 davek과 같은 어근, 달라붙는 연합의 어휘.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스스로 갈라지는 자. 내가 최근에 등을 보인 무리가 있는지, 그 떠남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떠오른다.
- **멈춤 1:** 8절에서 멈춘다 — 별식. 내 혀가 좋아하는 맛이 무엇인지, 어떤 수군거림이 내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와 있는지 본다.
- **멈춤 2:** 10절과 11절 사이에서 멈춘다 — 무섭고 급한 날에 내 발이 먼저 향하는 곳. 달려가는 피난인지, 앉아서 올려다보는 상상인지.
- **끝:** 14절에서 멈춘다 — 누가 일으키겠느냐. 답이 적혀 있지 않은 질문을 권 채, 달려가면 받아 주는 이름이 바로 네 절 앞에 있다는 것을 같이 준다.

F · 자족성 점검

- [x] 고립(1절)에서 친밀(24절)까지의 수미 완결
- [x] 10-11절 인접 배치와 oz·sagav 어휘 공유의 관찰
- [x] 말 잠언 아홉 절의 분포와 20-21절 열매 인과
- [x] 경청 한 쌍(13·17절)과 법정 계열(5·17·18절)의 호응
- [x] 14·19절 — 요새화된 내면과 관계의 열린 질문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움직인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이어지는데, 18장은 그 둘째 국면의 한복판에서 피난처의 진위를 가르는 매듭이다. 1:7이 모토로 세운 경외가 여기서는 위기의 동선으로 번역된다 — 경외하는 자는 무서운 날에 어디로 달리는가(18:10). '여호와와 이름'이 피난 구조물로 그려지는 이 절은 시 61:3의 견고한 망대, 잠 14:26의 견고한 의뢰와 한 줄기이고, 출 34장에서 선포된 이름이 백성의 처소가 되어 온 구속사의 흐름 위에 서 있다. 한편 18:11이 10:15의 문장을 가져와 꼬리를 바꾼 편집은, 잠언이 자기 자신을 다시 읽으며 깊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같은 재물의 성이 10장에서는 사회적 사실이었는데 18장에서는 마음속 상상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24절의 davek이 창세기 2:24의 연합 동사와 같은 어근으로 형제보다 가까운 우정을 적을 때, 18장의 닫는 어휘는 정경 첫 장의 연합 어휘와 멀리서 손을 잡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립(niphrad, 18:1)에서 친밀(davek, 18:24)로 / 상상의 성벽(bemaskito, 18:11)에서 실제의 망대(migdal oz, 18:10)로 / 듣기 전의 대답(18:13)에서 상대자의 진술까지 기다리는 귀(18:17)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8장은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사이에 두고 사람을 움직이는 장이다. 무리에 게서 멀어지는 다리와 이름을 향해 달리는 다리가 같은 다리라는 것 — 떠남 자체가 아니라 방향이 갈림이라는 것을 배열이 보여 준다. 그리고 그 갈림의 한가운데서 혀가 생사를 전다(18:21). 19장으로 넘어가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19:1)가 곧장 이어진다 — 18장이 입의 생사권을 선언했다면, 19장은 그 입보다 걸음의 성실이 앞선다는 비교로 받는다. 말의 장에서 길의 장으로 미치는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의 모습이다 — 함부로 말하지 말라, 끝까지 들어라, 다툼을 키우지 말라는, 어느 문화에나 있을 법한 격언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피난처의 존재론이 움직인다. 11절의 bemaskito 한 단어가 그 일을 한다 — 본문은 재물의 성벽이 거짓이라고 단언하지 않고, 그 높이가 그의 그림 속에 있다고만 적는다. 안전의 문제가 외부 검증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거하는가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다. 10절의 망대가 건물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점이 그 대조를 완성한다 —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벽은 상상으로 판명되고, 보이지 않는 이름이 실제의 피난처로 선다. 같은 역설이 말의 잠언들에도 흐른다. 입은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인데 영혼의 그물을 짜고(7절), 혀는 뼈가 없는데 죽음과 생명을 손에 전다(21절). 보이는 크기와 실제 무게가 어긋나는 것들의 목록 — 18장은 그 어긋남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견고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를 달아 보라고 배열로만 권한다. 14절의 열린 질문도 같은 깊이에서 있다. 몸의 병은 보이고 심령의 상함은 보이지 않는데, 본문은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무겁다고 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무섭고 급한 날, 내 발이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 달려가면 받아 주는 이름인가, 앉아서 올려다보는 내 그림 속 성벽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의 상상을 비웃지도 않는다. 다만 두 피난처를 벽 하나 사이에 세워 두고, 읽는 사람이 제 동선을 들여다보게 한다. 그리고 그 곁에 혀의 잠언들이 놓여 있다 — 내가 오늘 말한 것들이 누군가의 식탁에 별식으로 올랐는지, 누군가의 마음 앞에 빗장을 걸었는지, 아니면 깊은 물처럼 고요히 길어 올려졌는지. 21절은 위협이 아니라 농부의 산수다 — 심은 말을 거두어 먹게 되리라는 것. 14절의 질문이 답 없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 불씨다. 상한 심령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 본문이 비워 둔 그 답의 빈칸 네 절 앞에,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망대가 미리 세워져 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혀에 생사가 달렸다는 선언을 받은 19장이 곧장 비교로 응답한다 —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19:1), 말의 장에서 걸음의 장으로.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igdal oz* — 달려가는 자에게 열리는 견고한 망대.

미해결 질문

잠언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8:1의 *niphrad* —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누구에게서, 무엇으로부터 갈라지는가?

- MT는 갈라짐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다. LXX는 우정의 맥락으로 좁혀 옮겼으나 원문의 표면은 더 넓게 열려 있다. 공동체인지, 분별의 식탁인지 — 보존.

Q2. 18:4의 깊은 물(*mayim amuqqim*)은 칭찬인가, 양면적 그림인가?

- 같은 표현이 20:5에서는 캐내야 할 마음속 모락으로 나온다. 깊이가 풍성인지 불투명인지, 두 본문 사이의 결을 닫지 않고 이월.

Q3. 18:8은 왜 험담을 정죄하지 않고 별식이라고만 적는가?

- 미각의 정직한 묘사만 있고 금지 명령이 없다. 26:22에 같은 절이 다시 놓일 때까지, 이 관찰의 의도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4. 18:11의 *bemaskito* — 서술자의 반어인가, 중립 묘사인가?

- '그가 여기기에'라는 한 단어가 10절의 실재 망대와 대조를 만드는데, 부자의 상상을 비웃는 것인지 그저 적는 것인지 어조가 한쪽으로 닫혀 있지 않다. 보존.

Q5. 18:14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 기대되는 답은 무엇인가?

- '아무도 없다'는 탄식인지, 일으킬 누군가를 찾게 만드는 문인지 — 잠언의 통상 단언 형식에서 벗어난 이 열린 질문을 답 없이 이월.

Q6. 18:24 전반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 본문의 표면은 무엇인가?

- 히브리어 *lehitro'ea*의 형태가 까다로워 번역들이 갈린다. 친구의 많음과 부서짐 사이의 정확한 결은 형태의 어려움 자체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19장

PRO-019 · 시가서 · 히브리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tom*) 행하는 자가 더 나으니라"(19:1)는 선언과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 지느니라"(19:4)는 관찰이 한 장 안에 나란히 적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손이 여호와 께 꾸어 드리는(*malveh YHWH*) 손이 되는(19:17) — 현실을 가리지 않으면서 경외의 경제를 세우는 대구 잠언.

관찰된 사실

잠언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도시의 여러 구역을 도는 모자이크: 가난한 집 문 앞(4·7절) — 선물 주는 자의 집 앞(6절) — 왕궁(12절) — 물방울 새는 지붕 아래(13절) — 법정(5·9·28절) — 밥상 앞(24절).
- 카메라가 가장 자주 돌아오는 구역은 가난한 사람의 문 앞 — 1·4·7·17·22절, 다섯 번.
- 소품(모으는 것): 재물 *hon*(4절), 선물(6절), 집과 재물 상속(14절).
- 소품(소리·물기): 사자의 부르짖음과 풀 위의 이슬(12절),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delefe tored*(13절), 깊은 잠 *tardemah*(15절), 그릇과 손(24절), 채찍(29절).
- 17절의 보이지 않는 소품 — 여호와를 채무자로 두는 대부의 증서("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 소재의 두 갈래: 끊어지는 것(친구·형제, 4·7절) 對 이어지는 것(여호와와의 갚으심 17절, 여호와께로서 오는 아내 14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4·7절의 가난 관찰이 위로나 교훈의 포장 없이 사실로 적혀 있음 — 7절 끝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 들이 없어졌으리라"의 쓸쓸함.
- 17절에서 공기가 전환됨 — 모두가 떠난 문 앞에 남는 한 손, 그 손이 여호와와 거래함.
- 음향 설계: 사자의 핥음(12절) — 이슬의 무음(12절) — 그치지 않는 물방울(13절) — 손가락 소리 없는 밥상의 정적(24절).
- 24절 게으른 자의 희극적 초상에서 웃음 — 곧이어 15절의 허기("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가 서늘하게 따라옴.
- 3절의 어긋난 화살표 — 길을 굽힌 주어는 자기인데 원망은 여호와께 향함. 본문은 설명 없이 순서만 보여 줌.
- *tov-min* 부등호("~보다 나으니라")가 1절과 22절에 두 번 — 세상 셈법과 반대로 기우는 저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holek betummo*)."
-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 비교("나으나라")로 열리고 예비("예비된 것이나라")로 닫힘 — 평가의 언어에서 준비 완료의 언어로.
- 여는 절의 주인공(가난하지만 온전히 걷는 자)은 끝 절에 없음 — 23절에서 먼저 퇴장("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잠드는 출구와 채찍이 기다리는 출구로 갈라짐.
- 1절 tom과 23절 yirat YHWH — 머리의 저울이 끝에서 생명의 무게로 기우는 흐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가난한 자(1·4·7·17·22절), 재물 많은 자와 모이는 친구들(4·6절), 거짓 증인(5·9·28절), 너그러운 자 nadiv(6절), 왕(12절), 미련한 아들·다투는 아내(13절), 슬기로운 아내(14절), 게으른 자(15·24절), 징계받는 아들(18절), 맹렬히 노하는 자(19절), 거만한 자(25·29절),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26절), 여호와(3·14·17·21·23절 — 다섯 번).
- 직접 인용 대사가 한 줄도 없는 장 — 발화 없이 초상만 이어지는 인물 전시실.
- 중심 사상: 19:17의 대부 회로 — 값을 능력 없는 자에게 주는 손이 여호와를 채무자로 얻음. 4·7절의 현실 위에 놓일 때 무게가 드러남.
- 19:21 — 많은 계획(복수) 對 여호와의 뜻 하나(단수)의 산술. 16:1·9의 변주. 2절(급한 발이 방향을 보장하지 않음)과 짝.
- 19:3 책임 전가의 순서 — 미련함이 길을 굽히는 첫 동작, 여호와를 원망하는 둘째 동작. 둘째는 첫째를 잊은 채 일어남.
- 19:14 — 상속 가능한 것(집·재물)과 선물로만 받는 것(슬기로운 아내)의 경계.
- 22절 chesed가 가난 잠언("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나라") 곁에 놓인 위치 — 번역 갈래는 배경으로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저울과 화살표 — tov-min 비교, 지식 없는 소원과 급한 발, 자기가 굽힌 길 앞의 원망.
- 컷 2 (4~10절): 우정의 경제와 법정 — 재물 따라 움직이는 친구들, 형제에게도 미움받는 가난, 사이에 끼워진 쌍둥이 잠언(거짓 증인 5·9절).
- 컷 3 (11~15절): 노여움과 집안 — 허물을 지나가는 영광, 사자와 이슬, 떨어지는 물방울, 상속과 선물, 게으름의 깊은 잠.
- 컷 4 (16~24절): 지킴과 꾸어 드림 — 계명과 영혼,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손, 희망이 있을 때의 징계, 많은 계획과 서는 뜻, 경외와 족한 잠, 그릇 속의 손.
- 컷 5 (25~29절): 매와 심판 —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를 얻음,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 예비된 심판과 채찍.
- 컷 2 내부 배열: 우정 관찰(4·6·7) 사이에 거짓 증인(5·9)이 끼워짐 — 이익 따라 입을 여는 사람들의 병치, 관찰로만 보존.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om(טֹם) — 성실·온전함. 1절 holek betummo, 자기의 온전함 안에서 걷는 자. 욥 1:1·시 26:1과 한 단어 계열.
- ats beraglayim(אַתְּ בְּרִגְלַיִם) — 발이 급한 자. 2절. / zaaph(צָאֵף) — 끓어오르듯 원망하다. 3절.
- ed sheqarim(עֵד שְׁקָרִים) — 거짓 증인. 5·9절. / nadiv(נָדִיב) — 너그러운 자. 6절.
- sekhel(שֶׁחֶל) — 슬기. / avor al-pesha(אַוֹר אֶל־פֶּשַׁע) — 허물 위를 지나감. / tiferet(תִּפְעָרֶת) — 영광. 모두 11절.

- *naham kakkefir*(נָחַם כִּכְפִּיר) — 젊은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음. / *tal*(טל) — 이슬. 12절. / *deleforded*(דִּלְּף טֶרֶד) — 쉬지 않고 새는 물방울. 13절.
- *ishah maskelet*(אִשָּׁה מְשַׁקֵּלֶת) — 슬기로운 아내. 14절. / *tardemah*(תַּרְדֵּמָה) — 깊은 잠. 15절. 창 2:21 아담의 깊은 잠과 동일 단어 — 형태 관찰만.
- *choneyn dal*(חֹנֶיִן דָּל) — 가난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 / *malveh YHWH*(מַלְוֶה יְהוָה) — 여호와께 꾸어 드림. 17절. 대부 동사가 여호와를 목적으로 받는 드문 형태.
- *tiqvah*(תִּקְוָה) — 희망. 18절. / *atsat YHWH*(אַצֵּט יְהוָה) — 여호와의 뜻·경영. 21절. / *chesed*(חֶסֶד) — 인자. 22절, 번역 갈래는 배경.
- *yirat YHWH*(יִרְאַת יְהוָה) — 여호와 경외. / *savea yalin*(שָׁבַע יָלִין) — 족하게 잠들다. 23절. / *atsel*(אַצֵּל)·*tsallachat*(צִלְחַת) — 게으른 자와 그릇. 24절. / *shefatim*(שִׁפְטִים) — 심판. 29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가난 잠언의 두 절: 현실 관찰(4·7절 — 규범 없이 실상만) 對 가치 선언(1·17·22절 — 부등호와 회로). 현실을 미화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세우는 이중 시선.
- *tov-min* 비교 격언이 1절과 22절에 — 장의 앞뒤를 같은 저울이 잡는 배열.
- 5절↔9절 쌍둥이 잠언 — 끝 단어만 바뀌는 반복("피하지 못하리라"→"망할 것이니라"). 우정의 경제 관찰(4·6·7절) 사이에 끼워진 위치.
- 노여움의 세 갈래: 더딘 노=슬기(11절), 왕의 노=사자(12절), 맹렬한 노=벌(19절).
- 19:21의 복수/단수 대비 — 많은 계획(*machashavot rabbot*) 對 서는 뜻 하나(*atsat YHWH hi taqum*). 16:1·9의 변주.
- 19:24는 26:15와 거의 동일한 문장 — 모음집 사이의 재사용, 편집 차원의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부유할 때 모이고 궁핍할 때 흩어지는 우정 — 이집트·메소포타미아 교훈문학의 공통 소재 — 배경.
- 게으른 자의 희극적 초상 — 근동 교훈문학이 즐겨 쓰던 풍자 장치 — 배경.
- 사자 = 왕권의 표상 — 19:12 비유의 근동 도상 배경.
-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손에 신이 갚는다는 보응 관념 — 근동 일반과 형식 공유, 잠언은 채무자를 여호와한 분으로 특정 — 배경.
- LXX: 19:1~2가 옛 그리스어 본문에 없음, 19:7 셋째 행에서 더 길고 다른 본문, 19:22 *chesed* 독법 갈래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19:4·7 ↔ 잠 14:20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음 — 같은 우정 관찰)
- 잠 19:17 ↔ 잠 14:31 · 17:5 (가난한 자와 그를 지으신 이 — 베품과 멸시가 여호와께 닿는 회로)
- 잠 19:21 ↔ 잠 16:1·9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의 인도 — 변주 원형)
- 잠 19:14 ↔ 잠 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 — 짝 잠언)
- 잠 19:24 ↔ 잠 26:15 (그릇 속의 손 — 거의 동일한 재현)
- 잠 19:13 ↔ 잠 27:15 (다투는 아내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 재등장)
- 잠 19:12 ↔ 잠 20:2 (왕의 진노와 사자의 부르짖음 — 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저울이 가난 쪽으로 기울며 열린다 — 가난하여도 온전히 걷는 자가 패역한 입술보다 나으니라. 거리로 나가면 재물 많은 집 앞에 줄이 서고, 골목 끝 가난한 집 문 앞은 비어 간다. 떠나는 친구를 따라가며 입을 여는 사람,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 두 번 일어서고 같은 판결이 두 번 낭독된다. 왕궁의 사자 소리, 풀잎의 이슬, 지붕에서 그치지 않는 물방울. 혼인 잔치의 신부 곁 — 상속 문서엔 없는 선물. 깊이 잠든 방을 지나 카메라가 빈 문 앞으로 돌아오면, 남은 한 손이 무언가를 건네고 자막이 지나간다 —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릇에 손을 넣은 채 굳은 사람의 잠깐의 웃음, 종이처럼 훑날리는 많은 계획과 기둥처럼 서는 뜻 하나. 족하게 잠드는 방의 등불 — 그리고 창고 문이 열리면 채찍이 걸려 있다. 이미 예비된 채로. 압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꾸어 드리는 손 — 친구가 끊어진 문 앞에 남은 한 손"
- 초벌 부제: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는 현실 관찰(4·7절)과 가난+성실이 더 낫다는 가치 선언(1·22절)이 나란히 적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손이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손이 되며(17절), 많은 계획 위에 여호와의 뜻 하나가 서는(21절) 대구 잠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가난 잠언의 이중 시선 + 5↔9 쌍둥이 잠언 + 19:24↔26:15 재사용 + ANE 우정·사자·보응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9:17의 대부 회로를 구제 의무의 설교로 일반화하지 않고, 4·7절의 현실 곁에 놓인 본문의 배열 관찰로만 둬.
- 19:14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를 혼인 신학의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상속 가능한 것과 선물인 것의 경계 관찰로 보존.
- 19:18의 징계 잠언을 양육론 적용으로 단정하지 않고, '희망이 있을 때'라는 때와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한계선의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19장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tom)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19:1)는 부등호로 열린 뒤, 재물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우정의 실상(19:4·6·7)을 위로 없이 적고, 허물 위를 지나가는(avor al-pesha) 용서의 영광(19:11)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슬기로운 아내(19:14)를 지나,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손이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malveh YHWH) 손이 된다는 회로(19:17)와 많은 계획 위에 서는 여호와의 뜻 하나(atsat YHWH, 19:21)를 세우고, 경외하는 자의 족한 잠(19:23)과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채찍(19:29)으로 출구를 가르치는 대구 잠언이다.

한 문단: 저울 하나가 가난 쪽으로 기울며 장이 열린다. 거리로 나가면 재물 많은 집 대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골목 끝 가난한 집 문 앞은 비어 간다. 떠나는 친구를 따라가며 입을 여는 사람의 말은 끝나지 못한다 — 상대가 이미 사라졌으므로.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 두 번 일어서고, 왕궁에서 사자 소리가 울리다 풀잎에 이슬이 내려앉고, 어느 지붕에서는 물방울이 그치지 않고 떨어진다. 카메라가 다시 그 빈 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떠나는 뒷모습 대신 남아서 건네는 손 하나가 찍힌다. 자막처럼 한 문장이 지나간다 —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많은 계획이 종이처럼 흘날린 끝에 한 가지 뜻만 기동처럼 서고, 경외하는 자가 족하게 잠드는 방의 등불 너머로 창고 문이 열린다 — 채찍이 이미 예비된 채 걸려 있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가난한 집 문 앞으로 다섯 번(1·4·7·17·22절) 돌아오는 카메라. 재물·선물 對 물방울·채찍. 17절의 보이지 않는 차용 증서.
2 첫 느낌·분위기	위로 없이 적힌 가난의 실상(4·7절), 17절의 공기 전환. 사자의 핏몸 — 이슬의 무음 — 그치지 않는 물방울의 음향. 24절의 웃음과 15절의 허기.
3 시작과 끝	비교("나으니라")로 열고 예비("예비된 것이니라")로 닫힘. 온전히 걷는 자는 23절에서 족한 잠으로 먼저 퇴장.
4 등장인물·사상	직접 인용 대사 0건의 인물 전시실. 여호와 다섯 번 등장(3·14·17·21·23절). 중심은 19:17의 대부 회로와 19:21의 복수/단수 산술.
5 장면 컷	저울(1~3)/우정의 경제와 법정(4~10)/노여움과 집안(11~15)/지킴과 꾸어 드림(16~24)/매와 심판(25~29) 다섯 묶음. 우정 관찰 사이에 끼워진 거짓 증인 쌍둥이(5·9절).
6 의문·발견·정보	가난 잠언의 두 결(관찰 4·7 對 가치 1·17·22). 노여움의 세 갈래(11·12·19절). 19:24↔26:15 재사용. tardemah가 창 2:21과 동일 단어.
7 동영상	기우는 저울 → 비어 가는 문 앞 → 남은 한 손과 자막 한 문장 → 흘날리는 계획과 서는 뜻 → 족한 잠의 등불 → 예비된 채찍, 압전.
8 초별 제목·부제	"꾸어 드리는 손 — 친구가 끊어진 문 앞에 남은 한 손"
9 기도·내면	끊어지는 줄과 이어지는 줄 사이에서 내 손이 어느 줄을 잡고 있는지 본다. 허물 위를 지나가는 영광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가난 잠언의 이중 시선:** 4절과 7절은 규범 없이 현실을 적는다 —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고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1절·17절·22절은 가치를 세운다 — 가난+성실이 더 낫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 드림이며,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잠언은 현실을 미화해서 가치를 세우지 않는다. 실상을 정직하게 그려 둔 다음, 바로 그 실상 위에 부등호와 회로를 얹는다. 두 결이 한 장 안에 공존하기에 어느 쪽도 값싸지지 않는다.

2. **결 2 — malveh YHWH, 대부분의 회로:** 꾸어 주다라는 동사가 여호와를 목적으로 받는 드문 문법(19:17).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건네는 손이 가장 확실한 채권을 얻는다 — 채무자가 여호와시므로. 그리고 23절이 그 회로의 다른 끝을 보여준다. 경외하는 자는 재산 목록 없이 족하게(savea) 잠든다. 4·7절의 우정 경제가 재물의 함수였다면, 17절과 23절은 다른 회계장부 — 경외의 경제 — 를 편다.

3. **결 3 — 많은 계획과 서는 뜻 하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19:21). 복수(machashavot rabbot)와 단수(atsat YHWH)의 대비가 문장 구조에 들어 있고, 2절의 급한 발(ats beraglayim)이 그 결에서 짝을 이룬다 — 속도는 방향을 보장하지 않는다. 16:1·9에서 시작된 이 변주가 19장에서는 가난·우정·노여움·집안이라는 일상의 한복판에 놓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4:20 —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 19:4·7과 같은 우정 관찰의 선행 절.
- 잠 14:31 · 17:5 —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김과 그를 지으신 이 — 19:17 회로의 신학적 짝.
- 잠 16:1·9 —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 의 인도 — 19:21 변주의 원형.
- 잠 26:15 · 27:15 — 그릇 속의 손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 19:24·13의 재등장, 모음집 사이의 격언 재사용.
- 잠 18:22 —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 19:14의 짝 잠언.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의 저울에서 시작한다 — 내 셈법의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천천히 본다.
- **멈춤 1:** 3절에서 멈춘다 — 내가 굶긴 길 앞에서 내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향했는지 떠오른다.
- **멈춤 2:** 7절 끝에서 멈춘다 — 따라가며 말하려다 끊긴 말. 그 끊긴 말 끝에 누가 남는지 본다.
- **끝:** 17절과 23절 사이에서 멈춘다 — 꾸어 드리는 손과 족하게 잠드는 밤. 내 잠의 족함이 어느 장부에서 오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저울(1~3)·우정의 경제(4~10)·노여움과 집안(11~15)·지킴과 꾸어 드림(16~24)·매와 심판(25~29)의 다섯 묶음 완결
 - [x] tov-min 부등호(1·22절)의 앞뒤 호응
 - [x] 가난 잠언 다섯 절(1·4·7·17·22)의 분포
 - [x] 쌍둥이 잠언(5·9절)과 모음집 간 재사용(24절↔26:15)의 기록
 - [x] 노여움 세 갈래(11·12·19절)의 분포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19장은 둘째 국면의 한복판에서 가난이라는 가장 무거운 일상을 다루는 구간이다. 18장이 여호와와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세웠다면(18:10), 19장은 그 망대 바깥의 거리 — 재물 따라 우정이 움직이고 형제마저 등을 돌리는 거리 — 를 비춘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손이 여호와께 닿는다는 19:17의 회로는 토라의 가난 규례(레 25장의 희년, 신 15장의 면제년)가 식탁의 격언으로 번역된 형태이며, 14:31과 17:5("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과 함께 — 가난한 자의 곁이 곧 지으신 분의 곁이라는 정경의 긴 물길 위에 있다. 1:7이 발행한 모토는 19장에서 경제의 언어로 상환된다: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면, 23절은 경외가 생명과 족함의 근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정의 경제에서 경외의 경제로 / 떠나는 다수에서 남는 한 손으로 / 많은 계획에서 서는 뜻 하나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9장은 재물의 함수로 움직이는 사람 사이의 줄(4·6·7절)을 정직하게 보여준 뒤, 그 줄이 끊어진 바로 그 문 앞에서 다른 장부 — 여호와를 채무자로 두는 대부의 회로(17절)와 재산 목록 없는 족함(23절) — 를 여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현실을 폐지하지 않는다. 친구가 끊어지는 세상은 그대로 두고, 그 세상 안에서 다른 손이 가능하다고 말할 뿐이다. 그리고 이 시선은 20장의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와 사람의 속을 살피시는 여호와와 등불(20:27)로, 21:13("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과 22:9의 선한 눈으로 이어진다 — 대구 잠언 모음집이 가난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돌아오는 긴 운동의 한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의 모자이크다 — 화를 천천히 내라, 게으르지 마라, 자식을 징계하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무엇이 사람을 지키는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재물은 친구를 모으지만 그 우정은 재물과 함께 사라지고(4·7절), 많은 계획은 마음 안에 가득하지만 서지 못한다(21절). 본문이 지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둘뿐이다 —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고(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23절). 그렇다면 19장의 가난 잠언들은 단순한 자선 권면이 아니다. 친구가 모두 떠난 문 앞은, 재물의 경제가 사람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좌표이고, 바로 거기서 여호와와의 장부가 열린다(17절). 용서 역시 같은 깊이에 있다 — 허물 위를 지나가는 것(avor al-pesha)이 영광(tiferet)이라는 11절은, 받은 상처의 채권을 포기하는 손해가 실은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된다는, 경외의 경제에서만 성립하는 셈법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친구가 끊어진 문 앞을 나는 안다 — 떠나는 쪽으로도, 남겨지는 쪽으로도. 그 문 앞에서 내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가난을 낭만으로 칠하지 않는다. 형제에게도 미움받고 따라가며 말을 걸어도 상대가 사라지는 실상을 먼저 적는다. 그 정직함이 17절의 회로를 값싼 위로가 아니게 만든다 — 모두

가 떠난 곳에 남는 손은 손해를 보는 손이고, 본문은 그 손해가 여호와와 장부에 채권으로 적힌다고 말한다. 갚으심의 형태와 때는 적혀 있지 않다(미해결 Q4). 다만 23절이 그 회로의 끝을 살짝 보여준다 —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잠을 잔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누구를 경외해서 족한 잠. 그 잠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거리의 경계를 살핀 시선이 이제 사람의 속으로 내려간다 —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20:1),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20:27).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lveh YHWH* —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손.

미해결 질문

잠언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9:7 하반절("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의 압축적인 히브리어는 전승의 문제인가, 의도된 끊임인가?

- LXX가 이 부분에서 더 길고 다른 본문을 보여준다는 배경과 함께, 쫓아가다 끊긴 말 같은 형태 자체를 보존.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데도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Q2. 19:3 — 자기가 굽힌 길 앞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마음의 연결고리를 본문은 왜 설명하지 않는가?

- 미련함이 길을 굽히는 첫 동작과 원망(*zaaph*)이라는 둘째 동작 사이의 심리를 본문은 순서로만 보여준다. 설명 없는 병치 자체를 관찰로 보존.

Q3. 19:13의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delef tored*)은 무엇을 그리는가 — 소모인가, 침식인가?

- 한 방울은 작으나 그치지 않는 것의 무게. 27:15에서 같은 비유가 재등장하는데, 비유가 가리키는 결이 한 쪽으로 닫혀 있지 않다. 보존.

Q4. 19:17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 갚으심의 형태와 때는 무엇인가?

- 대부(*malveh*)의 은유는 상환을 전제하지만, 본문은 무엇으로 언제 갚으시는지 적지 않는다. 회로만 선언되고 장부는 열리지 않는다. 미해결로 이월.

Q5. 19:18 하반절 —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가 굿는 징계의 한계선은 정확히 어디인가?

- 이 행을 다르게 읽는 번역 전통이 있다는 배경과 함께, 본문이 적어 둔 두 가지 — '희망이 있을 때'라는 때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라는 선 — 만 보존.

Q6. 19:24와 26:15의 거의 동일한 문장 — 어느 쪽이 원형이고 어느 쪽이 재사용인가?

- 같은 게으른 자의 초상이 두 모음집에 나뉘어 실린 편집 현상. 5절↔9절의 장 내 쌍둥이와 함께, 잠언이 격언을 반복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남긴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0장

PRO-020 · 시가서 · 히브리어

포도주가 "거만한 자(*lets*)"로 명명되고(20:1)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가 두 번 미움받는 (20:10·23) 대구들 사이에서, 깊은 물 같은 마음을 길어 내는 명철(20:5)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20:12)이라는 선언, 그리고 사람의 숨(*nishmat adam*)을 등불 삼아 깊은 속을 살피시는 여호와(20:27)가 —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의 출처를 묻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순회: 잔이 도는 방(1절) → 궁정(2절) → 가을 들녘(4절) → 우물가(5절) → 저울이 놓인 가게(10·23절) → 시장 좌판(14절) → 캄캄한 집(20절) → 타작 마당(26절) → 사람 속의 방들(27·30절). 바깥 풍경에서 내면으로 도착하는 동선.
- 소품(시장·들녘): 포도주·독주(1절), 쟁기와 빈 추수 바구니(4절), 저울 추 두 개와 되 두 개(10절), 금·진주·입술(15절), 보증 선 자의 옷(16절), 음식과 입안의 모래(17절).
- 소품(빛·어둠): 흑암 중에 꺼지는 등불(20절), 깊은 속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27절), 백발(29절), 깊이 들어가는 매(30절).
- 숨은 짝: 도량형(10↔23절), 등불(20↔27절), 왕(2·8·26·28절), *chadrei vaten*(27↔30절) — 떨어진 절들이 장을 그물처럼 엮음.
- 8절과 26절의 공유 그림: 보좌의 왕이 눈으로 악을 홀으심(*mezareh*) ↔ 지혜로운 왕이 악인들을 키질함(*zarah*) — 같은 어근의 농사 동사가 통치 언어로.
- 10절의 쌍둥이 구문: *even va'even*(돌과 돌)·*eifah ve'eifah*(되와 되) — 같은 명사의 중복으로 속임을 형상화.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소리로 여는 장: 떠들게 하는 독주(1절) — 사자의 부르짖음(2절) — 다툼(3절). 첫 세 절이 전부 소음, 그 직후 5절의 우물가 고요가 낙차를 만들.
- 14절 흥정 스케치의 유머: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 자랑하는 구매자 — 정죄 없이 장면만 그려지는 관찰.
- 17절의 시간차 식감: 맛이 좋은 듯하다가 입에 모래가 가득해지는 반전 — 9:17(도독질한 물이 달고)의 후일담.
- 음향 대비: 사고 치는 입(1·3·6·14·19·25절) 對 여호와께서 지으신 듣는 귀·보는 눈(12절).
- '누가/어찌' 수사 의문 세 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랴(6절), 누가 말할 수 있으랴(9절), 어찌 알 수 있으랴(24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 둘 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 미혹으로 들어가는 액체(1절)와 정화로 들어가는 매(30절). 같은 운동, 반대 방향.
- 1절의 잔은 지혜를 빼앗고 30절의 매는 악을 없이함 — 아픈 쪽이 살리는 쪽이라는 역설로 닫힘.
- 29절(젊음의 힘·늙음의 백발)이 마지막 직전에 인생의 두 끝을 나란히 놓음 — 시간과 깊이가 함께 닫히는 마무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의인화된 포도주(1절), 왕(2·8·26·28절), 다툼 일으키는 미련한 자(3절), 게으른 자(4절), 명철한 사람(5절), 충성된 자(6절 — 만나기 어려움), 온전한 의인과 후손(7절), 아이(11절), 물건 사는 자(14절), 보증 선 자(16절), 한담하는 자(19절), 부모 저주하는 자(20절), 젊은 자와 늙은 자(29절).
- 여호와와 여섯 등장(10·12·22·23·24·27절): 미워하시고 — 지으시고 — 구원하시고 — 미워하시고 — 걸음을 이끄시고 — 살피심.
- 중심 사상: 12절 —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다 여호와와 작품. 관찰 기관 자체가 선물이라는 선언, 5절의 길어냄(경청의 그림)과 같은 결.
- 자기 증언의 한계 짝: 6절(인자 자랑 對 드문 충성) + 9절(정결 선언 불가). 11절이 반대편 — 아이는 말이 아니라 동작으로 품행을 드러냄.
- 시간차 인과: 가을 갈이와 추수의 구결(4절), 단맛과 모래(17절), 속히 잡은 산업과 그 마침(21절).
- 22절 보복의 양도: 갚음을 포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이관 — 동사는 qavah(기다리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소란과 깊은 물 — 거만한 자로 명명된 포도주, 사자 같은 진노, 다툼·게으름, 우물가의 두레박.
- 컷 2 (6~13절): 자기 선언과 지으신 감각 — 인자 자랑, 정결 선언 불가, 저울 추, 아이의 동작, 듣는 귀·보는 눈, 잠 경계.
- 컷 3 (14~19절): 시장과 입 — 흥정의 거짓 엄살, 보배로운 입술, 보증의 옷, 입속 모래, 의논과 전쟁, 한담 절교.
- 컷 4 (20~26절): 등불과 기다림 — 꺼지는 등불, 급한 산업, 보복 양도, 저울 재현, 여호와로 말미암는 걸음, 서원의 덧, 키질.
- 컷 5 (27~30절): 안쪽의 방들 — 사람의 숨이라는 등불, 인자와 진리의 왕위, 힘과 백발, 깊이 닿는 매.
- 컷을 가로지르는 실밥: 10↔23절(저울), 20↔27절(등불), 27↔30절(chadrei vaten) — 마지막 단락은 안쪽 운동을 세 겹으로 닫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lets hayyayin*(לֵּטַס הַיַּיַּיִן) — "포도주는 거만한 자다." 1:22의 lets(거만한 자)가 술의 호칭이 되는 의인화. 1절.
- *shekar*(שֶׁכָּר) — 독주. / *homeh*(הוֹמָה) — 떠들썩한, 웅성거리는. 1절. / *madon*(מַדוֹן) — 다툼. 3절.

- *mayim amuqqim*(מַיִם עֲמוּקִים) — 깊은 물(18:4에도 같은 그림). / *dalah*(דָּלַח) — 두레박으로 걷다. 5절.
- *ish emunim*(אִישׁ אֱמוּנִים) — 충성된 사람, *emunah*(신실) 계열. 6절.
- *even va'even*(אֶבֶן וְאֶבֶן) — '돌과 돌', 두 개의 다른 추. / *eifah ve'eifah*(אֵיפָה וְאֵיפָה) — '되와 되'. 10절, 23절 재현.
- *ozen shomaat*(אָזֶן שׁוֹמַעַת) — 듣는 귀. / *ayin roah*(עַיִן רֹאֶה) — 보는 눈. 분사형 — 지금 작동 중인 감각의 현재성. 12절.
- *qavah*(קָוָה) — 기다리라(명령형). 22절. / *na'ar*(נַעַר) — 아이. 11절.
- *ner*(נֵר) — 등불. 20절(꺼짐)·27절(*ner YHWH* — 여호와와의 등불).
- *nishmat adam*(נִשְׁמַת אָדָם) — 사람의 숨·영혼. 창 2:7의 *nishmat hayyim*과 같은 명사. 27절.
- *chadrei vaten*(חֲדָרֵי-בָּטֶן) — '배의 방들', 깊은 속. 27·30절, 18:8과 동일 어구.
- *zarah*(זָרָה) — 낯설하다. 26절. 8절의 *mezareh*(홀으시는)와 같은 어근. / *chesed ve'emet*(חֶסֶד וְאֱמֶת) — 인자와 진리. 2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왕 잠언 4개(2·8·26·28절)의 기둥 분포 — 진노(2), 심판의 눈(8), 낯설(26), 인자와 진리의 보호(28)로 통치의 네 면을 순회.
- 도량형 잠언의 권 내 누적: 11:1 → 16:11 → 20:10 → 20:23. 같은 주제의 네 번째 배치, 매번 근거는 여호와.
- 등불 모티프의 장 내 대구: 20절(꺼지는 *ner* — 심판) ↔ 27절(살피는 *ner YHWH* — 조명).
- *chadrei vaten* 프레임: 27절(등불이 살피는 곳) = 30절(매가 닿는 곳) — 비춤과 정화가 같은 깊이에서 일어나는 형태.
- 자기 선언 시리즈: 나는 낯설하다(6절) — 나는 깨끗하다(9절) — 내가 갇혔다(22절) — 이것은 거룩하다(25절). 전부 의문 또는 금지로 받아침.
- 수사 의문 3개(6·9·24절)와 시간차 인과 3개(4·17·21절)의 병행 — 자기 확신과 즉각 판단을 함께 흔드는 장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정직한 저울 — 아메네모페의 교훈에도 저울 조작 금지 항목. 신 25:13-16과 닿는 근동 상거래 윤리의 공통 주제 — 배경.
- 가을 같이(4절) — 이른 비 이후 시작되는 팔레스타인 농사력의 첫 단계. 게제르 달력의 월별 농사 목록이 그 주기를 보여 줌 — 배경.
- 낯설·타작 수레바퀴(8·26절) — 타작 마당에서 곡식과 겨를 가르는 농기구의 통치 은유 — 배경.
- 시장 흥정(14절) — 값을 깎으려 물건을 깎아내리는 구매 관행, 근동 시장의 일상 풍경 — 배경.
- LXX: 20장의 절 배열이 MT와 다르고(9절 뒤로 20-22절 계열이 당겨짐), MT 14-19절은 오래된 LXX 본문에 없어 후대 보충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 1절의 명명 구문은 '무절제한 것'으로 풀어 옮김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0:10·23 ↔ 잠 11:1 · 16:11 · 신 25:13-16 (도량형 잠언의 누적과 토라의 법)
- 잠 20:27 ↔ 창 2:7 (*nishmat adam* ↔ *nishmat hayyim* — 같은 명사)
- 잠 20:9 ↔ 왕상 8:46 · 전 7:20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고백과 닿는 결)
- 잠 20:17 ↔ 잠 9:17 (도독질한 물의 단맛 — 그 후일담으로서의 미래)

- 잠 20:24 ↔ 잠 16:9 · 19:21 (계획과 걸음 — 인도하시는 여호와)
- 잠 20:27-30 ↔ 잠 18:8 (chadrei vaten — 같은 어구의 세 번째 등장)
- 잠 20:22 ↔ 시 27:14 (여호와를 기다리라 — qavah의 명령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떠들썩한 방 — 잔이 돌고, 화면에 글자가 뜬다. 포도주는 거만한 자다. 궁정의 공기를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진노가 누른다. 가을 들녘, 갈리지 않은 채 굳는 땅 — 몇 달 뒤, 빈손의 구걸. 우물가로 내려간 카메라, 보이지 않는 수면을 향해 두레박이 내려간다. 거리의 가게, 주머니에서 달그락거리는 돌과 돌. 좌판 앞의 손님이 고개를 젓는다 —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 골목을 돌아마자 웃으며 자랑한다. 달콤한 한 입, 그리고 모래를 씹는 얼굴. 캄캄한 집에서 등불이 꺼지고, 어둠 위로 음성이 겹친다 —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타작 마당의 키질, 바람에 날리는 겨. 카메라가 한 사람의 가슴 안쪽으로 들어간다 — 방들이 이어진 복도를 등불 하나가 비추며 나아간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백발이 빛나고, 매가 깊이 닿고, 압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두 등불과 깊은 물 — 살피시는 분 앞의 시장"
- 초벌 부제: "거만한 자로 명명된 포도주와 두 번 미움받는 저울 추 사이에서, 깊은 물 같은 마음을 길어내는 명철과 듣는 귀·보는 눈을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사람의 숨을 등불 삼아 깊은 속을 살피시는 분이 드러나는 대구 잠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왕 잠언 기둥 분포 + 도량형 누적 + chadrei vaten 프레임 + ANE 시장·농사력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0:27(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성령론·내주 교리로 앞당겨 통합하지 않고, ner·nishmat adam의 형태 관찰과 창 2:7 명사 동일성 기록으로만 둬.
- 20:22(보복의 양도)를 무저항 윤리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qavah(기다리라)라는 동사의 방향 관찰로 보존.
- 20:30(상하게 때리는 때)을 체벌 옹호나 고난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chadrei vaten 프레임 안의 정화 문법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0장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lets hayyayin)"(20:1)이라는 의인화로 열려, 깊은 물 같은 마음을 길어 내는 명철(20:5), 자기 인자함의 자량과 만나기 어려운 충성된 자(20:6),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20:9)의 수사 의문, 두 번 반복되는 도량형 잠언(20:10-23),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20:12)이라는 감각의 창조 선언, 시장 흥정의 스케치(20:14)와 입에 가득한 모래(20:17), 보복의 양도(20:22)와 알 수 없는 걸음(20:24)을 지나, "사람의 영혼(nishmat adam)은 여호와와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20:27)에서 깊어진 뒤 깊이 들어가는 때(20:30)로 닫히는 — 자기 선언의 한계와 살피시는 시선을 마주 세운 대구 잠언이다.

한 문단: 떠들썩한 방에서 잔이 돌고, 포도주가 사람의 호칭을 받는다 — 거만한 자. 궁정에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진노가 깔리고, 가을 들녘은 갈리지 않은 채 굳어 추수의 빈손을 예고한다. 그 소란 끝에 우물가가 나온다. 깊은 물 같은 마음, 그리고 두레박을 내리는 명철한 사람. 거리에서는 주머니 속 돌과 돌이 달그락거리고, 좌판 앞의 손님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외치고는 돌아서서 자랑한다. 달콤했던 음식이 입안에서 모래로 변하고, 부모를 저주한 집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타작 마당의 키질이 곡식과 겨를 가르고 나면,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사람 가슴 안쪽의 방들로 들어간다 — 그 어두운 복도를 등불 하나가 비추며 나아간다. 사람의 숨이 여호와와 등불이다. 백발이 빛나고, 매가 깊은 데 닿고, 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잔의 방 → 들녘 → 우물 → 시장 → 캄캄한 집 → 타작 마당 → 내면의 방들. 저울(10:23)·등불(20:27)·왕(2·8·26·28)의 숨은 짝.
2 첫 느낌·분위기	소음 세 절 뒤의 우물가 고요. 14절 흥정의 유머와 저울의 무게. 사고 치는 입 對 지으신 귀와 눈.
3 시작과 끝	속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 미혹의 잔(1절)과 정화의 때(30절). 아픈 쪽이 살리는 쪽이라는 역설의 수미.
4 등장인물·사상	도시의 인구 조사 같은 명단 위에 여호와 여섯 번. 중심은 12절 — 관찰 기관 자체가 선물. 자기 증언의 한계(6·9절).
5 장면 컷	소란과 깊은 물(1~5)/선언과 감각(6~13)/시장과 입(14~19)/등불과 기다림(20~26)/안쪽의 방들(27~30) 5 컷.
6 의문·발견·정보	도량형 누적(11:1→16:11→20:10-23). 두 등불의 대구. chadrei vaten 프레임(27↔30). 수레바퀴와 매의 열린 경계.
7 동영상	잔의 방 → 갈지 않은 들녘 → 두레박 → 돌과 돌 → 모래 씹는 얼굴 → 꺼지는 등불 → 키질 → 내면의 복도를 비추는 등불,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두 등불과 깊은 물 — 살피시는 분 앞의 시장"
9 기도·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선물이었음을 본다. 내 속의 방들에 들어오시는 등불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짝의 그물:** 이 장의 대구들은 흩어져 있지 않다. 저울 추가 10절과 23절에서, 등불이 20절과 27절에서, 왕이 2·8·26·28절에서, chadrei vaten이 27절과 30절에서 서로를 부른다. 8절의 mezareh(흠으시는)와 26절의 zarah(키질)는 같은 어근이다. 떨어뜨려 놓은 짝들이 실밥처럼 장을 봉합하고, 독자는 앞 절을 기억해야 뒤 절이 깊어지는 구조 안에 놓인다.
2. **결 2 — 자기 선언의 한계:** 나는 인자하다(6절), 나는 깨끗하다(9절), 내가 갇혔다(22절), 이것은 거룩하다(25절) — 사람이 자기에 대해 앞세우는 말 네 가지가 차례로 의문과 금지를 받는다. 그 반대편에 11절의 아이가 서 있다. 아이는 말이 아니라 동작으로 자기 품행을 드러낸다. 자기 증명의 통로가 입이 아니라 걸음이라는 것 — 그리고 그 걸음마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24절이 한계의 바닥을 짚는다.
3. **결 3 — 지으신 감각과 살피시는 등불:** 12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여호와의 작품으로 선언하고, 27절은 사람의 숨을 여호와의 등불로 부른다. 보고 듣는 능력이 선물이고, 내면을 비추는 빛조차 받은 숨이라면 — 5절의 두레박(깊은 물을 길어 내는 명철)은 그 선물을 타인의 마음 앞에서 쓰는 그림이 된다. 저울을 보시던 시선이 마음의 방들까지 보신다는 것이 이 장의 가장 깊은 물길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1:1 · 16:11 · 신 25:13-16 — 도량형 잠언의 누적과 토라의 저울 법. 20:10·23은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매듭.
- 창 2:7 — nishmat hayyim(생기). 20:27의 nishmat adam과 같은 명사 — 창조 때 받은 숨이 등불로 불리는 다리.
- 왕상 8:46 · 전 7:20 —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고백. 20:9의 수사 의문과 닿는 결.
- 잠 9:17 ↔ 20:17 — 도둑질한 물의 단맛과 그 후일담으로서의 모래.
- 잠 16:9 · 19:21 ↔ 20:24 — 계획과 걸음, 그리고 알 수 없는 길.
- 잠 18:8 ↔ 20:27·30 — chadrei vaten(깊은 속의 방들)의 세 번 등장.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잔에 붙은 사람의 호칭. 내 손의 잔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데려가는지 천천히 본다.
-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깊은 물과 두레박. 누군가의 마음 앞에서 길어 낼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떠오른다.
- **멈춤 2:** 9절과 12절 사이에서 멈춘다 — 선언할 수 없는 정결과, 선물로 받은 귀와 눈. 내가 가진 것과 받은 것의 목록이 뒤바뀐다.
- **끝:** 27절에서 멈춘다 — 내 속의 방들을 비추는 등불. 살핌을 두려움으로 들을지 안심으로 들을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소란(1~3)·깊은 물(5)·자기 선언(6·9·22·25)·감각의 창조(12)·등불(20·27)·매(30)의 골격 완결
- [x] 도량형 한 쌍(10·23)과 왕 잠언 네 기둥(2·8·26·28)의 분포
- [x] chadrei vaten 프레임(27↔30)과 18:8의 호응
- [x] 시간차 인과 세 개(4·17·21)의 병행
- [x] 수사 의문 세 개(6·9·24)의 분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20장은 그 둘째 국면의 한복판에서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의 출처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1:7이 지식의 근본을 경외에 두었다면, 20:12는 지식이 들어오는 통로 — 듣는 귀와 보는 눈 — 까지 여호와와 작품이라고 말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시내산의 도량형 법(신 25:13-16)이 시장의 저울 위에 그대로 살아 있고(20:10-23), 창조 때 불어넣어진 숨(창 2:7)이 사람 속을 살피는 등불로 다시 호명된다(20:27). 율법과 창조가 한 장의 대구들 안에서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셈이다. 그리고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20:22)는 보복의 양도는, 갚으심을 그분께 이관하고 기다리는(qavah) 백성의 결을 정경 전체에 길게 연다 — 시가서의 기다림 시편들과 같은 물줄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기 선언(6·9·22·25)에서 지으심과 살피심(12·24·27)으로 / 도시의 소란(1~3)에서 내면의 방들(27~30)로 / 들고 있는 잔에서 내려가는 두레박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0장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 앞세우는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고, 그 빈 손에 받은 것들 — 듣는 귀, 보는 눈, 사람 속을 비추는 숨 — 을 쥐여 주는 운동이다. 16:9에서 시작된 '계획과 인도' 주제는 24절에서 얇 자체의 한계("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로 깊어지고, 그 한계는 절망이 아니라 22절의 기다림으로 이어진다. 이 벡터는 다음 장 첫 절에서 정점을 만난다 — 살피시는 시선이 가장 높은 마음, 곧 왕의 마음까지 물길처럼 돌리신다는 선언(21:1)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시정의 처세 모음이다 — 술을 조심하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한담꾼을 멀리하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본다'는 일의 소유권이 움직인다. 이 장에서 사람의 입은 계속 실패한다 — 취해서 떠돌고, 인자를 자랑하고, 거짓 엄살을 부리고, 비밀을 누설하고, 성급하게 서원한다. 반면 보고 듣는 기관은 한 번도 사람의 공로로 나오지 않는다. 귀와 눈은 지으신 것이고(12절), 마음을 길어 내는 명철은 깊은 물 앞의 겸손한 동작이며(5절), 내면을 비추는 빛은 받은 숨이다(27절). 관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관찰의 선물을 받은 사람 — 이 장은 그 둘을 가른다. 그리고 살피시는 시선은 위협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울을 미워하시는 분(10·23절)이 걸음을 이끄시고(24절),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고(22절), 등불로 방들을 비추신다(27절). 살핌과 돌봄이 같은 시선의 두 이름이라는 것 — 그것이 이 장의 가장 깊은 데서 움직이는 물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귀와 눈은 오늘도 작동했다 — 그런데 나는 그것을 셈에 넣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깊은 물 앞에서, 나는 두레박을 내려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정경을 선언하라고도, 보복을 참으라고만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에 대해 앞세운 말들이 얼마나 빨리 의문에 부딪히는지 보여 주고(6·9절), 그 곁에 말 없이 작동해 온 선물 — 듣는 귀, 보는 눈 — 을 놓아 둔다(12절). 깊은 물 같은 타인의 마음은 길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5절), 내 속의 방들은 등불이 들어오는 곳으로 그려진다(27절). 살핌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날도 있겠지만, 꺼지는 등불(20절)이 아니라 살피는 등불(27절) 곁에 서는 한, 그 빛은 정죄보다 동행에 가깝다. 누군가의 우물 앞에 앉아 두레박을 내리는 사람 — 그 그림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람 속의 방들을 살피시던 등불이 이제 가장 높은 마음에 닿는다 —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21: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ishmat adam* — 사람의 숨, 여호와와 등불.

미해결 질문

잠언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0:1에서 포도주 자체가 lets(거만한 자)로 명명되는 의인화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술이 거만을 만든다는 서술이 아니라 술에게 사람의 호칭을 붙이는 문장. 행위자가 술인지 마시는 사람인지 — 책임의 소재를 본문은 명명 안에 접어 둔다. 보존.

Q2. 20:5의 '모략(etsah)'은 긍정인가 중립인가 — 그리고 길어 내는 명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깊은 물로 그려진 마음속 계획이 좋은 것인지 숨겨진 것인지 본문은 정하지 않는다. 길어 내는 행위가 상담인지 분별인지 진단인지도 열려 있다. 보존.

Q3. 20:7의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과 20:9의 '정결 선언 불가'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 온전한 걸음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정결의 자기 선언은 불가능하다고 묻는다. 온전함(tom)과 무죄의 간격 — 왕상 8:46·전 7:20과 닿는 걸을 미해결로 이월.

Q4. 20:14의 흥정 스케치에는 왜 판정이 없는가?

- 저울 속임(10·23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판정을 받는데, 값을 깎으려는 거짓 엄살은 장면 묘사로만 남는다. 유머인지 판단 유보인지 — 그려 두기만 한 의도를 보존.

Q5. 20:25의 서원 — '거룩하다' 선언이 먼저 오고 살핌이 나중에 오는 순서의 역전은 어디서 텃이 되는가?

- 말이 앞서고 검토가 뒤따르는 구조 자체가 텃(moqesh)으로 불린다. 9절(정결 선언)·22절(보복 선언)과 같은 계열의 '앞선 말' 문제인지 — 보존.

Q6. 20:27의 *nishmat adam* — 사람의 숨이 '여호와와 등불'이라는 은유의 방향은 무엇인가?

- 여호와께서 사람 속을 살피시는 도구로서의 숨인가, 사람에게 주어진 내면의 빛인가. 창 2:7의 같은 명사와 30절의 같은 어구(chadrei vaten)가 곁에 있다는 형태만 기록하고, 방향은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1장

PRO-021 · 시가서 · 히브리어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palge mayim*)과 같아서"(21:1)로 열리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 이김(*teshuah*)은 여호와께 있느니라"(21:30-31)로 닫히는 — 최고 권력과 지혜 자신이 한 액자 안에서 함께 상대화되고, 그 사이에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21:3)가 놓이는 대구 잠언의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다섯 무대의 이동: 왕궁의 마음 안쪽(1절) → 제단(3·27절) → 집(큰 집·지붕 모퉁이·광야·지혜 있는 자의 집, 9·19·20절) →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문 앞(13절) → 용사의 성과 전장(22·31절).
- 양 끝이 모두 사람의 힘이 집중되는 공간(왕궁·전장)이며 두 곳 다 여호와가 주어로 섬.
- 소품: 붓물(관개 수로, 1절), 보이지 않는 저울(2절), 제물(3·27절), 불려다니는 안개(6절), 은밀한 선물과 품안의 뇌물(14절), 술과 기름(17절), 귀한 보배와 기름(20절), 방벽(22절), 예비된 군마(31절).
- 기름의 이중 등장: 17절에서는 소비되어 가난으로, 20절에서는 지혜의 집에 간직됨.
- 소재의 두 기동: 마음 계열(왕의 마음 1절, 달아 보시는 마음들 2절, 교만한 마음 4절) 對 정의 계열(공의와 정의 3절, 정의 7·15절, 공의와 인자 21절).
- 4절 '형통'으로 번역된 *ner/nir* — 자음상 등불과 개간지의 두 갈래, 20:27(여호와와 등불)과 같은 자음 —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의 의외성 — 가장 높은 권력의 마음이 농부 손의 물길처럼 인도됨. 꺾임이 아니라 흐름의 전환이라는 평온한 그림.
- 13절의 음향 설계: 부르짖음 — 막은 귀의 침묵 — 미래의 부르짖음 — 응답 없는 침묵. 한 절 안의 부메랑.
- "~보다 나으니라"(*tov min*)의 저울: 9절(지붕 모퉁이)에서 19절(광야)로 두 번째가 더 멀리 감 — 반복이 무게가 되는 점층.
- 21:2는 16:2의 거의 동일한 재현('깨끗하여도/심령' → '정직하여도/마음') — 왕의 마음(1절) 결이라는 위치 값이 다름.
- 6절 안개의 질감 — 움켜쥐는 동작과 흩어지는 결과가 한 문장에 공존.
- 30~31절의 어조: 지혜를 권해 온 책이 지혜의 한도를 스스로 발음하는 결구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 사람의 가장 높은 권력(왕)에서 가장 강한 군비(마병)로 — 양 끝이 같은 방식으로 상대화됨.
- 31절 전반은 예비를 금지하지 않음 — 준비는 사람의 몫으로 남고 이김의 소속만 옮겨지는 분업.
- 어미의 이동: "인도하시느니라"(흐름의 동사)에서 "있느니라"(소속의 동사)로.
- 1절(권력의 내려놓음)과 30절(지혜의 내려놓음)이 같은 동작의 두 번 반복.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왕(1절, 유일하게 지위가 명시됨), 여호와(1·2·3·12·30·31절의 주어), 부지런한 자/조급한 자(5절), 다투는 여인과 동거인(9·19절), 거만한 자·어리석은 자·지혜로운 자(11절), 귀를 막는 자(13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16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17절), 게으른 자(25절)와 베푸는 의인(26절), 거짓 증인(28절), 마병을 예비하는 이(31절) — 왕 한 사람 뒤로 이름 없는 유형 인물들의 행렬.
- 중심 사상: 3절 — 공의와 정의가 제사보다 택함을 받음(nivchar). 27절이 같은 주제를 동기 차원으로 심화 — 악한 뜻(zimmah)의 제물은 더욱 가증함.
- 25~26절 욕망-손 분리의 해부: 원함은 종일 있으나 손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 그 분리가 그를 죽임. 의인의 손은 움켜쥐는 쪽이 아니라 내놓는 쪽으로 움직임.
- 13절 들음의 부메랑: 형벌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자기가 만든 침묵이 자기 미래의 거처가 됨.
- '길'(derekh)의 분포: 2절(자기 보기에 정직한 행위), 8절(구부러진 길과 곧은 길), 16절(명철의 길을 떠남), 29절(행위를 삼감) — 모든 인물이 어떤 길 위에 있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여호와와 손과 저울 — 왕의 마음이 붓물처럼, 모든 마음이 달아 보심을 받음.
- 컷 2 (3~8절):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 높은 눈과 교만, 부지런한 경영과 조급함, 속이는 재물의 안개, 자기를 소멸하는 강포, 구부러진 길과 곧은 길.
- 컷 3 (9~19절): 집과 귀의 잠언들 — 지붕 모퉁이,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 거만한 자의 벌이 어리석은 자의 학교, 막은 귀의 부메랑, 은밀한 선물, 정의의 즐거움, 광야.
- 컷 4 (20~29절): 지혜의 집과 입 — 보배와 기름,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용사의 성에 오르는 지혜, 입과 혀의 절제, 욕망과 베품, 악한 뜻의 제물, 거짓 증인, 곧은 얼굴.
- 컷 5 (30~31절): 결구 — 지혜·명철·모략의 한도 고백, 예비된 마병과 여호와께 속한 이김.
- 배열 관찰: 제의 비평(3·27절)과 다투는 집 잠언(9·19절)이 안쪽 잠언들을 주제의 팔호로 감싸고, 컷 5가 컷 1로 회귀하는 액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palge mayim*(פַּלְגֵי מַיִם) — 갈라 낸 물길·관개 수로. 어근 palag(가르다). 1절.
- *tokhen libbot*(טֹכֶן לִבּוֹת) — 마음들을 달아 보시는 이. 16:2의 tokhen ruchot(영)와 한 쌍. 2절.
- *tsedaqah umishpat*(צְדָקָה וּמִשְׁפָּט) — 공의와 정의. 창 18:19에서 처음 묶이는 쌍. / *nivchar mizzevach*(נִבְחַר מִצֵּבַח) — 제사보다 택함을 받음. 3절.
- *ner/nir*(נֵר) — 등불 또는 개간지. 두 갈래 자음, 개역개정은 '행통'. LXX는 λαμπτήρ(등불). 4절.
- *pinnat gag*(פִּנְנַת גֵּג) — 지붕 모퉁이(개역 '움막'). 9절. / *eretz midbar*(אֶרֶץ מִדְבָּר) — 광야 땅. 19절.
- *otem ozno*(אָתֶם אוְזְנוֹ) — 자기 귀를 막는 자. 13절. / *kopher*(כֹּפֶר) — 속전·몸값. 18절.
- *simchah*(שִׂמְחָה) — 연락·즐거움, *shemen*(שֶׁמֶן) — 기름. 17절(소비)과 20절(간직)의 짝.

- toevah(תועבה) — 가증한 것 / zimmah(זמה) — 악한 뜻. 27절. / taavah(תאבה) — 욕망. 25절.
- sus(סוס) — 말 / yom milchamah(ימ מלחמה) — 싸울 날 / teshuah(תשובה) — 이김·구원. 31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여호와 액자: 1~2절(손·저울)과 30~31절(당하지 못함·이김의 소속)이 장의 양 끝을 잡음 — 안쪽의 모든 선택 잠언이 두 겹 주권 선언 사이에 놓임.
- tov-min(~보다 나으니라) 점층: 9절 지붕 모퉁이 → 19절 광야 — 같은 형식의 두 번째가 더 멀리 감.
- 제의 비평의 쌍: 3절(순서 — 정의가 제사보다)과 27절(동기 — 악한 뜻의 제물은 더욱 가증).
- 21:2 = 16:2의 재현: '깨끗하여도/심령'이 '정직하여도/마음'으로 변주, 왕의 마음(1절) 결이라는 배치가 새 위치값을 만듦.
- 13절 행위-결과 연쇄(부메랑 구문): 자기가 만든 침묵이 자기에게 돌아옴 — 재판정 없이 정확한 인과.
- 25~26절 욕망-손 분리 구문과 '종일'의 시간 안에서 갈라지는 탐함/베품의 대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근동 왕정 사상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 — 21:1은 그 왕의 마음을 농부의 물꼬 아래 두는 형상 — 배경.
- 관개 수로 — 팔레스타인·메소포타미아 농경의 생명선. 1절 은유의 물질 배경.
- 제사와 정의의 우선순위 — 삼상 15:22·호 6:6·미 6:6-8 등 예언자 전통과 공유되는 흐름 — 배경.
- 말과 병거 — 근동 군비의 핵심 자산(왕상 10:28 솔로몬의 말 수입 기록). 31절의 군사 배경.
- 평지붕 주거 — 지붕 모퉁이는 실제 거쳐 가능 공간. 9절 은유의 건축 배경.
- LXX: 21:4 ner를 λαμπτήρ(등불)로, 21:30 'neged YHWH'를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로 달리 읽는 사본 현상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1:1-2 ↔ 잠 16:1-9 (사람의 경영과 여호와와의 인도 — 같은 주권 묶음)
- 잠 21:2 ↔ 잠 16:2 (거의 동일한 잠언의 재현)
- 잠 21:3 ↔ 삼상 15:22 · 호 6:6 · 미 6:6-8 · 시 51:16-17 (제사보다 순종·인애·정의)
- 잠 21:9-19 ↔ 잠 19:13 · 25:24 · 27:15 (다투는 여인 잠언의 병행 계열)
- 잠 21:31 ↔ 시 33:16-17 (군마는 구원에 헛되며 — teshuah의 그림)
- 잠 21:4 ↔ 잠 20:27 (ner — 등불 자음의 이웃 장 용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들판의 물길에서 시작한다. 농부가 물꼬를 트자 물이 방향을 바꾸고, 화면이 겹쳐지며 왕관 쓴 이의 옆얼굴 —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마음들을 달아 본다. 제단의 연기를 지나 카메라가 재판정 문 앞에 멈춘다 — 공의와 정의가 제사보다. 속이는 손 위로 안개가 일어 재물과 함께 흩어진다. 큰 집의 지붕 모퉁이, 광야의 천막 하나. 문 앞의 부르짖음 — 한 사람이 귀를 막고 돌아서고, 세월이 감긴 뒤 같은 사람의 부르짖음에 거리가 조용하다. 지혜의 집에 고인 기름, 무너지는 방벽, 다문 입, 종일 탐하는 손과 내미는 손, 악한 뜻으로 끌려 오는 제물. 새벽의 전장 — 손질된 군마들이 도열하고, 그 위로 한 문장이 자막처럼 내려온다. 이 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압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물꼬와 군마 — 이김은 여호와께"
- 초벌 부제: "왕의 마음이 붓물처럼 인도된다는 첫 절과 지혜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결구가 액자를 이루고, 그 사이에 제사보다 정의, 다투는 집보다 광야, 막은 귀의 부메랑, 욕망과 손의 분리가 줄지어 놓이는 대구 잠언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여호와 액자 + tov-min 점층 + 제의 비평의 쌍 + 16:2 재현 + ANE 왕정·군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1:1을 인간 자유와 신적 주권에 관한 교리 체계로 봉합하지 않고, 붓물이라는 형상 관찰로만 둬.
- 21:3·27의 제의 비평을 제사 제도 폐지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순서(3절)와 동기(27절)의 본문 내 관찰로 보존.
- 21:9·19의 다투는 집 잠언을 성별 일반화나 결혼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tov-min 형식과 점층(모통이→광야)의 문학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1장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palge mayim)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21:1)와 마음을 달아 보시는(tokhen libbot) 저울(21:2)로 열린 뒤, 제사보다 택함을 받는 공의와 정의(tsedakah umishpat, 21:3)·다투는 집 잠언의 점층(21:9→19)·막은 귀의 부메랑(21:13)·욕망과 손의 분리(21:25-26)·악한 뜻의 제물(21:27)을 지나,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 이김(teshuah)은 여호와께 있느니라"(21:30-31)로 닫히는 — 최고 권력과 지혜 자신이 한 액자 안에서 함께 상대화되는 대구 잠언의 장이다.

한 문단: 들판의 물길의 먼저 보인다. 농부가 물꼬를 트자 물이 방향을 바꾸고, 그 그림 위에 왕의 옆얼굴이 겹쳐진다 — 가장 높은 마음도 그분 손의 물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저울이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달아 보고, 제단의 연기 곁에서 본문은 정의가 제사보다 먼저라고 말한다. 속이는 손의 재물이 안개로 흩어지고, 큰 집의 지붕 모퉁이와 광야의 천막이 평화의 값을 매긴다. 문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은 사람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 부르짖음 앞의 조용한 거리를 만난다. 지혜의 집에 기름이 고이고, 게으른 욕망과 베푸는 손이 같은

'종일' 안에서 갈라진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 새벽의 전장에 군마들이 도열하는데, 그 위로 한 문장이 내려 온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왕궁 → 제단 → 집 → 문 앞 → 전장의 다섯 무대. 봇물·저울·안개·기름·군마. 마음과 정의의 두 기둥.
2 첫 느낌·분위기	물길의 평온한 의외성. 13절 부르짖음과 침묵의 부메랑. "나으니라"가 두 번째에 더 멀리 가는 무게. 16:2의 기시감.
3 시작과 끝	왕의 마음(1절)에서 마병(31절)으로 — 권력과 군비가 같은 방식으로 상대화. 예비는 남고 이김의 소속만 옮겨지는 분업.
4 등장인물·사상	왕 한 사람 뒤 이름 없는 유형 인물들의 행렬. 중심 사상은 3절(순서)과 27절(동기)의 제의 비평. 25~26절 욕망-손 분리.
5 장면 컷	여호와와 손(1~2)/정의와 재물(3~8)/집과 귀(9~19)/지혜의 집과 입(20~29)/결구(30~31)의 5컷. 팔호 배열과 액자 회귀.
6 의문·발견·정보	여호와 액자. tov-min 점층. ner의 두 갈래. 평가 없는 14절 미해결. 속전의 열린 형상. 왕정·군비의 ANE 배경.
7 동영상	물꼬 → 왕의 옆얼굴 → 저울 → 제단과 재판정 → 안개 → 모퉁이와 광야 → 막은 귀 → 군마 위의 자막, 압전.
8 초별 제목·부제	"물꼬와 군마 — 이김은 여호와께"
9 기도·내면	흩어진 안개와 고인 기름, 막은 귀의 침묵을 본다. 내 손과 귀가 종일 어디로 움직였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여호와와 액자:** 1~2절이 왕의 마음과 모든 마음을 여호와와 손과 저울 아래 두고, 30~31절이 지혜·명철·모략과 전쟁의 승패를 같은 분 아래 둔다. 안쪽의 잠언들은 전부 사람의 선택 — 부지런함, 절제, 들음, 베풀 — 을 다루는데, 그 선택의 마당 전체가 두 겹의 주권 선언 사이에 놓여 있다. 격언들이 처세술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양 끝에서 잡아 주는 닻이다.
- 결 2 — 제의 비평의 쌍(3절·27절):** 3절은 순서를 말한다 — 공의와 정의가 제사보다 택함을 받는다 (nivchar). 27절은 동기까지 내려간다 —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zimmah)으로 드리는 것이라. 종교 행위가 삶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삶이 종교 행위의 진위를 정한다는 순서가, 삼상 15:22와 호 6:6의 예언자 선언과 같은 물줄기에서 흐른다.
- 결 3 — 부메랑과 점층:** 13절에서 귀를 막은 사람의 침묵은 재판정 없이 그의 미래가 되어 돌아온다. 9절과 19절에서 같은 tov-min 잠언이 두 번 놓이며 두 번째가 더 멀리 간다 — 지붕 모퉁이에서 광야로. 행위가 결과로 익어 가는 인과와, 반복이 무게가 되는 배열이 이 장의 안쪽 잠언들을 묶는 두 가닥 실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6:1-9 —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여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 21:1-2의 주권 묵음과 같은 계열.
- 삼상 15:22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 21:3 제의 비평의 예언자 선행.
- 호 6:6 · 미 6:6-8 · 시 51:16-17 — 인애와 정의가 번제보다 앞서는 선언들.

- 시 33:16-17 —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 21:31 teshuah의 시편 병행.
- 잠 19:13 · 25:24 · 27:15 — 다투는 여인 잠언의 병행 계열 — 9·19절 점층의 모음집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가장 높은 마음도 물길이라면, 내 마음의 물은 지금 어느 골을 따라 흐르고 있는지 떠오른다.
- **멈춤 1:** 3절에서 멈춘다 — 내가 드리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먼저 달아 보심을 받는지.
- **멈춤 2:** 13절에서 멈춘다 — 내 문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내 귀가 닫혔던 순간들.
- **끝:** 31절에서 멈춘다 — 예비는 내 몫, 이김은 그분 몫. 그 분업의 경계선 위에 선 채로 장이 닫힌다.

F · 자족성 점검

- [x] 여호와 액자(1~2절 ↔ 30~31절)의 완결
- [x] 제의 비평의 쌍(3절 순서 · 27절 동기)
- [x] tov-min 점층(9절 모퉁이 → 19절 광야)
- [x] 13절 부메랑 구문과 25~26절 욕망-손 분리의 인과
- [x] 21:2 ↔ 16:2 재현의 위치값(왕의 마음 곁)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21장은 둘째 국면의 후반에서 그 국면 전체의 정박점을 드러내는 장이다. 일상 격언들이 처세술 모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은 액자로 보여 준다 — 가장 높은 권력의 마음도(21:1), 가장 잘 버린 지혜도(21:30), 여호와 앞에서는 최종 패가 아니다. 1:7의 모토가 스무장의 격언 밑에서 여전히 바닥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제사보다 정의를 택하신다는 21:3은 시내산의 제의 규정과 예언자들의 외침(삼상 15:22, 호 6:6, 미 6:8) 사이에 놓인 지혜 문학의 매듭이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21:31)의 teshuah는 군사 어휘가 구원 어휘로 건너가는 통로 위에서 있다 —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는 시편의 노래(시 33:16-17)와 같은 물줄기다. 준비는 사람의 몫으로 남고 승리의 소속만 옮겨지는 21:31의 분업은, 경외가 일상에서 입는 실무의 옷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왕의 마음의 상대화(21:1)에서 지혜 자신의 상대화(21:30)로 / 제사라는 종교 행위에서 정의라는 일상 행위로 (21:3·27) / 예비하는 손에서 이김의 소속으로(21:31).

화살표를 하나로 좁히면, 21장은 사람이 의지하는 가장 강한 패들 — 권력, 재물, 군비, 그리고 지혜 자체 — 을 하나씩 들어 올려 여호와 앞에 내려놓는 운동이다. 다만 이 내려놓음은 무력화가 아니다. 부지런한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21:5),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고(21:23), 마병은 여전히 예비된다(21:31). 사람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 — 그 손에서 최종 결정권만 옮겨진다. 22장은 이 운동을 이어받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으로 열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지으신 이가 한 분이라는 데까지 나아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격언 모음이다 — 부지런해라, 말을 아껴라, 다투지 마라, 베풀어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신뢰의 좌표가 움직인다. 이 장이 들어 올리는 것들은 전부 사람이 기대는 기둥이다. 왕의 결정(1절), 자기 눈의 정직(2절), 제사의 효력(3·27절), 모은 재물(6절), 넓은 집(9절), 예비된 군마(31절), 그리고 지혜라는 책 자신의 자산(30절)까지. 본문은 그 기둥들을 부수지 않는다 — 다만 어느 것도 마지막 기둥이 아니라고 말한다. 가장 깊은 데서 움직이는 것은 13절이 보여 주는 세계의 결이다. 귀를 막은 사람에게 외부의 형벌이 오지 않는다. 그가 만든 침묵이 그대로 그의 거처가 된다 — 행위와 결과 사이에 보이는 심판자가 없는데도 인과가 정확한 세계. 그 세계의 정확함이 곧 2절의 저울이다. 마음을 달아 보시는 이가 계시기에, 격언들은 확률 통계가 아니라 그분의 결을 따라 놓인 물길이 된다. 그래서 이 장의 처세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의 형태다 — 준비하되 움직여지지 않는 손, 그것이 경외가 일상에서 짓는 표정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오늘도 무언가를 예비한다 — 계획, 말, 저축, 방벽. 그 모든 예비 위에서 묻게 된다. 이김의 소속을 나는 어디에 적어 두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예비를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 부지런한 경영을 칭찬하고(5절), 지혜로운 혀를 보전의 길로 부르고(23절), 마병의 손질을 당연한 일로 둔다(31절). 다만 그 모든 준비의 끝에 한 문장을 적는다 —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끝에 13절이 나란히 놓인다. 문 앞의 부르짖음에 귀를 여는 일이, 제단의 연기보다 먼저 달아 보심을 받는다는 것(3절). 준비하는 손과 듣는 귀 — 21장이 독자에게 쥐여 주는 것은 그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붓물처럼 그분 손에서 흐른다. 그 흐름을 신뢰할 수 있는가 — 이 장이 남기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이김의 소속을 정리한 본문이 이제 값의 순서를 묻는다 —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22: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eshuah* — 이김, 그리고 구원.

미해결 질문

잠언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1:1의 붓물 은유에서 왕의 의지와 여호와의 인도는 어떻게 함께 있는가?

- 물은 강제로 꺾이지 않고 트인 데로 흐른다. 마음이 자기 결대로 움직이면서도 물길의 방향이 바뀐다는 형상 — 그 기제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2. 21:4의 ner(נֵר) — 악인의 '등불'인가 '개간지'인가, 개역의 '형통'은 어느 갈래인가?

- 자음이 두 독법을 허용하고 LXX는 등불을 택했다. 20:27(여호와와 등불)과 같은 자음이 이웃 장에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보존. 번역 갈래를 닫지 않는다.

Q3. 21:14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 이 절은 승인인가, 풍자인가, 기록인가?

- 앞뒤 잠언들과 달리 평가 술어가 없다. 뇌물이 작동한다는 사실만 건조하게 적는 어조의 의도 — 미해결로 이월.

Q4. 21:18 "악인은 의인의 속전(kopher)이 되고" — 이 교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몸값의 그림에서 누가 내고 누가 받는 값인지, 악인이 의인 '대신' 치러진다는 형상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본문은 그리지 않는다. 보존.

Q5. 같은 잠언이 두 번(9절→19절) 놓이며 더 멀리 가는 배열은 편집의 의도인가?

- 지붕 모퉁이에서 광야로 — 25:24와 27:15의 병행까지 고려하면 이 계열의 반복·점층이 모음집 편집 차원의 질문으로 남는다. 보존.

Q6. 21:30-31 — 지혜의 한도를 고백하는 절구는 잠언이라는 책 자체를 어디에 두는가?

- 지혜를 권하는 책이 지혜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권면과 한도는 어떻게 한 책 안에 공존하는가. 준비(31a)와 이김(31b)의 분업이 그 공존의 실마리인지 —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2장

PRO-022 · 시가서 · 히브리어

"많은 재물보다 이름(*shem*)을 택할 것이요"(22:1)라는 가치의 저울로 솔로몬 대구 모음 (10:1~22:16)이 닫히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divre chakhamim*)을 들으며"(22:17)라는 직접 화법으로 30잠언이 열리는 이음새 — 성문에서 약자를 변호하시는 여호와 (22:23)가 새 모음의 첫 신학이 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mahir*)이 왕 앞에 서는 결로 닫히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무대의 대조: 1~16절은 절마다 점멸하는 거리·집·마당·알현실, 17절부터는 책상과 두루마리의 기록하는 방("내가 너를 위해 기록하여", 20절). 그 방의 창으로 성문(22절)·들판의 지계석(28절)·왕궁(29절)이 보임.
- 소품(가치): 은과 금, 그리고 그 맞은편의 이름(1절) — 저울의 형상. 보상으로서의 재물·영광·생명(4절).
- 소품(위험): 가시와 울무(5절), 빗 문서(7절), 상상 속 사자(13절), 깊은 함정(14절), 채찍(15절), 빼앗기는 침상(27절), 울무의 전염(25절).
- 소품(보호·전승): 양식을 떼어 주는 손(9절), 기록된 글(20절), 입술 위의 말씀(18절), 옛 지계석(*gevul olam*, 28절), 능숙한 손(29절).
- '가난한 자'가 다섯 번 지나감(2·7·9·16·22절) — 재물 잠언들 사이를 관통하는 인물.
- 17절의 형식 전환: 12개 장 만의 2인칭 직접 화법 재개. 19~21절은 1:2~6을 닮은 소형 목적 서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16절은 컷이 점멸하는 대구의 호흡, 17~21절은 끊기지 않는 롱테이크, 22절부터는 금지+이유의 깊은 단락 호흡 — 리듬이 세 번 바뀜.
- "너는 귀를 기울여"(17절)에서 본문이 독자 쪽으로 몸을 돌리는 가까움. '오늘·특별히·네게'(19절)의 겹침이 글을 마주 앉은 음성으로 만들.
- 13절 게으른 자의 사자 변명 — 변명치고 지나치게 정교한 한 편의 이야기. 우습고 서늘함.
- 1절의 결산 같은 공기와 17절의 개장 같은 공기 — 졸업과 입학이 한 장 안에 공존.
- 빼앗기는 침상(27절)과 건네지는 빵(9절)의 대비 감각. 23절은 격언이 아니라 판결문의 어조(*yariv rivam* — 법정 용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치)로 열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서는가(사람됨)로 닫힘. 양 끝 모두 재물 아닌 것 — 이름과 숙련 — 이 사람을 세움.
- 어미의 대비: 권유("택할 것이니라")로 열고 질문+단언("보았느냐... 서지 아니하리라")으로 닫음 — 독자에게 시키는 두 동작, 택함과 봄.
- 무대 동선: 저울 앞(1절) → 책상(17~21절) → 알현실(29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가난한 자와 부자(2·7절),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3절), 아이(6·15절), 빗진 자와 채주(7절), 선한 눈의 사람(9절), 거만한 자(10절), 정결한 마음의 사람과 임금(11절), 게으른 자(13절), 음녀(14절), 지혜 있는 자들(17절), '너를 보내는 자'(21절), 약한 자·곤고한 자(22절), 노를 폼는 자(24절), 보증 서는 자(26절), 선조(28절), 능숙한 사람과 왕(29절).
- 여호와와 여섯 등장: 지으신 이(2절) — 보상하시는 이(4절) — 지키시는 눈(12절) — 진노(14절) — 의뢰의 대상(19절) — 변호인(23절).
- 중심 사상의 짝: 창조의 평등(2절, oseh kullam)과 경제의 불평등 관찰(7절)이 다섯 절 간격으로 병치되고, 22~23절이 행동의 선(탈취 금지)과 보증인(여호와와의 소송 대리)을 세움.
- 17~21절 목적의 층: 듣고 마음에 둠 → 속에 보존·입술에 둠 → 여호와 의뢰 → 진리의 확실성 → 보내는 자에게 회답. 배움이 심부름의 구조를 가짐.
- 6절 한 절 안의 두 시간: 아이(naar)와 늙음 — 인생 전체를 가로지르는 교육 잠언. 동사 chanokh는 봉헌·개시의 어근.
- 올무의 이동: 5절(길바닥)에서 25절(결의 사람)로 — 위험의 출처가 길에서 관계로 옮겨 감. 14절의 함정까지 세 군데의 파인 땅.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가치의 저울 — 이름·은총·창조의 평등·숨는 슬기·겸손과 경외의 보상.
- 컷 2 (5~16절): 거리의 대구들 — 가시와 올무, 아이와 길, 부채, 악의 씨, 선한 눈, 거만한 자 추방, 정결한 마음, 여호와와 눈, 사자 변명, 함정, 채찍, 학대와 증여의 역설.
- 컷 3 (17~21절): 책상의 개막 — 귀 기울임, 보존, 의뢰, 기록, 회답.
- 컷 4 (22~29절): 첫 가르침 묶음 — 약자 보호와 여호와와의 변호, 분노의 전염, 보증과 침상, 지계석, 능숙한 사람.
- 컷 4 내부: 금지 넷(22·24·26·28절)+관찰 하나(29절). 앞 세 금지의 이유는 각각 여호와와의 개입(23절)·성품의 전염(25절)·경제의 결과(27절). 28절 지계석만 이유 없이 — 23:10~11에서 구속자(go'el)의 근거가 따름. 마감은 명령이 아닌 질문("보았느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em(שֵׁם) — 이름·평판. MT에 '좋은'이 없음 — 이름 자체가 재물의 맞은편. LXX는 onoma kalon으로 보충. 1절.
- chen(חֵן) — 은총·호의. 1절. / oseh kullam(וְעָשָׂה כָּלֵם) — 그 모두를 지으신 이, 분사 구문. 2절.

- *arum*(אַרֻם) — 슬기로운 자. 3절. / *anavah*(אַנָוָה) — 겸손. 4절.
- *chanokh lannaar al pi darko*(חֲנוֹךְ לְנָעַר עַל־פִּי דַרְכוֹ) — '그 아이를 그의 길을 따라 개시하라'. chanakh는 봉헌·개시의 어근(신 20:5의 집 봉헌, 하누카와 동계). 6절.
- *loveh*(לֹוֶה)·*malveh*(מַלְוֶה) — 빛진 자·꾸어 주는 자. 같은 어근 lavah의 짝. 7절.
- *tov ayin*(טוֹב־עֵינַיִן) — 선한 눈(관대함). 23:6의 ra ayin(악한 눈, 인색)과 대칭. 9절.
- *atsel*(אַצֵּל) — 게으른 자, *ari*(אַרִי) — 사자. 13절. / *shevet musar*(שֵׁבֶט מוֹסָר) — 징계의 채찍. 15절.
- *divre chakhamim*(דִּבְרֵי חֲכָמִים) —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복수). 17절.
- 20절 케티브 *shilshom*(전예) · 케레 *shalishim*(귀한 것들) · 제안 독법 *sheloshim*(서른 — 아메네모페 30장 대응) — 본문 전승의 갈래, 형태 관찰로만 보존.
- *qosht imre emet*(קֹשֶׁט אִמְרֵי אֱמֶת) — 진리의 확실한 말씀. qosht는 드문 단어. 21절.
- *dal*(דָּל) — 약한 자, *ani*(אֲנִי) — 곤고한 자, *yariv rivam*(יָרִיב רִיבָם) — 그들의 소송을 소송하심(동족 목적어, 법정 어휘). 22~23절.
- *gevil olam*(גְּבוּל עוֹלָם) — 옛 경계(석). 28절. / *mahir*(מָהִיר) — 능숙한·민첩한(스 7:6의 sofer mahir와 동일어). 29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모음집의 이음새: 10:1에서 열린 솔로몬 대구 모음이 22:16에서 닫히고, 22:17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셋째 모음을 엮. 24:23("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이 그다음 표지 — 잠언이 여러 모음집의 편집물임을 본문 스스로 표지로 보여 주는 구간.
- 새 모음의 어법이 1~9장으로 회귀: 2인칭 호명·목적 선언(19~21절, 1:2~6의 축소판)·금지+이유 형식 — 책의 가운데서 책의 처음이 다시 들리는 구조.
- 1절(이름>재물)과 4절(경외의 보상=재물)의 병치 — 화해시키지 않는 긴장. 16절이 재물의 흐름까지 관찰.
- 가난 어휘의 분화: rash(2절)·dal(22절)·ani(22절) — 가난을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음. 약자 보호 명령이 30잠언의 1과로 배치됨.
- 컷 4의 금지+이유(ki) 형식과 29절의 질문 마감 — 다섯 단이 명령이 아닌 관찰 초대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아메네모페의 교훈'과 22:17~23:11의 평행 — 귀 기울임의 개막, 가난한 자 탈취 금지, 성내는 자와의 교제 금지, 경계석 금지, 30장 구성, 능숙한 서기관들의 궁정 결말 — 국제 지혜 전통의 배경으로만 관찰 (참조 방향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 지계석 — 메소포타미아 쿠두루(kudurru) 경계석, 이집트 경계표, 신 19:14의 동일 금지. 경계 표지가 생존의 선이던 물질 배경.
- 성문(shaar) — 재판·계약·공론의 법정 공간. 22:22 압제 금지의 사회적 무대.
- 부채·보증 — 옷·침상 같은 생존 물품까지 담보로 잡히던 근동 경제 관행. 출 22:26-27의 겉옷 담보 규정과 닿는 배경.
- LXX: 22:1에 '좋은'을 보충, 22:8 뒤에 '즐거 내는 자' 행을 추가(고후 9:7이 이 형태 인용), 22:20을 trissōs(세 겹으로)로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2:16/17 ↔ 잠 10:1 · 24:23 (모음집 표지들 — 대구 모음의 양 끝과 다음 모음)
- 잠 22:1 ↔ 전 7:1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 shem의 가치 선언)
- 잠 22:4 ↔ 잠 15:33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 경외와 겸손의 짝)
- 잠 22:27 ↔ 출 22:26-27 (침상·겉옷 담보 — 생존 물품의 선)
- 잠 22:28 ↔ 신 19:14 · 잠 23:10-11 (경계표 금지 — 고아의 밭과 강한 구속자)
- 잠 22:13 ↔ 잠 26:13 (게으른 자의 사자 변명 재등장)
- 잠 22:9 ↔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저울이 놓인다 — 한쪽에 은과 금, 맞은편에 이름.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어깨를 스치고, 내레이션이 깔린다 —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컷이 점멸한다. 폭풍을 보고 숨는 사람과 걸어 나가 비를 맞는 사람, 첫걸음을 떼는 아이 앞의 긴 길, 도장 놀리는 빛 문서, 빵을 떼어 건네는 손, "사자가 밖에 있다"는 외침과 텅 빈 거리, 벽의 채찍. 화면이 멈춘다 — 등불 켜진 방, 책상, 두루마리. "너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창밖 성문에서 약한 사람이 끌려 나가다 — 누군가 일어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송을 받으신다. 성난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발, 들려 나가는 침상, 풀에 덮인 오래된 경계석. 마지막 — 알현실, 왕 앞에 선 사람의 능숙한 손.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저울과 책상 — 이름을 택하고, 귀를 기울이라"
- 초벌 부제: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라는 가치 선언으로 솔로몬 대구 모음이 닫히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로 30잠언이 열리며, 성문의 약자를 변호하시는 여호와가 새 모음의 1과로 놓이는 이음새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모음집 이음새 + 아메네모페 평행 배경 + 금지·이유 형식 + 가난 어휘 분화)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아메네모페 평행을 영감론·저작권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국제 지혜 전통의 배경 관찰로만 둬. 참조의 방향은 미확정으로 보존.
- 22:6을 양육 성공의 보증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그의 길(al pi darko)'의 번역 폭을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 22:7의 부채 관찰을 경제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관찰 잠언의 형식(명령 아닌 묘사) 그대로 둬. 1절과 4절의 재물 긴장도 화해시키지 않고 병치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2장은 "많은 재물보다 이름(shem)을 택할 것이요"(22:1)라는 가치의 저울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22:2)라는 창조의 평등 선언으로 솔로몬 대구 모음(10:1~22:16)을 닫은 뒤 — 그 안에 교육 잠언의 대표(chanokh lannaar, 22:6)와 부채의 관찰(22:7), 선한 눈(tov ayin, 22:9), 사자 변명(22:13)을 품고 —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divre chakhamim)을 들으며"(22:17)라는 직접 화법으로 30잠언을 열고, 그 1과로 성문의 약자 보호와 여호와의 변호(22:22-23)를 놓고, 옛 지계석(gevil olam, 22:28)을 지나 왕 앞에 서는 능숙한 사람(mahir, 22:29)으로 마치는, 모음집의 이음새 장이다.

한 문단: 저울이 놓인다. 한쪽 접시에 은과 금이 쏟아지고 맞은편에는 이름 하나가 올라가는데, 본문은 택하라고 한다.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어깨를 스치고 —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한 분이시다. 컷이 점멸한다. 재앙을 보고 숨는 슬기, 첫걸음을 떼는 아이 앞의 긴 길, 도장 놀리는 빛 문서, 빵을 떼어 건네는 손, 사자가 밖에 있다는 정교한 변명, 벽에 걸린 채찍. 그러다 화면이 등불 켜진 방에서 멈춘다. 책상, 두루마리, 마주 앉은 음성 — "너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창밖 성문에서 약한 사람이 놀릴 때 누군가 일어선다 —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송을 맡으신다. 성난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발, 빼앗겨 들려 나가는 침상, 들판의 오래된 경계석을 지나, 마지막 화면은 알현실이다. 왕 앞에 한 사람이 서고, 카메라는 그의 능숙한 손을 비춘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점멸하는 거리(1~16절) 對 기록하는 방(17절~). 저울의 은금과 이름. 가난한 자가 다섯 번 지나감. 침상·채찍·지계석·능숙한 손.
2 첫 느낌·분위기	대구의 점멸 — 롱테이크 — 금지+이유의 깊은 호흡. "너는 귀를 기울여"에서 본문이 몸을 돌림. 졸업과 입학의 공존.
3 시작과 끝	무엇을 택할 것인가(1절)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서는가(29절)로. 양 끝 모두 재물 아닌 것 — 이름과 숙련 — 이 사람을 세움.
4 등장인물·사상	여호와의 여섯 등장(지으신 이→변호인). 창조의 평등(2절)과 부채의 현실(7절)의 병치. 17~21절 목적의 층 — 의뢰·확실성·회답.
5 장면 컷	저울(1~4)/거리의 대구(5~16)/책상의 개막(17~21)/첫 가르침 묶음(22~29) 4컷. 금지 넷+관찰 하나, 질문으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모음집 표지(10:1·22:17·24:23). 케티브·케레·'서른' 독법. 아메네모페 평행 배경. 가난 어휘의 분화(rash·dal·ani).
7 동영상	저울 → 거리의 점멸 → 등불 켜진 책상 → 성문에 일어서는 변호인 → 오래된 경계석 → 왕 앞의 능숙한 손, 암전.

단계	핵심 발견
8 초별 제목·부제	"저울과 책상 — 이름을 택하고, 귀를 기울이라"
9 기도·내면	저울과 다섯 번의 가난한 사람을 본다. 그들의 소송을 맡으시는 분 앞에 머문다 — 묻지 않고 들고 있는 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shem, 저울 위의 이름:** 히브리어 본문의 1절에는 '좋은'이 없다. 이름 자체가 많은 재물보다 택함을 받는다. 10:7이 의인의 기억을 복되다 했고 18:10이 여호와와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불렀던 그 단어가, 대구 모음의 결산 위치에서 은금의 맞은편 접시에 올라간다. 4절은 겸손과 경외의 보상에 재물을 포함시켜 이 저울을 더 긴장시킨다 — 재물은 택할 대상이 아니지만 따라올 수는 있다는, 화해되지 않은 병치.
- 결 2 — 이음새, 돌아온 '너':** 22:16과 17 사이에서 모음집이 교대한다. 12개 장 동안 익명으로 점멸하던 대구가 멈추고, "너는 귀를 기울여"라는 1~9장의 어법이 돌아온다. 19~21절은 1:2~6을 닮은 소형 목적 서문이고, 그 목적의 정점은 처세가 아니라 의뢰다 —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배움의 끝은 자기 완성이 아니라 회답이다 —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답하는 심부름의 구조.
- 결 3 — yariv rivam, 성문의 변호인:** 새 모음의 1과(22:22-23)는 약자 보호다. 약하다는 이유로 탈취하지 말라 — 대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송을 소송하시고(동족 목적어),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지으신 분이, 23절에서 눌린 쪽의 변호인으로 일어서신다. 창조의 평등이 법정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이 동선이, 이 장의 모든 재물 잠언 아래에 깔린 바닥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0:1 · 24:23 — 모음집 표지들. 22:16/17의 이음새가 책의 편집 구조를 드러내는 좌표.
- 전 7:1 —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 shem의 가치 선언이 지혜 문학 안에서 메아리침.
- 신 19:14 · 잠 23:10-11 — 경계표 금지의 짝. 고아의 발 곁에서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가 22:23의 변호인 결을 이어받음.
- 출 22:26-27 — 잘못 담보 규정. 22:27의 침상까지 빼앗기는 정황의 율법 배경.
- 잠 19:17 —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 — 9절 선한 눈의 경제가 닿는 결.
- 잠 26:13 — 사자 변명의 재등장. 게으름의 상상력이 잠언 안에서 반복 관찰됨.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의 저울 앞에서 시작한다 — 내 접시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천천히 본다.
- **멈춤 1:** 2절과 7절 사이에서 멈춘다 — 같은 분이 지으신 두 사람이 빛 문서 하나로 주인과 종이 되는 거리.
- **멈춤 2:** 17~19절에서 멈춘다 — '오늘', '특별히', '네게'. 이 글이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는 것.
- **끝:** 23절과 29절 사이에서 끝난다 — 약한 자의 소송을 맡으시는 분과, 왕 앞에 서는 능숙한 손. 낮은 곳의 보호와 높은 곳의 부름이 한 과정의 양 끝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

F · 자족성 점검

- [x] 가치의 저울(1~4)·거리의 대구(5~16)·책상의 개막(17~21)·첫 가르침 묶음(22~29)의 네 단 완결
- [x] 모음집 표지(10:1↔22:16/17↔24:23)의 좌표 확인
- [x] 여호와 여섯 등장의 분포(지으신 이→변호인)
- [x] 금지+이유(ki) 형식과 29절 질문 마감의 관찰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에서 22장은 둘째 국면 —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 의 한복판에 놓인 이음새다. 솔로몬 대구 모음이 "재물보다 이름"이라는 가치의 결산으로 닫히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22:19)는 목적 선언으로 열린다 — 1:7의 모토가 의뢰라는 동사로 변주되는 지점이다. 22:4("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는 그 모토를 보상의 어법으로 다시 부르고, 22:23의 변호인 선언은 압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출 22:23 — 같은 장·절 번호의 율법이 같은 결을 가짐)과 한 줄로 이어진다. 약자의 소송을 맡으시는 여호와가 새 교육 과정의 1과가 된다는 배치는, 지혜가 처세술이 아니라 경외의 학교라는 권 전체의 방향을 모음집 교대의 순간에 다시 새긴다. 그리고 29절의 능숙한 사람(mahir)은 31장의 현숙한 여인 — 손이 부지런하고 일이 그를 성문에서 칭찬하게 하는 — 에게서 그 결이 완성될 숙련의 첫 초상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금에서 이름으로(22:1) / 익명의 대구에서 '너'를 부르는 음성으로(22:17) / 거리의 관찰에서 성문의 변호로(22:22-23).

한 화살표로 좁히면, 22장은 열두 장 넘게 흩어져 있던 거리의 격언들을 책상 위 두루마리로 모으고, 그 두루마리를 '너'에게 건네는 운동이다. 관찰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가르침이 되는 — 지혜가 전승의 형태를 갖추는 구간. 다만 이 건넌은 종착이 아니라 개시다. 23장에서 가르침은 식탁으로 이어지고("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23:1), 재물의 텅없음("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23:5)이 22:1의 저울을 다시 흔든다. 22장의 벡터는 30잠언 전체를 '의뢰의 훈련'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실용 격언들이다 — 평판 관리, 신중함, 자녀 교육, 부채 회피, 교우 관계, 직업 숙련. 어느 문화의 처세서이나 있을 법한 항목들이고, 실제로 아메네모페라는 이웃 문명의 교훈과 형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경제와 교육이 신학 위에 놓이는 일이 진행된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만남은 시장의 사건이 아니라 창조의 사건이고(22:2), 약자 탈취 금지의 근거는 사회 계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송 대리다(22:23). 아이를 가르치는 동사는 봉헌의 어근(chanokh)을 쓰고, 배움의 목적은 자기 계발이 아니라 의뢰(22:19)와 회답(22:21)이다. 같은 형식의 국제 지혜가 이 본문 안에서 어디에 정박하는지 — '그 모두를 지으신 이' — 가 이 장의 가장 깊은 물길이다. 그리고 그 정박이 재물의 잠언들을 바꾼다. 이름이 은금보다 무거운 것은 평판의 효용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가 소유로 계량되지 않는 창조의 질서 때문이라는 것 — 본문은 이를 명제로 단정하지 않고, 저울과 변호인의 그림으로 보여 주기만 한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저울의 맞은편 접시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는가 — 그리고 내 눈은 거리에서 다섯 번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재물을 정죄하지 않는다 — 4절은 보상의 목록에 재물을 넣기까지 한다. 다만 택함의 순서를 묻는다. 이름과 은총이 먼저 택해지는 삶, 양식을 떼어 주는 선한 눈(22:9), 성난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발(22:24-25), 남의 경계를 건드리지 않는 손(22:28), 그리고 자기 일에 능숙해지는 긴 단련(22:29) — 이 목록은 도덕 점검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동선이다. "너는 귀를 기울여"(22:17)라는 호명이 그 동선의 입구에 서 있다. 오늘, 특별히, 네게(22:19) — 이 세 단어가 아직 유효한 동안, 듣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 호명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책상의 가르침이 관원의 식탁으로 옮겨 가고, 저울에 올랐던 재물이 날개를 편다 —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23:5).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em* — 이름, 은금의 맞은편에 올라간 무게.

미해결 질문

잠언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22:6 "그의 길을 따라(al pi darko)" — 그 길은 누구의 길인가?

-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규범의 길인지, 아이의 기질·단계에 맞춘 길인지, 제멋대로 두면 늙어도 못 벗어난다는 반어인지 — 번역들이 갈리고 본문은 '그의 길'이라고만 한다. 보존.

Q2. 22:1의 *shem* — 형용사 없는 '이름'은 어디까지를 담는가?

- MT에는 '좋은'이 없다. 평판인지, 한 사람의 무게 전체인지, 18:10("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과 같은 결로 이어지는지 — 이름 한 단어가 재물의 맞은편에 올라간 폭을 미해결로 둔다.

Q3. 22:20 — 케티브 *shilshom*(전에) · 케레 *shalishim*(귀한 것들) · 제안 독법 *sheloshim*(서른) 가운데 무엇으로 읽을 것인가?

- 자음 본문과 낭독 전통이 갈리고, 아메네모페의 30장 구성이 셋째 독법의 제안 근거가 된다. 본문 전승의 갈래 자체를 보존하고 어느 쪽으로도 통합하지 않는다.

Q4. 창조의 평등(22:2)과 부채의 현실(22:7)은 어떻게 같은 장에 있는가?

-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선언과, 빚진 자가 채주의 종이 된다는 관찰 사이의 간격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22:22-23의 보호 명령이 그 간격에 놓일 뿐 — 병치 자체를 보존.

Q5. 22:14 "여호와와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 빠짐은 심판의 결과인가 원인인가?

- 함정에 빠져서 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노를 당한 자가 빠진다고 읽히는 어순 — 인과의 방향이 한쪽으로 닫혀 있지 않다. 보존.

Q6. 30잠언의 청자는 누구인가 — "너를 보내는 자에게 회답하게 하려 함"(22:21)의 심부름 구조는 어떤 정황을 전제하는가?

- 왕궁의 견습 관리인지(29절의 *mahir*와 닿는 읽기), 보냄 받은 사신인지, 모든 배우는 자의 은유인지 — 본문은 보내는 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3장

PRO-023 · 시가서 · 히브리어

관원의 식탁 앞에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23:2)라는 과장으로 열려,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재물(23:5)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23:23)가 소유의 방향을 가르치고,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23:26)라는 권 전체에서 가장 가까운 호소를 지나, 여섯 질문으로 열려 "다시 술을 찾겠다"(23:35)로 닫히지 않은 채 끝나는 술 취함의 해부시까지 — 30잠언이 식탁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식탁의 무대: 관원의 연회석(1~3절) →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상(6~8절) → 술을 즐겨 하는 자들의 모임(20~21절)과 그 끝(29~35절).
- 식탁 밖 무대: 고아들의 밭과 옛 지계석(10절), 부모가 말하는 집 안(15~16·22~26절), 음녀의 깊은 구렁이(27절), 바다 한가운데와 돛대 위(34절) — 연회석에서 열려 바다 위에서 끝나는 이동.
- 소품: 목에 대는 칼(2절), 맛있는 음식 matammot(3·6절), 날개 내는 재물과 독수리(5절), 지계석(10절), 채찍 shevet(13~14절), 붉은 포도주와 잔, 혼합한 술 mesekh(30~31절), 뱀·독사(32절), 돛대(34절).
- 감각 디테일: "순하게 내려가나니"(31절)의 목넘김, 8절의 토함 — 이 장의 감각은 목과 속에 몰림. 1장의 목에는 금 사슬이, 23장의 목에는 칼이 닿음.
- '탐하다·부러워하다'의 분포: 음식(3절), 맛있는 음식(6절), 죄인의 형통(17절) — 입의 욕망과 눈의 욕망이 같은 동사군으로 묶임.
- 형식: 22:17에서 열린 30잠언의 본문 한가운데. 두세 절 교훈 단위의 연쇄가 29~35절의 일곱 절 시로 끝남 — 잠언에서 한 주제를 가장 길게 끄는 시 가운데 하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무서움과 다정함의 교대: 2절의 칼 → 15~16절 아버지의 속 고백 → 29절부터의 어둠 → 35절의 슬픈 독백.
- 7절의 싸늘함: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 환대의 말과 마음이 갈라진 식탁.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되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감(8절).
- 음향 설계: 연회장의 그릇 소리 → 집 안의 가까운 어조 → 여섯 질문의 북소리(29절) →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35절). 소리가 사람 하나로 좁혀짐.
- 명령문의 밀도: 삼가라·두라·탐하지 말라·버릴지어다·옳기지 말며 등 금지·권고가 장을 채우는 가운데 17~18절의 약속(장래·소망)이 빈터처럼 끼어 있음.
- 31절의 역설적 미학: 경고하는 본문이 술의 빗깔·반짝임·목넘김을 매혹 그대로 그린 뒤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함 — 매혹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경고.
- 29절의 oy/avoy — 탄식 감탄사가 명사처럼 쓰여 수수께끼의 물음이 되는 형식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 35절: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 내가 언제나 꺾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 시작은 식탁에 앉으며 정신을 차리는 동작, 끝은 깨자마자 다시 잔을 찾는 동작 — 분별에서 무감각으로, 의식의 두 극단 사이에 걸친 장.
- 끝이 화자의 결론이 아니라 취한 이의 인용된 독백 — 교훈을 덧붙이지 않는 미완 종결.
- 무대 이동: 가장 격식 있는 연회석(앉음)에서 가장 위태로운 돛대 위(누움)로.
- 가운데 17~18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 두 극단을 읽는 좌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관원(1절), 악한 눈이 있는 자(6절, "먹고 마시라" 직접 발화), 미련한 자(9절), 고아들과 그들의 go'el(10~11절), 채찍을 드는 부모와 아이(13~14절), 화자인 아버지(15~16절), 죄인들(17절), 술꾼·고기 탐하는 자들(20~21절), 낡은 아비와 늙은 어미(22절),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24~25절), 음녀·이방 여인(27~28절), 술에 잠긴 자(29~35절, 35절 직접 발화).
- 인용된 목소리 둘: 마음 없는 환대의 "먹고 마시라"(7절)와 중독된 이의 "다시 술을 찾겠다"(35절) — 장의 양 끝에서 식탁의 말과 술의 말이 각각 인용됨.
- 중심 사상: 마음(lev)이 일곱 번 — 7(마음 없는 환대)·12(착심)·15(지혜로운 마음)·17(부러워 말라)·19(바른 길로)·26(내게 주며)·33절(구부러진 말). 마음의 세 상태(없는 마음·청해지는 마음·잡힌 마음)가 한 장에 공존.
- 4~5절의 구문: 명령 — 근거 물음 — 그림.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는 능동형 — 쥐었다고 여기는 것이 제 날개를 준비 중이라는 진술.
- 13~14절의 평행: 채찍이 죽이는 쪽이 아니라 스올에서 건지는 쪽에 놓이는 강한 평행법 — 고대 훈육 어법.
- 15~16절: 훈계하는 아버지의 첫 감정 고백 — 가르침의 동기가 기쁨으로 제시됨. 26절의 청("네 마음을 내게 주며")이 그 고백 위에 옴.
- 음식의 변주: 속이는 음식(3절) — 토하게 되는 음식(8절) — 가난으로 끝나는 식탁(21절) —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양식인 진리의 매입(2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두 식탁 — 관원의 상(목의 칼, 속이는 음식)과 악한 눈의 상(마음 없는 "먹고 마시라", 토함).
- 컷 2 (4~5절): 재물의 날개 — 사사로운 binah를 버리라,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리라.
- 컷 3 (9~14절): 미련한 자의 귀, 옛 지계석과 고아들의 밭, 강하신 go'el, 훈계 착심, 채찍과 스올.
- 컷 4 (15~21절): 아버지의 기쁨 고백, 경외와 장래·소망(17~18절), 술꾼·고기 탐하는 자들과의 절교 권고.
- 컷 5 (22~28절): 부모 청종,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의인의 아비의 즐거움,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음녀의 깊은 구렁이.
- 컷 6 (29~35절): 술 취함의 해부시 — 여섯 질문(29) → 답(30) → 금지(31) → 증상(32~34) → 독백(35). 마지막 단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inah*(בִּינָה) — 명철. 1:2의 배움 목표가 23:4에서는 '거기서 그치라'는 내려놓음의 대상으로.
- *nesher*(נֶשֶׁר) — 독수리. 5절 재물의 날개 직유. / *lechem kezavim*(לֶחֶם כְּזָבִים) — 속이는 음식, 직역 '거짓들의 빵'. 3절.
- *ra ayin*(רַע עֵינַי) — 악한 눈, 인색한 이의 관용어. 6절. / *matammot*(מַטְמָמוֹת) — 맛있는 음식·별미. 3·6절, 창 27장 계열.
- *gevul olam*(גְּבוּל עוֹלָם) — 옛 지계석. 10절. / *go'el*(גּוֹאֵל) — 구속자·무르는 친족. 11절, 욥 19:25와 동일어, 레 25:룻 4의 제도 배경.
- *shevet*(שֵׁבֶט) — 채찍·막대기, 시 23:4의 지팡이와 같은 단어. 13~14절. / *sheol*(שְׁאוֹל) — 스올. 14절.
- *kelayot*(כְּלִיּוֹת) — 직역 '콩팥', 속 깊은 정서의 처소. 16절. / *tiqvah*(תִּקְוָה) — 소망. 18절.
- *emet qeneh*(אֱמֶת קֵנָה) — 진리를 사라. qanah는 잠 4:5·7 '지혜를 사라'와 같은 동사. 23절.
- *tenah libbekha*(תִּנָּה לִבְּכָה) — 네 마음을 다오. 26절. / *zarah*(זָרָה) — 이방 여인. 27절.
- *oy/avoy*(אֵוִי/אֵוִי) — 탄식 감탄사의 명사적 사용. 29절. / *chakhlilut enayim*(חֻכְלִלּוּת עֵינַיִם) — 붉은 눈, 창 49:12 외 용례 없는 희귀어. / *mesekh*(מֶסֶךְ) — 혼합한 술. 3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30잠언(22:17~24:22)의 본문 한가운데. 두세 절 교훈 단위의 연쇄 + 마지막 일곱 절 시(29~35절)의 비대칭 구성.
- '내 아들이(beni)' 세 번(15·19·26절) — 1~9장 강화의 호명이 격언 모음 한복판에서 되돌아옴.
- 29~35절의 다섯 단: 수수께끼(여섯 질문) → 답 → 금지 → 증상 → 독백. 35절 "다시 찾겠다"가 29절의 질문들을 도로 불러오는 순환 — 형식 자체가 중독의 원을 그림.
- 22:28 ↔ 23:10 지계석 금지의 반복: 두 번째 진술에서 고아들과 go'el이 덧붙임 — 보호 대상과 보호자를 명시하는 쪽으로 자라는 변주.
- 기쁨 어휘의 적층(15~16·24~25절)과 그 한가운데의 경외·소망(17~18절) — 기쁨과 경외가 이웃하는 배치.
- 미완 종결: 본문이 자기 목소리의 결론 없이 취한 이의 인용 독백으로 닫힘 — 고대 문학에서 보기 드문 정밀한 중독 묘사의 마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아메네모페의 교훈 7장 — 부가 거위처럼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간다는 평행. 잠언은 독수리(nesher)로 — 배경.
- 30잠언 구성과 아메네모페 30장 형식의 평행 — 편집 관행 차원 — 배경.
- 프타호테프의 교훈 — 높은 이의 상 앞에서의 절제 예절, 23:1-3 평행 — 배경.
- 근동 경계석(쿠두루) 전통 — 경계 이동 금지와 저주문의 결합 관행, 23:10 배경.
- 혼합주(mesekh) — 포도주에 향료를 섞던 연회 관행, 23:30 배경.
- LXX: MT 23:7의 난해어 sha'ar를 '털을 삼키는 것 같이'로 전혀 다르게 옮김. 22~24장 전반에서 MT와 표현 차이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3:10-11 ↔ 잠 22:28 (옛 지계석 — 같은 금지의 변주, go'el의 추가)

- 잠 23:11 ↔ 욥 19:25 (go'el — 한 영혼의 절규와 약자의 토지 보호에 같은 단어)
- 잠 23:11 ↔ 레 25:25 · 룻 4:1-12 (친족 무르기 제도와 그 실행)
- 잠 23:23 ↔ 잠 4:5·7 (qanah — 지혜를 사라 / 진리를 사라)
- 잠 23:26 ↔ 잠 4:23 (마음을 지키라 / 마음을 다오 — lev의 호응)
- 잠 23:29-35 ↔ 잠 20:1 · 31:4-7 (술 잠언의 결 — 거만하게 하는 포도주, 르무엘 어머니의 경고)
- 잠 23:13-14 ↔ 잠 13:24 (채찍·매의 훈육 어법)
- 잠 23:29 ↔ 창 49:12 (chakhlilut — 붉은 눈 희귀어의 두 용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환한 연회장 — 관원의 상에 별미가 차려지고, 식탁에 앉은 이의 목에 칼날이 닿는다.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 나라." 금화 더미에서 깃털이 돌아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솟고 빈손이 남는다. 다른 식탁 — 주인은 "먹고 마시라" 권하지만 눈이 차갑고, 한 입 삼킨 손님이 문밖에서 토한다. 들로 나가면 오래된 경계석과 고아들의 발, 돌을 밀려는 손 위로 강한 무릎꾼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집 안 등불 곁에서 아버지가 말한다. "네 마음이 지혜로 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손을 내민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어두워진 화면에 여섯 물음이 북소리처럼 떨어진다 —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잔이 클로즈업된다 — 불고, 번쩍이고, 순하게 넘어간다. 잔에서 뱀이 솟아 물고, 방이 기울고, 벽이 파도가 되고, 침상이 돛대 꼭대기가 된다. 출렁이는 어둠 속의 증얼거림 — "내가 언제나 꺾까 다시 술을 찾겠다." 화면은 닫히지 않은 채 어두워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세 식탁과 마음을 달라는 손 — 수수께끼로 열려 독백으로 끝나는 장"
- 초벌 부제: "관원의 식탁과 목에 대는 칼로 열려, 날개를 내는 재물과 진리 매입의 소유론을 가르고, 고아의 강한 go'el과 부모의 기쁨과 '네 마음을 내게 주며'를 지나, 여섯 질문의 수수께끼에서 '다시 술을 찾겠다'의 미완 독백으로 어두워지는 30잠언의 한가운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30잠언 구성 + 해부시 다섯 단 순환 + 지계석 반복 변주 + 아메네모페·프타호 테프·쿠두루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3:11의 go'el을 그리스도론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욥 19:25·레 25·룻 4와 같은 단어·제도라는 어휘 관찰로만 둬.

- 23:13-14의 채찍 잠언을 훈육 방법론의 어느 쪽 교훈으로도 봉합하지 않고, 고대 어법과 문맥 위치(12절 착심과 15절 기쁨 사이)의 관찰 +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 23:29-35의 해부시를 금주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의 형식(수수께끼 → 권유 금지 → 증상 → 순환 독백)을 따라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3장은 관원의 식탁 앞에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23:1-2)라는 분별로 열려,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23:4-5)과 악한 눈(ra ayin)의 마음 없는 환대(23:6-8)와 고아들의 강한 go'el(23:10-11)과 채찍의 징계 잠언(23:13-14)을 지나,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23:15)라는 아버지의 기쁨 고백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23:23)와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23:26)라는 청에 이르고, 여섯 질문의 수수께끼로 열린 술 취함의 해부시(23:29-35)가 "내가 언제나 꺾까 다시 술을 찾겠다"라는 취한 이의 독백으로 닫히지 않은 채 끝나는, 30잠언의 한가운데 장이다.

한 문단: 환한 연회장에서 시작된다. 별미가 차려진 관원의 상, 식탁에 앉는 이의 목에 칼날이 닿는다 — 속이는 음식이니라. 금화에서 깃털이 돌아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솟고, 다른 식탁에서는 "먹고 마시라"라는 권유와 차가운 눈이 어긋난다. 들의 경계석 곁에 고아들의 발이 있고, 돌을 밀러는 손 위로 강한 무름꾼의 그림자가 선다. 집 안 등불 곁에서 아버지가 자기 속을 연다 — 네가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다. 그리고 손을 내민다 —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화면이 어두워지고 여섯 물음이 떨어진다.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붉고 번쩍이고 순하게 넘어가는 잔에서 뱀이 솟고, 방이 기울어 바다가 되고, 침상이 돛대 꼭대기가 된다. 출렁이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림 하나가 남는다 — 내가 언제나 꺾까, 다시 술을 찾겠다. 본문은 그 위에 아무 말도 엮지 않고 끝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식탁(관원·악한 눈·술꾼)과 바다 위 돛대. 목의 칼, 날개 내는 재물, 지계석, 채찍, 번쩍이는 잔. 감각이 목과 속에 몰림.
2 첫 느낌·분위기	칼의 섬뜩함과 아버지의 다정함이 교대. 말과 마음이 갈라진 식탁(7절). 매혹을 인정하는 경고(31절). 음향이 사람 하나의 독백으로 좁혀짐.
3 시작과 끝	식탁에 앉으며 분별하는 사람에서 깨자마자 다시 잔을 찾는 사람으로 — 의식의 두 극단. 결론 없는 미완 종결.
4 등장인물·사상	인용된 목소리 둘("먹고 마시라"·"다시 찾겠다"). 마음(lev) 일곱 번 — 없는 마음·청해지는 마음·잡힌 마음의 공존.
5 장면 컷	두 식탁(1~8)/재물 날개(4~5)/지계석·고엘·채찍(9~14)/기쁨·경외·절교(15~21)/부모·진리·마음(22~28)/해부시(29~35) 여섯 컷.
6 의문·발견·정보	22:28↔23:10 지계석 변주. go'el=욥 19:25 동일어. qanah의 귀환(4:5→23:23). 칼·채찍·미완 종결의 미해결. 아메네모페 배경.

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연회장의 칼날 → 날아가는 금화 → 마음 없는 상 → 경계석의 그림자 → 내미는 손 → 여섯 물음 → 기우는 방 → 돛대 위 중얼거림, 어두워짐.
8 초별 제목·부제	"세 식탁과 마음을 달라는 손 — 수수께끼로 열려 독백으로 끝나는 장"
9 기도·내면	순하게 내려가는 것들이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본다. <i>tenah libbekha</i> — 청이 기쁨의 고백 뒤에 온다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세 식탁의 분별:** 관원의 상(1~3절)에서는 앞에 앉은 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하고, 악한 눈의 상(6~8절)에서는 권하는 말 뒤의 마음을 보아야 하며, 술꾼들의 모임(20~21절)에서는 끝 모습 — 가난과 헤어진 옷 — 을 미리 보아야 한다. 같은 동작(먹는 일) 앞에서 세 번 다른 분별이 요구된다. 식탁은 중립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시험되는 무대다.
- 결 2 — 소유의 두 방향:** 재물은 쥐고 있어도 스스로 날개를 내어 떠난다(5절).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한다(23절). 한쪽은 붙들수록 떠나가는 소유이고, 다른 쪽은 한번 얻으면 내놓지 말아야 할 소유다. *qanah*(사다)가 4장의 "지혜를 사라"에서 돌아와, 사고파는 모든 것이 날아가는 장 한복판에 팔 수 없는 단 하나를 지정한다.
- 결 3 — 마음(lev)의 장:** 마음 없는 환대(7절), 혼계에 착심하는 마음(12절),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15절),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마음(17절), 바른 길로 인도할 마음(19절), 달라고 청해지는 마음(26절), 구부러진 말을 하는 마음(33절) — 일곱 번의 lev가 식탁·재물·술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한 질문을 끌고 간다.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것인가.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22:17-21 — 30잠언의 서문. 23장은 그 본문의 한가운데에서 '내 아들아'의 육성을 회복한다.
- 잠 22:28 — 옛 지계석 금지의 첫 진술. 23:10-11은 고아들과 *go'el*을 덧붙이는 변주.
- 욥 19:25 —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 *go'el*. 절규의 단어가 약자의 변호 어휘로.
- 레 25:25 · 룻 4:1-12 — 친족 무르기 제도와 그 실행. 23:11의 제도 배경.
- 잠 4:5·7 · 4:23 — 지혜를 사라(*qanah*), 마음을 지키라(*lev*) — 23:23·26과의 어휘 호응.
- 잠 20:1 · 31:4-7 — 술 잠언의 결. 31장 르무엘 어머니의 경고가 권 끝에서 호응.
- 창 49:12 — *chakhilut*(붉은 눈)의 유일한 다른 용례.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의 식탁에서 시작한다 — 내 앞에 차려진 것보다 내 앞에 앉은 이를 먼저 본다.
-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날개. 내가 쥐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깃털이 보이는지 묻게 된다.
- **멈춤 2:** 15~16절에서 멈춘다 — 즐겁겠고. 나를 가르친 음성들의 동기가 기쁨이었다는 것이 떠오른다.
- **멈춤 3:** 26절에서 멈춘다 — *tenah libbekha*.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청 앞에 선다.
- **끝:** 31절과 35절 사이에서 멈춘다 —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다시 찾겠다. 내 눈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잔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세 식탁(1~3·6~8·20~21)과 해부시(29~35)의 호응 완결
- [x] 재물의 날개(4~5)와 진리 매입(23)의 소유론 대비
- [x] 지계석 변주(22:28↔23:10)와 go'el의 추가
- [x] beni 세 번(15·19·26)과 lev 일곱 번의 분포
- [x] 해부시 다섯 단(수수께끼→답→금지→증상→독백)의 순환 구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23장은 둘째 국면 안에서 22:17부터 열린 30잠언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다. 그리고 여기서 권 전체의 heart — '내 아들이'를 부르는 아버지의 자상함 — 가 정점에 이른다. 호명인 한 장에 세 번 돌아오고(15·19·26절),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기 기쁨을 고백하며(15~16절), 마침내 행동 교정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청한다(26절).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고아들의 발 곁에 선 강한 go'el(23:11)은 레위기의 무르기 제도와 뚫기의 실행과 율의 절규를 한 단어로 꿰는 통로다 — 무르는 이가 토지 문서와 영혼의 부르짖음 양쪽에 서 있다는 것을 잠언은 약자 보호의 문맥에서 진술한다. 23:17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1:7의 모토를 일상의 시간 부사(항상) 속에 다시 발행하고, 그 곁의 약속 —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23:18) — 은 31장까지 가는 길의 노자가 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탁의 분별에서 마음의 소유로 / 날개 내는 재물에서 팔지 말아야 할 진리로 / 마음 없는 환대(23:7)에서 마음을 달라는 청(23:26)으로 — 그리고 그 청 곁에, 마음이 저당잡힌 이의 독백(23:35)이 나란히.

한 화살표로 좁히면, 23장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질 것인가'라는 표면의 물음을 '내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바닥의 물음으로 끌고 내려가는 운동이다. 다만 이 하강은 어둠으로의 하강이 아니다. 내려가는 길마다 반대 방향의 손이 있다 — 고아의 발 곁에 선 무름꾼, 기쁨을 고백하는 아버지, 마음을 청하는 내민 손. 해부시의 가라앉은 사람조차 본문은 정죄의 말로 덮지 않고 그 중얼거림을 그대로 들려준다. 24장이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24:16)로 이어지는 것은 이 미완의 어둠에 대한 다음 장의 응답처럼 배치되어 있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 교훈의 연쇄다 — 식탁 예절, 재산 관리, 교우 관계, 자녀 훈육, 음주 경계. 어느 문화에나 있을 항목들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마음의 소유권이 움직인다. 악한 눈의 식탁 주인은 음식을 주지만 마음을 주지 않고(7절), 아버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 하고(26절), 술은 마음을 통째로 가져가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한다(33절). 같은 장 안에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세 거래가 있는 셈이다 — 주지 않는 자, 청하는 이, 빼앗는 것. 그리고 본문이 그리는 중독의 정밀함이 여기에 깊이를 더한다. 35절의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감각이 무뎌져서 돌아간다 — 맞아도 아프지 않은 몸, 깨기도 전에 다시 찾는 마음. 잠언은 그 상태를 꾸짖는 대신 해부한다. 수수께끼로 묻고, 매혹을 인정하고, 증상을 적고, 독백을 인용한다. 경고문이 이렇게까지 정직한 임상 기록이 되는 것은, 마음을 청하는 아버지가 마음을 잃는 길도 끝까지 지켜보았기 때문처럼 읽힌다. 분별(1절)과 무감각(35절)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넘어가는지 본문은 굿지 않지만, "보지도 말지어다"(31절)라는 눈길의 절제가 그 경계의 가장 이른 신호로 놓여 있다.

내 하루에도 식탁이 셋 있다 — 권력의 상, 마음 없는 상, 그리고 순하게 내려가는 잔. 기쁨을 고백하며 마음을 청하는 음성과, 깨기도 전에 다시 찾는 중얼거림 사이에서 — 내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돛대 위의 극단을 상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가라앉음이 번쩍이는 잔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재물도 음식도 줄 수 없는 것을 청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6절의 손은 아직 내밀어져 있다 —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35절의 독백이 그 곁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그 손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 23장은 두 절 사이에 독자를 세워 두고, 결론 대신 출렁이는 어둠과 내민 손을 같이 보여 준다.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 (23:18) — 그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돛대 위에 누운 이의 어둠 다음에, 지혜로 세워지는 집과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 온다 —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24:16).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enah libbekha* —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미해결 질문

잠언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3:2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 이 칼은 누구의 것이며 무엇을 하는 칼인가?

- 스스로를 제어하라는 극단의 과장인지, 그 식탁에 이미 놓인 위험의 경고인지 — 그리고 "속이는 음식"(3절)이 무엇을 속이는지(호의로 보이는 시험인지, 치르게 될 값인지) 본문은 풀지 않는다. 보존.

Q2. 23:5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낸다는 능동형 — 왜 하필 독수리(nesher)인가?

- 아메네모페 평행은 거위인데 잠언은 가장 높이 나는 새를 골랐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라는 구문의 결과 함께, 새의 선택은 미해결로 둔다.

Q3. 23:11 고아들의 go'el은 누구인가 — 여호와인가, 친족 제도의 강한 무릅쎇인가?

- 본문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라고만 말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욥 19:25의 같은 단어가 절규의 대상이었다면 여기서는 약자의 변호인이다. 지시 대상은 보존.

Q4. 23:13-14 채찍 잠언 —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한계 선언인가 보증인가?

- 채찍이 스올에서 건지는 쪽에 놓이는 평행법의 폭, 고대 훈육 어법과 과장법의 경계, 오늘의 독자가 이 절을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 해석 논쟁은 본문 안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미해결로 이월.

Q5. 23:26 "네 마음을 내게 주며" — 화자는 아버지인가, 의인화된 지혜인가? '마음을 준다'는 동작의 폭은?

- 1~9장에서 지혜가 직접 발화한 전례가 있어 화자의 층이 단정되지 않는다. 마음을 주는 것이 신뢰인지 순종인지 사랑인지, 본문은 동사 하나(tenah)만 남긴다. 보존.

Q6. 23:35 미완 종결 — 해부시는 왜 결론 없이 취한 이의 독백으로 닫히는가?

- "내가 언제나 꺾까 다시 술을 찾겠다"가 경고문의 마지막 행이 된 형식 — 교훈을 덧붙이지 않는 마감의 의도라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 순환 형식 자체를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4장

PRO-024 · 시가서 · 히브리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bechokhmah yibbaneh bayit*)"(24:3)의 건축학과 "일곱 번 넘어 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sheva yippol vaqam*)"(24:16)의 회복 결에서, 무너진 돌담 앞에 멈춰 선 한 사람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24:32)라고 고백하는 — 관찰이 훈계가 되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네 무대의 이동: 훈계의 방(1~22절, 30잠언의 마지막 묶음) → 재판정(23~25절) → 밭과 집터(27절) → 길(30~34절, 화자가 직접 걷는 목격의 현장). 듣는 무대에서 보는 무대로.
- 소품(세움): 집·방들·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3~4절), 전략과 모사(6절), 꿀과 송이꿀(13절), 준비된 밭(27절).
- 소품(무너짐): 마음의 강포와 입술의 잔해(2절), 꺼지는 등불(20절), 가시덤불·거친 풀(*charul*)·무너진 돌담(31절), 강도와 군사의 형상을 입은 빈궁과 곤핍(34절).
- 12절의 저울 —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tokhen libbot*)"라는 어구 속에서 마음이 계량의 대상이 됨.
- 소재의 두 갈래: 건축·전략·꿀·일어남·견책·준비 對 강포·낙담·옛봄·분·가시덤불·빈궁.
- 형식 소재: 한 장 안에 모음집의 경계가 지나감 — 30잠언의 종결(22절)과 새 표제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23a절). 30~34절은 잠언에서 드문 1인칭 산문 목격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금지가 뻑뻑한 어조(부러워 말라·옛보지 말라·즐거워 말라·분 품지 말라) 가운데 13절 "꿀을 먹으라"가 식탁의 권유처럼 공기를 뚫.
- 속도의 설계: 두 절 단위 경구의 리듬(1~22절) → 한 절 판결문(23~29절) → 다섯 절 한 호흡의 느린 보행(30~34절). 장의 끝에서 본문 자체가 걸음을 늦춤.
- 일곱 갈래 "말라" 한가운데 단 하나의 적극 명령 —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11절)가 박동처럼 위치함.
- 감각의 대비: 혀에 닿는 꿀의 단맛(13절) 對 거친 풀과 무너진 돌담의 메마른 촉감(31절), 이불의 무게 같은 잠(33절).
- 1절과 19절이 같은 금지(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를 반복 — 부러움의 끈질김을 배치로 보여 줌.
- 24:19는 시 37:1과 거의 같은 어구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 34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 남의 것을 향한 시선의 금지에서 자기 밭에서 자라난 결과의 도착으로 — '부러워하는 눈'에서 '자기 밭을 보는 눈'으로.
- 어미의 이동: "말지어다"(직접 금지)에서 "이르리라"(예고)로 — 결정이 듣는 쪽으로 넘어오며 닫힘.
-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부러움)에서 보이는 결과(가시덤불과 무너진 돌담)로 — 마음의 기울기가 밭의 모양이 되기까지를 한 장이 가로지름.
- acharit(장래)의 양면: 14절(지혜를 얻은 자의 장래가 있음)과 20절(행악자는 장래가 없음)이 같은 단어를 긍정·부정으로 배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악인들(1~2절), 집을 세우는 이(3~4절), 지혜 있는 자·모사들(5~6절), 성문에서 입을 못 여는 미련한 자(7절), 사악한 자(8~9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방관자(11~12절),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영혼을 지키시는 이(12절), 내 아들(13·21절), 일곱 번 넘어지는 의인(16절), 넘어지는 원수(17절), 여호와와 왕·반역자(21절), 재판관·견책하는 자(23~25절), 까닭 없는 증인(28절), 게으른 자(30절), 그리고 1인칭 관찰자 '나'(30~34절).
- 마지막 다섯 절에서 처음으로 화자 자신이 무대에 올라옴 — 듣던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
- 중심 사상 후보: 12절 — '몰랐다'는 변명이 마음의 저울 앞에서 해체됨. 보응의 주어는 하나님(12절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 같은 '값다'가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선언되고 29절에서는 사람의 입에서 금지됨 — 한 장 안에서 동사의 주인이 정해짐.
- 16절의 대구: 의인 쪽 동사는 둘(넘어진다·일어난다), 악인 쪽 동사는 하나(엎드려진다) — 가르치는 표지는 넘어짐의 유무가 아니라 일어남의 유무.
- 집의 세 국면: 세워지는 집(3절)·지켜지는 집(15절)·순서를 기다리는 집(27절), 그리고 반대편의 무너진 돌담(3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2절): 30잠언의 종결 묶음 — 부러움 금지, 지혜의 건축, 전략, 성문의 침묵, 환난 날의 힘, 건져 냄과 마음의 저울, 풀, 일곱 번의 일어남, 원수의 몰락 앞의 절제, 여호와와 왕 경외.
- 컷 2 (23~29절): 넷째 모음 — 표제(23a), 재판의 공정, 입맞춤 같은 대답(26절), 일의 순서(27절), 까닭 없는 증언과 사적 보복의 말 금지.
- 컷 3 (30~34절): 게으른 자의 밭 목격담 — 지나며 봄, 가시덤불·거친 풀·무너진 돌담, 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보고 훈계를 받음, "좀 더 자자"의 인용, 강도같이 오는 빈궁.
- 컷 3 내부의 사다리: 봄(30절) — 본 것의 목록(31절) — 마음에 둠·배움(32절) — 격언이 됨(33~34절). 관찰이 본문이 되기까지의 공정이 네 단으로 노출.
- 33~34절은 6:10-11과 거의 같은 후렴 — 6장에서는 스승의 훈계 끝에, 24장에서는 목격자의 깨달음 끝에 음. 같은 결론에 닿는 두 길.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echokhmah yibbaneh*(בְּחֹכְמָה יִבְנָנֶה) — 지혜로 건축되고. 수동형 — 집이 지혜에 의해 세워짐. 3절.

- *tevunah*(תְּבוּנָה) — 명철. 3절. / *tachbulot*(תַּחְבּוּלוֹת) — 지략·조종술. 6절, 1:5와 동일어.
- *hitrappita*(הִתְרַפֵּיתָ) — 낙담하면. *rafah*(רָפָה) (느슨해지다)의 재귀형. 10절. / *yom tsarah*(יוֹם צָרָה) — 환난 날. 10절.
- *tokhen libbot*(תִּכְהֵן לְבוֹת) — 마음들을 저울질 하시는 이. *takan*(תָּקַן) (달다·재다) 계열, 16:2·21:2의 감찰 동사와 동계. 12절.
- *devash*(דְּבַשׁ) — 꿀, *nofet*(נִפֶּת) — 송이꿀. 13절. / *acharit*(אַחֲרִית) — 장래, *tikvah*(תִּקְוָה) — 소망. 14·20절.
- *sheva yippol*(שֶׁבַע יִפּוֹל) —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vaqam*(וָקַם) — 그리고 일어난다. 16절.
- *al-tismach*(אַל־תִּשְׁמָח) — 즐거워하지 말라. 17절. / *shonim*(שׁוֹנִים) — 개역 '반역자', '변하는 자들'로 읽히는 형태. 21절.
- *gam eleh lachakhamim*(גַּם־עֵלֶּה לַחֲכָמִים) — 이것들도 지혜자들에게 (속한 것). 23a절 표제.
- 26절 직역 — "바른 말로 대답하는 이는 입술에 입맞춘다(sefatayim yishshaq)". *nashaq*(נָשַׁק) (입맞추다) 어근.
- *atsel*(עֲצֵל) — 게으른 자. 30절. / *charul*(חָרוּל) — 거친 풀. 31절. / 돌담은 *geder avanim* 계열. 31절.
- *laqachti musar*(לָקַחְתִּי מוֹסֵר) — 훈계를 받았노라. *musar*는 1:2에서 책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단어. 32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두 문패의 짝: 22:17("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24:23a("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 30잠언 (22:17~24:22)과 부록 모음(24:23~34)을 각각 여는 표제. 25:1의 히스기야 표제 직전, 책의 큰 이음매.
- 30~34절의 관찰 사다리: 보다(*ra'ah*) — 마음에 두다(*shit lev*) — 훈계를 받다(*laqach musar*) — 격언으로 진술되다. 관찰 학습의 공정 노출.
- 봄(*ra'ah*)의 네 갈래: 부러워하는 봄(1절) — 엿보는 봄(15절) — 기뻐하며 보는 봄(17~18절, 여호와께서 보심과 겹침) — 배우는 봄(30~32절).
- 16절 대구의 동사 비대칭: 의인은 넘어지고-일어나고(들), 악인은 엎드려진다(하나).
- 12절과 29절의 보은 동사 — 하나님의 선언과 사람의 금지로 갈라지는 배치.
- 33~34절 후렴은 6:10-11의 재현 — 개미 단락과 밭 단락이 같은 결론을 공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22:17~24:22 묵음과 이집트 아메네모페의 교훈(30장 구성)의 형식·주제 닿음 — 22:20 '삼십' 표기와 함께 널리 논의됨 — 배경.
- 성문(7절) — 재판·공론·장로 회집의 공공 공간. 미련한 자의 침묵이 갖는 사회적 무게의 배경.
- 포도원 돌담(31절) — 유다 구릉 계단식 농경의 마른돌 쌓기. 무너진 채 있음 = 오랜 방치의 표지.
- 꿀·송이꿀(13절) — 고대 근동의 귀한 단맛이자 약재. 교육 은유의 물질 배경.
- LXX: 24:22 뒤에 왕에 관한 추가 행(22a~e), 그리고 22:17~24:22 뒤에 30:1-14을 먼저 두고 24:23-34을 나중에 배치하는 모음 재배열 — 24:23a가 편집 이음새임을 보여 주는 번역 전통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4:3-4 ↔ 잠 9:1 · 14:1 (지혜와 집 짓기 — 능동의 지혜에서 수동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집으로)
- 잠 24:33-34 ↔ 잠 6:6-11 (같은 후렴 — 개미 단락과 밭 단락)
- 잠 24:30-34 ↔ 잠 7:6-23 (1인칭 목격 양식 — 창틈의 관찰과 길 위의 관찰)
- 잠 24:19 ↔ 시 37:1 (행악자로 말미암아 불평·분 품지 말라)

- 잠 24:29 ↔ 잠 20:22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 잠 24:17 ↔ 욥 31:29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음)
- 잠 24:12 ↔ 잠 16:2 · 21:2 (마음·심령을 다시는 여호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두운 방, 창밖 악인의 행렬을 좇는 한 젊은이의 눈 — 음성이 그 시선을 거뒀들이다. "부러워하지 말며." 집 한 채가 올라간다 — 지혜로 기둥이 서고 명철로 들보가 얹히고 지식으로 방마다 보배가 들어찬다. 전쟁의 장막에서 모사들이 지도를 짚고, 성문 앞에서 미련한 자가 입을 열지 못한다. 끌려가는 행렬과 고개를 돌리는 사람, 그 위로 떠오르는 마음의 저울. 식탁의 송이꽃 — "내 아들이라 먹으라."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지고 일곱 번 일어난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려는 입가가 멈춘다. 재판정의 낮들, 입맞춤 같은 바른 대답, 받을 먼저 같고 서야 놓이는 주춧돌. 그리고 한낮의 길 — 한 사람의 걸음이 느려지고 멈춘다. 가시덤불, 거친 풀, 무너진 돌담. 긴 바라봄.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담 너머의 음성 —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길 끝에서 다가오는 강도와 군사의 실루엣.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걸음이 멈춘 발 — 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훈계를 받다"
- 초별 부제: "30잠언이 닫히고 넷째 모음이 열리는 이음새에서, 지혜의 건축학(24:3-4)과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의인(24:16)과 방관을 해체하는 마음의 저울(24:11-12)을 지나, 무너진 돌담 앞의 한 사람이 관찰로 훈계를 받는다(24:30-34)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문패의 편집 구조 + 관찰 사다리 + 16절 동사 비대칭 + 아메네모페 배경 + LXX 재배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4:11-12의 구출 명령을 현대적 사회 참여 강령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변명을 해체하는 마음의 저울이라는 본문 내 구도 관찰로만 둬.
- 24:16의 일곱 번 넘어짐을 회복 보장의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동사 비대칭 관찰로 보존.
- 24:18의 "진노를 옮기실까"를 신학적 판정으로 닫지 않고 미해결로 이월.
- 30~34절의 목격담을 근면 설교로 바꾸지 않고, 관찰이 훈계가 되는 학습 공정의 노출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4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24:1)로 30잠언의 마지막 묶음을 열어 지혜의 건축학("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24:3-4), 전략의 힘(24:5-6), 방관을 해체하는 마음의 저울(tokhen libbot, 24:11-12), 꿀의 교육학(24:13-14),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의인(sheva yippol vaqam, 24:16), 원수의 몰락 앞의 절제(24:17-18)를 지나 여호와와 왕 경외(24:21-22)로 닫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24:23a)라는 새 표제 아래 재판의 공정과 일의 순서학(24:27)과 사적 보복의 말 금지(24:29)를 둔 뒤, 게으른 자의 발을 지나며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24:32)라고 적는 1인칭 목격담(24:30-34)으로 마치는 — 관찰이 훈계가 되는 장이다.

한 문단: 어두운 방에서 한 젊은이의 눈이 창밖 악인의 행렬을 쫓는다. 음성이 그 시선을 거둬들인다 — 부러워하지 말며. 집 한 채가 올라간다. 지혜로 기둥이 서고 명철로 들보가 얹히고 지식으로 방마다 보배가 들어찬다. 끌려가는 행렬 곁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 위로 마음의 저울이 떠오르고, 식탁에는 송이꿀이 놓인다 — 내 아들이 먹으라.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지고 일곱 번 일어난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려던 입가가 멈춘다. 재판정의 낮들과 입맞춤 같은 바른 대답을 지나, 발을 먼저 갈고서야 주춧돌이 놓인다. 그리고 한낮의 길 — 한 사람의 걸음이 멈춘다. 가시덤불이 발 전부에 퍼졌고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그가 오래 바라본다. 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보고 훈계를 받는다. 담 너머에서 "좀 더 자자"는 음성이 들리고, 길 끝에서 강도와 군사의 실루엣이 다가오며 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훈계의 방 → 재판정 → 밭과 집터 → 길의 네 무대. 보배로 채워지는 방 對 가시로 덮이는 밭. 한 장 안을 지나가는 모음집의 경계.
2 첫 느낌·분위기	빳빳한 금지 가운데 풀리는 "꿀을 먹으라". 경구의 속도에서 보행의 속도로 늦춰지는 꿀. 일곱 갈래 "말라" 한가운데서 뛰는 "건져 주며".
3 시작과 끝	남을 부러워하는 눈에서 자기 발을 보는 눈으로. 명령("말지어다")에서 예고("이르리라")로. acharit(장래)의 긍정·부정 양면 배치.
4 등장인물·사상	마지막 다섯 절에서 처음 무대에 오르는 1인칭 관찰자. '값다'의 주어가 하나님(12절)으로 선언되고 사람(29절)에게서 금지됨. 16절 동사 비대칭 — 일어남이 의인의 표지.
5 장면 컷	30잠언 종결(1~22)/넷째 모음(23~29)/밭 목격담(30~34) 3컷. 컷 3의 사다리: 봄—마음에 둠—배움—격언.
6 의문·발견·정보	22:17↔24:23a 두 문패. laqachti musar — 1:2의 약속어가 32절의 고백어로. 봄의 네 갈래. 아메네모페 배경과 LXX 재배열.
7 동영상	거둬들여진 시선 → 세워지는 집 → 마음의 저울 → 송이꿀 → 일곱 번의 일어남 → 멈춘 걸음과 무너진 돌담 → 다가오는 강도의 실루엣,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걸음이 멈춘 밭 — 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훈계를 받다"
9 기도·내면	내 눈이 부러움·옛봄·고소함에 머물렀는지, 배움에 머물렀는지만 비취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절

1. **절 1 — 보다, 네 갈래의 눈:** 같은 동사가 한 장에서 네 번 다른 길을 간다. 부러워하는 봄(1절), 엿보는 봄(15절), 원수의 몰락을 고소하며 보는 봄(17절), 그리고 배우는 봄(30~32절). 그 가운데 여호와와 봄(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과 저울질(12절)이 놓여 — 사람의 모든 봄이 보여지고 있다는 구도가 선다. 24장의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같은 눈이 어디에 머무는가.

2. **절 2 — musar, 약속어에서 고백어로:** 1:2는 이 책의 목적을 "지혜와 훈계(musar)를 알게 하며"라고 선언했다. 24:32에서 한 사람이 스승 없이, 무너진 돌담 하나를 오래 바라본 끝에 말한다 — laqachti musar,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책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학습자가 마침내 자기 눈으로 가져가는 순간이며, 보다 — 마음에 두다 — 배우다의 사다리가 그 공정을 네 단으로 노출한다. 6:10-11의 후렴이 24:33-34에서 재현되는 것은 우연한 중복이 아니라, 스승에게 들은 결론과 자기 눈으로 도달한 결론이 같은 문장에서 만나는 표지다.

3. **절 3 — 넘어짐과 일어남의 비대칭:**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16절). 의인 쪽 동사는 둘이고 악인 쪽 동사는 하나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표지가 넘어짐의 유무가 아니라 일어남의 반복으로 그려진다. 절의 두 절이 이 비대칭에 깊이를 더한다 — 10절은 환난 날에 스스로 풀려 버리는 일(hitrappita)을 경고하고, 17절은 남의 넘어짐을 기뻐하는 일을 금한다. 넘어짐 앞에서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 그것이 24장이 계속 들여다보는 한 가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9:1 · 14:1 — 지혜가 집을 짓고 여인이 집을 세움 — 24:3의 수동형 yibbaneh에서 사람의 집이 지혜로 세워지는 변주로.
- 잠 6:6-11 — 개미에게 가라는 훈계와 같은 후렴(6:10-11 = 24:33-34) — 들은 결론과 본 결론의 합류.
- 잠 7:6-23 — 창틈의 1인칭 관찰 — 24:30-34와 같은 목적 양식.
- 시 37:1 —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 24:19와 같은 권면의 시가서 짝.
- 잠 20:22 —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 24:29의 사적 보복 금지와 호응.
- 욥 31:29 — "내 원수의 멸망을 기뻐했던가" — 24:17의 절제가 욥의 자기 변호 목록에도 놓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의 금지에서 시작한다 — 내 눈이 오늘 누구의 행동을 좇고 있었는지 떠오른다.
- **멈춤 1:** 11~12절에서 멈춘다 —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준비해 둔 변명 하나가 저울 위에 놓인다.
- **멈춤 2:** 16절에서 멈춘다 — 일곱 번. 넘어진 횡수를 세던 손가락이 일어난 횡수를 세기 시작한다.
- **끝:** 32절에서 멈춘다 — 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훈계를 받는다. 오늘 지나친 것들 가운데 내 발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30잠언 종결(1~22)·넋째 모음(23~29)·발 목격담(30~34)의 세 단 완결
- [x] 22:17↔24:23a 두 표제의 편집 구조 기록
- [x] 봄(ra'ah)의 네 갈래 분포
- [x] 16절 동사 비대칭과 10·17절의 호응
- [x] 12절·29절 보응 동사의 주어 배치
- [x] 33~34절 후렴과 6:10-11의 재현 관계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24장은 둘째 국면의 한 매듭이다 — 22:17에서 열린 30잠언이 여기서 닫히고, 넷째 모음의 표제가 지나가고, 25:1의 히스기야 편집 표제 직전에 선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4장은 1:7의 모토가 일상의 동사들로 번역되어 온 긴 구간의 끝에서, 학습의 완성형 하나를 내놓는 지점이다 — 들은 훈계가 아니라 스스로 받는 훈계.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24:32)는 잠언이 길러 내려던 사람의 자화상이며, 21절의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는 1:7의 모토가 30잠언의 마지막 호명("내 아들이") 안에서 한 번 더 울리는 소리다. 그리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의인(24:16)은 두 길 인간학의 결정판으로 — 의의 길이 무결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권 전체의 대구들이 여기서 한 문장으로 받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러워하는 눈(24:1)에서 배우는 눈(24:32)으로 / 들은 훈계에서 스스로 받는 훈계(laqachtī musar)로 / 넘어짐의 횃수에서 일어남의 반복(sheva yippol vaqam)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4장은 시선의 회복 운동이다. 같은 '보다'가 부러움과 엿봄과 고소함을 통과해 마침내 훈계를 받는 통로가 되기까지 — 1절에서 거뒀던 눈이 32절에서 멈춰 서서 오래 바라보는 눈이 되기까지. 다만 이 도착은 종착이 아니라 넘김이다. 24장에서 자기 눈으로 musar를 가져간 학습자의 양식은 30장 아굴의 "내가 본즉" 관찰들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겨 적은 솔로몬의 잠언(25~29장)이 들어선다. 24장의 벡터는 잠언 후반부 전체를 '듣는 책에서 보는 사람으로'라는 방향으로 미는 운동의 첫 매듭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 금지의 목록이다 — 부러워 말고, 고소해하지 말고, 갇혔다 말하지 말라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타자를 향한 마음의 두 축이 움직인다. 한 축은 11~12절의 적극이다 —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내라, '몰랐다는 말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다른 축은 17~18절의 절제다 — 원수가 무너질 때조차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손은 뻗고 입꼬리는 거두라는, 방관도 고소함도 허락하지 않는 이 울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 마음의 기쁨과 외면의 순간 — 까지 보시는 한 시선을 전제로 선다. 보응은 그 시선의 몫이다(12절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29절은 같은 동사를 사람의 입에서 거둔다 — 갇혔다 말하지 말지니라. 24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은 이것이다: 갇힘이 하나님께 속할 때에만 사람은 건져 내는 손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 — 보복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타자 앞에서 자유롭다는 구도가, 경구들 밑을 조용히 흐르고 있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오늘도 많은 것을 지나치며 보았다 — 그 가운데 걸음을 멈추고 오래 바라본 것이 있었는가. 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훈계를 받은 적이 언제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게으른 자를 꾸짖는 데 다섯 절을 쓰지 않는다 — 그 발을 지나간 한 사람의 눈에 다섯 절을 쓴다. 가시덤불과 무너진 돌담은 비웃음의 소재가 아니라 배움의 교재가 되고, 목격자

는 정죄 대신 자기 훈계를 가져간다. 그리고 그가 받은 훈계(33~34절)는 읽는 이에게 그대로 넘어온다 —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는 음성이 누구의 담 안에서 들리는지 본문은 끝내 지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너진 돌담은 언제나 남의 밭에서 먼저 보인다. 24장은 그 봄을 자기 밭으로 데려가는 한 걸음 — 보고 생각이 깊어지는 멈춤 — 으로 읽는 이를 부른다. 그 멈춤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자기 눈으로 훈계를 받는 법을 배운 사람 앞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겨 적은 솔로몬의 잠언이 새 두루마리로 펼쳐진다 —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25:2).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aqachti musar* —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미해결 질문

잠언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4:11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누구인가 — 오판으로 끌려가는 피고인가, 위협에 빠진 이웃 일반인가?

- 본문은 끌려가는 이들의 얼굴을 그리지 않는다.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명령의 폭이 닫히지 않는 효과까지 함께 보존.

Q2. 24:18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 옮겨진 진노는 어디로 가는가?

- 원수의 몰락을 기뻐하지 말라는 이유로 제시된 이 절이 경고인지 하나님의 마음 묘사인지, 본문은 문장을 멈춘 채 열어 두지 않는다. 미해결로 보존.

Q3. 24:10의 낙담(*hitrappita*)과 24:16의 일곱 번 넘어짐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 넘어짐은 허락되고 풀려 버림은 경고된다 — 그 사이의 선을 본문이 긋지 않는다. 두 절의 공존 자체를 보존.

Q4. 24:21의 *shonim*(개역 '반역자')은 누구인가 — 변혁을 꾀하는 자인가, 변덕스러운 자인가?

- '변하다(*shanah*)' 계열로 읽히는 이 분사의 지시 대상이 정치적 반역인지 이중적 처신인지 형태만으로는 닫히지 않는다. 번역 차이와 함께 보존.

Q5. 24:23a의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 이 지혜자들은 누구이며 22:17의 묵음과 어떤 관계인가?

- 두 표제가 같은 무리의 두 모임인지 다른 전승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25:1의 히스기야 표제와 함께 편집 차원의 질문으로 이월.

Q6. 24:30-34의 '나'는 누구인가 — 30잠언의 스승인가, 부록의 지혜자인가, 책 전체의 편집자인가?

- 잠언에서 드문 1인칭 목격담의 화자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7:6의 관찰자와 같은 인물인지 본문은 답하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5장

PRO-025 · 시가서 · 히브리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heetiqu* — 옮겨 적은) 솔로몬의 잠언"(25:1)이라는 표제 아래,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영화와 일을 살피는 왕의 영화(25:2)가 나란히 놓이고 — 금 사과·얼음 냉수·핀 숯·성벽 없는 성읍의 직유들이 보석함처럼 차례로 열리는, 약 250년을 건너 보존된 히스기야 모음의 개막.

관찰된 사실

잠언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접친 두 무대: 솔로몬의 궁정과 약 250년 뒤 히스기야의 서기관 방(25:1) — 옛 두루마리를 옮겨 적는 손들.
- 본문 내부의 무대 행렬: 왕궁(2~7절) → 법정·이웃 사이(8~10절) → 장색의 공방(4·11~12절) → 추수 들판(13절) → 식탁(16·21~22·27절) → 이웃집 문 앞(17절) → 비·북풍의 거리(14·23절) → 움막(24절) → 기별이 닿는 문(25절) → 우물가(26절) → 성벽 무너진 성읍(28절).
- 소품(빛나는 것): 은과 찌꺼기·장색의 그릇(4절), 아로새긴 은 쟁반과 금 사과(11절), 금 고리·정금 장식(12절), 얼음 냉수(13절), 냉수(25절).
- 소품(아픈 것): 방망이·칼·뽀족한 화살(18절), 부러진 이·위골된 발(19절), 추운 날 벗는 옷·소다 위 식초(20절), 비 없는 구름(14절), 흐려진 우물·더러워진 샘(26절), 성벽 없는 빈 터(28절).
- 직유 표지 "같으니라·같고·같아서"가 11절 이후 거의 매 절에 반복 — 그림 행과 사실 행의 짝.
- 온도·맛의 소재: 얼음(13절)·추위(20절)·핀 숯(22절)·냉수(25절) / 꿀(16·27절)·식초(2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보석함을 여는 느낌 — 절마다 작은 그림 하나씩.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림이 아파지고(부러진 이·벗겨지는 옷), 마지막은 폐허(28절)로 닫힘.
- 표제가 만드는 작업실 공기 — 250년 묵은 말을 한 글자씩 받아 적는 경건한 느낌. 15절의 "오래 참으면"과 공명.
- 피부에 번갈아 닿는 온도 — 서늘함(13절)·추위(20절)·뜨거움(22절)·다시 서늘함(25절).
- 직유의 리듬 — 그림 행이 수수께끼처럼 당기고 사실 행이 해답처럼 풀어 주는 반복.
- 몽타주 연출 — 컷마다 장소가 점프하지만 '그림 먼저, 사실 나중'의 문법이 일관되게 화면을 잡아 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heetiqu*) 것이니라."
-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 시작은 보존(옛 말이 옮겨 적혀 살아남음), 끝은 붕괴(키쳐지지 않은 내면) — 말의 보존과 마음의 무너짐이 양 끝에서 대비.

- 무대 이동: 글자가 쌓이는 서기관의 책상 → 돌이 무너져 내린 빈 터.
- 2절(일을 숨김 — 안에 듬의 영광)과 28절(제어하지 못함 — 안에 거두지 못한 마음)의 호응.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히스기야의 신하들(1절), 하나님과 왕(2절), 장색(4절), 악한 자(5절), 대인들과 귀인(6~7절), 다투는 이웃(8~10절), 슬기로운 책망자와 청종하는 귀(12절), 충성된 사자와 보낸 이(13절), 거짓 자랑하는 자(14절), 관원(15절), 거짓 증거자(18절), 진실하지 못한 자(19절), 마음 상한 자와 노래하는 자(20절), 배고픈 원수(21절), 참소하는 혀(23절), 다투는 여인(24절), 굴복한 의인과 악인(26절),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28절).
- 중심 사상: 25:2 —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kavod),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숨기심과 살핌이 같은 *davar*를 사이에 두고 둘 다 영광으로 불림.
- 4~5절 평행 명령: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 제련과 정치가 같은 동사로 묶임.
- 꿀 인클루지오: 16절("죽하리만큼 먹으라")과 27절("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이 후반부를 감쌌 — 좋은 것의 분량학.
- 12절 — 책망이 장신구가 되려면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귀 두 사람이 필요한 한 쌍 구조.
- 15절 *erekh appayim*(오래 참음)은 출 34:6의 여호와 자기 선언 어휘가 사람의 인내에 적용된 사례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표제 —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겨 적은 솔로몬의 잠언.
- 컷 2 (2~7절): 왕 연작 — 두 영화(2절), 측량할 수 없는 왕의 마음(3절), 은의 찌꺼기와 왕 앞의 악인(4~5절), 낮은 좌석의 지혜(6~7절).
- 컷 3 (8~10절): 다툼의 절제 —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 것, 남의 은밀한 일 누설 금지.
- 컷 4 (11~15절): 말의 공예 — 금 사과(11절), 금 고리(12절), 얼음 냉수(13절), 비 없는 구름(14절), 뼈를 꺾는 부드러운 혀(15절).
- 컷 5 (16~20절): 과잉과 어긋난 때 — 꿀의 한도, 드문 발걸음, 방망이 같은 거짓 증거, 부러진 이, 상한 마음 결의 노래.
- 컷 6 (21~28절): 원수의 식탁(21~22절)에서 북풍·움막·기별·흐려진 샘·꿀의 재등장을 지나 성벽 없는 성읍(28절)까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heetiqu*(הֶעֱתִיקוּ) — 옮겨 적다. *atak*('옮기다·이동시키다') 어근의 사역형. 1절.
- *kavod*(כְּבוֹד) — 영화·무게. 2절에 2회, 27절에 재등장. / *haster davar*(הָסֵת דָּבָר) — 일을 숨김 / *chaqor davar*(חָקַר דָּבָר) — 일을 살핌. 같은 *davar*에 반대 동사. 2절.
- *sigim*(סִיגִים) — 은의 찌꺼기. 4절.
- *tappuche zahav*(תַּפְּחוֹת זָהָב) — 금 사과 / *maskiyyot kasef*(מַסְכִּיּוֹת כֶּסֶף) — 아로새긴 은 세공. *maskiyyot*는 '새김·조각 장식'으로 풀리는 드문 단어. 11절.
- *nezem zahav*(נֶזֶם זָהָב) — 금 고리. 12절. / *tsinat sheleg*(צִנַּת שֵׁלֶג) — 눈의 서늘함, 개역개정 '얼음 냉수'. 13절.
- *erekh appayim*(עֶרֶךְ אַפַּיִם) — 오래 참음, 직역 '코가 깊'. / *lashon rakkah*(לָשׁוֹן רַכָּה) — 부드러운 혀. 15절.

- *devash*(דֵּבַשׁ) — 꿀. 16·27절. / *gechalim*(גְּחָלִים) — 핀 숯. 22절.
- *ruach tsafon*(רוּחַ צָפוֹן) — 북풍. 23절. / *mayim qarim*(מַיִם קָרִים) — 냉수. 25절.
- *maayan nirpas*(מַעְיָן נִרְפָּא) — 흐려진 샘. 26절. / *ir perutsah*(עִיר פְּרוּצָה) — 무너진 성읍, *ein chomah*(עֵין חֹמָה) (성벽 없는)가 뒤따름. 2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표제(1절) + 왕 연작(2~7절) + 다툼 훈계(8~10절) + 직유 행렬(11~28절) — 11절 이후 열네 절 안팎이 직유 형식인 고밀도 구간.
- 표상 평행법: 그림(자연·사물·몸)과 사실(말·관계·내면)을 짝으로 붙이는 형식이 25~27장에 공유됨 — 25장은 그 개막.
- 잠언의 표제 이음매: 1:1 · 10:1 · 22:17 · 24:23 · 25:1 · 30:1 · 31:1 — 책이 모음들의 단계적 결합임을 본문 스스로 밝힘.
- 4~5절 평행 명령(제련/정치), 6~7절 비교 잠언("~보다 나음이니라"), 16·27절 꿀 인클루지오.
- 24절은 21:9의 거의 그대로의 재현 — 모음 사이에 같은 격언이 중복 보존된 사례.
- 28절은 16:32와 성(城) 그림으로 짝 — 마음 다스림(정복 이상)과 마음 방치(성벽 잃은 폐허)의 양면.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히스기야 시대(주전 8세기 말) 유다 왕궁의 서기관 행정 — 옛 문헌 수집·필사 문화가 25:1 표제의 사회적 배경.
- 이집트 교훈문학의 필사 전통 — 지혜 본문이 서기관 훈련 교재로 세대를 건너 복사되던 관행 — 배경.
- 금·은 세공 — 근동 귀금속 공예가 11~12절 은유의 물질 배경.
- 추수기의 눈·얼음 — 산지의 눈을 음료 냉각에 썼다는 관행이 거론됨(13절). 26:1의 "여름의 눈"과 방향이 다름.
- 성벽 — 고대 도시 방어의 핵심 구조. 성벽 없는 성읍은 무방비의 그림(28절).
- LXX: 25:1의 '신하들'을 *hoi philoi*(친구들)로, 25:20을 '상처에 식초' 계열로 — 배경.
- 탈무드 바바 바트라 15a — "히스기야와 그의 동료들이 이사야·잠언·아가·전도서를 기록했다"는 후대 전승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5:6-7 ↔ 눅 14:8-10 (혼인 잔치의 낮은 좌석 — "이리로 올라오라"와 닿는 비유)
- 잠 25:21-22 ↔ 롬 12:20 (원수 환대 — LXX 본문 그대로의 인용)
- 잠 25:28 ↔ 잠 16:32 (마음 다스림과 성의 그림 — 정복과 붕괴의 양면)
- 잠 25:24 ↔ 잠 21:9 (다툼하는 여인 — 모음 간 중복 보존)
- 잠 25:13 ↔ 잠 26:1 (추수 날의 눈 對 여름의 눈 — 같은 물질의 두 방향)
- 잠 25:11 ↔ 잠 15:23 (경우에 합당한 말 — 때에 맞는 말의 앞선 올림)
- 잠 25:20 ↔ 욥 2:13 (마음 상한 자 걸 — 이레의 침묵이 비추는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등불 켜진 서기관의 방 — 오래된 두루마리 위로 여러 손이 한 글자씩 옮겨 적는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화면이 왕궁으로 열린다. 높은 하늘과 깊은 땅 사이 측량할 수 없는 왕의 마음, 도가니에서 걷히는 찌꺼기, 잔치 끝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들리는 음성 — "이리로 올라오라." 공방에서 은쟁반 위에 금 사과가 놓이고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가 걸린다. 추수 들판의 주인이 사자가 가져온 얼음처럼 서늘한 물을 들이켜고, 하늘에는 비 없는 구름이 바람과 함께 지나간다. 식탁의 꿀단지 앞에서 손이 멈칫 물러서고, 거리에는 방망이와 칼과 화살 같은 말들이 날아다닌다. 추운 날 옷이 벗겨지고 소다 위에 식초가 부어진다. 그리고 원수의 식탁 — 음식과 물이 차려지고 머리 위에 숯불이 조용히 얹힌다. 북풍이 비를 몰고, 먼 길을 달려온 기별에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신다. 마지막 화면 — 성벽 무너진 성읍의 빈 터에 바람만 지나간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직유의 보석함 — 금 사과에서 성벽 없는 성읍까지"
- 초벌 부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겨 적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 아래, 숨기시는 하나님의 영화와 살피는 왕의 영화가 나란히 서고, 금 사과·얼음 냉수·핀 숯·무너진 성벽의 직유들이 지혜를 일상의 감각으로 번역하는 히스기야 모음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히스기야 모음 표제 + 직유 밀도 + 4~5절 평행 + 꿀 인클루지오 + 서기관 문화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5:21-22의 핀 숯을 특정 해석(수치심으로 회개 유도·심판 강화 등)으로 봉합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 25:2의 '살피는 영화'를 SBM 관찰 방법의 근거 본문으로 격상하지 않고, 공명의 기록으로만 둬.
- 원수 환대(25:21-22)를 보편 윤리 강령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의 명령·직유·약속 구조 관찰에 머물.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5장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heetiqu) 것이니라"(25:1)라는 표제로 약 250년을 건넌 보존의 이력을 밝힌 뒤,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영화와 일을 살피는 왕의 영화(25:2)를 나란히 세우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평행 명령(25:4-5)과 낮은 좌석의 지혜(25:6-7)를

지나,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25:11)에서 추수 날의 얼음 냉수(25:13), 뼈를 꺾는 부드러운 혀(25:15), 원수의 머리에 놓이는 핀 숯(25:21-22), 먼 땅의 기별 같은 냉수(25:25)를 거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 없는 성읍 같다(25:28)는 그림으로 닫히는 — 직유의 고밀도 구간을 여는 히스기야 모음의 개막이다.

한 문단: 등불 켜진 방에서 이름 없는 손들이 오래된 두루마리를 옮겨 적는다. 화면이 왕궁으로 열리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사이에 측량할 수 없는 왕의 마음이 놓이고, 도가니에서 찌꺼기가 걷히며, 잔치 끝 좌석의 사람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닿는다. 공방에서는 은 쟁반 위에 금 사과가, 청종하는 귀에는 금 고리가 — 추수하는 들판에서는 충성된 사자가 가져온 얼음처럼 서늘한 물이 주인의 목을 적신다. 비 없는 구름이 지나가고, 꿀단지 앞에서 손이 물러서고, 추운 날 옷이 벗겨지고 소다 위에 식초가 부어진다. 그러다 원수의 식탁에 음식과 물이 차려지고 그 머리 위로 숯불이 얹힌다. 먼 길 끝의 기별에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고 — 마지막 화면, 성벽 무너진 성읍의 빈 터에 바람만 지나가며 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솔로몬의 궁정과 히스기야의 서기관 방이 겹친 이중 무대. 왕궁·공방·들판·식탁·움막·빈 터의 행렬. 금 사과 對 부러진 이 — 빛나는 소품과 아픈 소품.
2 첫 느낌·분위기	보석함을 여는 느낌이 폐허로 닫힘. 옮겨 적는 작업실의 경건한 느낌. 서늘함·추위·뜨거움이 번갈아 닿는 온도의 장.
3 시작과 끝	보존(1절)에서 붕괴(28절)로 — 말은 250년을 살아남았는데 마음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대비.
4 등장인물·사상	왕에서 무명의 한 사람까지 신분 전체가 등장. 중심 사상은 25:2의 두 영화 — 숨기심도 살핌도 kavod.
5 장면 컷	표제(1)/왕 연작(2~7)/다툼(8~10)/말의 공예(11~15)/과잉과 어긋난 때(16~20)/원수의 식탁에서 성벽까지(21~28)의 6컷.
6 의문·발견·정보	직유 밀도(11절 이후 열네 절 안팎). 표제의 이음매(1:1~31:1). 꿀 인클루지오(16·27절). 핀 숯·소다 위 식초의 미해결. 서기관 문화 배경.
7 동영상	옮겨 적는 손 → 왕궁과 도가니 → 공방의 세공 → 들판의 냉수 → 원수의 식탁과 숯불 → 성벽 없는 빈 터,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직유의 보석함 — 금 사과에서 성벽 없는 성읍까지"
9 기도·내면	분량과 때 — 좋은 것을 좋게 쓰는 기술. 일을 숨기심이 주의 영화라는 문장 앞에 다 알지 못한 채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heciqu, 보존의 이력:** 1절은 잠언이 한 번에 쓰인 책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모이고 옮겨 적힌 책임을 본문 스스로 밝힌다. 솔로몬의 말이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에게 옮겨 적힐 가치가 있는 살아 있는 말이었다는 것 — 표제 한 절이 지혜 전수의 250년 통로를 증언한다. 24절이 21:9를 거의 그대로 다시 싣는 현상은 그 보존 작업의 실물 흔적이다.

2. **결 2 — 직유, 추상의 번역술:** 합당한 말이 금 사과가 되고, 충성이 얼음 냉수가 되고, 인내가 뼈를 꺾는 부드러운 혀가 되고, 절제 없는 마음이 성벽 없는 성읍이 된다. 보이지 않는 덕과 결함이 전부 만질 수 있는 그림으로 옮겨지는 이 번역술이 25장의 문체이며, 2절의 살핌(chaqor) — 숨겨진 것을 캐어 형태를 입히는 일 — 과 같은 방향을 본다.

3. **결 3 — 꿀과 성벽, 분량학의 결구:** 16절과 27절의 꿀이 후반부를 감싸며 '좋은 것의 한도'를 묻고, 28절의 성벽 없는 성읍이 그 물음을 내면으로 가져간다. 한도를 모르는 입과 제어를 모르는 마음 — 16:32가 마음 다스림을 성을 빼앗는 정복 위에 두었다면, 25:28은 다스리지 못한 마음을 성벽 잃은 폐허로 그려 같은 진실의 뒷면을 보여 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눅 14:8-10 — 혼인 잔치의 낮은 좌석 비유. "이리로 올라오라"(25:7)와 "벗이여 올라왔으라"가 닿는다.
- 롬 12:20 —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 25:21-22의 LXX 본문 그대로의 인용. 핀 숲의 그림이 신약 윤리 한가운데로 옮겨진다.
- 잠 16:32 —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 25:28과 성(城)의 그림으로 짝.
- 잠 21:9 ↔ 25:24 — 다투는 여인 격언의 중복 보존. 편집 작업의 실물 흔적.
- 욥 2:13 — 마음 상한 자 결의 이레 침묵. 25:20(상한 마음 결의 노래)을 비추는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이름 없는 손들이 옮겨 적은 덕분에 내가 이 말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인다.
- **멈춤 1:** 2절에서 멈춘다 — 숨기시는 영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결핍이 아닐 수 있다는 문장 앞에 선다.
- **멈춤 2:** 11~12절에서 멈춘다 — 금 사과와 금 고리. 내 말이 언제 마지막으로 세공품이었는지, 내 귀가 언제 마지막으로 청종했는지 떠오른다.
- **끝:** 28절에서 멈춘다 — 성벽 없는 성읍. 보존된 말들을 다 읽고 난 마지막 질문이 내 내면의 담장 상태를 향한다.

F · 자족성 점검

- [x] 표제(1)·왕 연작(2~7)·다툼(8~10)·직유 행렬(11~28)의 구간 완결
- [x] 25:2 두 영화와 3절 측량 불가의 배열
- [x] 4~5절 평행 명령과 6~7절 비교 잠언의 형식 구분
- [x] 꿀 인클루지오(16·27절)와 냉수 두 잔(13·25절)의 호응
- [x] 21:9↔25:24 중복 보존과 16:32↔25:28 성 그림의 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향하는 호다(book-telos). 권의 흐름에서 25장은 일상의 대구 잠언 구간(10~29장) 안의 새 매듭 — 히스기야 모음(25~29장)의 개막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5:1은 작지만 무거운 증언이다. 지혜가 한 왕의 어록으로 끝나지 않고, 약 250년 뒤 다른 왕의 서기관들에게 옮겨 적힐 만큼 언약 백성의 삶 속에 살아 있었다는 것 — 말씀이 세대를 건너 보존·전수되는 통로가 정경 형성의 결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대 전승(탈무드 바바 바트라 15a)이 히스기야 일행을 잠언 기록자로 부르는 것도 이 표제의 긴 그림자다. 그리고 25:2의 두 영화는 그 보존된 말들이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보여 준다 — 다 보여 주지 않으시는 것이 영화이신 분, 그러면서도 살펴 찾는 인간의 수고에 왕의 품위를 부여하시는 분. 21~22절의 원수 환대가 롬 12:20으로 옮겨 적히는 것까지 포함하면, 25장은 옮겨 적힘(heftiqu)이라는 동사가 구약 안에서도, 구약에서 신약으로도 일어나는 통로의 장이다.

보존된 말(25:1)에서 지켜야 할 마음(25:28)으로 / 숨기시는 영화에서 살피는 영화로(25:2) / 추상의 덕에서 감각의 그림으로 — 직유의 번역술.

한 화살표로 좁히면, 25장은 '말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의 보고로 열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그림으로 닫는 운동이다. 보존과 붕괴 사이에서 직유들이 일한다 — 합당한 말·책망·충성·인내 같은 보이지 않는 덕을 금 사과·금 고리·냉수·부드러운 혀로 번역해, 듣는 사람의 하루 안에 들여보낸다. 다만 이 개막은 종결이 아니다. 26장이 미련한 자의 초상 연작으로, 27장이 친구와 면책의 그림들로 이어지며 직유의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 쪽으로 방향을 트는 중이다. 25장의 벡터는 히스기야 모음 전체를 '그림으로 빚어진 지혜'라는 결로 끌고 가는 첫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궁정 처세와 이웃 관계의 격언집이다 — 왕 앞에서 처신하는 법, 다투지 않는 법, 말을 고르는 법.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삶과 영광의 관계가 움직인다. 25:2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영광이라는 직관을 뒤집는다 — 숨기심이 하나님의 영화다. 동시에 모든 탐구가 불경이라는 반대 직관도 거부한다 — 살핌이 왕의 영화다. 이 두 문장 사이에서 인간의 위치가 정해진다: 다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살피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 3절이 곧바로 살핌의 한계를 말하는 배열은 그 살핌이 정복이 아니라 경외 안의 수고임을 지킨다. 그리고 이 장의 직유들 자체가 그 수고의 열매다 — 보이지 않는 것을 캐어 그림의 형태를 입히는 일. 또 하나의 물길은 분량이다. 꿀도, 발걸음도, 노래도, 영예의 추구도 — 좋은 것이 좋음을 유지하는 조건은 본질이 아니라 한도와 때에 걸려 있다. 16절의 "죽하리만큼"과 28절의 "제어"가 같은 물길 위에 있고, 그 물길의 끝에서 본문은 성벽이라는 마지막 그림을 보여 준다. 지혜는 결국 담장의 문제다 — 무엇을 들이고 무엇을 거를 것인가.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이름 없는 손들이 250년 묵은 말을 옮겨 적어 내게까지 도착하게 했다 — 나는 받은 말을 어디까지 옮기고 있으며, 내 마음의 성벽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서기관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보존의 이력(1절)과 붕괴의 그림(28절)을 한 장의 양 끝에 두어, 말을 지키는 일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한 짝임을 보게 한다. 그 사이에 놓인 직유들은 전부 일상의 물건이다 — 쟁반, 고리, 냉수, 꿀, 옷, 숯, 움막, 샘. 지혜가 멀리 있지 않고 식탁과 공방과 들판의 감각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한 마디의 말이 금 사과일 수도 방망이일 수도 있다는 것. 25절의 냉수가 불씨다 —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기다리는 갈증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이 장의 그림들은 한 잔씩 차례로 닿는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직유의 카메라가 이제 사람의 초상으로 방향을 튼다 —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라"(26:1)에서 시작되는 미련한 자 연작.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eetiqu* — 옮겨 적다, 세대를 건너는 보존.

미해결 질문

잠언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핀 숯(gechalim, 25:22)은 무엇인가 — 원수의 머리 위에 놓이는 그것은 심판인가, 부끄러움의 뜨거움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

- 환대의 명령(음식·물)과 숯불의 그림이 한 문장에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가 뒤따른다. 이 집트 참회 의식 배경설 등 여러 설명이 있으나 본문은 숯의 의미를 풀지 않는다. 해석 폭 전체를 미해결로 보존.

Q2. 25:27 하반절 —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의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MT의 어구(weheqer kevodam kavod)는 직역이 까다로운 난해 본문으로 알려져 있고 번역들이 갈린다. 꿀의 과식(상반절)과 어떤 평행을 이루는지도 열려 있다. 보존.

Q3. 25:2의 두 영화 — 사람의 살핍(chaqor)은 하나님의 숨기심(haster)을 거스르는 일인가, 받드는 일인가?

- 숨기는 것도 영화, 살피는 것도 영화라면 두 영광은 어떻게 한 davar 위에서 공존하는가. 3절이 곧바로 살핍의 한계(측량할 수 없는 왕의 마음)를 말하는 배열까지 포함해 미해결로 이월.

Q4. heetiqu(25:1) — 신하들이 한 일은 단순 복사인가, 선별과 배열을 포함한 편집인가?

- '옳게 적다'라는 동사 하나가 보존 작업의 성격(전부 베낌/골라 엮음)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 24절이 21:9를 거의 그대로 다시 신는 현상이 이 질문과 맞물린다. 보존.

Q5. 25:20의 소다(nether) 위 식초 — 본문이 그리는 물질 작용은 정확히 무엇인가?

- 거품이 일며 소다가 못 쓰게 되는 작용으로 흔히 설명되나, LXX는 '상처에 식초'로 옮겨 그림 자체가 갈린다. 상한 마음 결의 노래가 어느 쪽 그림으로 읽히는지 열어 둔다.

Q6. 추수하는 날의 눈(25:13)과 여름의 눈(26:1) — 같은 책 안에서 눈은 왜 한 번은 반가움이고 한 번은 어긋남인가?

- 13절은 눈의 서늘함을 충성의 직유로 반기고, 26:1은 여름의 눈을 미련한 자의 영예처럼 합당하지 않다 한다. 같은 물질의 두 방향이 직유 사용법에 관해 무엇을 보여 주는지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6장

PRO-026 · 시가서 · 히브리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26:1) 같다는 첫 액자 아래, "대답하지 말라"(26:4)와 "대답하라"(26:5)가 일부러 나란히 놓이고, 미련한 자·게으른 자 두 연작이 모두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26:12·16)이라는 한 우물로 수렴하며,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지는(26:27) — 잠언이 자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없음 — 서사가 아니라 초상화 전시실. 세 개의 방: 미련한 자(1~12절), 게으른 자(13~16절), 다툼·힘담(17~28절).
- 액자의 공통 구성: 왼쪽에 그림(직유), 오른쪽에 인물(적용), '같으니라'(ke... ken)가 경첩.
- 소품 약 19종: 여름의 눈·추수 때의 비(1절), 참새·제비(2절), 채찍·재갈·막대기(3절), 베인 밭(6절), 힘 없는 다리(7절), 물매와 돌(8절), 술 취한 손의 가시나무(9절), 개와 토한 것(11절), 사자(13절), 문짝·돌쩌귀(14절), 그릇의 손(15절), 개의 귀(17절), 횃불·화살(18절), 나무·숯불(20~21절), 별식(22절), 낮은 은 입힌 토기(23절), 함정·굴러오는 돌(27절).
- 몸의 부위가 밀집: 발·다리·등·손·입·입술·귀·뺨속 — 잠언이 몸에 그려짐.
- 1~12절에 kesil(미련한 자) 열한 번 — 잠언 내 최밀도 연작.
- 1절 어휘의 문패: kabod(영예, '무겁다'에서 옴) + naveh(어울리다) — '무게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그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웃다가 뜨끔해지는 공기 — 14절 돌쩌귀 직유의 웃음이 12절(거울)에서 구경꾼 좌석을 잃음.
- 화내지 않고 관찰만 하는 화가의 건조한 붓 — 건조함이 더 깊게 찌름.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5→12→16절로 반복되며 단계적으로 무거워짐.
- 감각의 혼합: 토사물(11절)·기름 묻은 손(15절)·가시나무(9절)의 불쾌 + 별식(22절)의 단맛.
- 4~5절이 '격언=공식'이라는 독자의 전제를 깨는 충돌 배치 — 안정이 아니라 긴장.
- nirgan(20절)의 어조 — 다툼이 폭발이 아니라 연소로 그려짐.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 28절: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 '어울리지 않음'(좋은 것의 오배달)으로 열고 '꾸민 입의 결말'로 닫음 — 장 전체가 겉과 속의 어긋남.
- 어미: "같으니라"(그림 제시) → "일으키느니라"(인과 단언). 전시로 시작해 판결로 닫힘.

- 카메라: 하늘의 날씨(광각)에서 사람의 입(접사)으로 줌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미련한 자(주연, 11회), 기별 맡기는 자(6절)·영예 주는 자(8절)·고용하는 자(10절), 게으른 자(13~16절), 남의 다툼에 끼어드는 자(17절),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18~19절), 말쟁이(20절), 다툼 좋아하는 자(21절), 남의 말 좋아하는 자(22절), 입술 꾸미는 원수(24~26절), 함정 파는 자·돌 굴리는 자(27절), 거짓 말하는 자·아첨하는 입(28절).
- 이 장에는 여호와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 — 사람과 사물의 그림만으로 28절이 구성됨. 관찰만.
- 중심 사상: '어울림'(naveh) — 영예·잠언·기별·대답·고용이 전부 '무엇이 누구에게 맞는가'의 저울로 다뤄짐.
- 4~5절 분석: 명령은 정반대, 이유 절의 위험이 서로 다름(4절 — 네가 갇힐 위험 / 5절 — 그가 갇힐 위험). 답이 아니라 저울을 주는 편집.
- 7·9절 쌍: 같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무력(저는 다리)에서 흥기(술 취한 손의 가시나무)로 격화.
- 12절 반전: 미련함 아래에 자기 확신이 있음. chakham be'enav('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 — 시야의 문제. 3:7의 명령과 같은 어구.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절): 미련한 자 연작 — 영예 액자(1·8절) 틀, 모순 쌍(4~5절) 중심, 입의 잠언 쌍(7·9절), 반복의 생리(11절), 반전 결구(12절).
- 컷 2 (13~16절): 게으른 자 연작 — 사자(13절)·돌쩌귀(14절)·그릇의 손(15절), 결구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김(16절).
- 컷 3 (17~22절): 다툼의 연료 — 개의 귀(17절), 햇불과 "농담"(18~19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짐(20절), 숯불 위의 숯(21절), 별식(22절).
- 컷 4 (23~28절): 덮은 미움의 끝 — 은 입힌 토기(23절), 일곱 가지 가증한 것(24~25절), 회중 앞 폭로(26절), 함정·돌의 자기 회귀(27절), 아첨하는 입의 패망(28절).
- 두 연작의 평행 결구: 컷 1과 컷 2가 다른 인물로 시작해 같은 도착점(자기 확신, 12·16절)에 수렴.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kabod(כָּבוֹד) — 영예. kaved(무겁다)에서 온 무게의 단어. 1·8절.
- naveh(נָוֶה) — 적당하다·어울리다. 1절. / sheleg(שֶׁלֶג) — 눈, qayits(קַיִץ) — 여름. 1절.
- kesil(כָּסִיל) — 미련한 자. '둔하다·군다'의 결. 1~12절에 11회. / iwwelet(אִוְוֵלֶת) — 어리석음. 4·5·11절.
- ke'kelev(כֶּקֶלֶב) — '개 같이'. 11절. 17절의 개와 함께 장 안에 개가 두 번.
- atsel(אֶצֶל) — 게으른 자. 13~16절. / delet(דֶּלֶת) — 문짝, tsir(צִיר) — 돌쩌귀. 14절.
- mitlahleah(מִתְלַחֵלֵה) — '미친 사람'(18절). 구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형태로 설명되는 드문 단어.
- nirgan(נִרְגָּן) — 말쟁이·수군대는 자. 20절(22절 평행). / kesef sigim(כֶּסֶף סִיגִים) — 낮은 은, 은의 찌꺼기. 23절.
- chakham be'enav(חָכָם בְּעֵינָיו) —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 5·12·16절. 3:7과 동일 어구. / peh chalaq(פֶּה חָלָק) — 매끄러운(아첨하는) 입. 2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세 연작 구성: 미련한 자(1~12) + 게으른 자(13~16) + 다툼·협담(17~28). 각 연작이 결구에서 진단으로 전환.
- 모순 쌍(4~5절)의 의도적 병치 — 잠언이 공식이 아니라 상황 분별의 기술이라는 편집의 자기 선언.
-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의 실: 5절(대답의 이유) → 12절(연작 1 결구) → 16절(연작 2 결구) — 두 연작을 한 우물로 수렴시킴.
- 격화 쌍: 7절(무력 — 저는 다리) → 9절(흥기 — 가시나무). 같은 주어("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의 2단 상승.
- 앞선 잠언의 재현: 26:13 ↔ 22:13(사자), 26:15 ↔ 19:24(그릇의 손), 26:22 ↔ 18:8(별식) — 수집·편집의 흔적.
- 20~21절 연료 대구: 연료 제거(불이 꺼짐) / 연료 공급(시비가 늙) — 다툼의 연료학.
- 27절 자기 회귀 구문: 판 함정에 빠지고 굴린 돌에 치임 — 행위가 행위자에게 돌아오는 인과가 장의 마지막 법칙.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물매(sling) — 근동 목동·군사의 투석 무기. 돌을 매어 두면 던질 수 없어 무용해짐 — 8절 직유의 물질 배경.
- 근동의 개 — 애완이 아니라 거리의 청소동물. 11절(토한 것)·17절(귀를 잡으면 뭍)의 사회 배경.
- 돌쩌귀 — 문짝을 끼워 회전시키는 축. 고대 가옥의 문 구조 배경(14절).
- 은 찌꺼기 유약으로 토기에 광택을 내던 도공 기법 — 23절의 공방 배경.
- 잠 25:1 히스기야의 신하들 — 왕실 서기관들의 잠언 수집·편집 관행. 25~29장 묶음의 편집 배경.
- 탈무드 샤바트 30b — 26:4~5의 표면 모순을 정경성 논의에서 다루고 영역 구분으로 조율 — 수용사 배경.
- LXX: 26:11 끝에 '부끄러움' 행 첨가(시락 4:21 평행), 26:10을 MT와 다르게 옮김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6:1-28 ↔ 잠 25:1 (히스기야 묶음의 표제 아래 놓인 장)
- 잠 26:4-5 — 모순 쌍의 병치 (탈무드 샤바트 30b의 수용사)
- 잠 26:12 ↔ 잠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 1~9장의 명령과 동일 어구)
- 잠 26:12 ↔ 잠 29:20 (말이 조급한 사람 —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동일 틀)
- 잠 26:13 ↔ 잠 22:13 / 잠 26:15 ↔ 잠 19:24 / 잠 26:22 ↔ 잠 18:8 (앞선 잠언의 재현)
- 잠 26:27 ↔ 시 7:15-16 · 전 10:8 (판 웅덩이에 빠지는 자기 회귀)
- 잠 26:11 ↔ 벨후 2:22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감 — 신약 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전시실 문이 열린다. 한여름 들판에 눈이 내리고 추수하는 손 위로 비가 쏟아진다 — 잘못 온 좋은 것들. 참새가 내려앉지 못하고 떠돌고, 채찍·채갈·막대기가 각자의 등을 찾는다. 화면이 둘로 갈라진다 —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 두 화면이 나란히 뜬 채 넘어가고, 저는 다리가 흔들리고 술 취한 손이 가시나무를 휘두른다.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온다. 마지막 액자는 거울이다 —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둘째 방, 빈 길을 두고 사자가 있다 외치는 목소리.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 돌고 침상의 몸이 같은 리듬으로 돈다. 그릇의

손이 입에 닿지 못한다. 셋째 방, 지나가던 손이 개의 귀를 잡고, 햇불 곁에서 "농담이었어"라는 웃음이 들린다. 장작 나르는 손이 멈추자 불이 사그라들고, 다른 손이 숯불에 숯을 더한다. 별식이 뱃속 깊이 내려간다. 넷째 방, 은빛 토기를 굽으니 흙이 나오고, 매끄러운 입술 뒤의 일곱 가지가 회중 앞에 드러난다. 함정을 파던 사람이 그 안에 떨어지고, 굴린 돌이 되돌아 내려온다. 아침하던 입 위로 불이 꺼진다.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여름에 내리는 눈 — 잠언이 자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장"
- 초별 부제: "여름의 눈 같은 영예(1절)로 열린 미련한 자 연작과 돌쩌귀의 게으른 자 연작이 '자기 눈에 지혜로움'(12·16절)이라는 한 우물로 수렴하고, 대답하지 말라/대답하라의 모순 쌍(4~5절)이 분별을 요구하며, 함정을 판 자가 거기 빠지는(27절) 자기 회귀의 법칙으로 닫히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연작 구성 + 모순 쌍 병치 + chakham be'enav 실 + 히스기야 편집 배경 + 탈무드 수용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6:4~5의 모순 쌍을 한쪽으로 봉합하는 해석(탈무드의 영역 구분 포함)을 채택하지 않고, 두 절의 병치 자체와 이유 절의 차이만 관찰로 보존.
- 26:11의 개 직유를 벰후 2:22의 신약 사용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교차 참조 노드로만 기록.
- 여호와와 이름이 이 장에 없다는 사실을 신학적 의미 부여 없이 본문 관찰로만 두고, 그 의도는 미해결 질문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26:1) 같다는 액자로 미련한 자(kesil) 연작(1~12절)을 열어 "대답하지 말라"(26:4)와 "대답하라"(26:5)의 모순 쌍을 한가운데 두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26:12)의 거울로 닫은 뒤, 돌쩌귀를 따라 도는 문짝 같은 게으른 자(atsel) 연작(13~16절)을 같은 결구 —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26:16) — 로 수렴시키고, 다툼의 연료화("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26:20~21)과 낮은 은을 입힌 토기(26:23)를 지나, 함정을

파는 자가 그것에 빠지는 자기 회귀의 법칙(26:27)과 아침하는 입의 패망(26:28)으로 마치는 — 잠언이 자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장이다.

한 문단: 전시실의 문이 열리면 한여름 들뜬눈이 내린다. 좋은 것이 틀린 곳에 도착하는 그림들 곁에서, 화면이 둘로 갈라진다 —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 두 명령이 나란히 걸린 채 관람이 이어진다. 저는 자의 다리처럼 힘 없는 격언, 술 취한 손의 가시나무가 된 격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개. 그리고 마지막 액자는 거울이다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둘째 방에서는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 돌고 침상의 몸이 같은 리듬으로 돈다. 셋째 방에서는 장작 나르는 손이 멈추자 불이 사그라들고, 별식이 뱃속 깊이 내려간다. 넷째 방의 은빛 토기를 굽으니 흙이 나오고, 함정을 파던 손이 그 안에 떨어지며, 아침하던 입 위로 전시실의 불이 꺼진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 없는 초상화 전시실. 세 개의 방(1~12/13~16/17~28). 두 폭 액자 구성과 약 19종의 소품. kesil 열한 번의 최밀도 연작.
2 첫 느낌·분위기	웃다가 거울을 만나는 공기. 건조해서 더 찌르는 풍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5→12→16절로 무거워짐. 역겨움과 단맛의 혼합.
3 시작과 끝	'어울리지 않는 영예'(1절)로 열고 '아침하는 입의 패망'(28절)으로 닫음. 하늘의 날씨에서 사람의 입으로 줌인. 전시에서 판결로.
4 등장인물·사상	미련한 자·게으른 자·말쟁이·꾸미는 원수의 행렬. 여호와와 이름 없음. 중심 사상은 '어울림'(navah) — 무엇이 누구에게 맞는가의 저울.
5 장면 컷	4컷(1~12/13~16/17~22/23~28). 두 연작의 평행 걸구(12·16절). 27절 자기 회귀가 마지막 법칙.
6 의문·발견·정보	chakham be'enav의 실(5·12·16절). 다툼의 연료학(20~21절). 4~5절 분별 기준의 부재. 탈무드 샤바트 30b 수용사. 히스기야 편집 배경.
7 동영상	여름의 눈 → 갈라진 두 화면 → 거울 → 돌쩌귀 → 꺼지는 불과 더해지는 숯 → 굽히는 토기 → 제 함정에 빠지는 손,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여름에 내리는 눈 — 잠언이 자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장"
9 기도·내면	열아홉 그림을 웃으며 보다가 거울 앞에 선다. 제 손의 잠언이 가시나무일 수 있다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모순 쌍, 공식이 아니라 저울:** 4절과 5절은 같은 주어와 같은 동사로 정반대를 명령한다. 다만 이유 절의 위험이 다르다 — 네가 갈라질 위험(4절)과 그가 굳어질 위험(5절). 편집자는 한 절을 지우는 대신 둘을 나란히 두어, 격언이 암기할 공식이 아니라 상황을 달아 보는 분별의 기술임을 책의 몸으로 보여 준다. 7절과 9절이 그 곁에서 경고문을 단다 — 잠언도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저는 다리이고 가시나무라고. 같은 문장도 누가 언제 쓰는가에 따라 약도 되고 흥기도 된다.

2. **결 2 — 한 우물로의 수렴:**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chakham be'enav)'라는 어구가 5절, 12절, 16절을 켜다. 미련한 자 연작은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12절)로, 게으른 자 연작은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16절)로 닫힌다. 서로 달라 보이는 두 초상이 같은 우물 — 자기 확신 — 에서 만난다. 미련함은 굳음이고 게으름은 멈춤이지만, 둘을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 자기 눈의 판정이다.

3. **결 3 — 연료학과 자기 회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20절) — 다툼은 폭발이 아니라 연소이며, 그 생명줄은 장작을 나르는 손이다. 그리고 27절이 장의 마지막 법칙을 놓는다 — 판 함정에 제가 빠지고 굴린 돌에 제가 치인다. 던진 것이 돌아오는 세계. 1장의 자기 뗏("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1:18)이 25~29장 묶음의 끝머리에서 함정과 돌의 그림으로 재현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25:1 —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 26장이 놓인 묶음의 표제. 연작 구성과 모순 쌍 배열은 이 편집의 손길.
- 잠 3:7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 26:12의 어구가 1~9장의 직접 명령에서 옴. 자기 눈의 반대편이 경외라는 등식.
- 잠 22:13 · 19:24 · 18:8 — 26:13·15·22가 앞선 잠언을 다시 전시 — 수집·편집의 흔적.
- 잠 29:20 —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 26:12과 같은 틀의 재등장.
- 시 7:15-16 · 전 10:8 — 판 웅덩이에 빠지는 자기 회귀의 인과.
- 벧후 2:22 —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 26:11의 신약 인용.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의 그림에서 시작한다 — 여름의 눈. 좋은 것이 틀린 곳에 도착하는 장면들을 내 주변에서 떠올린다.
- **멈춤 1**: 4절과 5절 사이에서 멈춘다 — 오늘 내 앞의 그 사람에게, 지금은 침묵의 때인가 대답의 때인가. 두 위험을 달아 본다.
- **멈춤 2**: 9절에서 멈춘다 — 내 입의 격언. 내가 옮기는 좋은 문장들이 누군가에게 가시나무였던 적이 있는지 본다.
- **끝**: 12절과 20절 사이에서 멈춘다 — 자기 눈의 판정과 장작 나르는 손. 내가 끄지 못하는 불이 아니라 내가 먹이고 있는 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세 연작(1~12·13~16·17~28)의 완결과 각 결구의 전환
- [x] 4~5절 모순 쌍의 병치와 이유 절의 차이
- [x] chakham be'enav 실(5·12·16절)의 분포
- [x] 7·9절 격화 쌍과 20~21절 연료 대구
- [x] 27절 자기 회귀 법칙과 28절 닫음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가는 호다(book-telos). 권의 흐름에서 26장은 일상의 대구 잠언 국면(10~29장) 안, 그중에서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묶음(25~29장)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 장의 독특함은 격언집이 격언 자체를 다룬다는 데 있다 — 7절과 9절은 잠언이라는 단어를 본문 안에서 두 번 호명하며, 같은 문장도 왼 손에 따라 무력해지고 흥기가 된다고 경고한다. 1:7이 지식의 근본을 경외라는 관계에 두었다면, 26장은 그 등식의 음화를 그린다 —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

지 않는 이 장에서 모든 연작이 도착하는 곳은 '자기 눈에 지혜로움'(12·16절)이고, 그 어구는 3:7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와 짝을 이루던 명령의 부정형이다. 경외가 빠진 지식의 끝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이 장은 신명 한 번 없이 열아홉 폭의 그림만으로 보여 준다. '내 아들이' 부르던 아버지의 자상함은 여기서 풍자의 붓으로 바뀌었지만, 과녁은 같다 — 아들이 자기 눈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 31장의 현숙한 여인, 곧 격언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 닿기 전에, 책은 독자의 손에 들린 격언부터 점검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림의 전시에서 사용법의 전수로 / 풍자의 과녁이 그들에게서 나에게로 / 격언의 소유에서 격언을 권 손의 분별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6장은 '격언을 아는 것'과 '격언을 분별 있게 쓰는 것' 사이의 거리를 측량하는 운동이다. 4~5절의 모순 쌍이 그 거리의 입구다 — 두 명령을 다 외워도, 지금이 어느 절의 때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12절과 16절의 평행 결구가 그 거리의 끝을 보여 준다 — 측량을 포기한 사람, 자기 눈의 판정으로 충분한 사람. 이 운동은 27장으로 곧장 이어진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27:1) — 자기 눈의 판정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 앞에서, 분별은 점손의 다른 이름이 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어리석은 이웃들에 대한 풍자 모음이다 —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쟁이, 아첨꾼. 그러나 수면 아래 서는 지혜의 소재가 움직인다. 7절과 9절은 잠언을 입에 소유하는 것과 지혜를 사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고, 4~5절은 옳은 문장조차 때를 모르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지혜가 문장에 들어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는가 — 이 장은 부정의 방식으로만 답한다. 자기 눈에 있지 않다(12·16절). 매끄러운 입술에 있지 않다(23·28절). 그렇게 모든 그릇을 하나씩 엮어 가며, 장은 독자를 1~9장의 기억으로 떠민다 — 지식의 근본은 경외였다는 것, 자기 눈의 반대편은 여호와와 눈 앞에 서는 일이었다는 것(3:7). 그리고 27절의 자기 회귀는 그 수면 아래에서 가장 조용한 확신이다. 함정과 돌이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인과를, 본문은 집행자 없이 그린다 — 신명 없는 장에서조차 세계는 공정하게 휘어 있다. 누가 그 곡률을 두었는가 이 장이 끝내 발음하지 않는 이름의 뒤편으로 남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열아홉 폭의 그림을 웃으며 지나왔다 — 그리고 마지막 액자가 거울이었다. 내 입의 잠언은 지금 약인가 가시나무인가, 나는 어느 불에 장작을 나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미련한 자를 찾아내 교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정의 도구인 격언부터 점검대에 올린다 — 옳은 말을 틀린 때에, 틀린 손으로 쥐는 일의 위험을. 4절과 5절 사이의 저울은 오늘도 비어 있다. 침묵해야 할 대화와 대답해야 할 대화가 매일 갈리는데, 그 분별의 기준을 장은 끝내 주지 않는다. 다만 12절이 등불처럼 남는다 — 최악은 모름이 아니라 자기 눈의 확신이라는 것. 그러니 저울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씨다. 달아 보는 사람만이, 자기 눈을 의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장의 전시실을 거울 없이 나가지 않는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자기 눈의 판정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시간의 점손이 온다 —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27: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kham be'enav* —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

미해결 질문

잠언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6:4과 26:5 사이 — 언제 침묵하고 언제 대답하는가, 분별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 두 절은 정반대 명령을 나란히 두고 이유 절의 위험만 다르게 단다(네가 갇아질 위험 / 그가 갇어질 위험). 어느 위험이 더 큰지 재는 기준을 본문은 굿지 않는다. 저울만 쥐여 준 채 보존.

Q2. 26:2 까닭 없는 저주 — 떠도는 참새는 끝내 어디로 가는가?

-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아니(lo)'로 읽는 전통(케티브)과 '그에게(lo)'로 읽는 전통(케레)이 나란히 전해진다 — 저주가 무효가 되는가, 발설한 자에게 돌아가는가. 두 읽기의 공존을 그대로 보존.

Q3. 26:10 —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는 누구의 그림인가?

- 이 절은 잠언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의 하나로 꼽히며 번역들이 크게 갈린다(장인/활 쏘는 자/큰 자). LXX도 MT와 다른 문장을 전한다. 어느 읽기로도 통합하지 않고 미해결로 이월.

Q4. 26:12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 미련한 자에게 남은 그 희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 채찍과 막대기(3절)로도 안 바뀌고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11절)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와의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보존.

Q5. 5절의 "대답하라"가 막으려던 일(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이 12·16절에서 이미 일어나 있다 — 대답이 실패한 다음은 무엇인가?

- 연작은 예방(5절)에서 진단(12·16절)으로 움직이는데, 진단 이후의 길은 그리지 않는다. 잠긴 자기 확신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미해결.

Q6. 이 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 — 사람과 사물의 그림만으로 짜인 장의 의도는 무엇인가?

- 25~29장 히스기야 묵음의 편집 차원 질문으로 남는다. 27절의 자기 회귀 법칙이 행위자 없는 인과처럼 그려진 것과 함께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7장

PRO-027 · 시가서 · 히브리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27:1)는 불가지의 선언 아래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27:5-6)과 철이 철을 가는 마찰(27:17)과 물에 비치는 마음(27:19)이 우정을 연마의 도구로 세우고, 칭찬이라는 도가니(27:21)를 지나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오늘(27:23-27)로 닫히는 — 내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돌봄의 경제를 가르치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짧은 이동: 이른 아침의 골목(14절) → 비 새는 집 안(15절) → 대장간·숫돌 곁(17절) → 물의 표면(19절) → 도가니·풀무(21절) → 절구 곁(22절) → 그리고 산비탈·양 우리·염소 떼의 야외(23~27절)로 활짝 열림.
- 소품(저울과 맛): 돌과 모래(3절), 꿀과 쓴 것(7절), 기름과 향(9절), 옷과 불모(13절).
- 소품(연마와 시험): 철 두 덩이(17절), 무화과나무(18절), 물(19절), 은·금·도가니·풀무(21절), 절구·공이·곡물(22절).
- 소품(살림): 벤 풀과 새 움, 산의 꿀(25절), 어린 양의 털 옷, 밭값이 되는 염소(26절), 넉넉한 염소 젖(27절) — 추상어가 거의 없는 물질의 장.
- 소재의 실: 친구(reu/ohev)가 6·9·10·14·17·19절의 곁을 꿰는 중심 소재.
- 1절의 "하루(yom)" — 불가지의 단위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다음 하루로 좁혀져 장 전체의 배경에 깔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5~6절의 따끔함 — 아프게 하는 쪽이 친구, 입맞추는 쪽이 원수라는 역설. 상처에 '미쁘다(neemanim)'가 붙어 차갑지 않음.
- 소리의 설계: 이른 아침의 큰 소리 축복(14절), 끊이지 않는 빗방울(15절), 철의 마찰음(17절) — 신경에 닿는 소리들 끝에 목초지의 고요(23절~)가 움.
- 7절이 장의 읽는 법을 제시 — 맛은 혀가 아니라 처지가 정한다. 칭찬도 책망도 받는 사람의 상태가 맛을 정함.
- 짝으로 움직이는 저울의 장: 자랑/칭찬(1~2절), 분노/투기(3~4절), 면책/입맞춤(5~6절), 배부름/주림(7절), 스올/눈(20절), 도가니/칭찬(21절). 3절이 저울을 명시.
- 21절은 17:3의 변주 — 여호와가 있던 셋째 마디에 칭찬이 들어옴 — 형식 관찰,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 금지("말라")로 열어 공급("되느니라")으로 닫음 — 끝 단락에는 명령이 없고 살림이 흘러 들어오는 평서만 있음.
- 1절(알 수 없는 내일)과 23절(알고 또 알라, yadoa teda)의 마주 봄 — 불가지와 가지가 장의 양 끝을 잡음.
- 끝 화면의 인원: 너와 네 집과 네 여종 — 살림의 결과가 한 사람의 부가 아니라 한 집의 식탁.
- 1절(모르는 내일)과 24절(영원하지 않은 재물·면류관)의 같은 결 — 그 사이에 순환(25절)이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내일을 자랑하는 자, 타인·외인(2절), 미련한 자(3·22절), 친구와 원수(5~6절), 배부른 자와 주린 자(7절), 떠도는 사람(8절), 권고하는 친구(9절), 아버지의 친구·먼 형제·가까운 이웃(10절), '내 아들이'와 아버지(11절),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12절), 보증 선 자(13절), 이른 아침의 축복자(14절), 다투는 아내(15~16절),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17절), 무화과나무 지키는 자(18절), 목자(23~27절).
- 우정의 두 작동: 마찰(책망 5~6절·연마 17절)과 비춤(권고 9절·거울 19절) — 둘 다 혼자서는 일어나지 않음.
- 21절의 사상: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칭찬으로 시험받음 —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 시험. 1~2절의 halal 금지와 맞물림.
- 20절: 스올·아바돈과 사람의 눈이 같은 술어(만족함이 없다)로 묶임 — 칭찬의 도가니 바로 앞 절.
- 10절: 우정의 세대 상속(네 아버지의 친구)과 거리의 실제성(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음).
- 17·19절의 얼굴(panim): 갈려서 빛나는 얼굴과 물에 비치는 얼굴 — 마찰의 결과와 고요의 결과.
- 4절 qinah(투기): 분노·노는 건달 길이 있으나 투기 앞에는 설 자가 없음. 아 8:6("질투는 스올처럼")과 같은 단어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입의 절제 한 쌍 — 내일 자랑 금지, 자기 칭찬 금지(타인·외인의 몫).
- 컷 2 (3~4절): 무게와 홍수 — 돌·모래보다 무거운 분노, 창수 같은 노, 설 수 없는 투기.
- 컷 3 (5~10절): 우정의 첫 군집 — 드러난 면책, 미쁜 상처와 거짓 입맞춤, 처지가 정하는 맛, 떠도는 새, 기름·향 같은 권고, 세대를 잇는 친구.
- 컷 4 (11~14절): 아들 호명과 처세 — 아버지의 기쁨, 재앙 회피(=22:3), 보증의 경고(=20:16), 때를 잃은 축복.
- 컷 5 (15~16절): 다투는 아내 — 끊임없는 물방울, 바람과 기름의 제어 불가.
- 컷 6 (17~22절): 연마와 시험 — 철과 철, 무화과나무, 물거울, 만족 없는 스올과 눈, 칭찬의 도가니, 절구의 미련.
- 컷 7 (23~27절): 목축 절구 — 명령(23) · 이유(24) · 순환(25) · 공급(26~27). 혜택이 여종의 먹을 것까지 내려가며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l-tithallel*(לֹא-תִתְהַלֵּל) — 자랑하지 말라. halal의 히트파엘 금지형, 자기를 스스로 빛냄. 1절.
- *yehallelkha zar*(זָר יְהַלֵּלְךָ) —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같은 halal 어근. 2절.

- tokhachat megullah(תוכחת מגולה) — 드러난 책망 / ahavah mesutaret(אהבה מסתרת) — 감추어진 사랑. 드러남과 감춤의 맞섬. 5절.
- neemanim pitsei ohev(נְעִימִים פְּצֵי אוֹהֵב) — 사랑하는 자의 상처들은 미쁘다(aman 어근) / naatarot neshiqot sone —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들은 잣다. 6절.
- qinah(קִנְיָה) — 투기·질투. 4절. / delef tored(דֵּלֶף טוֹרֵד) —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15절(19:13과 공유).
- barzel be-barzel yachad(בַּרְזֵל בְּבַרְזֵל יַחַד) — 철이 철에, 함께. 17절.
- ka-mayim ha-panim la-panim(כַּמַּיִם הַפָּנִים לַפָּנִים) — 물처럼 얼굴이 얼굴에게. 전치사만으로 거울을 만드는 압축 구문. 19절.
- sheol va-avaddon(שְׁאוֹל וְאַבְדּוֹן) — 스올과 아바돈. 20절. / matsref(מִצְרֵף)·kur(כּוּר) — 도가니·풀무. 21절.
- lefi mahalalo(לְפִי מְהַלָּלוֹ) — 그의 칭찬에 따라. 받는 칭찬인지 하는 칭찬인지 열려 있는 형태. 21절.
- makhtesh(מַכְתֵּשׁ) — 절구. 22절. / yadoa teda(יָדוּעַ תֵּדַע) — 알고 또 알라, 부정사 절대형 강조. 2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halal 어근의 세 위치: 1절(자기 자랑 금지) — 2절(자기 칭찬 금지, 출처 이관) — 21절(칭찬이 도가니). 칭찬의 모든 출구에 저울을 두는 배치.
- 우정 군집: 5~6절(책망) · 9~10절(권고·상속) · 17절(연마) · 19절(거울) — 마찰과 비춤의 두 작동.
- 재방송 격언: 12절=22:3, 13절=20:16, 15절=19:13 확장 — 같은 문장이 새 이웃 곁에서 다른 맛을 냄(7절의 원리).
- 23~27절 묵축 절구의 내부: 명령(23) — ki 이유(24) — 시간 순환(25) — 공급 목록(26~27). 격언이 아니라 작은 강화. 24:30-34(게으른 자의 밭)와 닮은 단락 시.
- 1절↔23절의 인클루지오 결: 알 수 없는 내일 / 알고 또 알아야 할 오늘.
- 20절과 21절의 인접: 만족함이 없는 눈 바로 다음에 칭찬의 도가니 — 배열의 무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양·염소 중심의 소목축 경제 — 털(옷)·새끼(밭값)·젖(음식)으로 순환하는 가정 단위 살림. 23~27절의 물질 배경 — 배경.
- 철기 시대의 대장간·숫돌 문화 — 17절 마찰 은유의 기술 배경 — 배경.
- 도가니·풀무의 야금 공정 — 불순물을 분리하는 시험 과정. 21절의 공정 배경 — 배경.
- 절구와 공이 — 곡물 껍질을 벗기는 가정 기구. 껍질은 벗겨져도 미련은 안 벗겨진다는 대조의 받침 — 배경.
- LXX: 27:21에 불의한 자의 마음에 관한 행을 첨가, 27:16의 MT 난문을 전혀 다르게 읽음(북풍 격언) — 본문 난이도의 흔적,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7:1 ↔ 약 4:13-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 불가지 선언의 신약 메아리)
- 잠 27:21 ↔ 잠 17:3 (도가니·풀무·연단 — 셋째 마디가 여호와에서 칭찬으로 바뀌는 변주)
- 잠 27:10 ↔ 잠 17:17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와의 긴장)
- 잠 27:12 ↔ 잠 22:3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함 — 거의 동일한 재수룩)

- 잠 27:13 ↔ 잠 20:16 (보증 선 자의 옷 — 거의 동일한 재수룩)
- 잠 27:15 ↔ 잠 19:13 (다투는 아내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 선행 격언의 확장)
- 잠 27:7 ↔ 잠 25: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함 — 단 것과 절제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동트기 전, 한 사람이 내일의 계획을 입에 올리려다 멈춘다 —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으니. 저울에 돌과 모래가 오르고 미련한 자의 분노 쪽으로 기운다. 창수가 지나가고 투기 앞에는 아무도 서지 못한다. 두 얼굴이 마주 본다 — 친구의 아픈 말 위에 '미쁘다'가, 원수의 입맞춤 위에 '거짓'이 얹힌다. 꿀이 배부른 입에서 밀려나고 쓴 나물이 주린 입에서 달아진다. 동지 떠난 새가 하늘을 가로지른다. 기름과 향내 곁에서 친구의 권고가 들리고,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문 앞에 선다. 이른 아침 골목의 요란한 축복에 표정이 굳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끊이지 않는다. 대장간에서 철이 철에 갈리며 불꽃이 튀고, 물가에서 두 얼굴이 수면에 비친다. 스올의 입과 사람의 눈이 겹쳐진다 — 둘 다 닫히지 않는다. 도가니에 은이 녹고, 한 사람이 칭찬 한가운데 선다. 절구에서 껌질이 벗겨지는데 미련만 남는다. 화면이 열린다 — 산비탈, 벤 풀 위의 새 움, 우리로 돌아오는 양 떼. 목자가 한 마리씩 살핀다. 털이 옷이, 염소가 밭값이, 젖이 식탁이 된다 — 여종의 뭇까지.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철이 철을 — 친구라는 연마, 칭찬이라는 도가니"
- 초벌 부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불가지의 선언 아래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철과 철의 연마·물에 비치는 마음이 우정의 결을 세우고, 칭찬이라는 도가니를 지나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돌봄의 경제로 닫히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halal 세 위치 + 우정 군집 + 재방송 격언 + 목축 절구 강화 구조 + ANE 목축 경제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7:17의 철 연마를 공동체론·제자훈련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의 마찰 은유와 우정 군집 안의 위치 관찰로만 둬.
- 27:21의 lefi mahalalo를 한쪽 독법(받는 칭찬/하는 칭찬)으로 통합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 27:23-27의 목축 교훈을 재정 관리 교훈이나 청지기 신학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본문이 그리는 가정 단위 살림의 순환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7장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al-tithallel)"(27:1)와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27:2)로 칭찬의 출처를 자기 바깥으로 옮긴 뒤, 친구의 아픈 책망(27:5-6)·기름과 향 같은 권고(27:9)·세대를 잇는 우정(27:10)·철이 철을 가는 마찰(barzel be-barzel, 27:17)·물에 비치는 마음(27:19)으로 사람이 친구를 통해 다듬어지는 결을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눈(27:20) 곁에 칭찬이라는 도가니(matsref, 27:21)를 세운 다음,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yadoa teda)"(27:23)에서 여종의 먹을 것까지 내려가는 목축 교훈(27:23-27)으로 닫히는 — 내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돌봄의 경제를 가르치는 장이다.

한 문단: 동트기 전, 한 사람이 내일의 계획을 입에 올리려다 멈춘다 —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으니. 저울이 놓이고 돌과 모래보다 무거운 분노가 달리며, 창수 같은 노가 지나간 뒤에도 투기 앞에는 아무도 서지 못한다. 두 얼굴이 마주 본다 — 아픈 말을 건네는 친구와 입을 맞추는 원수, 상처 위에 '미쁘다'가 얹히고 입맞춤 위에 '거짓'이 얹힌다. 꿀이 물리는 입과 쓴 것이 단 입을 지나, 기름과 향내 곁에서 친구의 권고가 들리고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문 앞에 선다. 대장간에서 철이 철에 갈리며 불꽃이 튀고, 물가에서 마음이 마음을 비춘다. 스올의 입과 사람의 눈이 겹쳐 닫히지 않고, 도가니에 은이 녹는 곁에서 한 사람이 칭찬 한가운데 선다. 그리고 화면이 열린다 — 벤 풀 위로 새 움이 돋는 산비탈, 우리로 돌아오는 양 떼, 한 마리씩 형편을 살피는 목자. 털이 옷이 되고 염소가 밭값이 되고 젖이 식탁에 오른다 — 너와 네 집과 네 여종의 뉘까지.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골목·대장간·물가·도가니·결구를 지나 목초지로 열리는 무대. 손에 잡히는 소품들. 친구(re'a)라는 실.
2 첫 느낌·분위기	따뜻한데 차갑지 않은 5~6절. 신경에 닿는 소리들 끝의 목가적 고요. 처지가 맛을 정하는 7절. 짝으로 다는 저울.
3 시작과 끝	금지("말라")로 열어 공급("되느니라")으로 닫음. 1절(모르는 내일)과 23절(알고 또 알라)의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가장 자주 돌아오는 얼굴은 친구. 우정의 두 작동 — 마찰과 비춤. 칭찬이 시험이라는 21절, 만족 없는 눈의 20절.
5 장면 컷	입의 절제/무계와 홍수/우정 군집/아들 호명/다투는 아내/연마와 시험/목축 결구의 7컷. 결구는 명령 — 이유 — 순환 — 공급.
6 의문·발견·정보	halal의 세 위치(1·2·21절). 재방송 격언(12·13·15절)의 달라진 맛. 물거울의 열린 방향. 목축 경제 배경.
7 동영상	멈춘 입 → 저울 → 미쁜 상처 → 대장간의 불꽃 → 물거울 → 도가니 → 산비탈의 양 떼와 식탁,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철이 철을 — 친구라는 연마, 칭찬이라는 도가니"
9 기도·내면	마찰의 감촉과 젖 짜는 손의 따뜻함 — 내일은 몰라도 오늘 살필 것을 알고 또 알게 하소서, 거기서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tokhachat, 아프게 하는 사랑의 문법:** 드러난 책망이 감추어진 사랑보다 낮고(27:5), 사랑하는 자의 상처는 미쁘며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잣다(27:6). 아픔과 사랑의 짝이 뒤바뀌는 이 문법이 9절의 권고와 10절의 상속되는 우정으로 이어져, 친구를 듣기 좋은 말의 공급자가 아니라 충직(aman)의 통로로 세운다.
2. **결 2 — barzel과 mayim, 우정의 두 인식론:** 철이 철을 갈 듯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빗나게 하고(27:17), 물에 얼굴이 비치듯 마음이 마음을 비춘다(27:19). 마찰과 고요 — 부딪쳐서 날카로워지는 길과 마주 보아서 알게 되는 길이 두 절 건너 나란히 놓인다. 사람은 혼자서는 갈리지도 비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군집의 공통 전제다.
3. **결 3 — yadoa teda, 내일을 모르는 사람의 오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27:1)로 닫힌 문이 양 폐의 형편을 알고 또 알라(27:23)로 다시 열린다. 알 수 없는 것 곁에 알아야 할 것이 세워지고, 영원하지 않은 재물(27:24) 곁에 베이고 다시 돋는 풀의 순환(27:25)이 놓인다. 살핌의 결과는 축적이 아니라 식탁이며, 그 식탁은 여종의 뭇까지 내려간다(27:27).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약 4:13-14 —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 27:1의 불가지 선언이 신약에서 같은 결로 올림.
- 잠 17:3 —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 27:21이 셋째 마디를 칭찬으로 바꾸는 변주.
- 잠 17:17 —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 27:10과의 긴장, 미해결로 보존.
- 잠 22:3 · 20:16 · 19:13 — 27:12·13·15의 선행 격언들. 같은 문장이 새 군집 곁에서 다른 맛을 내는 편집.
- 잠 31:27 —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 형편을 살피는 사람의 곁이 현숙한 여인에게서 다시 나타남.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입에 올리려던 내일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루라는 단위의 좁은 불가지 앞에 선다.
- **멈춤 1:** 5~6절에서 멈춘다 —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 가운데 미쁜 상처가 있었는지, 잣은 입맞춤에 속은 적은 없었는지 떠오른다.
- **멈춤 2:** 17절과 19절 사이에서 멈춘다 — 나를 갈아 준 마찰과 나를 비취 준 마음. 둘 다 혼자서는 없던 일이었다.
- **끝:** 21절을 지나 23절에 선다 — 쏟아지는 칭찬 한가운데서 무엇이 분리되는지 지켜보다가, 오늘 살피야 할 작은 형편들 곁으로 내려간다.

F · 자족성 점검

- [x] 입의 절제(1~2)·무게(3~4)·우정 군집(5~10)·처세(11~14)·아내(15~16)·연마와 시험(17~22)·목축 결구(23~27)의 일곱 단 완결
 - [x] halal 어근의 세 위치(1·2·21절)와 17:3 변주의 호응
 - [x] 우정의 두 작동 — 마찰(5~6·17)과 비춤(9·19)의 분포
 - [x] 1절↔23절 인클루지오 결과 24~25절의 순환
 - [x] 재방송 격언(12·13·15절)과 7절 원리의 맞물림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에서 27장은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의 끝물에 서서, 흩어진 대구이기를 멈추고 군집을 이루는 국면이다 — 우정 잠언들이 한 실로 꿰이고, 마지막 다섯 절은 아예 한 단락의 작은 강화가 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7이 선언한 지식(daat)이 여기서 동사로 내려온다 — "부지런히 살피라(yadoa teda)"(27:23)의 yada는 그 daat과 같은 어근이며, 경외에 뿌리내린 삶이 양 떼의 형편을 한 마리씩 헤아리는 손의 일로 번역된다. 그리고 31:30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tithallal)"가 27:1-2:21의 halal 어근을 다시 데려온다 — 자기 입의 자랑이 막히고 칭찬이 도가니로 세워졌던 그 단어가, 권의 끝에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합당하게 돌아가는 칭찬으로 완결된다. 27장은 그 마지막 상황을 한 권 앞서 준비하는 길목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르는 내일(27:1)에서 살피는 오늘(27:23)로 / 자기 입의 자랑에서 친구라는 마찰과 거울로 / 만족함이 없는 눈(27:20)에서 여종의 뭇까지 차려지는 식탁(27:27)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7장은 '사람은 무엇으로 다듬어지는가'라는 물음에 친구와 칭찬과 살핌이라는 세 공정을 차례로 통과시키는 운동이다. 친구의 마찰이 날을 세우고, 칭찬의 도가니가 속을 분리하고, 양 떼 결의 살핌이 그 다듬어진 사람을 보낼 곳을 정한다. 다만 이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8장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28:1)로 열려, 다듬어진 사람의 안과 밖 — 양심과 담대함 — 으로 시선을 옮긴다. 27장의 벡터는 연마에서 담대함으로 건너가는 다리의 앞 기둥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 격언의 모음이다 — 자랑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가축이나 잘 돌보라는. 그러나 수면 아래 서는 사람이 빚어지는 공정의 출처가 움직인다. 27장에서 다듬는 도구는 전부 자기 바깥에 있다 — 책망도 친구에게서 오고(27:5-6), 권고도 친구에게서 오고(27:9), 날카로움도 친구와의 마찰에서 오고(27:17), 자기 마음 조차 마주 비춰 줄 다른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27:19). 칭찬마저 자기 입에서 나오면 막히고(27:1-2) 남의 입에서 오면 도가니가 된다(27:21). 혼자서 자기를 빚내고 혼자서 자기를 아는 길이 이 장에는 없다. 그리고 그 다듬어짐의 끝이 더 높은 명성이 아니라 더 낮은 살핌이라는 것 — 면류관은 대대에 가지 못하지만(27:24) 살핌 받은 염소의 젖은 여종의 먹을 것까지 된다(27:27) — 이 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이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깎이고, 깎인 사람은 돌봄으로 보내진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를 아프게 한 말 가운데 미쁜 상처가 있었다. 나를 빛나게 한 칭찬 가운데 도가니가 있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찰을 견디고 있으며, 어떤 형편을 살피라고 맡겨졌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친구를 사귀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아프게 하는 친구와 입맞추는 원수를 구별하는 눈을, 갈리는 마찰과 비치는 고요가 다 우정의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쏟아지는 칭찬이 은을 녹이는 불과 같은 종류의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마지막 다섯 절은 그 모든 다듬어짐이 향하는 곳을 조용히 가리킨다 —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은 내일이 아니라 양 떼의 오늘이며, 그 작은

형편들을 알고 또 아는 사람의 집에는 명령 없이도 식탁이 차려진다. 베인 풀 위로 돋는 새 움(27:25) — 그 순환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친구의 마찰과 칭찬의 도가니로 다듬어진 사람이 이제 안의 담대함으로 시험받는다 —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28: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adoa teda* — 알고 또 알라, 부지런히 살피라.

미해결 질문

잠언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7:21의 *lefi mahalalo* —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그가 '받는' 칭찬인가, 그가 '하는' 칭찬인가?

- 히브리어 형태는 양쪽으로 열려 있다. 쏟아지는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독법과, 무엇을 칭찬하는가가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독법 — 두 갈래 모두 보존.

Q2. 27:19의 물거울 — 마음이 비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사이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인가?

- 물에 비친 내 얼굴처럼 내 마음이 나에게 비친다는 자기 인식의 독법과, 마음이 마음을 서로 비춘다는 상호 인식의 독법이 짧은 원문 안에 같이 들어 있다. 보존.

Q3. 27:14 — 축복이 저주로 뒤집히는 경계는 어디인가?

- 너무 이른 때인지, 너무 큰 소리인지, 요란함 뒤의 다른 동기인지 본문은 까닭을 말하지 않는다. 좋은 말도 때를 잃으면 뒤집힌다는 현상만 보존.

Q4. 27:10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 17:17("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와 어떻게 같이 둘 것인가?

- 형제를 버리라는 것인지, 먼 핏줄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리의 실제성을 말하는 것인지 — 두 격언의 긴장을 풀지 않고 나란히 보존.

Q5. 27:8의 떠도는 새 — 동지를 떠난 까닭을 본문은 왜 말하지 않는가?

- 쫓겨난 것인지 스스로 떠난 것인지, 떠돌이 형벌인지 상태인지 — 비유는 떠나 있음의 모습만 보여 준다. 보존.

Q6. 27:16의 원문 난해 —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의 히브리어는 무엇을 그리는가?

- MT의 난문으로 꼽히는 절. LXX는 전혀 다른 격언(복풍)으로 읽었다.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는 그림이라는 큰 결만 두고, 세부는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8장

PRO-028 · 시가서 · 히브리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28:1)라는 양심의 역학으로 열려, 율법(*torah*)이 4·7·9절에 네 번 모여 지혜와 합류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28:13)라는 잠언에서 보기 드문 고백의 한 절을 지나, 구제하는 손과 못 본 체하는 눈(28:27)으로 닫히는 — 통치·양심·회계의 대구 모음.

관찰된 사실

잠언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정치의 액자: 2절(죄 있는 나라의 많은 주관자) — 12절(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음) — 15~16절(악한 관원·무지한 치리자) — 28절(악인의 흥망과 의인의 증가). 통치 잠언이 일정 간격으로 돌아와 장 전체의 틀이 됨.
- 안쪽 무대의 이동: 텅 빈 길(1절) — 궁정(2절) — 들판(3·19절) — 채무자의 문간(8절) — 기도하는 방(9절) — 재판정(21절) — 부모의 집(7·24절) — 거리(12·28절).
- 소품: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3절), 중한 변리로 불린 재산과 그 종착지의 저축(8절), 함정(10·17절), 부르짖는 사자·주린 곰(15절), 경작하는 토지와 먹을 것(19절), 한 조각 떡(21절), 급히 움킨 재물과 따라오는 빈궁(22절), 내미는 손과 가려지는 눈(27절).
- 소재의 특이점: torah(율법)가 4절(2회)·7절·9절 — 모두 네 번. 지혜·명철의 어휘 곁에 율법서의 단어가 군집으로 들어옴.
- 1절의 사자(kefir)는 담대함의 형상, 15절의 사자는 압제하는 관원의 형상 — 같은 짐승의 두 쓰임.
- 소품 대부분이 곡식·돈·빵·토지 같은 살림의 물건 — 장 전체가 경제의 결을 가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의 서늘함: 쫓는 자가 없는 길에서 달아나는 사람 —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 무너진 풍경.
- 13절에서 공기가 풀림: 잠언에서 보기 드문 죄 고백의 절 —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받음.
- 음향: 폭우(3절)·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15절)·다툼(25절)의 사나운 소리 사이에, 가증하다 불리는 기도 소리(9절)가 끼어 있음.
- "못 본 체"(27절)의 조용함 — 요란한 악들 곁에서 눈을 가리는 무동작에 가장 큰 저주가 붙음.
- 거의 전 절이 반대 대구 — 스물여덟 개의 저울이 연달아 놓인 독서 감각.
- 14절 *mefached tamid*(항상 떠는 자)의 두려움은 목적어가 비어 있음 — 여호와 이름이 이 절에 없음.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 양 끝 모두 악인·의인 대구이나 규모가 다름 — 1절은 한 사람의 양심, 28절은 한 사회의 풍경.
- 도망의 주어 이동: 1절에서는 악인이 달아나고, 28절에서는 백성이 악인에게서 숨음.
- 끝이 어둠으로 닫히지 않음 —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로 출구를 열어 둠.
- 1절의 안심(batach)과 28절의 증가가 장의 양 끝에 걸린 호 — 버티는 한 사람과 불어나는 의인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전부 무명, 행동으로만 호명): 도망하는 악인·담대한 의인(1절), 많은 주관자·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2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3절), 율법을 버린 자·지키는 자(4·7·9절), 여호와를 찾는 자(5절), 성실한 가난뱅이·굶은 부자(6절), 변리 놓는 자(8절), 유인하는 자(10절),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자기를 살펴 아는 가난한 명철자(11절), 죄를 숨기는 자·자복하고 버리는 자(13절), 악한 관원·무지한 치리자(15~16절), 피 흘린 자(17절), 농부·방탕을 따르는 자(19절), 충성된 자·속히 부하려는 자(20·22절), 경책하는 자·아첨하는 자(23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24절), 욕심 많은 자·여호와를 의지하는 자(25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26절), 구제하는 자·못 본 체하는 자(27절).
- 율법 군집의 사상: 율법이 선악 감각을 결정하고(4절), 깨달음의 조건은 찾음이며(5절), 율법에 닫힌 귀는 기도까지 막음(9절).
- 13절의 두 동사: 자복하고(modeh) 버리는(ozev) — 입으로 내놓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이 한 절에 묶임.
- 죄를 다루는 세 손: 숨기는 손(13절 상반), 자복하고 버리는 손(13절 하반), 죄가 아니라 우기는 손(24절).
- 11절의 역전: 자기 인식에서 가난한 명철자가 부자보다 우위 —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 20절 ish emunot(신실함들의 사람, 복수형)과 nivhal lahon(재물에 허둥대는 자, 수동 분사)의 문법 대비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개막 — 텅 빈 길의 도망과 사자 같은 담대, 죄 있는 나라의 어지러운 통치,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 컷 2 (4~11절): 율법의 군집 — 선악 감각(4절), 깨달음의 조건(5절), '나으니라' 잠언(6절), 지혜로운 아들(7절), 변리의 종착지(8절), 막힌 기도(9절), 함정(10절), 자기를 아는 가난한 명철자(11절).
- 컷 3 (12~18절): 내면의 회계와 통치 — 숨는 백성(12절), 자복의 잠언(13절), 항상 떠는 자(14절), 사자·곰 같은 관원(15~16절), 피 흘린 자(17절), 성실한 자의 구원(18절).
- 컷 4 (19~24절): 속도의 시험 — 토지 경작(19절), 충성과 다급함(20절), 한 조각 떡(21절), 악한 눈(22절), 경책의 시차(23절), 죄의 이름표를 떼는 자(24절).
- 컷 5 (25~28절): 닫는 회계 — 욕심과 의지(25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26절), 펴진 손과 가린 눈(27절), 악인의 흥망과 의인의 증가(28절).
- 컷 경계 관찰: 정치 잠언(2·12·15~16·28절)이 컷들의 이음매에 배치되어 액자를 이룸. 20·22절은 21절을 가운데 두고 묶이는 속도의 쌍.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us(נוס) — 도망하다. 1절. / kefir(כִּפִּיר) — 젊은 사자. 1절.

- *batach*(בָּטַח) — 기대어 안심하다·신뢰하다. 1절 *yivtach*(개역 "담대하니라"), 25절 *boteach al-YHWH*(여호와를 의지), 26절 *boteach belibbo*(자기 마음을 믿음) — 한 장에 세 번, 목적어만 다름.
- *torah*(תּוֹרָה) — 율법. 4절(2회)·7절·9절, 모두 네 번. 1:8의 *torat immekha* 이후 이 장에서 군집으로 재등장.
- *mekhasseh pheshaav*(מְכַסֵּה פְּשָׁעָיו) — 자기 허물들을 덮는 자. / *modeh ve'ozev*(מוֹדֶה וְעֹזֵב) — 고백하고 떠나는 자. 13절.
- *mefached tamid*(מְפַחֵד תָּמִיד) — 항상 떠는 자. 14절. 두려움의 목적어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neshekh*(נִשְׁכָּה) — 이자, '물다(nashakh)'와 같은 자음열로 묶여 설명됨. / *tarbit*(תַּרְבִּית) — 증식분, '늘다(rabah)' 계열. 8절.
- *tamim*(תָּמִים) 계열 — 성실·온전. 6·10·18절. / *ish emunot*(אִישׁ עֲמוּנוֹת) — 신실함들의 사람. 20절.
- *nivhal lahon*(נִבְהַל לְהוֹן) — 재물에 다급한 자. 20·22절의 결. / *ra ayin*(רַע עֵינַי) — 악한 눈. 22절.
- *maalim enav*(מַעְלִים עֵינָיו) — 자기 눈을 가리는 자. 27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거의 전 절이 반대 대구(*antithetic parallelism*) — 히스기야 모음(25~29장) 후반에서 10장대의 대구 형식이 질게 돌아옴.
- 정치 잠언의 액자: 2 — 12 — 15~16 — 28절. 12절과 28절은 같은 동사(*qum*, 일어나다)로 호응하고, 28절은 29:2로 곧장 이어짐.
- *batach* 세 갈래(1·25·26절): 같은 동사의 목적어 교체로 담대·풍족·미련이 갈라짐 — 장이 스스로 1절을 풀어 주는 장치.
- *torah* 군집(4·5·9절 흐름): 선악 감각 — 깨달음의 조건 — 들음과 기도. 지혜 전승과 율법 전승의 합류 지점.
- 13~14절의 배열: 자복 다음에 떨림, 숨김 다음에 완악 — 내면 회계의 두 절이 연쇄됨.
- 20·21·22절: 속히 부하려는 다급함 — 낮 보아주는 작은 거래 — 악한 눈의 질주. 빨리 얻으려는 손의 삼연쇄.
- 자기 함정의 인과(10·17절): 유인하는 자가 제 함정에 빠지고, 피 흘린 자가 함정으로 달려감 — 1:18의 자기 텃 구문과 같은 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고대 근동의 이자 대부 — 메소포타미아 법 전통은 곡물·은 대부의 이자율을 규정, 이스라엘 율법은 동족 이자 자체를 금함(출 22:25, 레 25:36-37, 신 23:19). 8절 변리 잠언의 제도 배경.
- 사자·곰 — 근동에서 왕권·위협의 표상. 15절은 왕권의 형상을 압제하는 관원에게 입힘 — 배경.
- 성문 어귀 재판과 뇌물·정실 — 21절 "한 조각 떡" 잠언의 사회 배경.
- 토지 경작 — 농경 기반 사회에서 한 해 양식의 출처. 3절의 폭우와 19절의 경작이 같은 들판의 양면 — 물질 배경.
- LXX: 25~29장에서 MT와 절 배열·어순 차이가 적지 않고, 28:13을 설명적으로 풀어 읊기며, 28:14의 떨림을 경건 어휘로 옮겨 대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MT는 비워 둠)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8:13 ↔ 시 32:1-5 (숨길 때의 죄악과 자복할 때의 사함 — 같은 두 동사의 결)
- 잠 28:6 ↔ 잠 19:1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 '나으니라' 잠언의 변주)

- 잠 28:19 ↔ 잠 12:11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 거의 같은 문장의 재현)
- 잠 28:23 ↔ 잠 27:5-6 (면책·친구의 통책 — 정책 잠언의 연속)
- 잠 28:12·28 ↔ 잠 29:2 (악인의 권세와 백성의 숨·탄식 — 정치 잠언의 다리)
- 잠 28:26 ↔ 잠 3:5 (자기 마음을 믿는 자 ↔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마주 보는 절)
- 잠 28:27 ↔ 잠 24:11-12 (못 본 채하는 방관 —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 잠 28:8 ↔ 출 22:25 · 레 25:36-37 · 신 23:19 (동족 이자 금지 — 변리 잠언의 율법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텅 빈 길에서 한 사람이 등을 보이며 달아난다 — 쫓는 자는 없다. 그 곁에 젊은 사자처럼 버티고 선 사람. 화면이 넓어지면 어지러운 궁정, 줄지어 바뀌는 주관자들, 한 명철한 사람의 손에서 가까스로 길게 이어지는 나라. 들판에 곡식을 때려 쓰러뜨리는 비가 쏟아지고, 두루마리 위의 한 단어가 네 번 깜빡인다 — 토라. 귀를 돌린 사람의 기도가 천장에 닿지 못하고, 변리로 불어난 은이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퍼진 손바닥에 쌓인다. 한 방 안 — 죄를 덮은 얼굴이 어두워지다가, 입을 열어 내놓고 손에서 놓는 순간 빛이 든다. 거리에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의 형상을 한 관원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문을 닫는다. 농부가 제 토지를 갈고, 재물을 향해 허둥지둥 달려가는 사람 뒤를 빈궁이 조용히 따라간다. 재판정 탁자 위로 딱 한 조각이 미끄러진다. 마지막 — 가난한 사람 앞에서 한 손은 펴지고 한 눈은 가려진다. 악인이 일어난 거리에서 사람들이 숨고, 그가 무너진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늘어난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쫓는 자 없는 도망 — 덮는 손과 내놓는 입"
- 초벌 부제: "쫓는 자 없이 도망하는 악인과 사자 같이 담대한 의인의 개막(28:1) 아래, 율법이 4·7·9절에 네 번 모여 지혜와 합류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드문 잠언(28:13)과 속히 부하려는 자의 쌍(20·22절)을 지나, 구제하는 손과 가린 눈(28:27)과 의인이 많아지는 거리(28:28)로 닫히는 대구 모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정치 액자 2·12·15~16·28 + torah 군집 + batach 세 갈래 + 근동 이자 제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8:13의 자복을 신약의 고백 신학(요일 1:9 등)으로 앞당겨 불합하지 않고, 시 32편과 닿는 결의 관찰로만 뚫.

- 28:1의 도망 심리를 '죄책감'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단정하지 않고, 텅 빈 길과 달아나는 등의 그림으로 보존.
- 28:8의 재산 이동을 인과응보 교리의 증명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한 절 안의 동선 관찰로 둬.
- 28:14의 떨림 대상을 여호와로 확정하지 않음 — MT가 비워 둔 목적어를 비워 둔 채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8장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28:1)라는 양심의 개막에서 출발해, 율법(torah)이 4절(2회)·7절·9절에 네 번 모이는 군집 속에서 선악 감각(28:4)·깨달음(28:5)·기도(28:9)를 전부 듣는 귀의 문제로 묶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28:13)라는 잠언에서 보기 드문 고백의 절과 속히 부하려는 자의 쌍(28:20-22)을 지나, 구제하는 손과 못 본 채하는 눈(28:27)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28:28)라는 통치의 풍경으로 닫히는 대구 모음이다.

한 문단: 텅 빈 길에서 한 사람이 달아난다 — 쫓는 자는 없다. 그 곁에 젊은 사자처럼 버티고 선 사람이 있다. 화면이 넓어지면 어지러운 궁정과 줄지어 바뀌는 주관자들, 곡식을 때려 쓰러뜨리는 폭우. 두루마리 위에서 토라라는 단어가 네 번 깜빡이고, 귀를 돌린 사람의 기도가 천장에 닿지 못한다. 변리로 불어난 은이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퍼진 손바닥에 쌓이고, 한 방 안에서는 죄를 덮은 얼굴이 어두워지다가 입을 열어 내놓는 순간 빛이 든다.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의 형상을 한 관원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문을 닫고, 농부는 제 토지를 갈고, 재물을 향해 허둥대는 사람 뒤를 빈궁이 따라간다. 마지막 화면 — 가난한 사람 앞에서 한 손은 퍼지고 한 눈은 가려진다. 그리고 악한 권력이 무너진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늘어나며 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정치 액자(2·12·15~16·28절)가 장을 감싸고, 안쪽 무대는 길·들판·문간·기도방·재판정으로 이동. 소품은 곡식·변리·떡 한 조각 — 살림의 물건들. torah 네 번.
2 첫 느낌·분위기	쫓는 자 없는 도망의 서늘함, 13절에서 트이는 숨, 가증하다 불리는 기도, 절마다 놓인 저울, 목적어가 비어 있는 떨림(14절).
3 시작과 끝	1절(한 사람의 양심)에서 28절(한 사회의 풍경)로. 도망의 주어가 악인에서 백성으로 이동. 끝은 의인이 많아지는 출구로 닫힘.
4 등장인물·사상	이름 없는 사람들 — 전부 행동으로 호명. 율법 군집의 사상(4·5·9절), 자복의 두 동사(13절), 죄를 다루는 세 손(숨김·자복·부인).
5 장면 컷	개막(1~3)/율법 군집(4~11)/내면 회계와 통치(12~18)/속도의 시험(19~24)/닫는 회계(25~28)의 5컷. 정치 잠언이 이음매에 배치.
6 의문·발견·정보	batach 세 갈래(1·25·26절), 시 32편과 닿는 자복, 동족 이자 금지 율법 배경, 텅 빈 길의 미해결, 12·28절의 qum 호응.
7 동영상	

단계	핵심 발견
	텅 빈 길의 도망 → 네 번 깜빡이는 토라 → 덮은 얼굴과 내놓는 입 → 허둥대는 발과 가린 눈 → 의인이 일어나는 거리, 압전.
8 초벌 제목·부제	"쫓는 자 없는 도망 — 덮는 손과 내놓는 입"
9 기도·내면	변리를 움킨 손과 구제하러 펴지는 손, 가려지는 눈을 본다. modeh ve'ozev — 고백과 떠남이 한 절에 묶였다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절

- 결 1 — batach, 세 갈래의 의지:** 같은 동사가 1절(사자 같이 안심)·25절(여호와를 의지)·26절(자기 마음을 믿음)에 세 번 나온다. 목적어가 여호와일 때 풍족이, 자기 마음일 때 미련이 따라오고, 1절의 담대함은 그 둘 사이에서 출처를 묻게 된다. 의인의 담대는 기질이 아니라 기대는 대상의 문제라는 것 — 장이 제 첫 절을 제 끝 무렵에서 스스로 풀어 준다. 3:5("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가 26절과 정면으로 마주 본다.
- 결 2 — torah, 지혜와 율법의 합류:** 율법이라는 단어가 4절(2회)·7절·9절에 네 번 모인다. 율법을 버리면 악인을 칭찬하게 되고(선악 감각),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달으며(인식의 조건), 율법에 귀를 닫으면 기도까지 가증해진다(예배의 조건). 잠언이 지혜·훈계·명철의 언어로 줄곧 말해 오다가, 이 장에서 토라 전승과 한 물길로 합쳐진다 — 지혜가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듣는 귀의 문제로 묶이는 합류 지점이다.
- 결 3 — 두 겹의 회계:** 바깥 장부에서는 돈이 움직인다 — 변리로 모은 재산이 공홀한 자의 공간으로 옮겨가고(8절), 급히 움킨 재물 뒤로 빈궁이 따라오고(22절), 구제하는 자는 공핍하지 않다(27절). 안쪽 장부에서는 죄가 움직인다 — 덮으면 형통이 막히고, 내놓고 버리면 공홀이 온다(13절). 두 장부가 같은 원리로 기재된다: 옮겨쥐면 새고, 내놓으면 채워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시 32:1-5 — 숨길 때 뼈가 쇠하고 자복할 때 사함을 받는 여정 — 28:13이 대구 한 절로 압축하는 결.
- 잠 19:1 · 12:11 — '가난해도 성실한 자'와 '토지를 가는 자' — 28:6·19가 변주·재현하는 원형들.
- 잠 27:5-6 —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 28:23 정책 잠언의 앞 장 연속.
- 잠 29:2 —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 28:12·28의 정치 잠언이 곧장 잇닿는 다음 장.
- 잠 24:11-12 — "우리가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 28:27 못 본 채하는 눈과 이어지는 방관의 윤리.
- 출 22:25 · 레 25:36-37 · 신 23:19 — 동족 이자 금지 — 28:8 변리 잠언의 율법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쫓는 자 없는 길. 내가 요즘 무엇에게서 달아나고 있는지 등 뒤를 본다.
- **멈춤 1:** 9절에서 멈춘다 — 듣지 않는 귀와 가증한 기도. 내 기도가 막힌다면 입이 아니라 귀의 문제일 수 있다.
- **멈춤 2:** 13절에서 멈춘다 — 자복하고, 버리고. 입으로 내놓은 것을 손이 아직 쥐고 있지는 않은지 두 동사 사이를 오간다.
- **끝:** 27절에서 멈춘다 — 펴진 손과 가린 눈. 오늘 내 눈이 누구 앞에서 감겼는지 묻는 채로 닫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1절(양심)과 28절(통치)의 액자 완결

- [x] torah 군집(4·7·9절)과 5절 인식론의 연쇄
- [x] batach 세 갈래(1·25·26절)의 분포
- [x] 13~14절 내면 회계와 8·22·27절 바깥 회계의 호응
- [x] 정치 잠언(2·12·15~16·28절)의 간격 배치와 29:2로의 다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에서 28장은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가운데 히스기야 모음(25~29장)의 후반, 정치 잠언의 밀도가 올라가며 30장 아굴의 관찰로 향하는 구간에 있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두 물길이 만나는 합수머리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의 물길 —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던 그 율법(출 22:25)이 28:8의 변리 잠언으로, 들으라던 그 명령이 28:9의 귀로 흘러든다. 다른 하나는 지혜 전승의 물길 — 1:7의 경외 모토가 28:14의 '항상 떠는 자'로, 3:5의 신뢰 권고가 28:26의 거울로 흘러든다. 그리고 그 합류 한가운데에 13절이 있다 —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공휼을 받는다는, 잠언이 좀처럼 말하지 않던 고백의 절. 행위와 결과의 격언들 사이에서 이 한 절은 시편 32편의 사죄 여정과 같은 결을 내고, 정경 전체가 증언하는 회개와 공휼의 흐름이 지혜 문학 안에도 물길을 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외는 이 장에서 내면 회계(자복)와 사회 회계(구제·이자·재판)로 구체화되며, 28:28의 '의인이 많아지는 거리'는 통치의 질과 백성의 숨이 묶여 있다는 29장의 관찰로 곧장 이어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쫓는 자 없는 도망에서 사자 같은 안심으로 / 덮는 손에서 내놓는 입으로 / 한 사람의 양심에서 한 사회의 숨통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8장은 '무엇에 기대어 사는가'라는 물음을 양심·기도·살림·통치의 네 층에 차례로 통과시키는 운동이다. batach의 목적어가 여호와인 사람은 텅 빈 길에서도 버티고, 자기 마음인 사람은 추격자 없이도 달아난다. 그 개인의 역학이 변리와 구제의 경제로, 관원과 백성의 정치로 확장되어 장 끝에서는 거리의 인구로 드러난다. 다만 이 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 28장이 연 정치의 액자는 29장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29:18)로 이어지며, 듣는 귀의 문제가 보는 눈(묵시)의 문제로 한 겹 더 깊어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처세 격언 모음이다 — 빛을 어떻게 다루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재판에서 무엇을 조심하라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관이 움직인다. 1절은 추격자를 그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드러낸다 — 악인을 쫓는 것은 바깥의 누구가 아니라 제 안의 무엇이다. 9절은 기도라는 가장 경건한 행위조차 듣는 귀가 닫히면 가증해진다고 말한다 — 종교 행위의 분량이 아니라 들음의 방향이 문제라는 것. 13절은 그 양심의 출구를 연다 — 덮는 자에게 막혀 있던 형통이, 고백하고 떠나는 자에게 공휼로 열린다. 잠언의 세계에서 죄의 해법이 더 나은 행실의 축적이 아니라 내놓음이라는 점은 깊은 물길이다. 그리고 27절이 그 양심을 마지막으로 시험한다 — 빼앗는 손이 아니라 가려지는 눈, 행한 악이 아니라 하지 않은 선. 못 본 체하는 눈에 가장 큰 저주가 붙는 장부라면, 이 장이 지키려는 것은 행동 목록이 아니라 보는 것과 듣는 것 — 한 사람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두 개의 창이다.

나는 오늘 쫓는 자 없는 길에서 달아나고 있는가, 사자처럼 안심하고 서 있는가 — 그리고 내 안심은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악한 관원이나 피 흘린 자의 극단을 상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덮는 손과 내놓는 입(13절), 움켜쥔 손과 펴진 손(8·27절), 듣는 귀와 돌린 귀(9절), 보는 눈과 가린 눈(27절) — 누구의 하루에나 있는 작은 동작들을 저울에 올린다.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공화를 받으리라는 약속은 열려 있고, 그 곁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의 재앙(14절)이 나란히 적혀 있어 그 열림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 장은 답을 강요하는 대신 마지막 풍경을 보여 준다 — 악한 권력이 무너진 거리에 다시 들어나는 사람들(28절). 한 사람의 양심이 풀리는 일과 한 사회의 숨이 트이는 일이 한 장부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 그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28장이 연 통치와 들음의 장부는 29장에서 한 절로 조여진다 —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29:18).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odeh ve'ozev* — 고백하고, 떠나는 자.

미해결 질문

잠언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28:1 —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악인은 무엇에게서 도망하는가?

- 본문은 추격자를 그리지 않는다. 죄가 스스로 추격자가 된다는 읽기가 자연스러워 보이나 그것은 해석이다. 텅 빈 길과 달아나는 등의 그림만 보존.

Q2. 28:14 — *mefached tamid*(항상 떠는 자)의 두려움은 무엇을 향하는가?

- 이 절에는 여호와와 이름이 없다. 절의 13절과 이어 읽으면 죄에 대한 떨림으로, 권 전체의 모토와 이어 읽으면 여호와 경외로 들린다. MT가 비워 둔 목적어를 비워 둔 채 이월.

Q3. 28:2 —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의 그 사람은 누구인가?

- 통치자인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지 본문이 특정하지 않는다. MT 하반절은 난해 구문으로 꼽히며 번역들이 갈린다. 한 사람이 나라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골격만 보존.

Q4. 28:13 — 자복(*modeh*)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 본문은 듣는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의 수동형도 행위자를 감춘다. 시 32편과 닿는 절만 기록하고 대상은 미해결로 보존.

Q5. 28:17 — "그를 막지 말지니라"는 명령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피 흘린 자가 함정으로 달려가는 길을 막지 말라 — 처벌의 집행인지, 양심의 자멸 과정인지, 공동체의 거리 두기인지 본문이 정하지 않는다. 보존.

Q6. 28:22 — "악한 눈(ra ayin)"의 관용 폭은 어디까지인가?

- 23:6의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와 같은 표현으로, 인색·탐심의 은유로 통용되나 22절에서는 다급한 축재와 묶인다. 인색인지 조급인지 둘 다인지 — 관용구의 폭을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29장

PRO-029 · 시가서 · 히브리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maqsheh oref*)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29:1)라는 임계의 경고로 열려, 묵시(*chazon*)가 없으면 백성이 풀어헤쳐진다(*yippara*)는 선언(29:18)과 사람 두려움을 여호와 의지로 바꾸는 교환(29:25)을 지나, 의인과 악인의 상호 미움(29:27)으로 솔로몬 모음 전체를 닫는 — 통치·분노·두 길의 종결 장.

관찰된 사실

잠언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층층의 무대: 왕궁·법정(2·4·12·14·26절) — 성읍 거리(8절) — 집 안(3·15·17·21절) — 보이지 않는 위층(18절의 묵시, 26절의 작정). 통치 절들이 액자처럼 장 전체에 분포.
- 소품(뿔): 이웃의 발 앞에 퍼는 그물(5절), 악인 스스로의 울무(6절), 사람 두려움의 울무(25절) — 한 장에 뿔 세 개, 임자가 각각 다름.
- 소품(그 외): 억지로 걷는 뇌물(4절), 채찍과 꾸지람(15절), 눈의 빛(13절), 분노라는 액체(11절 — 쏟아냄/눌러 담음).
- 소재의 두 물줄기: 분노 계열(8·9·11·22절)과 말 계열(5절 아침, 12절 거짓말, 19절 말로만, 20절 조급한 말, 24절 진술하지 않음).
- 의인·악인 대구의 잦은 회귀: 2·6·7·16·27절.
- 거룩한 단어의 미끄러짐: 4절 ish terumot — 성전 거제(*terumah*)의 어휘가 억지 징수로 쓰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의 서늘함 — 책망의 누적(자주)과 패망의 돌발(갑자기)이 한 절에 공존. 기회가 쌓이는 동안 끝은 한 번에 음.
- 2절은 기상도 — 통치의 질이 백성의 즐거움/탄식이라는 거리의 날씨로 번역됨.
- 13절의 무게 — 가장 먼 두 사람(가난한 자·포악한 자)이 같은 빛 아래 서는 관찰문.
- 11절의 감각 — 분노가 수위를 가진 물처럼: 다 쏟아내는 어리석음, 눌러 담는 지혜.
- 나라와 집의 교대 배열 — 왕의 정의와 아버지의 징계가 같은 원리의 두 크기처럼 서로를 비춤.
- 수평 잠언들 가운데 끼워진 수직의 한 절(18절) — 위에서 오는 것과 공동체 전체를 한 문장에 둠.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 한 사람의 임계점(시작)에서 두 길의 영구한 상호 배척(끝)으로 — 개인의 굳어 가는 시간에서 세계의 갈라짐 진단으로.

- 어미의 이동: "피하지 못하리라"(달히는 미래의 경고) → "미움을 받느니라"(늘 그러한 현재의 진단).
- 27절은 한 장의 끝이 아니라 10:1 이후 솔로몬 대구 잠언 전체, 25:1 이후 히스기야 편집 모음 전체의 마지막 절 — 30장 아굴이 다른 음성으로 이어 받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목이 곧은 사람(1), 의인·악인(2·6·7·16·27),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아버지(3), 왕(4·14), 아침하는 이웃(5), 거만한 자·슬기로운 자(8), 미련한 자(9),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온전한 자(10), 관원과 하인들(12), 가난한 자·포악한 자(13), 자식과 어미(15·17), 백성(2·18), 종(19·21), 말이 조급한 사람(20), 도둑의 짝(24),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여호와를 의지하는 자(25), 주권자와 줄 선 많은 사람(26).
- 여호와와의 세 번 등장 — 13절(눈에 빛을 주심), 25절(의지의 대상), 26절(작정의 출처). 모두 장의 후반부.
- 중심 사상 1 — 통치의 인과: 정의→나라 견고(4), 가난한 자 신원→왕위 영원(14), 뇌물→멸망(4). 12절은 부패의 방향 —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림(관원의 귀 하나가 하인 전체를 물들임).
- 중심 사상 2 — 앎의 윤리(7절): 의가 행동 이전에 '알아 줌'으로, 악이 '알아 줄 지식 없음'으로 그려짐.
- 중심 사상 3 — 두 두려움의 교환(25절): cherdat adam(사람의 떨림)과 yivtach baYHWH(여호와 의지)가 다른 어휘로 갈라져 놓임. 두려움의 제거가 아니라 대상의 교환.
- 23절은 권 전체 교만 잠언(16:18, 18:12)의 한 문장 요약 — 올라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영(shafel ruach)은 영예를 얻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경첩 — 자주 책망 받고도 목이 곧은 자(maqsheh oref)의 갑작스러운 패망.
- 컷 2 (2~14절): 통치와 분노의 직조 — 기상도(2), 왕의 정의와 뇌물(4), 그물·울무(5~6), 앎의 윤리(7), 분노 절들(8~11), 흘러내리는 부패(12), 같은 빛(13), 신원하는 왕위(14).
- 컷 3 (15~21절): 집과 기강 — 채찍과 꾸지람(15), 징계의 평안(17), 묵시 없는 백성과 율법 지키는 자(18), 말로만 안 되는 종(19), 조급한 말(20), 곱게 기른 종(21).
- 컷 4 (22~27절): 종결 매듭 — 분노(22)와 교만(23)의 되짚음, 세 개의 잘못된 의탁(24 도둑의 짝, 25 사람 두려움, 26 주권자 줄서기)과 각각의 맞은편(자기 영혼·여호와 의지·여호와와의 작정), 상호 미움의 봉인(27).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ish tokhachot*(אִישׁ תּוֹכַחַת) — 책망들의 사람, 거듭 책망 받아 온 자. 1절. / *maqsheh oref*(מְקַשֶּׁה עֹרֵף) — 목을 곧게 하는 자. 출 32:9 "목이 곧은 백성" 계열.
- *mishpat*(מִשְׁפָּט) — 정의. 왕이 나라를 세우는 도구. 4절. / *ish terumot*(אִישׁ תְּרוּמוֹת) — 거제(terumah)의 어휘가 억지 징수로 미끄러진 표현. 4절.
- *ruach*(רוּחַ) — 11절에서는 노·격정. "자기의 영(분노)을 다 내보내는" 그림. / *or enayim*(אֹר עֵינַיִם) — 눈의 빛. 13절.
- *shevet*(שֵׁבֶט) — 채찍·막대기. 15절. / *chazon*(חֲזוֹן) — 묵시·환상. 사 1:1 등 선지서 표제의 단어. 18절.
- *yippara*(יִפְרָא) — para의 형태, 풀어헤쳐지다·고삐 놓이다. 출 32:25 "백성이 방자하니"와 같은 동사. 18절.
- *manon*(מָנוֹן) — 구약 단 한 번 등장(hapax legomenon). "자식인 체하리라"는 여러 추정 중 하나, 번역들이 같음. 21절.
- *madon*(מָדוֹן) — 다툼. 22절. / *shafel ruach*(שָׁפֵל רוּחַ) — 낮은 영, 겸손한 마음. 23절.

- *cherdat adam*(חֶרֶדַּת אָדָם) — 사람의 떨림. 경외의 *yirah*와 다른 단어. 25절. / *yivtach baYHWH*(יִיבְטַח בַּיהוָה) — 여호와를 의지하다. *batach*는 몸을 기대는 신뢰. 25절.
- *toevah*(תוֹעֵבָה) — 가증히 여김·미움. 27절에서 양쪽 모두에게 쓰임.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경칩 1절 + 통치·분노 직조(2~14) + 집과 기강(15~21) + 종결 매듭(22~27)의 네 단.
- 통치 액자: 2·4·12·14·16·26절이 장 전체에 규칙적으로 분포 — 어느 절에 서든 왕좌가 보이는 배열.
- 분노 모음: 8·11·22절(+9절) — 거리·개인·관계의 세 차원에서 분노를 다룸.
- *rabah*(많아지면)의 짝: 2절(의인이 많아지면 즐거움)과 16절(악인이 많아지면 죄) — 같은 동사가 반대 방향의 문장을 받침.
- "보느냐" 형식(20절) — 26:12("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22:29("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와 같은 틀. 조급한 말이 자기 확신과 같은 등급에 놓임.
- 29:27 — 양방향 *toevah* 문장. 10:1 이후 솔로몬 대구 전체와 25:1 이후 히스기야 모음의 편집 봉인. 30장(아굴)·31장(르무엘)은 다른 이름의 표제로 이어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왕의 정의가 왕좌를 받친다는 통치 이념(4·14절) — 이집트 메리카레 교훈 등 근동 왕실 교훈문학과 공유 — 배경.
- 채찍과 훈육(15·17·19절) — 이집트 서기관 학교의 교육 관행과 닿는 근동 공통 양육 문화 — 배경.
- 가내 종 제도(19·21절) — 말과 훈련으로 다뤄지는 종의 사회경제 위치 — 배경.
- 신탁·환상과 공동체 질서(18절) — 신의 계시가 사회 기강의 근거로 여겨지던 근동 문화 토양. 잠언은 그 위에서 *chazon*과 토라를 백성에게 묶음 — 배경.
- LXX: 29:18의 *chazon*을 '해설자(exegetes)' 계열로 옮김 — 계시의 부재를 안내자의 부재로 푼 번역 현상. 29:21의 *manon*은 전혀 다른 문장으로 우회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29:13 ↔ 잠 22: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 '지으신 이'가 '베풀 주시는 이'로 변주)
- 잠 29:20 ↔ 잠 26:12 (보느냐 형식 — 자만과 조급한 말이 같은 빈칸에 들어감)
- 잠 29:1·18 ↔ 출 32:9·25 (목이 곧은 백성 · 백성이 방자하니 — *maqsheh oref*와 *para*의 출처 장면)
- 잠 29:23 ↔ 잠 16:18 · 18:12 (교만과 패망, 겸손과 영예 — 권 전체 교만 잠언의 요약)
- 잠 29:8·11 ↔ 잠 15:1·18 (노를 그치게 하는 자 — 분노 잠언의 짝)
- 잠 29:27 ↔ 잠 25:1 (히스기야 모음의 표제와 봉인)
- 잠 29:25 ↔ 잠 1:7 (사람 떨림과 여호와 경외 — 권의 모토가 작동으로 입증되는 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좁은 방, 거둬 들어오는 책망, 조금씩 굳어 가는 목 —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피하지 못하리라. 도시가 내려다보인다. 의인이 많아진 거리의 웃음, 악인이 권세 잡은 거리의 탄식. 왕궁의 한 손은 정의의 주춧돌을 놓고 다른 손은 백성의 주머니에서 억지로 걷는다. 골목에서 아침이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펴고, 어리석은 분노가 독 터진 물처럼 쏟아지는 곁에 지혜의 저수지가 고요하다. 관청의 뒷사람이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복

도의 하인들이 차례로 어두워진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의 눈에 같은 아침 빛이 들어온다. 집 안 — 채찍과 꾸지람, 잠든 아이, 평안해진 어미. 자막처럼 지나가는 한 문장 —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풀어헤쳐지거니와. 고삐 풀린 군중 한가운데 율법을 붙든 한 사람만 제 길을 걷는다. 주권자의 문 앞 긴 줄을 카메라가 지나쳐 하늘로 오른다 —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던 발 앞에서 울무가 닫히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선다. 갈림길에서 의인과 악인이 등을 돌리고 두 길이 지평선에서 갈라진다.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곧은 목과 풀어헤쳐진 백성 — 모음을 봉인하는 마지막 대구"
- 초별 부제: "목이 곧은 사람의 갑작스러운 패망(29:1)으로 열려, 통치의 기상도와 분노의 저수지, 목시 없는 백성의 풀어헤쳐짐(29:18)과 두 두려움의 교환(29:25)을 지나, 의인과 악인의 상호 미움(29:27)으로 솔로몬 모음을 봉인하는 종결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6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통치 액자 + rabah 짝 + 히스기야 모음 봉인 + 근동 왕권 이념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9:18의 chazon을 현대 '비전 경영론'의 용법으로 끌여가지 않고, 선지적 계시와 공동체 기강이라는 원문의 짜임 관찰로만 둬. 널리 인용되는 절일수록 본문의 어휘(chazon·yippara)로 돌아가 머물.
- 29:25의 두 두려움 교환을 심리 처방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cherdah와 betach라는 어휘 대비의 관찰로 보존.
- 29:14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를 메시아 예언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통치 잠언의 인과 진술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29장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maqsheh oref)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29:1)라는 임계의 경첩으로 열려, 통치의 기상도(29:2)와 왕의 정의(29:4·14), 분노의 저수지(29:11), 위에서 흘러내리는 부패(29:12), 같은 빛 아래의 두 사람(29:13)을 직조한 뒤, "목시(chazon)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yippara)"(29:18)라는 수직의 선언과 사람 떨림(cherdat adam)을 여호와 의지(yivtach baYHWH)로 바꾸는 교환(29:25)을 지나, 의인과 악인의 상호 미움(29:27)으로 10장 이래의 솔로몬 대구 잠언 전체를 봉인하는 종결 장이다.

한 문단: 좁은 방에서 책망이 거듭 들려오고 한 사람의 목이 조금씩 굳어 간다 —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도시가 내려다보인다. 누가 다스리는가가 거리의 날씨가 — 의인이 많아진 거리의 웃음, 악인이 권세 잡은 거리의 탄식. 왕궁의 한 손은 정의의 주춧돌을 놓고 다른 손은 백성의 주머니에서 억지로 걷는다. 어리석은 분노가 독 터진 물처럼 쏟아지는 곁에 지혜의 저수지가 고요하고, 관청 윗사람의 귀 하나가 복도의 하인 전부를 물들인다.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의 눈에 같은 아침 빛이 들어온다. 집 안의 채찍과 꾸지람을 지나, 자막처럼 한 문장이 흐른다 —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풀어헤쳐지거니와. 주권자의 문 앞 긴 줄을 카메라가 지나쳐 하늘로 오르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발 앞에서 올무가 닫히는 동안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선다. 갈림길에서 두 길이 등을 돌리고, 솔로몬의 대구가 여기서 마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왕궁 — 거리 — 집 — 보이지 않는 위층의 층층 무대. 몇 세 개(그물·올무·두려움). 통치 절들이 액자처럼 분포(2·4·12·14·16·26절).
2 첫 느낌·분위기	누적('자주')과 돌발('갑자기')가 공존하는 1절. 통치가 날씨가 되는 기상도(2절). 같은 빛 아래의 두 사람(13절). 분노의 수위(11절).
3 시작과 끝	한 사람의 임계점(1절)에서 두 길의 영구 배척(27절)으로. 경고의 미래형에서 진단의 현재형으로. 27절은 솔로몬 모음 전체의 봉인.
4 등장인물·사상	왕·관원·백성·자식·종·도둑의 짝 등 사회 전 층위. 여호와와 후반부에 세 번(13·25·26절). 통치의 인과, 압의 윤리(7절), 두 두려움의 교환(25절).
5 장면 컷	경첩(1)/통치·분노 직조(2~14)/집과 기강(15~21)/종결 매듭(22~27)의 4컷. 마지막 여섯 절은 세 개의 잘못된 의탁과 맞은편들로 설계된 종결부.
6 의문·발견·정보	출 32장의 어휘 메아리(maqshehoref-yippara). 26:12와 같은 '보느냐' 형식(20절). manon은 hapax. 히스기야 모음(25:1~29:27)의 매듭.
7 동영상	굳어 가는 목 → 도시의 기상도 → 같은 빛 → 풀어헤쳐지는 백성과 올무 붙든 한 사람 → 하늘로 오르는 줄서기 → 갈라지는 두 길,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굳은 목과 풀어헤쳐진 백성 — 모음을 봉인하는 마지막 대구"
9 기도·내면	세 개의 올무와 같은 빛을 함께 본다. 내 눈에 들어온 빛 아래에서 무엇을 알아 주며 사는지 — 묻지 않고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절

- 절 1 — 통치의 액자:** 2·4·12·14·16·26절이 장 전체에 규칙적으로 돌아온다. 정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뇌물은 멸망시키며(4절),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왕위는 영원하고(14절), 관원의 귀 하나가 하인 전체를 물들인다(12절). 그리고 26절이 이 액자의 마지막 단을 하늘에 둔다 — 주권자의 문 앞에 줄이 길어도,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땅의 결재선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한 단을 위로 더 갖고 있다는 배열이다.
- 절 2 — 두 두려움의 교환:** 25절은 사람의 떨림(cherdad adam)과 여호와 의지(yivtach baYHWH)를 맞세운다. 두려움을 없애는 처방이 아니라 기대는 곳을 옮기는 교환 — 그리고 그 교환이 1:7의 모토(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가 모음의 끝에서 작동으로 입증되는 형태다. 경외가 들어선 가슴에서 사람 공포의 올무가 풀린다는, 권 전체 두려움 어휘의 종착 정리다.

3. **결 3 — 굳은 목과 풀어헤쳐진 백성**: 1절의 maqsheh oref와 18절의 yippara는 둘 다 출애굽기 32장 — 금송아지 결에서 "목이 굳은 백성"(32:9)이 "방자해진"(32:25) 장면 — 의 어휘다. 한 사람의 임계(1절)와 공동체의 와해(18절)가 같은 출처의 두 단어로 한 장 안에 놓여, 개인의 굳어짐과 백성의 풀어짐이 하나의 일임을 어휘 차원에서 잇는다. 시내산 아래의 사건이 격언 두 개로 응축된 모양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22:2 —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 29:13에서 '지으심'이 '눈의 빛 주심'으로 변주.
- 잠 26:12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 29:20과 같은 형식. 자만과 조급한 말이 같은 빈칸에 들어가는 비교 구문.
- 출 32:9·25 — 목이 굳은 백성 · 백성이 방자하니 — 29:1과 29:18의 어휘 출처 장면.
- 잠 16:18 · 18:12 — 교만은 패망의 선봉 — 29:23이 그 계열을 한 문장으로 요약.
- 잠 25:1 —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 표제 — 그 모음이 29:27에서 닫히고 30장 아굴이 이어 받음.
- 잠 1:7 —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 — 29:25의 교환 구조가 그 모토의 실제 작동을 보여 줌.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책망이 '자주' 왔다는 말에 멈춰, 내게 거듭 들려온 책망들을 센다.
- **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알아 주는 것이 의라면, 나는 누구의 사정을 알아 주지 못한 채 지나왔는지 떠오른다.
- **멈춤 2**: 11절에서 멈춘다 — 내 분노의 수위. 다 쏟아낸 날들과 눌러 담은 날들을 나란히 본다.
- **끝**: 25절과 26절 사이에서 멈춘다 — 내가 선 줄과 내가 기댄 곳. 두려움의 임자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경첩(1)·직조(2~14)·집과 기강(15~21)·종결 매듭(22~27)의 네 단 완결
- [x] 통치 액자(2·4·12·14·16·26절)의 분포와 26절의 상승
- [x] 출 32장 어휘 메아리(maqsheh oref · yippara)의 한 장 내 공존
- [x] 두 두려움의 교환(25절)과 1:7 모토의 호응
- [x] 29:27의 양방향 toevah와 솔로몬 모음 봉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29장은 그 둘째 국면 — 10장부터 스무 장에 걸쳐 일상을 빚어 온 대구의 강 — 이 바다에 닿는 하구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두 가지를 완성해 둔다. 하나는 경외의 심리학 — 1:7이 선언한 경외가 29:25에서 사람 떨림(cherdah)을 풀어내는 의지(betach)로 작동함을 보임으로써,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을 덜 두려워하게 되는' 교환의 실재를 모음의 끝에 둔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차원의 경외 — 18절이 묵시(chazon)와 토라를 백성의 기강에 묶어, 경외가 개인 경건을 넘어 공동체를 지탱하는 받침임을 말한다. 출애굽기 32장의 어휘(목이 굳은·방자한)가 이 장에 메아리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 계시 아래 모인 백성이 계시를 읽을 때 어떻게 풀어헤쳐지는지를 이스라엘은 이미 산 아래에서 겪었고, 그 기억이 격언 두 개로 응축되어 모음의 봉인 곁에 놓였다. 그리고 27절이 닫히면 30장에서 전혀 다른 음성이 열린다 — 왕의 어전에서 수집된 잠언들이 끝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30:2)라고 자기를 낮추는 아굴의 관찰이 시작된다. 29장은 그 문턱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사람의 굳은 목(29:1)에서 두 길의 영구한 갈라짐(29:27)으로 / 주권자 문 앞의 줄서기에서 여호와와 작정(29:26)으로 / 사람의 떨림(cherdad adam)에서 여호와 의지(yivtach baYHWH)로(29:25).

한 화살표로 좁히면, 29장은 기대는 곳을 옮기는 운동이다. 분노를 어디에 담는가(11절), 두려움을 누구 앞에 두는가(25절), 은혜를 어느 문에서 구하는가(26절) — 장 전체가 의탁의 임자를 묻고, 마지막 여섯 절이 잘못된 의탁 셋(도둑의 짝·사람 두려움·주권자 줄서기)과 그 맞은편들을 차례로 보여 준 뒤 두 길의 갈라짐으로 닫는다. 다만 이 닫힘은 책의 끝이 아니라 국면의 끝이다. 30장의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였사오니"(30:7)라며 구하는 자의 기도로 이어 받고,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경외의 모토를 한 사람의 삶으로 받아낸다. 29장의 벡터는 '대구로 배운 지혜'를 '낮아진 관찰과 빚어진 삶'으로 넘기는 인계의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통치술과 분노 관리와 자녀 양육의 격언집이다 — 어느 시대의 공직자 수첩에 적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문장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받침의 질문이 움직인다. 왕좌를 받치는 것은 무엇인가 — 군대나 세수가 아니라 정의와 가난한 자의 신원이다(4·14절). 조직을 물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 제도가 아니라 윗사람의 귀 하나다(12절). 백성을 묶는 것은 무엇인가 — 통제가 아니라 묵시와 토라다(18절). 한 사람을 안전하게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 줄서기가 아니라 의지다(25~26절). 보이는 구조마다 보이지 않는 받침이 하나씩 더 있고, 그 받침들의 끝이 모두 여호와께 닿는다 — 빛을 주시고(13절), 기뻐 받으시고(25절), 작정을 내시는(26절) 분. 그리고 7절이 이 모든 받침 아래에 가장 조용한 본질 하나를 둔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준다". 의가 행동 이전에 앞이고, 악이 악의 이전에 '알아 줄 지식 없음'이라면 — 지식의 근본이 경외라는 1:7의 선언이 왜 이 책의 첫 문장이어야 했는지가 모음의 끝에서 거꾸로 비춰진다. 경외가 앞을 낳고, 앞이 알아 줌을 낳고, 알아 줌이 의가 된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 가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올무가 하나 있다 — 사람의 떨림. 나는 오늘 누구의 눈치 안에서 살았고, 내 무게를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두려움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 앞의 떨림이 올무가 되는 길과, 여호와께 기대는 자가 안전해지는 길을 나란히 보여 줄 뿐이다(25절). 주권자의 문 앞에 선 "많은 사람"도 정죄되지 않는다 — 그 줄 곁에 작정의 출처가 조용히 적혀 있을 뿐이다(26절). 그리고 1절이 그 곁에서 시간을 일깨운다. 책망은 '자주' 온다 — 임계가 닫히기 전까지는. 굳어 가는 목과 풀려 가는 기뻐사에서, 이 장은 독자에게 빛 하나를 남긴다.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의 눈에 똑같이 들어오던 그 빛(13절) — 내 눈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빛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치는 운동 한 줄: 왕의 어전에서 수집된 대구가 봉인되고, 자기를 짐승보다 낮다 하는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하였사오니"(30:7-9)라는 구하는 자의 기도로 이어 받는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etach* — 의지, 사람의 떨림을 푸는 기뻐.

미해결 질문

잠언 2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9:18의 "묵시(chazon)가 없으면" — 이 부재는 어느 차원의 일인가?

- 선지적 계시가 끊긴 시대 상황인지, 공동체가 계시에 귀를 닫은 상태인지 본문은 특정하지 않는다. 후반절 이 단수("율법을 지키는 자")로 좁혀지는 까닭도 함께 보존. 이 절이 후대에 '비전'의 격언으로 널리 쓰여 온 만큼, 원문의 chazon·yippara로 돌아가 머무는 일 자체를 과제로 이월.

Q2. 29:13의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 눈의 빛은 무엇인가?

- 생명 자체인지, 보는 능력인지, 두 사람 모두에게 내리는 은총의 평등인지 — 22:2의 "지으신 이"가 "빛 주시는 이"로 바뀐 변주의 폭과 함께 미해결로 보존.

Q3. 29:9의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 그치지 않는 책임은 어느 쪽인가?

- 지혜로운 자가 노해도 웃어도 끝나지 않는다면 원인은 미련한 자 쪽으로 기우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왜 이 다툼 안에 있는가. 출구를 보여 주지 않는 문장의 결을 보존.

Q4. 29:1의 '자주'와 '갑자기' 사이 — 임계는 어디인가?

- 책망이 거듭 오는 긴 시간과 패망이 닥치는 한순간 사이의 경계를 본문은 긋지 않는다. 1:24~28의 닫히는 응답과 맞물린 시간 구조로 이월.

Q5. 29:21의 manon — 이 한 번뿐인 단어는 무슨 뜻인가?

- 구약 전체에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hapax legomenon). "자식인 체하리라"는 추정 가운데 하나이고 고대 번역들도 서로 갈린다. 단어의 불확실성 자체를 관찰 사실로 보존.

Q6. 29:26 —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줄서기 자체가 그릇된 것인가, 종착지만 바로잡히는 것인가?

- 본문은 줄을 선 "많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작정의 출처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만 그 곁에 둔다. 줄서기와 의지(betach)의 관계는 미해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30장

PRO-030 · 시가서 · 히브리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30:2)는 무지의 고백으로 입을 연 외부인 아굴(Agur)의 잠언(massa) — 읊 38장을 메아리하는 다섯 질문(30:4)과 잠언 유일의 기도 "필요한 양식 (lechem chuqqi)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30:8)를 지나, 채워지지 않는 넷·자취 없는 넷·견딜 수 없는 넷·작고 지혜로운 넷·위풍 있는 넷의 숫자 잠언 연작으로 — 모른다고 고백한 사람의 눈에 세상이 경이의 목록으로 다시 보이는 장.

관찰된 사실

잠언 3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진폭: 하늘 끝·바람·물·땅의 모든 끝(4절)에서 밥상(8절), 물가(15절), 바위 틈(26절), 왕궁 벽(28절), 부엌(33절)까지 — 우주에서 그릇으로 내려오는 카메라.
- 발화의 출처: 솔로몬도 히스기야의 신하들(25:1)도 아닌,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외부인. 수신자 이디엘과 우갈도 정체 미상.
- 소품(자연): 바람을 담은 손바닥, 물을 짠 옷(4절), 거머리(15절), 스올·태·마른 땅·불(16절), 까마귀·독수리 새끼(17절), 독수리·뱀·배(19절), 개미·사반·메뚜기·도마뱀(24~28절), 사자·사냥개·숫염소(30~31절).
- 소품(몸·살림): 방패(5절), 빵 — 정해진 몫의 양식(8절), 장검 같은 앞니·군도 같은 어금니(14절), 입을 씻는 식사(20절), 영긴 젖과 비틀린 코(33절).
- 1~29장의 저울추·인장·등불 같은 사람의 물건이 물러나고 동물·날씨·몸이 들어옴 — 잠언 전체에서 동물 밀도가 가장 높은 장.
- 두 단 구성: 1인칭 고백·기도(1~9절) 對 3인칭 목록(10~33절). 후반의 뼈대는 "서넛이 있나니"(x, x+1) 점층 공식 4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잠언 안의 읊기적 공기 — 격언의 행렬 끝에서 "나는 짐승이라"(2절)는 무릎 꿇는 고백이 들림. 부끄러움이 아니라 책 전체가 숨을 내쉬는 후련함.
- 음향 설계: 낮은 독백(2~3절) → 다섯 발의 질문 연사(4절) → 가라앉는 응답(5절) → 기도의 어조(7~9절) → 목록 낭송의 박자(10~31절) → 단언의 정지(33절).
- '서넛이 있나니'의 톤 — 경고가 아니라 경이의 목록. 2절의 '모른다'(한탄)와 18절의 '깨닫지 못한다'(감탄) 사이에서 같은 결의 단어가 온도를 바꿈.
- 7~9절 기도의 결: 가난만이 아니라 풍족도 위협으로 세우는 양극단 경계 — 부지런함과 풍족을 권해 온 잠언의 흐름 결에서 다른 결.
- 감각: 거머리의 흡착, 마른 땅의 흡수, 꺼지지 않는 불(15~16절), 젖의 영김과 코의 피(33절) — 추상이 아니라 살갓의 인과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 낫선 이름의 표제에서 부역에서 검증되는 인과로 — "총명이 없다"(2절)던 화자가 세상의 인과를 가장 단단한 문장으로 말하며 끝남.
- 어미의 경계: 하늘의 일은 물음("너는 아느냐", 4절), 부역의 일은 단언("남이니라", 33절) —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경계를 어미가 그음.
- 2절(나는 짐승이라)과 24절(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의 호 — 자기를 짐승이라 낮춘 눈이 짐승들에게서 지혜를 발견함. 낮춤이 관찰의 입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굴(화자), 야게(아버지), 이디엘·우갈(수신자, 미상), 하나님·여호와·거룩하신 자(질문의 대상이자 방패·기도의 수신자), 종과 상전(10절), 네 무리(11~14절), 음녀(20절), 왕(31절), 미련한 자(32절).
- 동물: 거머리, 까마귀, 독수리(17·19절), 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사자, 사냥개, 숫염소 — 사람보다 동물이 많은 장.
- 중심 사상: 7~9절 기도 — 부와 가난을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는 저울("여호와가 누구냐" 할 위협 / "이름을 욕되게" 할 위협). 1:7의 경외가 끼니의 단위로 번역됨.
- 11~14절 무리 연작(dor 4회 anaphora)의 점층: 부모 패역 → 자기기만 → 교만한 눈 → 약자를 삼키는 폭력. 14절 '삼키며'가 15절 거머리로 이어지는 편집 이음매.
- 입의 분포: 다오 다오 하는 입(15절), 먹고 씻는 입(20절), 칼 같은 이빨(14절), 막아야 할 입(32절), 더하지 말아야 할 입(6절), 필요한 양식만 받는 입(8절).
- lechem chuqqi(8절) — '내 몫으로 새겨진 빵'. choq(규례·할당)의 결. qedoshim(3절) — 거룩하신 자의 복수 형태, 관찰로만 보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표제와 무지의 고백 — 아굴의 massa, "나는 짐승이라."
- 컷 2 (4~6절): 다섯 질문(하늘·바람·물·땅 끝·이름)과 말씀의 순전·방패·더하지 말라.
- 컷 3 (7~9절): 두 가지 기도 — 거짓을 멀리, 가난도 부도 말고 필요한 양식만.
- 컷 4 (10~17절): 종 비방 금지, 네 무리의 초상, 거머리와 채워지지 않는 넷, 부모 조롱하는 눈의 결말.
- 컷 5 (18~31절): 숫자 잠언 연작 — 자취 없는 넷(+음녀의 자취), 견딜 수 없는 넷, 작고 지혜로운 넷, 위풍 있는 넷.
- 컷 6 (32~33절): 결구 —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엉긴 젖·코피·다툼의 인과.
- 컷 5 내부 질서: 결핍·전복의 목록(채워지지 않는 것·견딜 수 없는 것)이 앞에, 지혜·위엄의 목록(작고 지혜로운 것·위풍 있는 것)이 뒤에 — 어두운 경이에서 밝은 경이로.
- 24~28절만 "넷이 있나니"로 단정 + '~로되/~없으되/~하여도' 양보 구문 4회 — 약함과 지혜가 한 몸인 문장들.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gur(אַגוּר) — 화자의 이름, '모으다' 어근과 닿는 풀이. 구약에 여기만 나옴. Yaqeh(יָקֵחַ)도 동일.

- *massa*(מַסָּה) — 잠언·신탁·지명(창 25:14 마사)의 세 갈래가 열린 표제어. 1절.
- *neum hagever*(נְעוּם הַגֶּבֶר) — '그 사람의 말씀', 발람(민 24:3)·다윗의 마지막 말(삼하 23:1)의 신탁 도입 공식. 1절.
- *qedoshim*(קְדוֹשִׁים) — 거룩하신 자, 복수 형태. 3절. / *tserufah*(צְרוּפָה) — 순전하다, 제련 동사에서. 5절. / *magen*(מָגֵן) — 방패. 5절.
- *kazav*(כָּזַב) — 거짓말. 8절. / *lechem chuqqi*(לֶחֶם חֻקִּי) — 내 몫으로 정해진 빵, choq(규례·할당)에서. 8절.
- *alukah*(עֲלוּכָה) — 거머리, 구약 단 1회. 15절. / *sheol*(שְׁאוֹל) — 스올. 16절.
- *derekh neshet*(דֶּרֶךְ נֶשֶׁת) — 독수리의 자취. 19절. / *almah*(עַלְמָה) — 젊은 여인. 19절. / *dor*(דּוֹר) — 무리·세대. 11~14절.
- *shafan*(שָׁפָן) — 사반·바위너구리(레 11:5). 26절. / *semamit*(שֵׁמָמִית) — 도마뱀, 구약 단 1회. 28절. / *layish*(לַיִשׁ) — 사자의 시어. 30절.
- *chemah*(חֶמָּה) — 엉긴 젖. 33절. / *aph*(אֶפֶס) — 코, 같은 단어 계열이 '노(분노)' — 33절의 언어유희, 형태 관찰로만 보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표제(1) + 무지 고백(2~3) + 질문 시(4) + 말씀 선언(5~6) + 기도(7~9) + 단편·무리 연작(10~17) + 숫자 잠언 연작(18~31) + 절구(32~33)의 짜임.
- 읊기 메아리의 밀도: 4절 질문 연속 ↔ 읊 38장, 32절 손으로 입 막음 ↔ 읊 40:4, 2~3절 무지 고백 ↔ 읊 42:3 — 격언의 책이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장을 품음.
- 정경 메아리: 5절 ↔ 시 18:30(삼하 22:31) 거의 동일 행, 6절 ↔ 신 4:2(더하지 말라) — 아굴의 발화가 기존 본문을 인용·메아리하는 짜임.
- '족함'의 마주 봄: 채워지지 않는 것들(15~16절)과 정해진 몫으로 족함을 구하는 기도(8절)가 같은 장 안에서 대면.
- 무지의 두 온도: 2절(한탄의 모름)과 18절(감탄의 모름 — 심히 기이히 여기고) — 같은 절의 동사가 고백에서 경이로 이동.
- x, x+1 점층 공식 4회(15·18·21·29절) + 24절의 단정형 "넋이 있나니" — 잠언 안에서 숫자 공식이 연쇄되는 유일한 곳.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massa* — 창 25:14·대상 1:30의 이스마엘 자손 이름과 동철자. 아굴이 북아라비아 마사 사람일 가능성이 변역 폭 안에 있음. 왕상 4:30의 '동방 사람들의 지혜'가 정경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의 배경.
- 숫자 잠언(x, x+1) — 우가리트 문헌 등 고대 근동 시가의 공통 점층 장치 — 배경.
- 사반(바위너구리) — 레 11:5에도 나오는 팔레스타인 바위 지대의 실제 동물 — 자연 배경.
- 거머리 — 근동 물가의 흡혈 환형동물, 채워지지 않음의 표상 — 물질 배경.
- LXX: 30:1-14를 24:22 뒤에, 30:15-33을 24:34 뒤에 배치(아굴 단락의 분할 재배열), 아굴·야게를 고유명사로 옮기지 않음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30:4 ↔ 읊 38:4-11 ("네가 아느냐" — 창조 질문의 형식 공유)

- 잠 30:32 ↔ 욥 40:4 (손으로 입을 가리는 동작)
- 잠 30:2-3 ↔ 욥 42:3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 — 무지 고백의 결)
- 잠 30:5 ↔ 시 18:30·삼하 22:31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방패시라)
- 잠 30:6 ↔ 신 4:2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 잠 30:25 ↔ 잠 6:6-8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 여름 양식 준비)
- 잠 30:1 ↔ 민 24:3·삼하 23:1 (neum hagever — 신탁 도입 공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둠 속에서 낯선 이름이 낭독된다 —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낮은 독백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고개를 들자 카메라가 솟구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물을 옷에 짖 자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 그의 이름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너는 아느냐. 질문이 별 사이로 흩어지고 한 문장이 방패처럼 들린다 —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손이 모이고 식탁에 빵 한 덩이가 놓인다 —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거리의 행렬 — 저주하는 입, 깨끗하라는 손, 높은 눈꺼풀, 장검 같은 이빨. 물가의 거머리가 다오, 다오 운다. 하늘의 독수리, 반석의 뱀, 바다의 배 — 자취가 없다. 땅의 작은 것들 — 여름 곳간의 개미, 바위 틈의 사반, 임금 없는 메뚜기 떼, 왕궁 벽의 도마뱀. 사자와 숫염소와 왕이 지나간다. 마지막 화면, 부엌 — 젖을 젖는 손, 엉겨 가는 젖.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압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모른다고 말한 눈에 보이는 것들 — 아굴의 관찰 공책"
- 초별 부제: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외부인의 무지 고백으로 열려, 욥 38장을 메아리하는 다섯 질문과 잠언 유일의 기도(필요한 양식)를 지나, 다섯 겹 숫자 잠언으로 세상을 경이의 목록으로 다시 세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욥기 메아리 밀도 + $x \cdot x + 1$ 점층 공식 + massa 번역 폭 + LXX 재배열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0:4의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독교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본문이 열어 둔 물음 그대로 미해결로 보존.
- 30:8의 lechem chuqqi를 주기도문 해설로 앞당겨 읽지 않고, 본문 안의 기도 어휘 관찰과 정경의 결 비교 (배경)로만 둬.

- 30:24-28 작은 것들의 목록을 처세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약함과 지혜가 한 몸인 양보 구문의 형태 관찰로 됨.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massa)"(30:1)이라는 낯선 표제 아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30:2)는 무지의 고백으로 열려, 읊 38장을 메아리하는 다섯 질문(30:4)과 말씀의 순전 선언(30:5-6)을 지나, 잠언에 하나뿐인 기도 —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lechem chuqqi)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30:7-9) — 를 드린 뒤, 네 무리의 초상(30:11-14)과 채워지지 않는 넷·자취 없는 넷·견딜 수 없는 넷·작고 지혜로운 넷·위풍 있는 넷의 숫자 잠언 연작(30:15-31)으로 세상을 경이의 목록으로 다시 세고, 젓과 코와 노의 인과(30:33)로 닫히는 — 아굴의 관찰 장이다.

한 문단: 어둠 속에서 낯선 이름이 낭독된다 — 야게의 아들 아굴. 한 사람의 낮은 독백이 들린다. "나는 짐승이라,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 고개가 들리자 질문이 별 사이로 솟는다 —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물을 옷에 짖 자가, 그의 이름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대답 대신 한 문장이 방패처럼 들린다 —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손이 모이고 식탁에 빵 한 덩이가 놓인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그리고 목록이 시작된다 — 다오 다오 우는 거머리, 자취 없는 독수리와 뱀과 배, 견딜 수 없는 전복들, 여름 공간을 채우는 개미와 바위 틈의 사반과 임금 없는 메뚜기 떼와 왕궁 벽의 도마뱀. 사자와 왕이 지나가고, 마지막 화면은 부엌이다 — 젓을 저으면 엉기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모른다고 고백한 사람의 공책이 그렇게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하늘 끝(4절)에서 부엌(33절)까지의 진폭. 동물·날씨·몸의 소품. 1인칭 고백(1~9절)과 3인칭 목록(10~33절)의 두 단.
2 첫 느낌·분위기	잠언 안의 읊기적 공기. 다섯 발의 질문과 가라앉는 응답. '서녘이 있나니'의 경이 톤 — 2절의 모름(한탄)과 18절의 모름(감탄).
3 시작과 끝	낯선 이름의 표제에서 부엌의 인과로. 하늘의 일은 물음, 부엌의 일은 단언 — 어미가 굶는 경계. 자기를 짐승이라 낮춘 눈이 짐승들의 지혜를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아굴·이디엘·우갈·네 무리·음녀·동물의 행렬. 중심은 7~9절 기도 — 부와 가난을 관계의 저울로 다는 청원. 입의 분포(다오 다오 / 필요한 양식만).
5 장면 컷	표제·고백(1~3)/질문·말씀(4~6)/기도(7~9)/무리·거머리(10~17)/숫자 연작(18~31)/결구(32~33) 6컷. 어두운 경이에서 밝은 경이로의 배열.
6 의문·발견·정보	읍 38·40·42장 메아리. 시 18:30·신 4:2 인용 결. massa 세 갈래. 1절 난해 구문·거머리의 두 딸 미해결. $x \cdot x + 1$ 공식의 유일한 연쇄.
7 동영상	낯선 이름의 어둠 → 별 사이의 질문 → 빵 한 덩이의 기도 → 거리의 행렬 → 자취 없는 것들 → 작은 것들의 목록 → 엉긴 젓 한 그릇, 압전.
	"모른다고 말한 눈에 보이는 것들 — 아굴의 관찰 공책"

단계	핵심 발견
8 초별 제목·부제	
9 기도·내면	다오 다오 하는 입과 필요한 양식만 구하는 입 — 내 하루의 입이 어느 쪽을 닮았는지 본다. lechem chuqqi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무지의 고백이 여는 관찰:** "나는 짐승이라"(2절)는 고백이 이 장의 모든 목록보다 먼저 온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서만 18절의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감탄이 가능해진다. 모름이 한탄(2절)에서 경이(18절)로 이동하는 사이에 4절의 질문과 5절의 신뢰와 8절의 기도가 놓여 있다 — 잠언이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국면이며, 그 한계 선언이 책을 무너뜨리지 않고 1:7의 경외 모토를 한 사람의 실제 자세로 보여 준다.
- 결 2 — lechem chuqqi, 중용의 양식:** 잠언에 하나뿐인 기도(7~9절)는 가난만 피하지 않고 풍족도 피한다.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 위험과 가난해서 "이름을 욕되게" 할 위험 — 재산의 양 끝이 모두 관계의 저울에 달린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어휘가 '내 몫으로 정해진 빵'(chuqqi — 새겨진 규례·할당)이라는 점에서, 경외는 추상이 아니라 오늘 치 끼니의 단위로 번역된다. 같은 장의 거머리("다오 다오", 15절)와 채워지지 않는 넷(16절)이 이 기도의 반대편 거울이다.
- 결 3 — 작은 것들의 우화:** 24~28절만 "넷이 있나니"로 단정하고, 네 항목 모두에 양보 구문이 붙는다 — 힘이 없는 종류로되, 약한 종류로되, 임금이 없으되, 손에 잡힐 만하여도. 약함과 지혜가 한 문장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 목록은, 자기를 짐승이라 낮춘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며, '경외(자기 한계의 인정)가 곧 지혜'라는 권 전체의 선언을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의 우화로 요약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욥 38:4-11 — "네가 아느냐"의 창조 질문 — 30:4 다섯 질문의 형식적 메아리.
- 욥 40:4 · 42:3 — 손으로 입을 가림, 깨닫지 못한 것의 고백 — 30:32와 30:2-3의 동작·결.
- 시 18:30(삼하 22:31) —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방패시라" — 30:5와 거의 동일한 행.
- 신 4:2 —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 30:6의 메아리.
- 잠 6:6-8 —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 30:25 여름 양식 준비의 선행 본문.
- 민 24:3 · 삼하 23:1 — neum hagever, 신탁 도입 공식 — 30:1 표제의 형식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나는 짐승이라." 지혜의 책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만난 당혹과 후련함을 같이 본다.
-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다섯 질문. 답할 수 없는 물음 앞에 서 보는 시간.
- **멈춤 2:** 8절에서 멈춘다 — lechem chuqqi. 내 기도가 풍족을 피해 본 적이 있는지 떠오른다.
- **끝:** 24~28절에서 끝난다 — 개미·사반·메뚜기·도마뱀. 낮아진 눈높이에서만 보이는 지혜의 목록을 천천히 센다.

F · 자족성 점검

- [x] 표제·고백(1~3)·질문·말씀(4~6)·기도(7~9)·무리·거머리(10~17)·숫자 연작(18~31)·결구(32~33)의 완결

- [x] 읍 38·40·42장 메아리와 시 18:30·신 4:2 인용 결의 기록
- [x] 2절↔18절 모름의 온도 이동, 8절↔15절 두 입의 대면
- [x] x·x+1 점층 공식 4회와 24절 단정형의 구분
- [x] massa 세 갈래·1절 난해 구분·거머리의 두 딸 미해결 보존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가는 호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30장은 셋째 국면 그 자체 — 긴 격언의 축적이 끝난 뒤, 책이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외부인의 목소리를 들려놓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의 위치가 이중으로 흥미롭다. 한편으로 아굴은 읍·발람·동방 사람들(왕상 4:30)처럼 이스라엘 밖에서 온 음성의 결을 지니며, massa라는 표제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 언약 백성의 정경이 외부인의 고백을 품는 폭이다. 다른 한편으로 30장은 읍기의 운동(질문 — 폭풍 속 음성 — 손으로 입을 가림 — 회복)을 한 장 안에 압축해 들여놓는다. 4절의 대답 없는 질문들과 32절의 막은 입 사이에서, 아굴은 5절의 방패와 8절의 빵으로 산다 — 다 알지 못하는 채로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치 분량을 받는 삶. 1:7이 발행한 모토가 여기서 한 사람의 실측값으로 검산되며, 31장의 현숙한 여인 — 모토가 한 생애로 받아지는 종착 — 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지의 고백(나는 짐승이라, 30:2)에서 경외의 목록(심히 기이히 여기고, 30:18)으로 / 대답 없는 하늘(30:4)에서 관찰 가능한 마당(개미·사반·메뚜기·도마뱀, 30:24-28)으로 / 채워지지 않는 입(다오 다오, 30:15)에서 정해진 몫으로 족한 입(lechem chuqqi, 30:8)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0장은 '모른다'는 고백이 절망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 되는 운동이다. 하늘 끝을 묻던 질문이 답을 받지 못한 채 내려와, 발밑의 작은 것들에게서 지혜를 발견한다 — 한계의 인정이 관찰의 입구가 되는 경로. 다만 이 운동은 30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31장에서 또 하나의 낯선 이름(르무엘 왕)과 또 하나의 massa가 이어지고, 어머니의 훈계와 현숙한 여인의 알파벳 시가 책을 닫는다. 아굴의 낮아진 눈이 본 작은 것들의 지혜는, 31장에서 한 여인의 손끝 — 실을 찾고 받을 사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일상 — 으로 확장되며, 1:7의 모토가 생애 전체로 받아지는 종착에 닿는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외부인의 별난 격언 모음이다 — 거머리와 도마뱀과 엉긴 젖이 나오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앞의 자세 자체가 움직인다. 29장까지의 잠언이 '아는 사람'의 어조로 격언을 쌓아 왔다면, 30장은 그 책의 끝에 서 앞의 출발점을 다시 연다 — 모른다, 묻는다, 의지한다, 족하다, 경탄한다. 이 다섯 동사의 사슬이 30장의 물길이며, 1:7의 경외가 명제였다면 여기서 한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 순서가 된다. 특히 깊은 곳은 4절과 5절 사이의 간격이다 —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묻는 질문은 답을 받지 못하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라는 신뢰가 온다. 다 알아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채로 방패 뒤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즉시 끼니의 단위로 내려온다 —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빵은 정해진 몫만큼. 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4절)과 내 빵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8절)이 같은 분이라는 것 — 이 겹침이 30장의 가장 깊은 물길이다. 경외는 하늘의 일을 다 아는 자세가 아니라, 모르는 것 앞에서 묻고 아는 것 안에서 족한 자세로 그려진다.

내 하루에는 두 입이 산다 — 다오 다오 하는 입과, 오늘 치 분량으로 족한 입. 나는 지금 어느 입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모른다는 말을 — 한탄으로가 아니라 경이의 입구로 — 마지막으로 발음해 본 것이 언제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아굴만큼 낮아지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무지를 고백한 사람의 공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펼쳐 보여 준다 — 채워지지 않는 것들 앞에서 정죄하지 않고, 자취 없는 것들 앞에서 기이히 여기고, 작은 것들 앞에서 배우는 눈. 그 눈이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건네는 것은 거창한 결론이 아니라 부역의 인과다(33절) — 젖을 저으면 엉기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하늘의 일은 다 모르더라도, 오늘 내 손의 압력이 무엇을 엉기게 하는지는 알 수 있다. 그 알 수 있는 것부터 — 그리고 오늘 치의 빵부터 — 시작하라는 조용한 손짓이, 이 장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외부인의 낮아진 관찰이 끝나면, 또 하나의 massa —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혼계와 현숙한 여인의 알파벳 시 — 가 경외의 모토를 한 생애로 받으며 책을 닫는다(31:30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echem chuqqi* — 내 몫으로 정해진 빵.

미해결 질문

잠언 3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아굴·야게·이디엘·우갈은 누구이며, massa(30:1)는 잠언인가 신탁인가 마사 사람(지명)인가?

- 네 이름 모두 다른 곳에서 확인되지 않고, massa는 창 25:14의 이스마엘 자손 이름과 동철자다. 외부인의 목소리라는 표제 정보의 폭 전체를 미해결로 보존.

Q2. 30:1 하반절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 이름인가, 탄식 문장인가?

- 히브리어 자음을 다르게 끊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지쳤습니다, 지쳤습니다, 쇠하였습시다"로도 읽히는 난해 구문. 본문 표면이 두 갈래로 열려 있음. 보존.

Q3. 30:4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 이 물음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본문은 답을 채워 주지 않고 물음으로 남긴다. 후대의 어떤 답도 앞당겨 넣지 않고, 질문이 질문인 채로 서 있는 형태 자체를 보존.

Q4. 30:5-6의 '말씀'(시 18:30·신 4:2를 메아리하는)이 가리키는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 아굴이 인용하듯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본문 묶음을 가리키는지 — 외부인의 입에서 나온 정경의식의 폭은 미해결로 이월.

Q5. 거머리의 두 딸 "다오 다오"(30:15) — 두 딸은 누구이며 '다오'는 이름인가 울음인가?

- 구약에 한 번 나오는 alukah와 그 두 딸의 정체를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16절의 넷(스울·태·땅·불)과의 관계 — 딸들의 명단인지 별도 목록인지 — 도 함께 보존.

Q6. 자취 없는 경이 넷(30:18-19)의 마지막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와 음녀의 자취(30:20)는 대비인가 연속인가?

- 경이의 목록과 음녀의 식사가 '자취(derekh)'라는 같은 단어로 잇닿는 배열. 19절을 빛으로 20절을 그늘로 읽는 갈래와 한 흐름으로 읽는 갈래가 모두 열려 있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잠언 31장

PRO-031 · 시가서 · 히브리어

"아버지의 훈계"(1:8)로 열린 권이 어머니의 훈계(31:1)로 닫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1:7)이라는 모토가 한 여인의 새벽과 손과 웃음으로 육화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31:30)에 도착하는 —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22행으로 짜인 잠언 전권의 종결.

관찰된 사실

잠언 3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무대: 왕궁의 내실(1~9절 —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술잔과 송사가 한 시야에) → 한 집과 그 반경 전체(10~31절 — 새벽 부엌, 작업 공간, 상인의 배, 밭, 포도원, 성문). 한 방에서 하루·사계절·도시 전체로 넓어지는 카메라.
- 소품(왕훈): 포도주·독주(4·6절), 잊혀지는 법(5절), 굶어지는 송사, 열려야 할 입(8~9절).
- 소품(알파벳 시): 진주(10절), 양털과 삼(13절), 상인의 배(14절), 밤이 새기 전의 음식(15절), 밭·포도원(16절), 꺼지지 않는 등불(18절), 솜뭉치와 가락(19절), 눈과 홍색 옷(21절), 이불·세마포·자색 옷(22절), 베옷과 띠(24절), 능력과 존귀라는 옷(25절), 성문에 놓이는 손의 열매(31절).
- 살림 어휘의 진열 한가운데 왕의 어휘 — oz(능력)·hadar(존귀)(25절) — 가 들어와 있음.
- 형식 자체가 소재: 10~31절은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22행 이합체. 1~9절은 표제—세 번의 부름—두 금지—두 명령의 왕훈 골격.
- 1:8에서 호명만 되었던 어머니가 31:1에서 직접 화자로 등장 — 권의 마지막 목소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세 번(2절) — 훈계 앞에 말문이 먼저 막히는 어머니의 호흡. 부를 때마다 한 겹씩 가 까워짐(아들 → 태 → 서원).
- 1~9절의 느리고 무거운 경고 → 10절부터 멈춤 없는 동사의 행렬. 더듬던 입이 알파벳을 따라 노래가 되는 전환.
- 부지런함의 시인 줄 알았는데 읽고 나면 두려움 없음의 시 —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아니하며"(21절), "후일을 웃으며"(25절).
- 이합체는 '다음 행이 반드시 온다'는 형식의 신뢰 — 빠지는 글자 없이 끝까지 가는 하루.
- 3절에서 경고로 쓰인 chayil이 10절에서 찬가의 표제어로 귀환.
- 28·30·31절의 칭찬이 전부 halal 계열 — 일상 노동에 찬양시의 동사가 쓰임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 내실의 사적인 음성에서 성문의 공적인 인정으로 — 가장 안쪽의 말이 가장 바깥의 무대에서 완성됨.
- 권 차원: 1:1 솔로몬의 표제로 열린 책이 31:1 르무엘의 어머니로 닫힘. 1:20-21에서 성문 어귀에서 부르짖던 지혜 — 31:31에서 성문이 한 사람에게 응답.
- 31절은 미래형("돌아갈 것이요 — 받으리라") — 권의 끝이 완료가 아니라 기다림의 어미.
- 30절(경외라는 기준)이 31절(열매라는 내용)보다 먼저 — 1:7의 출발점 선언과 같은 단어로 도착점을 찍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르무엘(표제·4절, 끝까지 무언), 어머니(1~9절 화자 — 잠언에서 직접 발화하는 유일한 어머니), 말 못하는 이·스러져 가는 이·곤고한 이·궁핍한 이(6~9절), 현숙한 여인(10~31절), 남편(11·23·28절), 집안 사람들·여종들·상인들·장로들·자식들.
- 발화 배분: 1~9절은 어머니의 발화 전체. 10~31절의 직접 인용은 남편의 칭찬(28~29절) 단 한 번. 여인 자신의 대사는 없고 26절이 그 입을 묘사함("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 왕의 절제의 이유(4~5절): 취함 → 법의 망각 → 곤고한 이들의 송사가 곱음. 절제가 자기 관리가 아니라 약자 보호의 문제로 제시됨. 6~7절은 거울상 — 같은 술이 죽게 된 이와 근심하는 이에게는 위로로 주어짐.
- 8~9절 입의 위임: "입을 열지니라"가 두 번 — 1~9절 유일의 반복 명령. 왕 = 자기 입이 없는 사람의 입이 되는 사람.
- chayil의 용사 어휘: 17절의 허리 묶음·팔 강화는 출전 준비의 동작과 겹치고, 11절 '산업'의 원어 shalal은 전리품 — 전장의 사전으로 쓴 살림의 시 — 배경.
- 30절: 스물한 행의 열거 끝에 칭찬의 근거가 일의 목록이 아니라 경외로 제시됨 — 모든 동사가 한 절에 매달린 구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표제 — 르무엘 왕, 그의 어머니의 훈계.
- 컷 2 (2~7절): 세 번의 부름과 두 경고 — 힘과 포도주. 망각이 약자를 해침. 독주의 거울상 처방.
- 컷 3 (8~9절): 입의 위임 — 말 못하는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공의로 재판하라.
- 컷 4 (10~27절): 알파벳 시의 몸통 — 진주보다 귀한 값, 모으는 손(13~19절), 퍼는 손(20절), 입히고 돌보는 손(21~27절).
- 컷 5 (28~31절): 칭찬의 종결 — 자식들과 남편, 고운 것·아름다운 것의 상대화, 경외하는 여자, 성문의 열매.
- 컷 4 내부 질서: 모음(13~19) — 펴(20, 경첩) — 돌봄(21~27). 19절(yad·kaf)과 20절(kaf·yad)의 교차 구문 — 쥐는 손과 퍼는 손의 거울 병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Lemuel(לֵמוּעַל) — '엘께 속한 자'로 풀이되는 이름. 이스라엘·유다 왕 명단에 없음. 1·4절.
- massa(מַסָּא) — 신탁·경고 또는 북아라비아 부족 지명 맛사(창 25:14). 1절. / bar(בָּר) — '아들'의 아람어 계열형, 2절에서 세 번. 서원의 아들 bar-nedarai.
- shekhar(שֶׁכָּר) — 독주. 4·6절. / illem(יִלֵּם) — 말 못하는 자. 8절. / bene chalof(בְּנֵי חָלוֹף) — '스러져 가는 모든 자', 번역이 갈리는 구절. 8절.

- *eshet chayil*(אִשֶּׁת־חַיִל) — 현숙한 여인. chayil은 용맹·힘·군대의 단어(*gibbor chayil*의 그 chayil). 3·10·29절에 분포. 10절.
- *peninim*(פְּנִינִים) — 진주·산호. 잠 3:15, 8:11에서 지혜의 값을 매기던 동일 단어. 10절. / *shalal*(שָׁלַל) — '산업'으로 옮겨진 전리품. 11절.
- *kishor*(כִּישׁוֹר)·*pelekh*(פֶּלֶךְ) — 숨뭉치(실패)와 가락, 물레질 도구. 19절. / *shanim*(שָׁנִים) — 홍색. 21절. / *sadin*(סָדִין) — 베옷. 24절.
- *oz vehadar*(עֹז וְהָדָר) — 능력과 존귀. 시편에서 하나님·왕에게 붙는 짝이 한 여인의 옷이 됨. 25절. / *vatischaq leyom acharon*(וַתִּשְׁחַק לַיּוֹם אַחֲרֹן) — 후일을 웃으며. 25절.
- *torat chesed*(תּוֹרַת חֶסֶד) — 인애의 법. torah와 chesed의 드문 연계형. 26절. / *yirat YHWH*(יִרְאַת יְהוָה) — 여호와 경외, 1:7과 동일 연계형. 30절. / *halal*(הָלַל) — 칭찬하다, 28·30·31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표제(1) + 세 번의 부름(2) + 금지 둘(3~5) + 처방(6~7) + 위임(8~9) + 알파벳 시(10~31) — 왕훈과 찬가의 두 단 구성.
- 10~31절 =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22행 이합체 — 완전성의 형식. 히브리 자모 전체가 한 사람의 하루를 담는 그릇.
- 1:7 ↔ 31:30 인클루지오: 같은 연계형 *yirat YHWH*. 1:7은 명사문(정의), 31:30은 인물 서술 — 명제로 열린 단어가 사람으로 닫힘.
- 1:8(아버지의 훈계·어미의 법) ↔ 31:1(어머니의 훈계) — 권을 여담는 부모 목소리의 수미.
- *chayil*의 분포: 3절(왕에 대한 경고) → 10절(여인의 호칭) → 29절(남편의 칭찬 *asu chayil*) — 한 단어의 장내 여정.
- 입 모티프: 8~9절(왕에게 명령된 입 — "입을 열지니라" 2회) ↔ 26절(여인의 이미 열린 입 —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 성문 프레임: 23절(남편이 장로들과 앉는 성문) ↔ 31절(여인의 행한 일이 칭찬받는 성문).
- 10절 비교급 "진주보다 더 하니라" — 잠 3:15·8:11의 지혜 비교급과 동일 구문·동일 단어(*peninim*).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왕모(*gebirah*) 전통 — 근동·이스라엘 왕정에서 왕의 어머니가 가진 공적 비중. 어머니의 왕실 교훈이라는 장르 배경.
- 알파벳 이합체 — 시 25·34·111·112·119, 애가 등과 공유되는 히브리 시 형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의 그릇 — 배경.
- 성문 — 재판·상거래·공론의 공공 공간. 23·31절의 사회적 배경.
- 자색·홍색 염료, 세마포 — 근동 직물 경제의 고가품. 가내 생산과 원거리 교역(상인의 배)의 물질 배경.
- LXX: 르무엘 단락(31:1-9)을 24장 뒤로 옮기고 *eshet chayil* 시만 책 끝에 둠. *eshet chayil* → *gynaika andreian*(용감한 여인). 르무엘을 고유명사로 읽지 않음 — 배경.
- 유대 전통의 안식일 저녁 *eshet chayil* 낭송 관습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잠 31:30 ↔ 잠 1:7 (여호와 경외 — 권 전체의 인클루지오)

- 잠 31:1 ↔ 잠 1:8 (어머니의 훈계 ↔ 어미의 법 — 권을 여닫는 부모의 목소리)
- 잠 31:10 ↔ 룻 3:11 (eshet chayil — 보아스가 룻에게 쓴 동일 호칭)
- 잠 31:10 ↔ 잠 3:15 · 8:11 (진주보다 귀함 — 지혜의 비교급이 인물에게 이동)
- 잠 31:10-31 ↔ 잠 12:4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
- 잠 31:10-31 ↔ 시 112편 (알파벳 시 — 경외하는 사람의 초상이라는 같은 기획)
- 잠 31:8-9 ↔ 잠 24:11 (죽게 된 자를 건지라 — 약자를 위한 개입의 결)
- 잠 31:2 ↔ 삼상 1:11,27-28 (서원대로 얻은 아들 — 한나의 서원,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등불 하나 켜진 왕궁의 내실 — "내 아들이, 내 태에서 난 아들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술잔 너머로 송사를 들고 선 얼굴들이 흐려지고, 음성이 단단해진다 —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급게 할까 두려우니라." 잔이 내려놓인다. "너는 말 못하는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화면이 바뀐다. 아직 어두운 새벽, 한 집의 창에 불이 켜져 있다. 양털을 고르는 손, 항구의 상인의 배, 김 오르는 음식, 사들이는 밭, 심기는 포도나무.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가락을 잡았던 손가락이 다음 장면에서 곤고한 사람을 향해 퍼진다. 눈이 내려도 집 사람들은 흥색 옷으로 따뜻하다. 성문의 남편, 후일을 향해 웃는 얼굴, 지혜와 인애의 법이 흘러나오는 입. 자식들이 일어나고 남편이 말한다 —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내레이션을 기준을 새긴다 —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성문에 놓이고, 칭찬의 소리 위로 잠전. 권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 경외가 한 사람의 새벽이 되기까지"**
- 초벌 부제: "르무엘 왕 어머니의 훈계(말 못하는 자의 입이 되라)와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22행의 현숙한 여인 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31:30)로 1:7의 모토를 한 사람의 삶으로 받아 내며 잠언 전권을 닫는 종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22행 이합제 + 1:7↔31:30 인클루지오 + chayil 분포 + 왕모 전통 + LXX 배열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전체 회고)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현숙한 여인(31:10-31)을 1~9장 지혜 의인화의 육화로 단정하지 않고, 진주 비교급(3:15·8:11↔31:10)과 어휘 분포의 관찰로만 둬 — 독법 자체는 미해결로 보존.

- 30절("고운 것도 거짓되고")을 외모 부정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같은 시 안의 세마포·자색 옷(22절)과 나란히 두어 열린 결로 보존.
- 르무엘의 정체(이방 왕·솔로몬의 별칭 등)를 확정하지 않고 massa의 두 독법과 함께 미해결로 둬.
- eshet chayil 시를 특정 성역할의 규범으로 좁히지 않고, 본문이 보여 주는 노동·교역·자선·언어의 전방위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31:1)이라는 표제 아래 세 번의 부름(31:2)과 왕의 절제 — 술이 법을 잊게 하여 곤고한 이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므로(31:4-5) — 와 입의 위임 —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31:8-9) — 를 전한 뒤,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22행의 이합체로 현숙한 여인(eshet chayil)의 하루 — 양털과 삼, 상인의 배, 밤이 새기 전의 일어난, 밭과 포도원, 꺼지지 않는 등불, 가락을 잡았다가 곤고한 이에게 퍼지는 손, 후일을 향한 웃음, 지혜를 베푸는 입 — 를 노래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31:30)로 1:7의 모토를 한 사람의 삶으로 받아 내며, 성문의 칭찬(31:31)으로 권 전체를 닫는 종결이다.

한 문단: 등불 하나 켜진 내실에서 어머니가 아들 왕을 부른다 — 내 아들이, 내 태에서 난 아들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술잔 너머로 송사를 들고 선 얼굴들이 흐려지고, 잔이 내려놓인다. 너는 말 못하는 자의 입이 되어라. 화면이 바뀌면 아직 어두운 새벽, 한 집의 창에 불이 켜져 있다. 양털을 고르는 손, 항구로 들어오는 배, 사들이는 밭과 심기는 포도나무.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물레의 가락을 잡았던 손가락이 다음 장면에서 곤고한 사람을 향해 퍼진다. 눈이 내려도 이 집은 따뜻하고, 한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향해 웃는다. 자식들이 일어나고 남편이 칭찬하고, 내레이션이 마지막 기준을 새긴다 —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성문에 놓이며 책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왕궁 내실 → 한 집의 반경 전체(새벽 부엌·배·밭·성문). 진주·양털·등불·가락·홍색 옷의 소품 밀도. 알레프~타브 22행이라는 형식 자체가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세 번의 막힘 → 알파벳으로 정돈되는 노래. 멈춤 없는 동사의 행렬. 부지런함의 시가 아니라 두려움 없음의 시.
3 시작과 끝	내실의 사적 음성(1절)에서 성문의 공적 인정(31절)으로. 31절은 미래형 — 기다림의 어미로 닫히는 권. 30절의 기준이 31절의 내용보다 먼저.
4 등장인물·사상	무언의 르무엘, 직접 발화하는 유일한 어머니, 대사 없는 여인. 절제의 이유 = 약자 보호(4~5절). 왕 = 입 없는 자의 입(8~9절).
5 장면 컷	표제(1)/부름과 경고(2~7)/입의 위임(8~9)/알파벳 시(10~27)/칭찬(28~31) 5컷. 모음—뽀—돌봄의 내부 질서, 19↔20절 손의 교차 구분.

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정보	1:7↔31:30 인클루지오. chayil의 여정(3→10→29절). 진주 비교급의 이동(3:15·8:11→31:10). 르무엘·massa 미해결. LXX 배열 배경.
7 동영상	내실의 음성 → 내려놓인 잔 → 새벽의 등불 → 퍼지는 손 → 후일을 향한 웃음 → 성문의 열매, 압전. 권이 닫힘.
8 초별 제목·부제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 경외가 한 사람의 새벽이 되기까지"
9 기도·내면	가락을 잡던 손가락이 퍼지는 데까지 가는지 — 제 손의 방향을 질문인 채로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완전성의 형식:** 10~31절의 22행은 히브리 자모 전체를 행의 머리에 하나씩 엮는다. 처음 글자에서 끝 글자까지 — 빠진 자모 없이 전부. 이 형식은 내용을 미리 말해 준다. 한 사람의 하루가 부엌에서 항구까지, 새벽에서 밤까지, 쥐는 손에서 퍼는 손까지 어느 항목도 빠뜨리지 않고 노래된다는 것. 지혜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통과한다는 선언이 자모의 순서 안에 짜여 있다.
- 결 2 — chayil, 전사의 어휘로 쓴 일상:** eshet chayil의 chayil은 용사(gibbor chayil)와 군대의 단어다. 11절의 '산업'은 원어로 전리품(shalal)이고, 17절의 허리 묶음과 팔의 강화는 출전 준비의 동작과 겹친다. 시인은 전장의 사전을 펼쳐 놓고 부엌과 밭과 물레를 묘사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장 안에서 여정을 가진다 — 3절에서 어머니는 왕의 chayil이 낭비될 길을 경고했고, 10절에서 chayil은 한 여인의 호칭이 되었으며, 29절에서 남편의 칭찬("덕행 있는 — asu chayil")으로 돌아온다. 힘의 참된 전장이 어디인지를 단어 하나가 끌고 간다.
- 결 3 — 입과 손, 두 신체의 호응:** 8~9절에서 왕에게 "입을 열지니라"가 두 번 명령된다 — 말 못하는 자의 입이 되라고. 26절에서 여인의 입은 이미 열려 있다 —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명령된 입과 살아진 입. 손도 같다 — 13~19절의 모으고 쥐는 손이 20절에서 곤고한 이를 향해 퍼지고, 31절에서 그 손의 열매가 성문으로 돌아온다. 19절과 20절은 손(yad)과 손바닥(kaf)을 교차 순서로 마주 세워, 일하는 손이 퍼는 손이 되는 결을 구문에 새겼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7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 31:30과 같은 연계형 yirat YHWH. 권 전체의 인클루지오.
- 잠 1:8 —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 어머니의 훈계(31:1)로 닫히는 권의 양 끝.
- 룻 3:11 — 보아스가 룻을 eshet chayil로 부름 — 정경에서 이 호칭을 받는 또 한 사람.
- 잠 3:15 · 8:11 — 지혜가 진주(peninim)보다 귀함 — 같은 비교급이 31:10에서 한 인물에게 이동.
- 시 112편 — 알파벳 시로 그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초상 — 같은 기획의 시편 짝.
- 잠 12:4 —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 — 면류관 은유의 앞선 등장.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절의 세 번의 부름에서 시작한다 — 명령보다 먼저 오는 호명, 이 아들이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다 말하고야 시작되는 훈계를 듣는다.
- **멈춤 1:** 8절에서 멈춘다 — 입을 열지니라. 내 입이 오늘 누구를 위해 열렸는지, 자기 변호 외의 용도가 있었는지 떠오른다.

- **멈춤 2:** 20절에서 멈춘다 — 가락을 잡던 손가락이 퍼진다. 모으는 데서 끝나는 부지런함과 퍼는 데까지 가는 부지런함 사이를 본다.
- **끝:** 30절에서 멈춘다 — 스물한 행의 목록 끝에 놓인 한 단어, 경외. 내 하루의 동사들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표제(1)·부름(2)·경고(3~7)·위임(8~9)·알파벳 시(10~31)의 두 단 완결
- [x] 1:7↔31:30 인클루지오와 1:8↔31:1 부모 목소리의 수미
- [x] chayil 분포(3·10·29절)와 진주 비교급의 이동(3:15·8:11→31:10)
- [x] 입 모티프(8~9↔26절)와 손 모티프(13~20·31절)의 호응
- [x] 성문 프레임(23↔31절)과 미래형 종결의 어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잠언의 spine은 '여호와 경외를 뿌리로, 일상의 모든 길을 지혜로 빚어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7(경외가 지식의 근본)에서 31:30(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음)으로 — 경외에서 시작해 일상 전체가 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지혜의 부름과 두 길(1~9장), 일상의 대구 잠언(10~29장), 아굴의 관찰(30장), 현숙한 여인(31장)으로 움직이는데, **31장은 그 운동 전체의 종착이다**. 1장이 발행한 모토 — 경외가 모든 삶의 reshith이라는 선언 — 는 책 전체가 갇아 온 약속이었고, 그 상황이 여기서 완결된다. 다만 완결의 방식이 뜻밖이다. 책은 더 높은 명제로 닫히지 않는다. 양털과 삼, 밤이 새기 전의 일어남, 물레의 가락, 눈 오는 날의 홍색 옷 — 가장 낮고 구체적인 곳으로 내려와 닫힌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광장에서 부르짖던 지혜(1:20)와 창조 앞의 동반자(8:22-31)로 높아지던 형상이 31장에서 한 가정의 새벽으로 육화되는 이 하강은, 말씀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더 큰 하강의 결을 정경 안에 미리 그린다 — 다만 이것은 호의 방향에 대한 관찰이며, 본문 자체는 한 여인의 하루를 노래할 뿐이다. 그리고 권을 여닫는 목소리의 배치가 있다 — 아버지의 훈계(1:8)로 열린 책이 어머니의 훈계(31:1)로 닫히며, 가르침의 식탁에 두 부모의 음성이 다 앉고서야 책이 끝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명제(1:7)에서 인물(31:30)로 / 광장의 외침(1:20)에서 한 집의 새벽(31:15)으로 / 왕에게 명령된 입(31:8-9)에서 이미 열려 있는 입(31:26)으로 / 쥐는 손(31:19)에서 펴는 손(31:20)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잠언 전권은 '경외가 추상에서 육화로 하강하는' 운동이다. 1~9장이 지혜의 부름을 세웠고, 10~29장이 그 부름을 일상의 격자로 펼쳤으며, 30장이 격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31장이 그 모든 것을 살아 내는 한 사람을 보여 준다. 격언은 끝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 책의 마지막 형식이 명제가 아니라 초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잠언이 빚어 놓은 성실한 일상 — 수고하고 모으고 세우는 삶 — 을, 다음 권 전도서는 헤벨(hevel)이라는 전혀 다른 렌즈로 다시 묻는다. 같은 해 아래의 같은 수고가 이번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탄식 곁에 놓인다. 지혜 문학은 한 권으로 닫히지 않고, 답한 만큼 다시 묻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개의 익숙한 그림이다 — 아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는 어머니, 그리고 유능한 아내의 초상.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힘의 정의가 다시 쓰이고 있다. 어머니의 훈계에서 왕의 힘(chayil)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위

탁이다 — 취하면 잊고, 잊으면 곤고한 이의 송사가 굽는다. 왕이 누구인지의 정의도 함께 내려진다 — 자기 입이 없는 사람의 입이 되는 사람(8~9절). 권력의 본질이 누림에서 대언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알파벳 시에서 같은 단어 chayil이 한 여인에게 돌아올 때, 용사의 어휘는 칼이 아니라 물레 곁에 놓인다.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돌보는 힘, 빼앗는 전리품(shalal)이 아니라 신뢰로 쌓이는 산업(11절). 가장 깊은 물길은 30절이다 — 스물 한 행의 동사를 다 세고 나서, 시는 칭찬의 근거를 그 목록에 두지 않는다. 경외라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둔다. 행위의 시가 행위주의로 닫히지 않는 것 — 일은 열매이고 뿌리는 경외라는 순서가, 1:7에서 출발한 책의 마지막 문장 구조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가락을 잡았던 손가락이 다음 행에서 곤고한 이를 향해 퍼진다(31:19-20). 내 부지런함은 모으는 데서 끝나는가, 퍼지는 데까지 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이 여인의 모든 항목을 수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의 하루가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 어느 글자도 빠지지 않고 — 경외 위에서 노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두 신체를 남긴다. 입 — 오늘 내 입은 누구를 위해 열렸는가, 자기 변호 말고 다른 용도가 있었는가(31:8-9). 손 — 오늘 내 손은 쥐기만 했는가, 퍼졌는가(31:20). 25절의 웃음이 그 곁에 있다 — 후일을 웃으며. 내일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앞에서 웃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정작 눈보라와 장래 앞에서는 떨지 않는다는 역설(21·25·30절). 그 웃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잠언이 빚어 놓은 성실한 일상 — 모으고 세우고 돌보는 같은 수고 — 를 전도서인 헤벨의 렌즈로 다시 묻는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1:3).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yil* — 전사의 단어로 불리는 일상의 힘.

미해결 질문

잠언 3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르무엘은 누구인가 — 그리고 massa는 신탁인가 지명인가?

- 이스라엘·유다 왕 명단에 없는 이름, 2절의 아람어 빗갈(bar), 1절 massa의 두 독법(신탁/맛사 부족). 이방 왕의 훈계가 정경의 마지막 장에 들어온 것인지 — 본문은 확정하지 않는다. 보존.

Q2. 현숙한 여인은 실제 인물의 초상인가, 의인화된 지혜의 육화인가, 둘 다인가?

- 진주 비교급(3:15·8:11↔31:10), 26절의 지혜를 여는 입, 1~9장 지혜 의인화와 호응이 관찰되지만, 본문 자체는 이 여인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 독법은 미해결로 이월.

Q3. 왜 chayil — 용사의 단어 — 인가?

- 전리품(shalal)·허리 묶음·팔 강화까지 전장의 어휘가 살림의 시에 일관되게 쓰인 의도. 3절(왕의 힘)에서 10절(여인의 호칭)로 옮겨 가는 단어의 여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존.

Q4.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 부정인가 상대화인가?

- 같은 시 안에서 여인은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22절). 아름다움 자체의 기각인지, 칭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순위 매김인지 — 문장의 결이 한쪽으로 닫혀 있지 않다. 보존.

Q5. 8~9절 왕에게 명령된 입과 26절 여인의 열린 입 — 설계된 연결인가 병치인가?

- "입을 열다"라는 같은 동작이 왕훈의 정점과 알파벳 시의 한 행에 나뉘어 놓였다. 두 단락을 한 사람(어머니)의 말로 묶어 읽을 근거가 되는지는 Q6과 함께 미해결.

Q6. 10~31절도 어머니의 말인가 — 1~9절과 알파벳 시는 한 단위인가 별도 모음인가?

- 표제(1절)가 어디까지 덮는지 본문은 곳지 않는다. 어머니의 훈계가 며느리감의 초상으로 이어지는 한 호흡인지, 편집상 나란히 놓인 두 모음인지 — LXX의 분리 배열까지 고려하면 편집 차원의 질문으로 남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